생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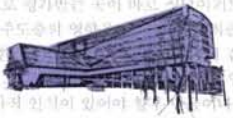
이웃사촌, 사는 이야기

옛 성남, 옛 이야기
성남에서 살아가기
전통문화에 담긴 오롯한 정신
이방인들의 두 번 째 고향 만들기
미래를 꿈꾸는 우리 아이들

08

성남시사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생애사

이웃사촌, 사는 이야기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일|러|두|기

1. 구성 및 기획 방향

- 성남시사(40년사)는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1~7권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우리가 접하는 거의 모든 영역의 성남 역사를 주제별로 나누어 각각을 완결적인 단행본 형식으로 만들었다. 제1권은 자연환경과 인문 · 사회 지리를 담은 지리, 제2권은 상고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역사, 제3권은 유 · 무형의 문화유산과 역사 인물 · 세거 성씨 · 집성촌, 제4권은 지방자치와 경제, 제5권은 문화예술과 종교 · 교육 · 체육 등의 현대 생활, 제6권은 광주대단지부터 위례신도시까지 도시개발의 역사, 제7권은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 활동 등이다. 그중 제6권과 제7권은 성남시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시군지와는 다소 차별성을 갖는다.
- 부록 또는 별책의 성격을 갖는 8~10권도 각각 단행본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제8권은 다양한 시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수필집처럼 꾸몄으며, 제9권은 옛 지도와 사진, 그리고 각종 자료를 모아 성남의 역사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0권은 학생을 비롯하여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백과사전 형식을 빌려 주요 사건이나 기관 · 시설 등을 간략하게 정의한 길라잡이 사전과 날짜순으로 정리한 연표로 구성하였다.

2.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 구역상 성남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역사적 이해와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영역을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특히 성남 지역이 과거에는 광주에 속했기 때문에 전근대 역사의 경우 광주와 관련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집필과 편찬 시점을 고려하여 2013년 6월 30일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권별 특성에 따라 그 이후까지를 포함하기도 하였고, 반대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자료의 기준 시점에 따라 그 이전으로 제한하기도 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각 편과 장의 주제 및 기획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주제가 요구하는 범위에 부합하도록 서술하였다. 또한 내용의 일관성과 통일성, 그리고 충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필자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윤문과 교열, 첨삭을 수행하였다.

3. 저작권과 출처

- 이 책의 저작권은 성남시에 있다.
- 수록된 내용과 도표 · 사진 등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그 외의 타당한 사유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사용된 사진과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자 또는 출처를 표기하였으며, 집필자가 제출한 자료나 성남시사편찬위원회에서 직접 생산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기를 생략하였다.
- 집필자가 제출한 자료로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제8권

목 차

이웃사촌, 사는 이야기

제1편 옛 성남, 옛 이야기

제1장

돌마면 출신 원로 역사학자가 들려주는 성남 이야기 송치욱

성남의 역사를 저술한 돌마면 출신 정통 역사학자 / 15

유년기, 청소년기 시절의 성남이야기 / 17

중·고등학교 진학과 대학에서 역사학 전공하기까지 / 21

정통 사학자가 쓴 최초의 향토사, 『한국사에 비춘 성남지역의 역사』 / 24

제2장

철거 이주민이 겪은 광주대단지 임미리

서울 정화사업과 광주대단지 생활의 시작 / 33

광주대단지 시위로 구속되다 / 39

성남을 떠나다 / 44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몸짓 / 49

제3장

성남의 문인들 김건중

시인 / 53

소설가 / 60

시조시인 / 63

수필가 / 65

희곡작가 / 69

제4장

성남시와 함께한 40년 공직 생활 임미리

전남 진도에서 광주로, 다시 서울로 / 71

성남출장소 시절 성남과의 인연이 시작되다 / 73

- 철거민들 트럭으로 버려져 / 73
- 8·10사태, 자리 지키며 전 과정 목격 / 75
- 수만 주민들 절대 자제, "난동 아니다" / 77
- 사태 수습 실무 총괄, 격무로 건강 해쳐 / 79
- 철거민, 가마니와 짚으로 이부자리 / 82
- '성남시 5년 약사' 정리 / 84
- 감사원 감사, 92명 징계에 혼자 승진 / 85
- 무허가 카바레 폐업시키면서 고초 겪어 / 87
- 97년 정년 퇴직, 성남에 묻힐 겁니다 / 89

제5장

한맹순 할머니의 성남살이 일기 이보라

일기로 한글을 배우고 역사를 적다 / 91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살다 / 97

핍박받는 이들을 위한 할머니의 기도 / 101

모든 생명을 사랑하다 / 105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 사건 속에서 본 할머니의 일기 / 110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일기 / 110
-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에 관한 일기 / 112
- 통일에 관한 일기 / 113

제2편 성남에서 살아가기

제1장
성남에 고향을 심는 사람들 고중일
공단의 근로자에서 기업가로 홀로 서기까지(송기병) / 119
성실과 정직으로 일궈 낸 기쁨의 삶(이길선) / 123
역경과 고난 그것은 내일을 밝히는 등대(정복진) / 127
작은 꿈이 꽃필 때(고중일) / 131

제2장
분당별곡 김명옥
분당에 살어리랏다. / 137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 139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 / 143
- 관교도서관에서 / 143
- 율동공원에서 / 145
- 탄천에서 / 147
- 성남아트센터에서 / 149

그래도 난, 분당에 살어리랏다 / 152

제3장
착한반 다자녀 가정 이야기 김연희
공공 기관의 다자녀 지원 정책 / 155
착한반 다자녀 가정 이야기 / 159
-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웃음은 세 배(승겸이 엄마 심은자) / 159
- 남편의 도움이 필요해요(지윤이 엄마 나선미) / 163
- 씩씩한 4형제와 함께(준서 엄마 윤희순) / 167

글을 마치며 / 171

제4장
인력시장 노동자의 '하루 인생' 박민수
어느 일용노동자의 하루 / 173
성남 인력시장의 풍경 / 175
건설 현장 이야기 / 177
세상이 변해도 여전히 억울한 것 / 181
아직도 우리는 산업의 역군인가? / 186

제3편 전통문화에 담긴 오롯한 정신

제1장
무형문화재로 살아가기 김지욱
성남의 무형문화재 / 191
나전 칠기·칠장 배금용의 생애 / 195
나전 칠기 제작 과정 / 202

제2장
세상의 속도에 밀린 기억 저편, 전통놀이를 찾아온 사람들 윤현자
천상의 소리꾼, 아천 방영기 / 207
- 춤과 소리가 마냥 좋았던 어린 시절 / 207
- 신들린 아이처럼 춤을 향해서 / 209
-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 210
- 어린 시절에 즐겼던 전통놀이 되살리기에 드디어 앞장을 서다 / 211

지역 전통문화 지킴이, 청년 강승호 / 214
- 농악은 들판에서 숨을 쉰다 / 215

제8권
목 차

이웃사촌, 사는 이야기

– 성남만의 농악을 찾아서 / 217
– 아버지 …… 그리고 가족 / 219
– '포기는 없다', 농악에 대한 새로운 시도 / 220

제3장
성남 '맛의 장인'을 찾아서 류수남
프롤로그 / 223
보신탕의 장인 조혜자 / 226
맛의 장인 신미자, 김광렬 부부 / 230
에필로그 / 234

제4장
모란민속5일장과 시장 상인 이야기 이수철
성남 시장의 일반 현황 / 237
모란민속5일장의 유래와 변화 / 239
모란민속5일장 운영 방식 / 243
모란민속5일장의 기능 / 245
시장 상인의 일상 / 248
모란민속5일장의 변화와 발전 방향 / 253

제4편 이방인들의 두 번째 고향 만들기

제1장
다문화 가정 이야기 이소영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 261
다문화 가족의 수도권 거주 비율 / 264
실태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혼이민자들의 욕구 / 267
결혼이민자 여성으로 살기 / 270
새로운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한 제언 / 275

제2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유학생 이야기 송치욱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릴 외국인 유학생 / 27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의 연혁과 현황 / 281
한국에 오게 된 계기와 인상 / 283
정신없이 바쁜 학기 중의 생활 / 285
그 밖의 이야기 / 291

제3장
이주노동자에서 성남 시민이 된 어느 중국동포 한준성
'파란곡절'의 어린 시절 / 299
갓 스물을 넘긴 청년, 북한 땅을 밟다 / 302
혼란기 속에 일군 소중한 가정 / 303
친족을 찾아 나선 한국행, 그리고 '이주노동자'로서의 삶 / 305
두 번째 한국행, 그리고 성남살이 / 309
노년이 된 전씨의 일상과 소회 / 314

제4장
판교테크노밸리, 성남시가 되어가는 중 김영미
어느 날 불쑥 판교테크노밸리가 우리에게 왔다 / 317
판교테크노밸리 엔지니어의 서울–판교 오가기 / 319
– 게임 업체 '스마일게이트'의 서상봉 실장 / 319
– 스마트 디바이스 게임 업체 '팜플'의 이승곤 팀장 / 323
문화복합공간으로 진화하는 판교테크노밸리 / 327

– 여행자의 호기심과 질주하는 말의 기상이 풍겨나는 곳 / 328
– 성남시 안의 또 다른 세상 – 판교테크노밸리, 성남시로 들어오는 중 / 330

제5편 미래를 꿈꾸는 우리 아이들

제1장
일곱 빛깔 무지개의 꿈 박용준
프롤로그 / 337
줄리어드 학생 바이올리니스트 성원이의 꿈 / 338
지적 장애인 클라리네스트 우진이의 꿈 / 340
컬럼비아대학교 예비 공학박사 찬울이의 꿈 / 343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예비 법조인 준희의 꿈 / 348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클라리네스트 예실이의 꿈 / 349
미국 다트머스칼리지 장학생 수형이의 꿈 / 351
에필로그 / 354

제2장
대안교육, 성남의 새로운 교육 물결로 자리 잡다 김정삼
대안교육에서 시대를 읽다 / 357
성남 지역 대안학교 순례 / 358
1. 공동육아 대안학교 '세발까마귀 어린이집' 스토리 / 358
2. 방과 후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함께여는 청소년학교' / 362
3. 학교 밖 청소년 배움 공동체 '디딤돌학교' / 366
4. 진로특성화 대안학교 '바람개비스쿨' / 371
5. 청소년 자립 대안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 375

제3장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지도사 김연희
어른의 문화가 나쁜 것이지, 청소년은 나쁘지 않아요(이관희) / 383
성남, 지역 내 차별은 없으면 해요(변호용) / 389

제4장
편견에 맞서 세상을 보자 최명숙
프롤로그 / 399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음악가를 꿈꾸는 소년, 영호 / 400
불굴의 투지와 노력으로 수영 선수가 된, 태윤 / 403
댄스 가수를 꿈꾸는 사랑스러운 소녀, 수빈 / 406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좋은 빵을 만드는 소년, 일수 / 409
웹툰 작가를 꿈꾸며 장애인 활동 보조 교사가 된 사회 초년생, 해빈 / 411

성남시사

총목차

제1권 지리_자연환경과 인문·사회지리

서序

제1편 자연 생태와 환경 보전

제1장 성남의 자연환경
제2장 동식물 생태계
제3장 환경 보전과 조화로운 도시 개발

제2편 인문 환경

제1장 성남의 연혁
제2장 풍수지리
제3장 지리지로 읽는 성남
제4장 지도로 보는 성남
제5장 땅이름 이야기

제3편 사회 환경

제1장 인구와 주민 구성의 변화
제2장 촌락의 형성과 도시 경관의 변화
제3장 토지 이용의 변화
제4장 교통로와 시장의 발달
제5장 건축물에 담긴 이야기
제6장 공간 구조와 주민 생활권

제2권 역사_한눈에 보는 성남의 기록

제1편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제1장 선사시대와 원사시대
제2장 삼국시대
제3장 통일신라와 발해시대
제4장 고려시대 광주목 설치
제5장 고려시대 지방 지배 세력의 성장

제2편 조선시대 지방 세력과 향촌사회

제1장 조선시대 지방제도 정비와 운영
제2장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제3장 남한산성과 광주의 위상 변화
제4장 조선시대 성남 지역 사족의 정치적 동향
제5장 성남 지역의 문예 활동과 교유

제3편 대한제국과 대일 항쟁기

제1장 대한제국기의 성남
제2장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무단통치
제3장 성남의 민족해방운동

제4편 해방과 6 · 25전쟁, 그리고 지금

제1장 해방정국 시기 좌우 정치 세력의 대립
제2장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개
제3장 새마을운동
제4장 오늘의 성남, 도시 만들기 40년

제3권 전통의 향기_문화유산·민속·성씨·인물

제1편 문화유산

제1장 성남시 문화유산의 특징과 시의 정책
제2장 지정문화재
제3장 비지정 문화유산

제4장 남한산성과 성남

제2편 전통의 생활 양식, 민속

제1장 일상생활과 관혼상제
제2장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제3장 민속 신앙

제3편 성씨와 인물

제1장 성씨와 집성촌
제2장 누대를 이어온 성남의 세거 문중
제3장 성남을 빛낸 역사 인물

제4권 정치경제_풀뿌리 자치와 산업경제

제1편 선거와 정치

제1장 민주주의의 꽃, 선거
제2장 성남시의회
제3장 시민의 정치의식과 참여
제4장 성남시 지방 자치 20년의 성과와 과제

제2편 시의 살림살이, 행정

제1장 행정기구 및 주요 시책
제2장 구 행정과 동 행정
제3장 사법 · 치안 · 소방 · 세무 · 체신 행정

제3편 산업과 경제

제1장 시 승격 전후의 산업 구조
제2장 분당 개발과 산업 구조의 변화
제3장 산업 구조와 산업대분류별 현황
제4장 산업단지와 주요 산업 시설
제5장 성남의 공기업
제6장 사회적 경제

제5권 현대사회_문화·예술·교육·시민 생활

제1편 문화와 예술

제1장 문화예술 시설
제2장 문화예술 단체와 활동
제3장 성남의 문학
제4장 전시 예술
제5장 공연 예술

제2편 축제와 관광

제1장 지역축제와 문화행사
제2장 성남 9경과 첨단 미래로의 여행
제3장 맛, 멋, 즐거운 기행

제3편 교육과 청소년 문화

제1장 성남시 교육의 어제와 오늘
제2장 학교 교육 현황
제3장 미래 교육과 청소년 문화 사업
제4장 남기고 싶은 성남 교육 공동체의 숨은 이야기

제4편 시민 생활과 사회 활동

제1장 시민들의 주거와 일상생활
제2장 성남의 체육
제3장 성남의 종교
제4장 언론과 출판
제5장 사회복지, 함께 사는 세상

성남시사

총목차

제6권 도시개발사_도시박물관, 성남

제1편 과거—농촌 성남과 광주대단지

제1장 1960년대의 농촌 성남
제2장 지역개발 계획, 모란단지와 광주대단지
제3장 8 · 10광주대단지 사건의 발생 배경과 의의
제4장 광주대단지의 갈등과 통합

제2편 현재-시 승격과 분당의 탄생

제1장 성남의 분리와 시 승격
제2장 수도권 위성도시로의 성장
제3장 분당의 탄생
제4장 성남시 현대 건축의 특징과 랜드마크

제3편 미래-도시 성장과 정책

제1장 신도시 개발 20년의 성과와 과제
제2장 현재진행형의 신도시
제3장 도시 정책과 정비 계획
제4장 도시 기능의 변천 과정과 발전
제5장 도시 경관 관리 방안

제7권 민주주의_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 활동

제1편 정의사회를 위한 행동, 민주화운동

제1장 민주화운동 개관
제2장 시기별 민주화운동의 전개
제3장 6월 민주화운동과 성남
제4장 주민 생존권과 도시 빈민운동
제5장 도시 빈민사로 본 지역 공동체
제6장 민주화 물결의 '핵', 노동운동
제7장 탁아에서 인권까지, 성남 여성운동사

제2편 공정사회를 위한 실천, 시민사회 활동

제1장 시민사회운동 개관
제2장 애국의 발로, 보훈 · 안보단체와 활동
제3장 시민의 정치 참여, 자치운동
제4장 공생을 위한 절제, 환경운동
제5장 미래를 위한 투자, 교육운동
제6장 신명나는 공동체, 문화운동
제7장 경제 정의의 실천, 소비자운동

제3편 연표로 읽는 민주화운동

제8권 생애사_시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제1편 옛 성남, 옛 이야기

제1장 돌마면 출신 원로 역사학자가 들려주는 성남 이야기
제3장 성남의 문인들 이야기
제4장 성남시와 함께한 40년 공직 생활
제5장 한맹순 할머니의 성남살이 일기

제2편 성남에서 살아가기

제1장 성남에 고향을 심는 사람들
제2장 분당별곡
제3장 다자녀 가정 이야기
제4장 인력시장 노동자의 '하루 인생'

제3편 전통문화에 담긴 오롯한 정신

제1장 무형문화재로 살아가기
제2장 세상의 속도에 밀린 기억 저편, 전통놀이를 찾아온 사람들
제3장 성남 '맛의 장인' 을 찾아서
제4장 모란민속5일장과 시장 상인 이야기

제4편 이방인들의 두 번째 고향 만들기

제1장 다문화 가정 이야기
제2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유학생 이야기
제3장 이주노동자에서 성남 시민이 된 어느 중국동포
제4장 판교테크노밸리, 성남시가 되어가는 중

제5편 미래를 꿈꾸는 우리 아이들

제1장 일곱 빛깔 무지개의 꿈
제2장 대안교육, 성남의 새로운 교육 물결로 자리 잡다
제3장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지도사
제4장 편견에 맞서 세상을 보자

제9권 부록1_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제1편 옛 지도로 보는 성남의 역사

성남(광주) 옛 지도
경기도 옛 지도

제2편 사진으로 보는 성남

풍광(風光)
약사(略史)
과거(過去)
비전(Vision)

제3편 자료로 읽는 성남

자료로 읽는 성남 역사
개인 소장 자료

제10권 부록2_성남 길라잡이 사전

길라잡이 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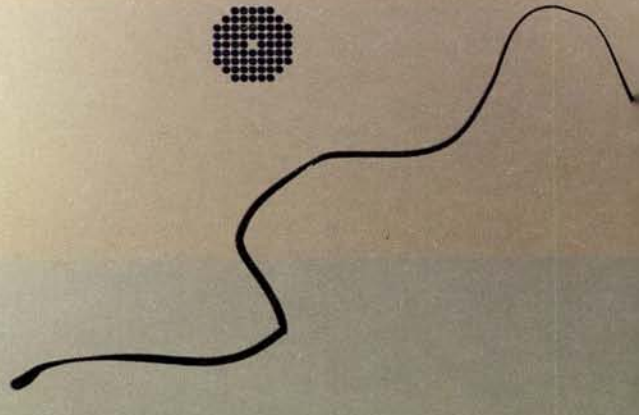
행정 구역 및 법정동
역사
도로와 공원
역사 인물
문화유산
공공 기관 및 기반 시설
교육 기관
전통시장 및 산업 · 경제 관련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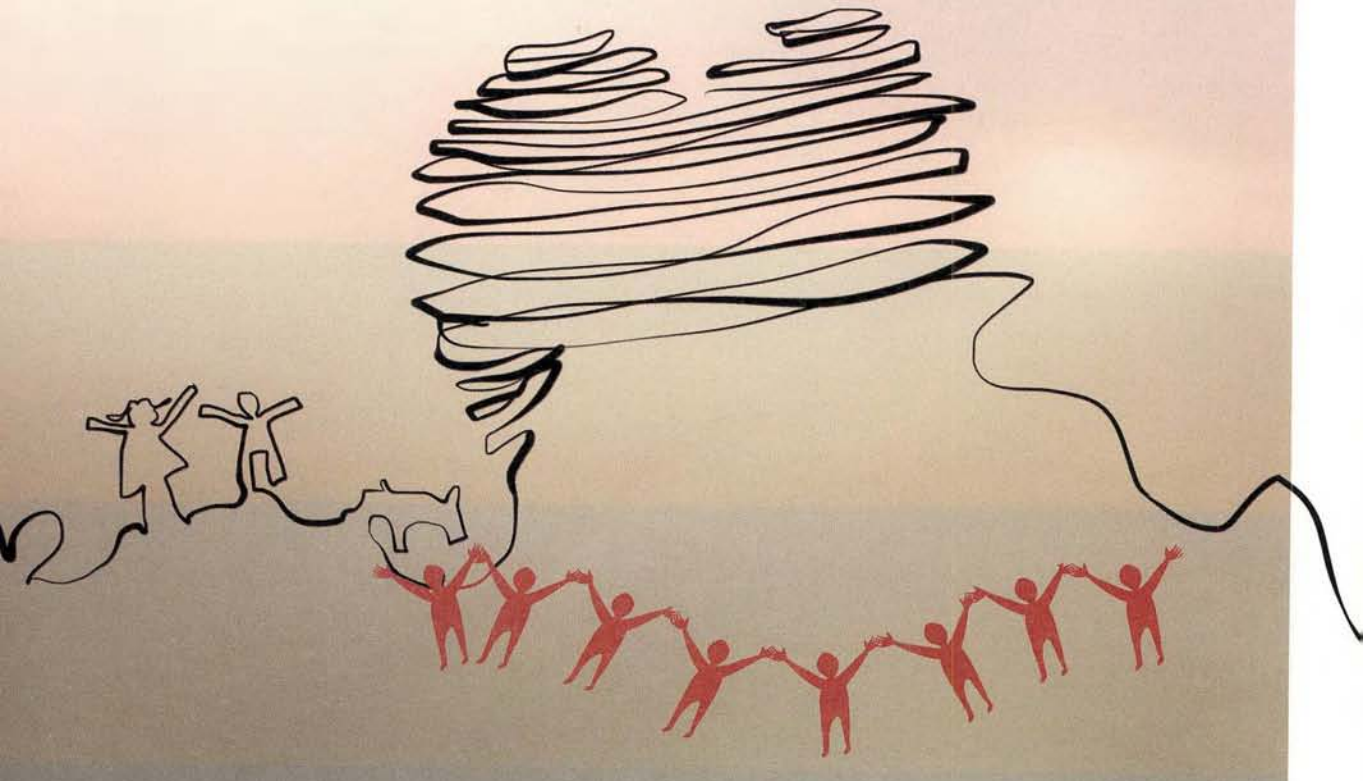
연표

삼국~고려(BC57~1392)
조선(1392~1897)
대한제국기(1897~1910)~일제강점기(1910~1945)
현대 I (1945~1973. 6. 30)
현대 II(1973. 7. 1~1990. 12. 31)
현대 III(1991. 1. 1~2014. 7. 1)

1

옛 성남, 옛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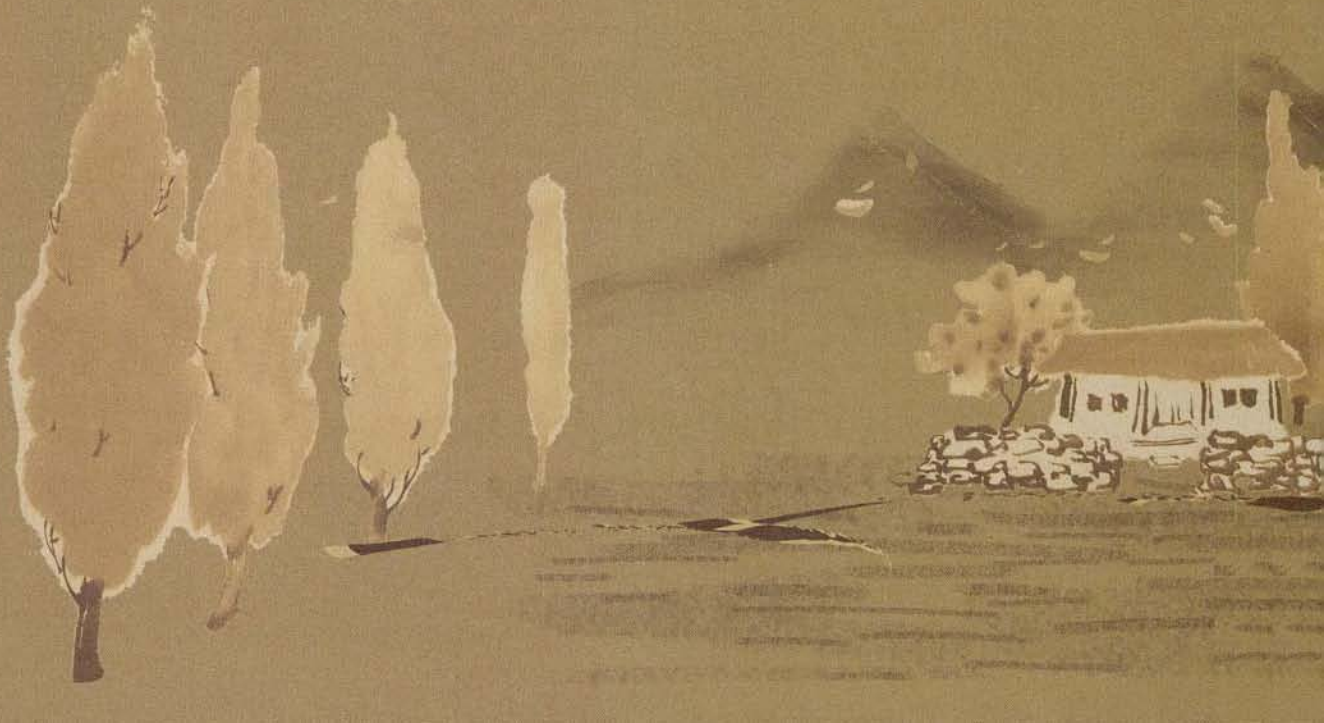




제1장 돌마면 출신 원로 역사학자가 들려주는 성남
제2장 철거 이주민이 겪은 광주대단지
제3장 성남의 문인들
제4장 성남시와 함께한 40년 공직 생활
제5장 한맹순 할머니의 성남살이 일기

제1장
돌마면 출신 원로 역사학자가 들려주는 성남

송치욱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성남의 역사를 저술한 돌마면 출신 정통 역사학자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서양 속담이 있다. 이 말은 도시가 바로 인간의 최대 창조물이라는 것이다. 이 속담에 어울리는 서양의 여러 도시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남이야말로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일 것이다.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건설된 인공 도시이며,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여 불과 몇 십 년 만에 자연적인 농촌에서 번화한 도시로 탈바꿈한 성남은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로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한 성남을 두고, 두 가지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논밭만 있던 곳에 빌딩이 들어선 모습을 보고 발전했다며 대단하게 여길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원적인 옛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점을 아쉬워할 수 있다. 아마도 분당을 고향으로 둔 사람들은 옛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것을 두고 고향을 잃어버린 듯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성남의 역사, 분당의 옛 모습에 대해 연구한 정통 역사학자가 있다. 이완재李完宰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로, 지난 1993년 『한국사에 비춘 '성남지역'의 역사』[1]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시·군 단위의 지역사에 대해서는 지역의 향토사학자가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교수는 성남의 옛 모습을 알고 있는 성남 출신의 정통 역사학자로서 지역사 연구에 참여한 드문 경우이다. 이 책은 당시 "정통학자가 쓴 국내 첫 향토사", "향토사학자가 아닌 본격적인 역사학자가 참여해 나온 최초의 성과"[2]로 평가를 받았다.

이완재 교수는 1941년 돌마면 분당리(현 분당구 분당동) 262번지에서 태어나 자란 성남 토박이다. 돌마초등학교(1954년, 16회)와 양영중학교(1957년, 3회), 양영고등학교(1959년, 3회)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사학과와 동대학원을 거쳐 한양대학교 인문대

1) 이완재, 『한국사에 비춘 '성남지역'의 역사』 민족문화사, 1993. 이완재 교수는 이후 초판의 미진했던 내용과 자료를 보완하여 1996년 재판을 발행하였다.
2) 「한대 이완재 교수 『한국사에 비춘 성남지역의 역사』 펴내」, 『서울신문』 1993년 12월 7일.

양영고등학교 3학년 시절 강화도 전등사 봄소풍(1959. 4. 24, 가운뎃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이완재 교수)

학 사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명예교수로 있다. 전공은 한국근대사이며, 『한국사에 비춘 '성남지역'의 역사』 외에 『초기개화사상연구』(민족문화사, 1989), 『박규수 연구』(집문당, 1999), 『효령대군일대기』(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등 여러 저서가 있다.

이 교수는 성남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 조사에 거의 모두 참여한 학자다. 1989년 9월 분당 신도시의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개발 예정지 내에 산재하는 각종 문화 유적에 대하여 실시한 『성남분당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3] 직후 이루어진 1991년 『분당지구 문화유적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4], 1993년 『성남시사(20년사)』, 2003년 『성남시사(30년사)』 편찬에 모두 참여하였다. 특히 30년사 편찬을 마무리할 시기에는 위암 진단을 받아 투병 생활을 하면서 편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성남 출신의 토박이이자 역사학을 전공한 원로 사학자로서의 이완재 교수를 통해 성남 지역의 역사에 대해 들어보기로 한다.[5]

---

3) 한양대학교 박물관, 『성남분당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1989.
4) 한양대학교 박물관 · 경기도, 『분당지구 문화유적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 1991. 이 조사 보고서에서 이완재 교수는 'Ⅳ. 인물' 분야를 집필하였다.
5) 이완재 교수와의 인터뷰는 2013년 9월 24일 율동공원 부근 한 가게에서 이루어졌다.

유년기, 청소년기 시절의 성남 이야기

집안의 성남 정착과 큰 형의 희생

이완재 교수의 집안은 전주이씨 효령대군파로서 파주, 고양 등지가 주요 근거지였다고 한다. 이 교수의 아버지가 4형제였는데, 둘째 숙부가 분당으로 양자를 오게 되어 그것을 계기로 할아버지께서 분당에 와보니 농사짓고 살기 좋을 듯하여 가족을 모두 데리고 와 정착했다고 한다.

집안이 분당으로 이주한 시기는 일제가 조선총독부 건물을 만들고 있을 때쯤이라고 한다. 할아버지의 말씀으로 이주를 위해 서울을 지나칠 때 일제의 조선총독부 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석재를 다듬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집안이 성남으로 이주한 후 이완재 교수는 9남매(3남 6녀) 중의 막내로 태어났다. 위로 형이 두 분이 계셨으나 1924년생인 큰형은 일본 지원병으로 차출되어 필리핀에서 전사하셨고, 1930년생인 둘째형은 6·25전쟁 당시 의용군[6]으로 끌려가 소식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현대사의 비극이 이완재 교수의 집안도 비켜가지 않았던 것이다.

이 교수의 집안이 성남의 돌마면에 정착할 당시(1910년대~1945년)는 3·1운동과 그로 인해 일제가 무단통치 방식에서 '문화정치'라 지칭되는 지배 방식으로 변화하던 때이다. 이 시기 성남은 당시 독립운동 진영에서 '중부에서 남부 지역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7]하였던 곳이다. 그리고 일제가 통치 방식을 변화한 후에도 성남 지역에서는 한순회韓順會[8] 등의 주도로 신간회 광주지회가 설립되기도

6) 북한이 6 · 25전쟁 당시 정규군을 지원하기 위해 18세부터 36세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은 인민의용군을 말한다. 인민의용군으로 참가한 인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참조.

7) 성남문화원, 『성남의 역사와 문화유산』, 2001, 129쪽.

8) 한순회(韓順會, 1885~1961) 독립운동가, 천도교인. 평택에서 출생하여 성남 지역으로 입양하여 율리에 이거하였다. 어려서 한문을 수학, 한학칠서에 통달하였으나 경술망국(庚戌亡國)과 3 · 1만세운동을 체험하면서 자각한 바 있어 국민계몽과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일제하 율리에서 선각 인사들이 비교적 많이 배출된 것은 한순회의 영향이다. 1927년 신간회의 조직과 활동에 참여하여 신간회 광주지회 결성을 주도하였고, 이대헌, 유인목, 한백붕, 박기환, 한백호, 한용회 등을 이끌고 광주지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완재, 「Ⅳ. 인물」, 『분당지구 문화유적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 한양대학교 박물관 · 경기도, 1991, 277~278쪽.

하였다. 이후 해방될 때까지 성남 지역에는 독립운동 세력이 꾸준히 활동을 전개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 시기는 일제가 지방 제도를 개편한 때이기도 하다. 일제는 1914년 대폭적인 지방 제도 개편을 시행한다. 이를 계기로 성남 지역의 여러 동리洞里들이 통폐합되었고 그 결과 분당盆唐, 서현書峴 등의 새로운 지역명이 생긴 것이다.

이 교수의 집은 현재의 율동공원(분당저수지) 근처에 있었다고 한다. 이 교수에 의하면 지금 율동공원 공영주차장이 집안의 논이 있던 곳이었으며, 그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의 장안초등학교에 집이 위치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마당 부근, 즉 지금의 장안초등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에 있던 홰나무는 학교가 신축되면서 현재의 자리로 옮겨졌다고 한다. 그나마 수령이 오래되어 1982년 성남시의 보호수로 지정되어 위치는 한 400여 미터 옮겨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옛 시절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이 홰나무의 예전 모습과 현재의 모습은 이 교수의 책[9]에 담겨 있다.

일제의 통치가 막바지에 달할 무렵, 이 교수의 큰 형은 경성일보사에 재직 중, 일본 지원병으로 차출되어 참전했다고 한다. 1924년생이었던 큰형은 돌마면에 국민학교(당시 소학교)가 없어 낙생소학교[10]를 다녔는데, 안타깝게도 필리핀의 레이테섬 전투에서 전사하셨다고 한다.

6 · 25전란과 초등학교 시절

1941년생(실제로는 1940년생이라고 함)인 이 교수는 해방 후 돌마국민학교에 입학하였다. 돌마국민학교는 1934년 돌마면 이매리二梅里에 돌마공립보통학교突馬公立普通學校로 설립되어 10월 9일 개교하였다. 개교 당시의 돌마공립보통학교는 이매리 안말 돌마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었다고 한다.[11] 그리고 당시는 낙생·대왕보통학교 등과 함께 4년제였다고 한다. 졸업 후 학업을 계속하려면 광주 경안慶安에 있는 6년제 광주보통학교나 남한산보통학교에 5학년으로 입학해야 했다. 이 교수에 의하면

9) 이완재, 『한국사에 비춘 '성남지역'의 역사-선사에서 '분당신도시'까지-』, 민족문화사, 1996, 8쪽.

10) 낙생초등학교의 연혁을 보면, 1922년 판교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하여, 1938년 낙생공립심상소학교로 개명하고, 1941년에는 낙생공립국민학교, 1996년에 낙생초등학교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낙생초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11) 이 교수에 의하면 당초 돌마국민학교는 이매리에 세워졌으나, 이후 성남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분당초등학교가 생기고 이에 따라 현재의 야탑동으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광주의 16개 면에서 이 학교로 학생들이 몰렸으니 공부 잘 하는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교수의 둘째 형은 이곳 돌마국민학교 1회 졸업생이었다고 하며, 이 교수는 16회 졸업생이다.

이 교수 세대의 사람들에게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마도 6·25전란일 것이다. 6·25전란은 전 국민적으로 피해가 엄청났지만 성남 지역이 입은 인명 재산상의 피해 또한 매우 엄청났다고 한다. 전시 중 좌·우익左右翼의 대립 갈등이 극심한 속에서 돌마 지역에서는 구철모·신경운·김석진·이세구·이복구 등 28명이 광주 쌍령까지 끌려가 학살당한 것을 비롯하여 전란을 통하여 수많은 인명이 희생당하였고, 돌마국민학교 교사校舍를 비롯한 관공서 건물, 가옥, 교량 등이 파괴, 손실[12]되기도 하였다.

이 교수는 당시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돌마국민학교의 교사가 매우 잘 지어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 교수는 "건물만 잘 지었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시설도 참 좋았어. 교장 사택에서부터 운동장, 울타리 ……"라고 기억하고 있다. 그 교사가 전쟁으로 인해 불타버리자 결국 "돌마국민학교는 운동장 서단西端에 초가지붕의 임시 가교사를 짓고 맨바닥에 가마니를 깐 채 수업을 해야 했다."[13] 그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그때는 학기 초가 4월이었거든. 4월에 개학해서 새 책 받아가지고 (공부했는데), 두 달 있다가 6·25가 났단 말이야. 그땐 전쟁이 처음 나는 거니까 피난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고, 더군다나 인민군이 하도 빨리 내려와서 서울이 벌써 28일 날 적화에 들어가고 (말았어). 벌써 낙동강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 피난도 못갔어. 적화되었지.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학교 나오라니까 나가니 인민학교야. 인민학교 한 달쯤 다니니까 방학 (했지). 그땐 피난가고 하니까 학생도 얼마 없었지. 그래서 인제 9·28수복되면서 학교 조금 다니다가 1·4후퇴 때 다시 중공군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때도 우리는 피난 안 갔었는데, 서울 수복 될 때까지는 피난을 갔던 사람들도 안 들어오고 했으니까, 학교가 구성될 수가 없었지. 한 5월 달쯤 학교 나오라고 해서 나가니까 피난민들, 선생님도 낯선 사람이고, 학교는 불타버리고, 칠판을 뒷동산 소나무에다 걸어놓고 (공부했지). 그래 가지고 학교는 주민들이 임시로 지어가지고 가마니 깔고 공부하다가 졸업했지.[14]

---

12) 이완재, 『한국사에 비춘 '성남지역'의 역사-선사에서 '분당신도시'까지-』, 민족문화사, 1996, 144~145쪽.

13) 이완재, 『한국사에 비춘 '성남지역'의 역사-선사에서 '분당신도시'까지-』, 민족문화사, 1996, 145쪽.

14) 인터뷰의 녹취문은 되도록 그대로 옮겼으나, 의미가 중복되는 말이나 생략된 내용은 괄호 속에 넣어 읽기 쉽도록 했다. 이하 이 글에서의 녹취문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인용했다.

그런데 이런 6·25전란의 피해는 그뿐만 아니라 이 교수의 집안에도 미쳤다. 이교수의 집안은 미쳐 피난을 가지 못했는데, 그로 인하여 둘째 형이 의용군으로 끌려간 것이다.

> 나 위의 형은 나보다 11년이 위야. 1930년생이신데, 돌마보통학교 4년제 1회서, 고등학교 마치고 농사일 하다가 6·25나면서, 여기는 인민군 치하가 된 기 아니야. 젊은이들을 인민군으로 끌고 간 거지. 전사하였는지 어쩐지 모르지. 적십자사에 이산가족을 신청하였는데, 북한 적십자사에서 협조해줘야 알지 …… 21살 때 끌려갔는데, 음력으로 8월 추석 전, 양력 8월 중순 때였는데. 그때 한 달만 있었으면 안 나가도 되는 기였어. 7월에 한번 끌려갔다가 밤에 도망 왔어. 그러고 아직은 숨어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끌려갔을 때가 미처 추석이 지나지 않은 때였어. 수수타작을 했으니까. 그러구서 한 달쯤 있다가 인천상륙해서 9·28수복이 된 거지.

둘째 형이 이렇게 인민군으로 끌려가고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고, 전쟁으로 인한 비극은 이 교수로부터 두 형을 데려갔고 결국 이 교수는 이제 셋째 아들이 아니라 외동아들이 되었다. 현재 이 교수는 생사를 알 수 없는 둘째 형을 찾으려는 생각에 이산가족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 6·25전란은 성남 지역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고 이 교수는 설명한다. 거주민의 양태가 크게 바뀌었고, 피난민을 비롯한 새로운 인구의 이동이 그 큰 변화 중의 하나라고 한다. 새로운 취락이 조성되었고, 생활 여건이나 사회 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으며, 이북 피난민들이 정착, 취락의 규모가 커지게 되어 고등리高登里 시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6·25전란 직후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15]

15) 이완재, 『한국사에 비춘 '성남지역'의 역사-선사에서 '분당신도시'까지-』, 민족문화사, 1996, 145쪽.

중·고등학교 진학과 대학에서 역사학 전공하기까지

이 교수는 그렇게 돌마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양영중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이 교수는 9남매 중의 막내로 태어났으나, 위의 두 형님들이 전란으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외동아들이 되었고, 이 때문에 부모님들은 이 외동아들을 서울로 진학시키지 않고 옆에 두고자 하셨기에 성남의 중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해방 당시만 해도 성남 지역에는 중등교육기관中等教育機關은 전무한 실정이었다고 한다.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 초에 걸쳐 중등교육기관으로 공립인 양영중·고등학교養英中高等學校와 사립인 효성학원曉星學園에 의한 효성중·고등학교가 돌마면과 대왕면에 각각 설립되어 이 지역의 중등교육을 담당했다.[16]

양영중학교는 1949년 광주군 오포면에 있던 계림학원을 인수하여 분당리에 양영고등공민학교養英高等公民學校가 설립된 후, 이를 모태로 1954년에 공식적인 설립 인가를 받아 개교한 학교였다. 초대 교장에는 이인구李仁求[17]씨가 취임하였다.[18]

이 교수에 의하면, 당시 해방 직후 학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교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양영중고등학교의 초대 교장이자 설립자인 이인구씨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인재였다고 한다. 이인구 교장은 1954년 양영고등학교가 인가가 나고 1대 고등학교 교장으로 겸임 발령되었으나, 안타깝게도 그 직후 타계하셨다고 한다.

16) 이완재, 『한국사에 비춘 '성남지역'의 역사-선사에서 '분당신도시'까지-』, 민족문화사, 1996, 153쪽.

17) 이인구李仁求(1920~1955) : 교육가. 본관은 한산(韓山). 1942년 서울보인상업고등학교, 1947년 한국대학 예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정치학과에 입학 1951년 졸업하였다. 1952년 4월 정부수립 이후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처음 실시된 면의회의원 직접선거에서 광주군 돌마면의원에 선출되었으며, 동년 광주군 교육구 교육위원에도 피임되면서 돌마면 관내에 아직 중등학교가 없음을 개탄, 중등학교 설립을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완재, 「Ⅳ. 인물」, 『분당지구 문화유적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 한양대학교 박물관 · 경기도, 1991, 274~275쪽.

18) 현재 양영중학교는 1992년 양영실업고등학교(현 양영공업고등학교)와 분리하여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디지털성남문화대전(http://seongnam.grandculture.net); 이완재, 『한국사에 비춘 '성남지역'의 역사-선사에서 '분당신도시'까지-』, 민족문화사, 1996, 153쪽.

양영중학교 제3회 졸업 사진(1957. 2. 9, 총 52명, 여학생 뒷줄 왼쪽에서 일곱 번째가 이완재 교수)

양영중학교는 설립된 지 1년 만에 6·25전란으로 폐교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1952년 다시 재개교하여 수업을 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교사校舍가 없었기 때문에 1953년부터 교사 신축에 진력하였고, 분당리 주인동 111번지에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성원에 힘입어 그해 12월 8일에 교사낙성식校舍落成式을 갖게 되었다. 그 낙성식에는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신익희申翼熙씨를 비롯한 유명인이 대거 참석했다고 한다.

이 교수는 양영중학교를 3회로 졸업했고, 이어 양영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이 교수의 성적은 서울의 고등학교로 진학하기에 충분했고, 20살이 더 많은 큰누님도 서울에 살고 계셨으니 여느 집안의 아들이었으면 서울의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중학교 입학 때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의 진학에 있었어도 위의 두 아들을 잃은 부모님은 막내이자 외동이 되어버린 아들을 "공부는 너 할 탓이다"라며 놓지를 않으셨고, 이 교수는 성남의 양영고등학교에 진학하였던 것이다.

가난한 시절이라 점심도 집에 와서 먹기도 했으며, 비록 지방의 고등학교였지만 학생들은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 공부는 잘했지만 집안의 형편상 서울로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졸업한 학생수는 한해 10여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하여 교수가 된 졸업생들이 많다고 한다. 특히 국립대학을 제외한 사립대학은 등록금의 부담이 있었기에 당시 장학금을 주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한다.

양영고등학교 3학년 시절 강화도 전등사 봄소풍
(1959. 4. 24, 가운뎃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이완재 교수)

이 교수도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의 한양대학교로 진학하게 되는데, 부모님도 서울에 있는 대학 진학까지 막을 수는 없었고, 마침 왕십리에 큰누님이 살고 계셔서 그곳에서 지내며 다닐 수 있었다.

이 교수가 역사학을 선택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적성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역사나 지리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억지로 공부하지 않아도 지리와 역사는 성적이 좋았다. 대학 진학시에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라며 한양대학교 역사학과를 선택하였다.

그 후 이 교수는 한양대학교 대학원을 진학하고, 계속하여 대학에서 근무했다. 이 교수는 근대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로 역사학계에서 활동하는 한편, 성남의 돌마면 출신의 역사학자로서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고향에 대한 정리도 하였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지역사 또는 향토사를 정통학자가 연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이 교수는 사라져버린 성남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세대로서 성남의 역사에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연구에 참여하게 되고, 단행본까지 저술하였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정통 사학자가 쓴 최초의 향토사라로 평가받는 『한국사에 비춘 성남지역의 역사』(민족문화사, 1993)라는 책이다.

정통 사학자가 쓴 최초의 향토사, 『한국사에 비춘 성남지역의 역사』

성남의 역사를 정리하게 된 계기

기억이나 추억은 어떤 장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린 시절의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고향은 많은 기억을 간직하는 기억의 장소이다. 그래서 고향에 가 보면, 어릴 적 놀았던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 등이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잠깐 잊었던 옛 얼굴들을 떠올리게도 한다. 그뿐만 아니다. 옛 모습을 간직한 고향은 자기 세대의 기억을 다음 세대로 이어주기도 한다. 우리는 고향의 어떤 장소를 통해 우리의 경험과 추억을 자식들에게 이야기로 전해줄 수 있기에 고향은 단순한 기억의 장소를 넘어 세대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고향이 없어져 버린 사람에겐 어떤 장소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의 시간이 없어져버린 것과 같은 공허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교수가 고향인 성남에 대한 역사를 쓰게 된 것은 고향 사람들의 이런 공허감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분당 신도시 지역으로 새로 자리를 잡은 사람들에겐 아파트로 이루어진 현재의 모습이 새로운 고향이 될 수 있겠지만, 그를 비롯한 분당의 토박이들에겐 지금의 분당 지역은 옛 모습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고향 같지 않은 고향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성남 지역 역사에 대해) 왜 정리가 필요했냐. 충주호라든가 수몰된 지역의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 남북통일 되면 이북이 고향인 사람들은 갈 데나 있지, 분당 신도시가 고향인 사람이나 충주호 수몰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통일이 아니라 뭐가 되도 갈 데가 없어졌어. 박탈당한 거야. 다 추억으로만 남은 거지. 그래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정리해 둔거란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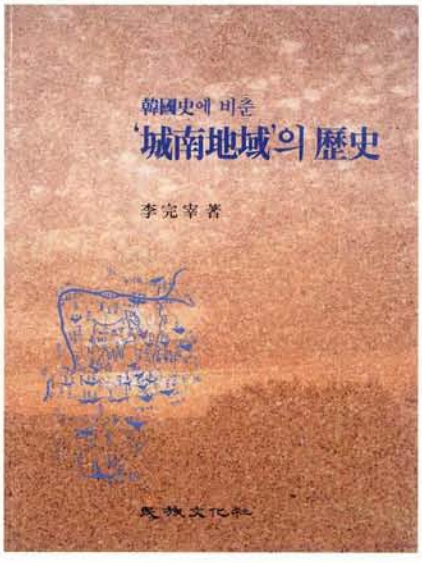
이런 이 교수의 성남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면서부터이다. 분당 신도시가 발표된 후 지표 조사를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하게

되었고, 그 후 종합 학술조사(1991)를 또한 한양대학교에서 실시하게 된다. 이 교수는 이 종합 학술조사에서 이 지역의 인물에 대한 집필을 맡아 고려시대 5인, 조선시대 69인, 현대 12인 등 총 86인에 대해 정리하였다.[19]

이 학술조사가 종료될 무렵에(1992년 10월경) 성남시에서 연락이 왔다. '성남이 1973년에 출발했으니 1993년이면 20년이니, 사람의 나이로 쳐도 20년이면 성년이다. 성남시도 성년쯤 된 나이니까 무엇이라도 정리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 성남시사를 편찬하게 되었고, 주변에서 이 교수가 적합하다고 추천했으니 원고를 청탁한다'는 연락이었다.

그렇게 성남시사 20년사의 편찬에 참여하게 되었고, 20년사가 완성되어 출간을 앞두고 주변의 성남 토박이인 지인들이 그 『성남시사』를 얻고자 하였으나, 그 책이 비매품인 관계로 주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자 주변에서 성남의 역사를 중심으로 따로 책을 써보라고 하여 단행본인 『한국사에 비춘 성남지역의 역사』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기존의 종합 학술조사와 『성남시사(20년사)』에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술 등을 통해 자료를 더 보완하여 단행본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 교수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 "그동안 하나의 작은 역사 문화권을 형성해 온 '성남 지역城南地域의 역사歷史를 한국사의 전체 흐름에 비추어 조명해본 것"이라며 "지역의 역사라고 해도 이 지역만 따로 떨어져 홀로 변천,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한국 역사의 전개 과정 속에, 그 영향 하에서 발전해온 것이기 때문에 한국 역사의 전체적 조류 중에, 각 시대마다 이 지역은 어떻게 변천, 전개하였는가에 시각을 맞추어 조명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20] 그래서 이 책은 상고시대에서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역사와 성남의 역사를 함께 담고 있으며,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성남의 사진들이 함께 담겨 있다. 그리고 그는 기존의 향



한국사에 비춘 '성남지역'의 역사(이완재, 1993)

19) 한양대학교 박물관 · 경기도, 『분당지구 문화유적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 1991, 228~279쪽.
20) 이완재, 『한국사에 비춘 '성남지역'의 역사』, 민족문화사, 1993, 1쪽.

토사나 지역사가 자칫 부풀려 과장되게 묘사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역사학에서 등한시해 온 지역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하였다.

> 향토사학자가 자기 고장을 긍정적으로 그리다 보면 과장되게 마련이고 역사도 왜곡되기 쉽지요. 잎새 하나까지 세세히 그리려다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구요. 지역사나 지방사라 해도 나라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과거를 아는 마지막 세대가 아직 살아 있는 지금 역사학자의 지역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21]

단행본이 나온 후 이 교수는 이를 서점에서 판매하지 않고 성남을 고향으로 둔 토박이 지인들이나 조합장, 동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이 교수는 이미 이전의 연구를 통해 연구비를 받았다고 여기고, 성남을 고향으로 두어 도시화로 인해 고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된 사람들에게 이 책을 나눠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 것이다.

당시 1993년 무렵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지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이 책은 지방 언론의 조명을 받았고, 이 교수는 여러 언론사와 많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책에 대한 소개가 많아졌고, 성남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남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구할 수 없느냐는 연락을 많이들 해왔다고 한다.

이 교수는 그 후 책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초판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재판(1996)을 내게 되었다. 재판 또한 판매하지 않고 성남 지역에 새로 자리를 잡은 사람들과 여기서 자라는 학생들을 위해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무료로 배포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복합적인 곳, 성남

아주 급격하게 변한 것을 흔히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로 비유한다. 그러나 성남의 변화를 비유하는 데는 "상전벽해라는 표현가지고도 안 돼"라고 이 교수는 말한다. 이 교수가 성남의 역사에 관한 단행본을 낼 때 성남의 변화된 모습을 담은

21) 『서울신문』 1993년 12월 7일.

이완재 교수가 살던 분당의 도시 개발 이전 모습. 우측에 홰나무가 보인다(1988. 5)

분당 신도시 개발로 바뀐 모습과 장안초등학교 신축으로 자리를 옮긴 홰나무(1993.10)

두 장의 사진[22]을 책에 실었는데,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의 시각이 두 가지였다고 한다. "야, 이렇게 평화스럽고 목가牧歌적인 곳이 파괴되다니" 하는 것과 "별로 보잘 것 없는 동네가 이처럼 발전하다니" 하는 시각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성남이 중부 지역에 위치한 특성이 반영되었는지도 모른다. 이 교수는 성남과 같은 중부 지역을 두고 "역사적으로 복합적인" 곳이라고 한다.

> 중부 지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통치를 받는 거야. 역사 시작부터 4세기 후반까지는 백제의 통치를 받았고, 이후 고구려의 통치를 받았고, 신라가 성장하면서 한강을 확보한 후에는 신라의 영역이 되었지. 통일 후 후삼국 때는 궁예가 지배했다가 고려가 되면서 왕건으로 되었다가 조선으로 되었지. 그러니깐 역사의 중심 세력의 통치를 골고루 받아본 데야. 발굴 조사를 해도 예를 들어 죽간이 잠긴 연못 같은 곳을 보면, 신라 유물, 백제 유물, 고구려 유물이 차곡차곡 있는 거야. 성벽도 맨 밑에는 백제 그다음 층은 고구려, 그다음은 신라 …… 석촌동 유적이고 전부 그래, 특히 아차산 산성 …… 아주 역사적으로 복합적인 데지 ……

중부 지역은 역사적으로 복합적이고 교차되는 당시의 지배층의 통치를 받았다는 게 역사학자의 통찰이다. 그리고 역사가 항상 그러하듯 역사적 변동은 또 다른 역사적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현대의 역사만 봐도 그러하다.

대표적으로 6·25전란이다. 6·25는 한 마을의 두 친구를 인민군과 국군에 복역시키기도 하였다. 이 글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작은 형은 지금 인민군으로 끌려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작은 형이 끌려간 직 후 서울이 수복된 다음, 형의 친구는 국군으로 참전했고 북한의 포로가 되었다고 한다. 한 달 사이에 이곳의 청년들은 인민군과 국군으로 전란에 휩쓸리게 된 것이다.

> (9·28수복 후) 그래 여기엔 다시 국군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구서 한 달이 안 되어서 여기 남은 사람들 젊은이들 또 국군으로 징집되었단 말이야. …… 작은 형하고 한 달 간격으로 작은 형은 인민군으로 갔고, 작은 형의 친구는 수복된 다음에 국군으로 간 거야. 그때만해도 훈련소가 어디 있어 …… 여기만 수복되었지, 강원도, 이런 전방

22) 두 사진은 이 교수의 동창이자 사진기자를 하였던 한산이씨(성남의 수내 지역에 집성촌을 이루었었음)의 이완구씨가 촬영한 것으로, 하나는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인 1988년 5월에 현 분당 중앙공원 정상에서 지난날의 '역말' 부락을 찍은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분당 신도시가 개발된 후 같은 위치에서 같은 곳을 1993년 10월에 찍은 것이다. 이 교수에 의하면 이완구씨가 분당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두었던 것을 발견하여 옛 모습과 비교하기 위해 이완구씨에게 부탁하여 다시 찍었던 것이다. 현재 사진은 이완재, 『한국사에 비춘 '성남지역'의 역사-선사에서 '분당신도시'까지-』, 민족문화사, 1996의 앞부분에 있다.

에서는 전투중이니까 바로 전선에 투입되었다고 그래. 그래 가지고 홍천 지구에서 바로 포로가 되었단 말이야.

다행스럽게도 작은 형의 친구 분은 포로 생활을 17년 한 후 석방되어 생활하다가 1990년대 말 다른 탈북자가 우연히 소식을 알려줘, 가족의 도움으로 탈북하였다고 한다. 현대사의 비극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 지역의 신간회 출신의 한 사람은 좌익에 가담해 전쟁 후 월북하였다가 다시 간첩으로 내려와 잡혔었는데, 전향하지 않다가 북송된 인사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중부 지방으로서의 성남을 역사는 조용히 내버려두지 않았다. 한국사에서 비극은 비극으로 고스란히 성남의 역사에 남았으며, 또 영광이 있다면 그 영광 또한 성남의 역사에 남아 있다. 그래서 성남의 역사는 이 교수의 말처럼 복합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당盆唐, 서현書峴 등의 이름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

성남의 대표적인 지역명 중 하나가 바로 분당, 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명은 본래의 지명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돌마면이라는 이름은 예전부터 존재해왔고, 『여지도서輿地圖書』에도 나온다고 한다. 『여지도서』에서는 소속 부락으로 상동리, 하동리 둘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 교수는 그 탓인지 어릴 적에 이매리를 기준으로 '윗돌마', '아랫돌마'라고 불렀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분당, 서현 등의 지역명은 일제가 통치의 편의를 위해 지방 제도를 개편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일제는 1914년 대폭적인 지방 제도 개편을 시행한다. 종래 12부·317개 군 가운데 전체의 37%인 1부·121개 군이 폐합되고 새로 1부·24군이 신설되어 결국 12부·220개 군으로 되었으며, 전국 4322개 면은 2500여 개의 면으로 되었다. 뿐만 아니라 종래 자치적인 지역 단위로 존재해오던 리·동里·洞을 대폭 폐합, 1910년 현재 6만 8819개이던 동리洞里가 1916년에는 2만 8383개, 그리고 1918년에는 2만 8277개로 감소되어 결국 58.9%의 동리가 폐합된 셈이었던 것이다.[23]

23) 분당(盆唐)의 당(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전 광주시사편찬위원회 주혁 상임위원은 『경인일보』(2008년 8월 8일)에 쓴 글에서 '분당'이란 지명이 분점리(盆店里)와 당우동(堂隅洞)의 앞 글자를 합쳐서 만든 지명이고, 당우동의 한자가 '堂隅洞'임은 광주부의 양안(量案)에서도 확인되었으므로 '盆堂'이라고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교수도 인터뷰에서 이곳을 "당(堂)집이 있는 모퉁이"라고 하면서 '당(唐)'자가 잘못 표기 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개편을 통해서 성남 지역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당시 성남 지역으로 불리던 돌마면突馬面, 낙생면樂生面, 대왕면大旺面, 중부면中部面의 총 57개 동리가 총 42개 동리로 통합되었다. 지금의 분당盆唐, 서현書峴도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분당리盆唐里는 분점리盆店里와 당우리唐隅里의 이름을 합하여 만들어졌으며, 서현리書峴里도 돈서촌遯書村과 양현동陽峴洞가 통합되면서 만들어졌다. 그 외 야탑野塔, 삼평三坪, 운중雲中, 사송沙松, 금토金土, 고등高登 등도 2개 이상의 동리가 통합 개편되어 생긴 이름들이다.

이러한 개편은 일제가 지방 행정의 일원화를 기하고 군郡, 면面의 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통제력의 강화, 경비의 절감을 기하려고 한 것인데, 이로 인해 우리 전통 사회의 해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는 것이 이 교수의 생각이다. "일제가 식민 통치의 효율적 편의를 위해서 행정 지명을 획일적으로 통일하였기 때문에 개편 이전까지의 고연古然한 자연취락명自然聚落名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것" 이라는 말이다.

> 원래 모든 지명은 순수한 우리말로 시작되는 거야. 왜냐면 지명이라는 게 거기 사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인 거야. 거기 밤나무 많은 데, 밤골, 샘나는 데, 샘골, 그렇게 시작되는 거거든. 두루미 많은 데, 학동(학둥이라고 했다). 양현동도 얕은 고개가 있었어, 안쪽으로는 산이 작지만 겨울에 찬바람을 다 막아줘, 그래서 요쪽은 아주 따뜻한 양지쪽이고 바깥은 아주 추워, 그래서 이쪽 분당사람들이 볕고개안(이라고 불렀다). 그래 행정구역화 할 때 '볕고개'라 하니 양현(陽峴), 볕고개, 또 통로골이니까 통로동(通路洞), 그래 고개를 넘어가면 이매리야, 그래서 통로동이야.

또한 수내藪內라는 지명도 '숲안'이라고 하였는데, 판교에서 분당장으로 오는 버스 다니는 길에서 보면 나무에 가려서 마을이 안보였는데, 그래서 '숲안 동네'라고 불렀다고 하며, 성남의 장안동이라고 불리는 곳도 분당장이 열리는 곳의 안쪽, 즉 '장의 안동네(장터+안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도 한다.

이완재 교수는 옛 성남의 모습을 체험으로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역사학자일 것이다. 그는 그동안 역사학자로서 자신의 고향에 대해 기록을 남기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20년 전 성남의 역사를 기록한 단행본을 낸 후에도 『성남시사』의 30년사 편찬에도 참여하였고, 지금 40년사 편찬에는 구술로 참여하는 셈이다.

지난 30년사 편찬이 마무리될 쯤 그는 위암 판정을 받았다. 암과 싸우면서도 30년사 편찬을 무사히 마쳤고, 투병에만 전념하여 최근까지 치료를 하였다고 한다. 치료를 어느 정도 마친 지금, 그는 또 다른 연구를 시작해 바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한다. 암과 투병 후 또다시 연구에 몰두하는 그를 보면서 어쩌면 하늘은 그에게 역사학자로서의 또 다른 소명을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함께 차를 타면서 성남을 지나왔다. 지나오면서 예전의 돌마국민학교가 있었던 곳 등 주요한 장소를 설명해 주었다.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성남의 높은 아파트와 건물들만 눈에 들어오지만, 그의 눈에는 예전의 그 모습이 함께 겹쳐서 보이는 듯했다.

지금 '성남' 혹은 '분당'이라고 하면 고층 아파트로 이루어진 도시를 연상하기 마련이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분당 신도시 개발로 만들어진 지금의 모습에 '천당 아래 분당', '대한민국 주부들이 살기 제일 좋은 동네' 등의 찬사가 쏟아졌고, 성남의 인구는 계속 증가해 성남시로 승격된 지 40년을 맞는 지금은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가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잠재력을 가진 곳으로 평가받는 곳이 바로 성남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남 지역의 역사는 이런 대도시화와 빌딩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교수가 지적한 데로 성남은 역사의 시기마다 주도층의 영향을 받으며 그 흔적을 남겨온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그 역사적 흔적을 남겨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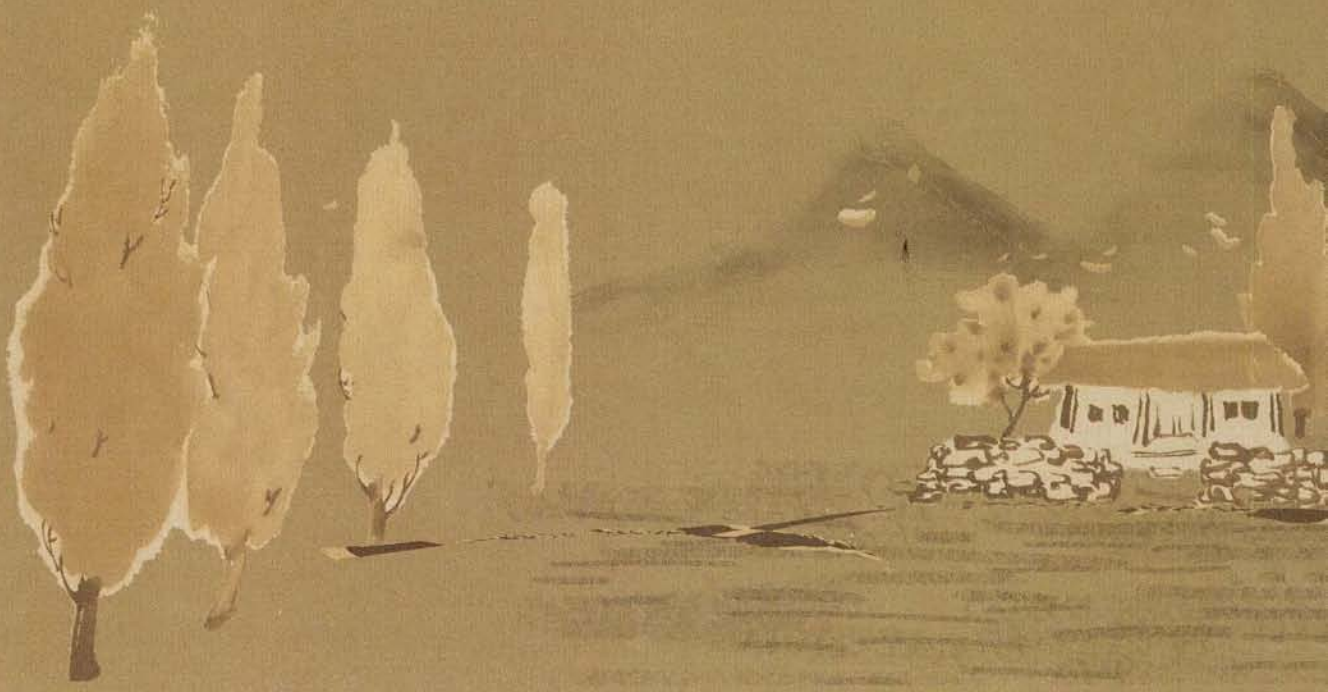
우리는 비록 이 교수처럼 성남의 현재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함께 겹쳐서 보지는 못하지만, 그가 남겨놓은 역사적 기록을 통해 성남 지역의 오랜 역사 위에서 지금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리고 현재의 성남의 모습에만 압도당하지 않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남을 볼 때 우리는 성남을 좀 더 깊이있게 바라볼 수 있고, 이런 역사적 인식이 있어야 향후 만들어나갈 성남의 미래도 보다 성숙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제2장
철거 이주민이 겪은 광주대단지

구술 정리 임미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김철 : 1952년 경남 진해 생. 서울 문래동에 살다 광주대단지로 와서 19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 사건 당시 청와대로 가자는 차에 올라탔다가 구속됐다. 알루미늄 창호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가 1980년 2차 유류파동,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뒤 지금은 직종을 바꿔 동생과 동업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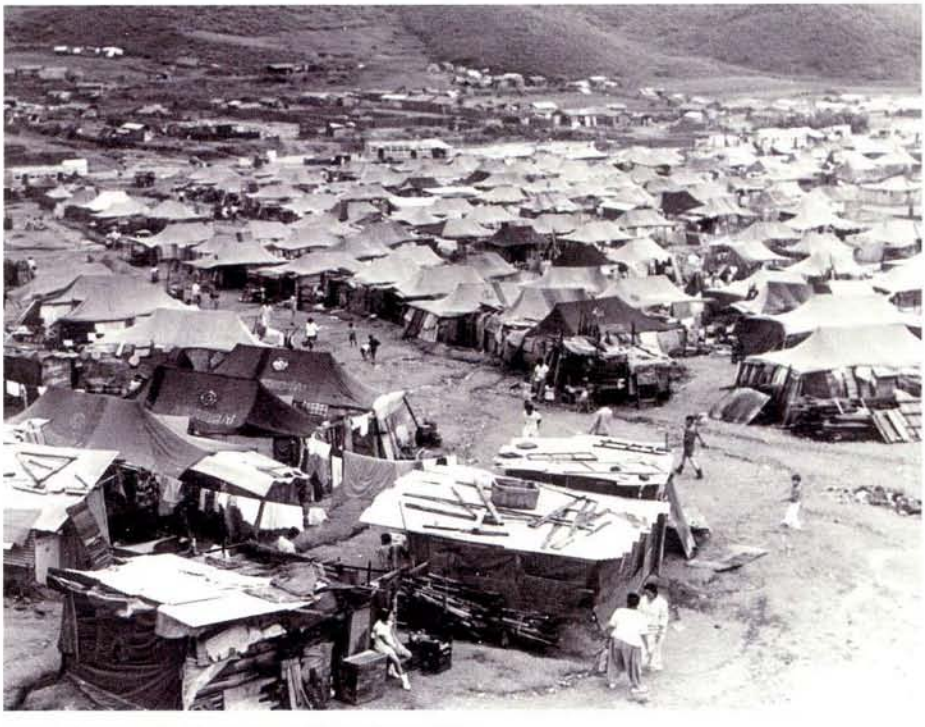


서울 정화사업과 광주대단지 생활의 시작

문래동에서 대단지로, 소나무 껍질 벗겨 먹어

고향은 경남 진해에요. 거기서 어릴 때 올라와 가지고 서울 영등포 문래동에 살았었어요. 부모님하고 형님 한 분 계시고, 삼남 일녀에요. 그때 당시에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사람들의 생활 실상이라는 것은 말도 못했었어요. 다들 배들 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때니까, 우리도 당연히 똑같이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부모님은 원래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안 좋은 일로 올라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아버님은 대서소에 대서하러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남자고 여자고 아이들이고 유리조각, 쇳조각, 모든지 돈이 될 것은 다 파서 그냥 땅을 파서 훑어 가지고, 하루에 얼마를 벌든 그렇게 벌어가지고 생활을 하고 살았죠. 그래도 밥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 기억이에요. 거의 닭 사료, 밀가루도 아닌 닭 사료. 그걸 가지고 멀건 풀죽 이렇게 끓여서 먹고. 학교는 서울 명보극장 뒤에 고등공민학교라고 있었어요. 없는 아이들 다니게끔 해놓은데 그쪽으로 다녔었죠.

그때 양택식 시장이 "경기도 광주에 대단지를 만들어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를 시키겠다, 그쪽으로 들어가라" 해서, 당시만 해도 컴퓨터도 없고 듣는 것은 겨우 라디오, 그것도 몇 세대 중에 하나, 이런 시대였으니까 그 말만 믿고서 짐을 싼 게 아마 한 68년도 가을쯤이 됐을 거 같아요. 2.5톤 트럭이나 5톤 트럭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세 가구씩 차 한 대에 사람하고 짐하고 같이 실어가지고, 가면 아파트를 다 지어 놨으니까 들어가서 몸만 살면 된다, 또는 일부가 덜 되었더라도 다 살게 해 줄 테니까 들어가라 해서, 근데 속아서 들어간 거죠. 속아서 들어가 보니까 그야말로 남한산성 밑에 지금 은행동이나 신흥동 이쪽으로 전부 완전 허허벌판이었어요. 겉에 나무만 뽑아버리고 풀하고 무덤,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는 데를 갖다가, 텐트 하나에 세 세대씩 들어가게끔 해서 바닥에다 그냥 부려놓고 간 거예요. 먹을 것도 없지, 당장 돈도 없지. 그렇게 텐트에서 한 1년 넘게 산 것 같아요. 텐트에서 계속 살은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인제 문제는, 아파트 지을 계획이 없다,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수가 없다, 예산 부족이다, 그냥 쓰



광주대단지 자혜지구(현 금광2동, 은행2동) 천막촌(1971)

레기처럼 갖다 버려진 거죠! 그 바람에 사람들은 화가 있는 대로 났었고, 저마다 전부다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 그때 성남에 범죄가 많았었다 어쨌다 하는데 그거는 다 그렇게 만들은 거지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악밖에 안 남았었고 그야말로 죽는 게 이것보다 더하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범죄가 늘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배는 고프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거고, 서울로 마땅히 출퇴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영업하는 시영버스라고 있었어요. 그때 그 많은 인구들을 놓고 한 시간에 한 대인가 이렇게 다녔으니까. 버스를 못 타서 출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또는 엄두가 안 나서 뭐 아예 나갈 생각을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먹을 게 뭐 있겠어요? 남한산성으로 올라가야지.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칡뿌리 캐서 먹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남한산성이 지금 은행동 쪽에서 이렇게 보면, 그 꼭대기 아래쪽에는 완전히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다 사람들이 파헤쳐가지고. 그러니까 소나무 껍질이고 뭐고 사람이 씹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서울로의 출퇴근을 위해 을지로5가까지 운행됐던 서울 시영버스(1971)

먹었으니까. 소나무를 벗기면 빨간 게 나와요. 빨간 거 그 속에 하얀 게 있고 하얀 막 그것을 벗겨 내야만 나무가 나와요. 하얀 거 그것을 씹으면 달짝지근해요. 그것을 갖다가 계속 씹어 먹고 삶아먹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물이라는 '나'자는 찾을 수가 없고 아예 그냥 뭐 나무까지 다 벗겨 먹었으니까 풀 자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다버린 사람은 잊어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한두 달 두어 달 지났나, 도저히 못살겠다고 저희 아버님께서 구청을 쫓아가셔서 억지로 뺏어오다시피 싸움박질 해 가지고 갖고 온 게 세대 당 쌀 두 되인가 세 되, 그다음에 솥단지가 없는 사람은 솥단지, 담요 한 장, 한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먹을거리 같으면 불과 이삼일거리, 그것만 가지고 들어왔지 국가 차원에

서 배급처럼 나눠준다, 이런 건 없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서울 정화 작업 한다는 식으로 해서 사람을 속여 가지고 쫓아 보내놓고 나 몰라라 하고 넘어져 버린 거고,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너네들 죽어라 하고 내다 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지나가면 잊어버리지만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마 69년도경인가 70년도경인가 그때 공단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방 공사라 그래 가지고 리어카에다가 흙을 담아가지고 갖다가 이쪽 산 깎아서 메꾸고, 사람이 삽으로 퍼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아마 일부 충당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제 나이보다도 훨씬 젊었을 텐데 저의 아버님이,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머리가 하얘가지고 할아버지 같은지, 완전 노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지방으로 다니면서 외판도 다니시고, 온갖 궂은일을

손수레를 이용한 은행2동 택지 조성 공사(1971)

다 하셨나 봐요. 그런 식으로 그냥 가족 부양하겠답시고 하셨지만 마땅하게 큰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형님은 서울에 아예 나가 있었고. 공장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때 분양이라는 거는 땅덩어리만, 그러니까 말뚝 박아 놓은 게 기준해서 20평, 사방 뭐 떼고 뭐 떼고 하면 십 한 육 평 정도. 성남시가 옛날 집이 거의 다 그렇듯이 십 한 오륙 평 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해놓고 추첨을 해 가지고 나눠줬는데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뭘로 집을 짓겠습니까? 하다못해 블록이라도 사 가지고 시멘트로 쌓아서 올려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데 그게 되느냐고요. 땅은 배정을 받았지만 텐트에 계속 산 거죠. 일부 사람들이 땅을 팔고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나간 사람들이 있었고, 그 땅을 사서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생활이 나으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짓기 시작한 거죠. 원래 있던 사람들은 집을 지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나중에야 물론 지었지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벌어가지고 먹고 살고, 블록 몇 장 사다가 올려놓고, 또 며칠 일 해가지고, 먹고 남는 거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서너 달 걸린 것 같아요. 조그만 그 열댓 평 올라가는데 다 우리 가족이 전부 만들었죠. 그 집을.

탄리 230에 48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희망대공원에서 직선으로 내려와서 제일국민학교가 있고 요 정도 모서리 부분 이 정도에 있었어요. 230에 48호 그러니까 성남시 탄리 230에 48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별 특별하게 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게 있다면 몸으로 뛰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생활이 좀 나은 편이고 우리 아버님같이 펜대를 잡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몸으로 뛰면 하다못해 뭐 블록이라도 쌓고 미장이라도 따라다니고 집 짓는 데라도 쫓아 다니지만, 저희 아버님은 그런 일은 전혀 못하시거든. 그래 가지고 더 힘들었던 거 같아요.

애 삶아 먹었다는 그 집을 가봤어요

자기가 낳은 애를 삶아 먹었다고 (소문이 난) 그 본인을 나는 직접 봤어요. 집 위치도 잘 알아요. 실제 그랬는지 내 눈으로 목격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그 옆에서 살았어요. 지금도 성남에 그 친구는 살아요. 팔각정, 그러니까 옛날 성남극장에서 팔각정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팔각정에서 더 올라가면 우

畸形都市

광주大

上下水道 아직 허술

우물을 食水로 사용

광주대단지의 참상을 고발한 한대희 기자의 당시 기사(『대한일보』 1971년 8월 3일, 한대희 제공)

측에 그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는 사실 몰라요. 어디 가니까 어떤 소문이 있더라, 어디가 어떻더라 한번 가볼래, 그렇게 하고 궁금해서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 집 확인도 하고 그 사람도 보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보지는 못하죠.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때 당시는 이삼 일 굶는 게 일도 아니었었으니까, 영양실조로 머리가 잠깐 돌지 않았었나, 안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정신이상이 아니었었나, 만약에 그랬다면 ……. 또는 뜬소문일 수도 있겠고. 정확한 근거는 없는 얘기니까. 그거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많이 죽은 것은 사실이에요. 수시로 보니까. 왜 죽었냐 하는 원인은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거기서 죽어서 나간 사람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게에다 지고 남한산성 가서 땅 파고 묻은 사람도 있고, 가마니에 둘둘 말아서 나간 사람들도 있고, 뭐 허술한 관이나마 만들어가지고 나간 집도 있고 다양하게 있었어요.

광주대단지 시위로 구속되다

광주대단지 사건 때 '청와대 가자'는 차에 타

그때 그 일[1]로 진실화해위원회(정식 명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2]에 서류를 넣었어요. 근데 반려가 된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맞은 사람이 없다 이거에요. 그럼 왜 그 사람들하고 나를 똑같이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세 파트 네 파트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단지 시위하다 잡혀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다. 그때 청와대로 간다고 뛰쳐나와 밀고 나온 사람들은 당시에 살아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못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담판을 짓자. 그래 가지고 청와대로 밀고 들어가려고 1차 저지선 수진리고개를 넘고, 2차 저지선 복정동사거리를 지나다가 경찰버스 다섯 대에 가로막혀 붙들렸는데. 어차피 청와대까지 갈 수는 없었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알려야만 되겠다, 나는 내 목숨을 걸었다, 그때 당시에는 말만 잘못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져버리는 세상이니까 나 같은 놈 파리 목숨이죠. 죽을 마음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별도의 심문을 받았기 때문에 고문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은 금시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서너 명은 똑같이 고문을 많이 받았어요. 한 10일, 11일 동안인가 고문을 받았으니까.

청와대로 가자는 차 안에 탄 사람들만 같은 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매를 맞았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따귀나 몇 대 맞고 조인트나 몇 대 까이고 말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르죠. 너네들 중에 간첩이 섞여 있다 그거에요. 우리같이 어린놈이 무슨 간첩입니까? 거기서 11일 동안 하루에 두 번씩 끌려 나가서 맞았어요. 고문을 당하고 뭐 손가락에 볼펜 껴서 잡

1) 19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구속된 일을 말한다.

2) 구술자는 2002년 6월 23일 당시 하동근 성남문화연구소장, 이재명 변호사, 김광수 목사 등과 함께 광주대단지 사건의 진상 규명 신청서를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성남 시민에 대한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사과, 당시 구속된 22명의 고문조작 사실 규명, 당시 언론에 '난동'으로 표현된 사건의 성격을 '정당한 민중 생존권 투쟁'으로 재규정, 성남 구도심 재개발 지원 등을 요구했다.

빗속의 對峙 5시간
傳單돌리고 住民대회
過熱群衆에 무법天地
팽창 못따라간 성급한建設
失業者 늘고 生活대책 없어
環境없는滿員 廣州단지
주간女性

광주대단지 사건 신문 기사(『한국일보』 1971년 8월 11일)

아 비틀고 곤봉 끼어서 위에서 잡아 누르고 팔 뒤로 묶어 가지고 비틀어서 올리고, 별 고문을 다 받아봤어요. 한번 나가면 걸어서 제대로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2개월이나 한 달 정도 면회를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온몸에 멍이 들어 시퍼레 가지고 면회 시킬 수가 없죠. 물론 그러고 싶었던 게 아니라 군중 심리나 이런 것 때문에 젊은 혈기로 움직인 거지만.

사건 결과로 성남시 좋아져, 구속자들만 희생

그날도 서울시장이 온다고 그랬었습니다, 그쪽으로. 옛날 출장소 그러니까 성남 지금 시청 자리죠. 그랬었는데 10시에 오기로 해 가지고 11시가 다 돼도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얘기가 오가냐 하면은 뭐 차가 막혀서 못 왔느니, 펑크가 나서 못 왔느니,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 서울시장 차가 막히고 펑크가 나서 못 온다는 게 이유가 됩니까? 거기서 군중 심리로 일어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출장소 쪽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났었고, 그 바람에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

광주대단지 시위로 불타고 있는 자동차(1971)

한 거죠. 비가 이슬비식으로 부슬부슬 왔어요. 많이 오지는 않고 가랑비 이슬비 정도로 왔어요. 서울시 추산으로는 3만 정도로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5만에서 6만 이상은 모이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팔각정 있는 그 건너편에 사람이 빼꼼한 데가 없이 다 찼으니까. 그 앞산, 건너 동산, 지금의 구시청에서 본길 건너 언덕바지에 전부 사람들이 꽉 찼으니까.

그 시장이 양택식씨인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좌우지간 안 왔어요. 그래서 원인은 그쪽에서 제공을 한 거고. 그런데 그게 단지 그 한 사람이 한번 안 왔다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될 수 없거든요. 여태까지 쌓였던 울분이 터진 거지. 그 사람이 안 와서 이렇게 됐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요새는 이상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그래 가지고 나가는 길에 참외 싣고 가는 차에 사람들이 올라가 참외 다 던져서 먹고, 배고프니까. 그게 어디냐 하면 태평사거리에서 복정동 쪽 올라가다 보면 경찰서 있죠. 거기 막 못 미처서예요. 참외 실은 트럭이 쏟아졌던 데가 거기예요. 진짜 보는 사람 안보는 사람 다 주워 먹었죠. 당장 배는 고프고. 범죄라고 생각하고 먹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나쁜 짓은 나쁜 짓이지만 남의 물건인데. 그걸 보고서 나간 거고 거기서 복정동에서 검거가 된 거죠.

경찰들이 인주를 손에다 묻혀 가지고 다녔어요. 이렇게 묻혀 가지고 다니다가 좀 심하게 나대는 애들 뒤에다가 똑똑 찍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뿔뿔이 흩어진 뒤에 심한 애들은 건조물 방화라든지 자동차 방화라든지 그렇게 해서 검거된 것으

로 알고 있어요. 검거되고 8월 21일인가 22일인가 구치소에 넘어갔어요. 구속이 된 거죠. 거의 다 당일 검거됐어요. 일부 빼놓고는 최소한도 열댓 명은 될 것 같은데요. 왜냐 그러면 그때 검거된 사람들이 광주경찰서로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유치장 안에서 본 게 열 명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 그래 가지고 나중에 안 거지만, 뭐 면회를 왔다가 못하고 갔다, 또는 성남시에서 제일시장 자리를 하나씩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이 사람들 생활고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간에 결과는 좋았어요. 박 대통령이 무조건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줘라, 그렇게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우리(구속자)한테 돌아오는 거는 일체 못하게 막았어요. 국가에서도 다 막았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희생만 하고 말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성남시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에요.

구치소에서는 동정, 변호사는 국선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가 너 여기까지만 했다고 그래라, 그러면 안 때릴게.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그런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불을 안 지른 것을 왜 질렀다고 해야 되느냐, 난 아니다, 아무것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공무집행 방해, 그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다른 것은 인정을 못하겠다, 한 게 없는 것을 왜 나보고 인정을 하라고 그러느냐? 그럼 한 가지만 더하래요. 못하겠다고. 다섯 가지가 나왔어요. 죄명이, 건조물 방화, 자동차 방화, 또 집시법, 특수공무 방해, 또 하나, 하여튼 죄명이 다섯 가지였어요. 인주 찍혀 가지고 검거된 애들은 걔네들은 빼도 박도 못하고 실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3년씩인가 두어 명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무죄 받은 애도 아마 한 두어 명 정도로 알고 있고. 저는 6월에 1년 집행 유예 받았어요. 주민등록상으로는 1년이 늦어서 만 20세가 안 됐을 때죠. 서류상으로는 19세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죽는 것도 참 많이 보고, 사형장 바로 앞에 내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언젠가 사형수들이 한꺼번에 열 몇 명인가 스물 몇 명인가, 무슨 간첩단인가 해 가지고 한꺼번에 죽은 일이 있었어요. 사형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보고, 그 벽에 옛날에 독립군이 긁어놓은 그런 것도 보면 눈물 많이 나고, 참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고문을 받았을 것이고 고생을 했을

광주대단지 사건 선고 공판(197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것이냐 ……. 지금도 조금 억울한 게 진실화해위원회 거기서 똑같이 취급을 해 버리고 나머지는 근거가 없다, 너네들이 알아갖고 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개인이 어떻게 40년이 된 것을 무슨 수로 어디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들이밉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구치소에서는 동정심이 먼저였죠. 이놈들한테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들 다들 얘기 했었으니까. 나이도 어리겠다, 젊은 혈기로 했겠다, 또 나쁜 짓 하고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평은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밖에서 구명 활동을 했는데 무산이 됐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전성천 목사님인가? 뭐 그분하고 돌아다니며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랬나 보다, 보지도 못했고 그냥 듣기만 했었으니까. 야당은 뭘 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기준씨던가? 국회의원인지 누군지 몰라도 집에다 쌀을 한 말인가 한 가마인가 갖다 줬대요. 그건 한 번 받은 적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그 외에는 뭐 그리고 변호사는 없었어요. 국선 변호사밖에 없었어요. 한 두어 달 지나서 면회가 허락이 돼 가지고 왔다 갔었죠, 가족들이 워낙 오기도 나쁘고 하니까 교통편도 안 좋고 또 생활고에 시달리고 하니까 자주 못 왔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아마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성남을 떠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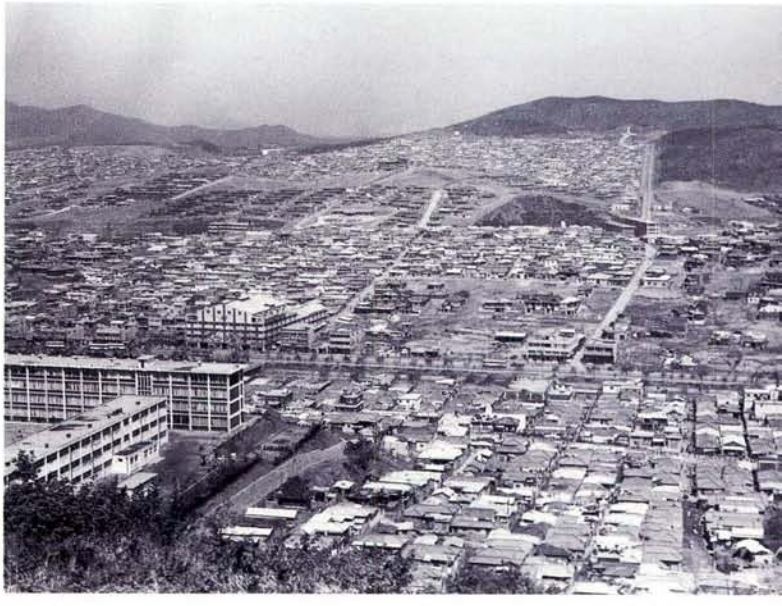
군대 갔다 온 뒤 혼자만 성남에서 나와

171일 살다가 나왔어요. 72년 1월에 나오니까 집들이 우선 많이 들어찼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살기는 나아진 것 같았어요. 눈으로 보기에도. 불과 6개월 남짓밖에 안 됐는데 조금 달라지긴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 혼자서 그냥, 나의 조그만 희생이라도 들어가서 이렇게라도 됐으면 다행이다,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서 왔다 갔다 했죠. 박 대통령이 뭐든지 요구 조건을 들어줘라 해가지고 시정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6개월 동안 나오지도 못하면서 다 들은 것은 아니지만 주위에서 듣기로. 그런데 눈에 보기에 좋아졌다는 것이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공단이 조금 올라간 것하고 공장이 한두 개인가, 천지산업인가 한 두어 개 가동이 됐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성남시 사람들을 그쪽으로 취업을 앞으로 많이 시킬 것이다, 그래서 생활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죠.

그리고 12월에 바로 군에 끌려갔죠. 하루는 어디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둘이 붙잡더라고요. 뭐냐고 그러니까 관할 경찰서 형사들이래요. 성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백씨는 분명히 기억을 해요. 머리형도 기억이 나. 스포츠머리하고 백 누구누구 또 누구인데. 어디 가려고 그러네요. 아, 어디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형 다 받고 나온 사람이라고. 당신 뒤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해서 그럼 네가 알아서 하든가 더 캐든가. 그 뒤로 계속 따라 붙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왔을 때도 왔더라고요. 3년 후죠. 그때는 내가 34개월 20일인가 하고 나왔는데, 제대한 것을 알고 왔더라고요. 개한테 그렇게 고문을 당했어요. 백씨라고. 광주경찰서에서. 오죽하면 내가 나가면 너 죽이고 나 죽겠다 식으로 앙심을 품었으니까.

군대 생활은 말도 못했어요.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하도 많이 뛰고 그러니까. 양구로 떨어지고 교육이 하도 세다 보니까. 거기서 동방사라는 데를 지원을 했어요. 동해방위사령부, 그때 막 창설할 때인데 엉뚱하게 홍천으로 떨어져가지고, 11사단이라고 아는 사람만 알 거예요. 1년이면 8개월을 게릴라처럼 밖에만 가서 사는 부

대가 있어요. 거기 가 가지고 3년 동안 죽다 살아서 나왔죠. 휴가는 두 번밖에 못 나왔어요. 포상휴가 한 번 나오고. 휴가 나와서 좀 달라졌구나, 좀 번화해졌구나 생각했어요. 번화해졌다는 게 술집 많이 생기고, 거의 유흥업소들이 많이 생겼다. 특별히 다른 거보다는. 그래서 도저히 살 데가 못 된다 여기는, 그리고 있고 싶지도 않은 곳이다, 나갔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제대하고 나왔어요. 76년에 제대하고 여건이 되면 떠나야 되겠다, 기억도 싫고 있는 것도 싫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집 하나를 내버리고 서울 나가면 진짜 전세도 못 얻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다음 해인가 나 혼자만 나간 것 같아요. 가족들은 그냥 계시고. 혼자만 나가 살다가, 그리고 우선 제대하고 나와서도 형사가 쫓아 다니는데 귀찮아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77년도인가 나온 것 같네요.



이미 많은 건물이 들어선 본시가지(1972)

알루미늄 창호 일 배워 2만 원으로 사업 시작

알루미늄 창호, 그때 아파트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걸 국내에서 내가 몇 번째로 빨리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배우기를 그걸로 배워 아파트에 뛰어들은 거죠. 성남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몇 달 안 돼서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잠실 5단지 할 때네요. 그래 가지고 좀 크게 성공을 했어요. 1년 몇 개월 만에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주택공사에 거의 독점 납품을 하다시피 했어요. 군대에서 병장 월급이 600원이었는데 그거 모은 거하고 뭐하고 해서 하여튼 2만 원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성남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남에 태권도 하면 유명하잖아요. 친구들이 태권도 쪽에 전부 진을 치고 있어서 급하면 그 후배들을 막 10명씩 이렇게 불러 하

루 일 시키고 그다음 날 다른 애들 시키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 적도 있었죠.

제가 아파트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최고 큰 게 아파트니까, 한양1차서부터 현대 4, 5, 6, 7, 8, 9차까지 하고 뭐 개나리, 진달래, 도곡동 이쪽이 거의 다 내 손 안 거친 데가 없었으니까, 아마 그때 당시 내 나이로는 최고 많이 하지 않았나 싶어요. 금호백화점이라고 오픈했었는데 거기에 가게 두 개도 사고, 성남은 성남대로 알루미늄 공장을 하나 만들고, 택시 운수 사업도 하고, 나이 서른도 안 돼 가지고 성공을 한 거죠.

눈썰미는 좋았나 봐요. 도면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금방 이해가 빨랐고. 그쪽 회사에서도 나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려고 그랬고. 어떻게 밀은 게 우이동에 그린파크라고 있어요. 그걸 하라고 해서 증축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을 하고 다른 것을 찾다가 없어서 모험을 한번 해본다고 1092세대짜리 청아기업 청실아파트, 그때 당시에 대단지였어요, 천 세대가 넘는 그것을 하라고 그래서, 나 이것 못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해보래. 하루에 잠 두 시간 잤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졸아가면서 손등도 찧고 그러면서 혼자서 그다음 날 할 것 준비 해놓고 나오면 같이 일하고 이게 3개월쯤 되니까 그때 당시 첫 수입이 170만 원이더라고요. 30년 전에 170만 원이었으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그때부터 돈이 벌리기 시작하더라고. 그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현대에서 부르고 삼호에서 부르고 한양에서 부르고 막 서로 해달라고 난리가 난 거죠. 그 바람에 한꺼번에 걸린 게 보통 3000세대, 4000세대씩 걸렸으니까.

그러면서 성남에는 자주 왔다 갔다 했죠. 거기서는 아마 집 팔고 나온 게 한 80년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79년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아마 그때 팔고 나오신 것 같아요. 여동생은 거기서 그냥 있었죠. 지 작은 오빠가 거기 있었으니까, 거기서 같이 있고, 결혼해 나왔으니까. 남동생 하나 하고 여동생은 성남에 살고 형님은 바로 나오셨고 나는 따로 나와 있었고 잠실에서 생활했었어요. 잠실에 장미아파트에 있었고. 혼자 있었어요. 거기서는.

학교 관두고 동생들 뒷바라지

남동생은 성남에서 서울공고를 다녔었죠. 전쟁 치르는 거죠, 완전히 학교 다니

는 게. 거기서 학교 나가려면, 서울공고까지 갈려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천호동 나가는 길만 해도 비포장도로 덜컹거리는 데다가 몇 번 갈아타고 왔다 갔다 하니 애가 파김치가 되지, 갔다 오면. 근데 걔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편하게 지낸 편이죠. 그래도. 당시에는 인문 쪽보다는 서울공고를 알아줬으니까 최고의 수재들이라고 봐야지요. 대학은 나중에 나왔지만은 대학도 성남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건대를 다녔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지금 동서울대학인가요? 거기에 교수가 되겠다고 아마 조교로 들어갔었어요! 차라리 너는 그게 제일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말했었는데 내가 그냥 끌고 와버렸지. 그냥 놔둘 걸. 내가 사업한다고 꼬드겨가지고 좀 도와주라고 해 가지고 데리고 나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여동생은 국민학교 다니다가 성남으로 가면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못 다녔는데 저 나름대로 그 애가 좀 똑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장 비서도 하고 종합시장에서 경리도 했었고 중앙극장 경리도 봤었고, 거기서 왔다 갔다 했죠. 어차피 그쪽에는 거의 토박이다시피 하니까, 68년 9년이면 거의 토박이다시피, 전부 바닥부터 시작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알죠. 시장 비서 한 것은 81, 2년 정도 됐나 보네요. 당시 시장은 누구라는 것은 모르겠고 그것도 동생한테 얘기 들어서, 시장이 오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오빠. 걔는 필체도 좋고 여러 가지로 노력파니까 서로 데려가려고 하긴 했었죠. 학교는 검정고시 봐서 고등학교까지. 지금은 벌써 저 세상 간 지가 10여 년 가까이 되네요. 결혼을 잘했는데 나중에 뭐 몹쓸 병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저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동생보다도 네가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네가 공부해 가지고 동생을 네가 건사를 해라. 나는 바깥에다가 집어 던져도 살 수가 있지만 동생이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래서 물가에 내놓은 애들 같았어요. 불과 세 살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네가 배워라. 그렇게 했었던 거. 그 뒤로는 시간이 없었어요. 진짜 숨 쉴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만큼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뭐 이것저것 돌아볼 시간도 없이 살았어요. 결혼도 말이 결혼이지, 결혼식도 못하고 살다가 그냥 나중에 하고 이런 식으로. 돈이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좌우간. 결혼은 처가 쪽에서 소개를 했어요. 처가 쪽이 꽤 고관인데 그쪽에서 나를 보고 조카를 소개해준 거죠. 80년도에 결혼했죠. 근데 애가 조금 늦었죠. 서른다섯에 낳았으니까. 애 하나 낳고 그때 당시에는, 참 나도 바보인지 멍청한 건지, 국가에서 장려책이다

해 가지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럴 때가 있었거든. 하나만 낳고 만 것이 아주 후회가 막심해요.

사업 실패 후 직종 바꿔 동생과 동업

사업하다가 80년도인가 2차 유류 파동 때 한 번, 아이엠에프 바람에 또 한 번 ……. 그때, 에이 다 잃어봐야 돈 2만 원 갖고 시작했는데, 젊은 기분에 …….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는 다시 사업 일으키겠다고 그냥 동분서주 했죠. 그런데 한 번은 했는데, 두 번 일어날 때가 힘들었어요. 근데 운이 좋게 두 번이 걸렸었는데, 그때 그것을 계속 했어야 되는 것을 내가 던져 버리고 말았지요. 여기서 아파트 조그마한 것 하나만 건져가지고 손 털겠다 해가지고, 일 년 만에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 값을 벌어 다시 손을 털어 버린 거예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걸 바꾼 게 잘못인 것 같아요.

지금은 동생하고 070 전화기, 그거 만들고 있어요. 한 1년 반쯤 됐나요. 바로 밑에 동생이 지금 여기 사장이에요. 동생이 어차피 공과 계통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저는 이쪽에는 완전히 문외한이니까. 사업하던 게 한 번 되게 안 좋아진 다음에는 만사가 싫더라고. 뭐든 의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는 잃어버려야 2만 원인데, 다시 하면 되겠지 했는데 막상 손을 털고 보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아쉬워하는 게, 젊은 혈기로 모든 것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는데 이제는 늦어버린 거지, 이제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자꾸 자신을 잃어 가더라고요. 진짜 내가 굉장히 몸도 튼튼하고 뭘 해서도 누구한테 안 진다고 했었는데 한순간에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건강은 그 누구도 장담할 것은 못 되는구나 ……. 내가 이렇게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될 줄 우리 친구들도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담배 10년 전에 끊었죠. 술 거의 안 먹다시피 하죠. 운동 좋아하죠. 나는 걸릴 이유가 없어요. 건강밖에 가진 게 없었는데 제일 먼저 아파버리니까. 지금도 일 년이면 두세 번은 병원에 입원했다 나와야 되요.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몸짓

2001년 진실화해위원회에 광주대단지 사건 접수

케이블 방송을 듣다 보니까 광주대단지 어쩌고저쩌고 하기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들어 봤더니 그때 당시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해요. 전화를 바로 했죠. 당신이 뭔데 뭘 안다고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나는 당신 모른다. 그래도 어쨌든 주역들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나 김철이라는 사람이다, 본인이다, 당사자다, 그러니까 만나자, 그래서 만나게 된 거죠.[3] 그래서 종합시장 뒤쪽에 있는 찻집에서 만나가지고, 그때가 바로 30주년[4] 인가 그때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씨한테서 전화가 온 거죠. 자기는 변호사 누구라 그래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어찌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서류 준비를 자기가 할 테니까, 진실화해위원회에 가서 같이 가서 도장도 찍고 하자. 그래서 충정로에서 만나가지고 서류를 접수하게 된 거죠. 당사자는 저 혼자만 갔어요. 그때 당시는 아무도 못 찾았었나 봐요. 찾을 수가 없대요. 그동안 두어 명 찾은 모양인데. 그래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면 나야 좋지요. 우리야 참 진짜 고생했던 사람들 하다못해 빚이라도 발할 수 있게끔, 보람이라도 있게끔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참여연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자회견 한 번 했었어요. 지금 뭐 인터넷에 사진 같은 거 다 있겠네. 그리고 KBS인지 MBC인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하러 왔기에 그러면 내 재판 기록을 가지고 와라, 나도 없으니까 찾아와라, 그러면 인터뷰 응하겠다, 그래 가지고 테이프를 받은 게 있어요. 흑백 티브이로 무성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동시 녹음이 없었으니까. 그 테이프를 내가 여태 갖고 있어요. 흑백으로 재판 받았던 기록을 찍은 것을. 근데 음성이 없어요.

---

3) 당시 하동근 성남문화연구소장이 아름방송에 나와 광주대단지 시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연락을 취하였다.

4) 1971년 8월 10일 사건 발생일로부터 30년째가 되는 2001년이다.

광주대단지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2006, 출처 『성남투데이』)

이제 와서 다시 재조명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뭐 이런 걸 새삼스럽게 들추려고 그러느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같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재조명 해가지고 국가 차원이 아니더라도 성남시 차원에서 뭔가 이 사람들한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30주년 때 중앙로 그쪽에다가 기념비를 하나 세워가지고 뒤에다 이름 써놓고 이런 제의까지 했었는데 모든 게 다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더라고요. 그때 당시뿐이지. 지나니까 흐지부지. 나도 이제 질려버린 게 이런 식으로 인터뷰한 게 열 번이 넘습니다. 구술자 각 신문사, KBS, MBC, SBS 뭐 안 한데 없어요. 거의 다 했어요. 하다못해 손석희, 그 뭡니까, 아침에 시선집중 거기서도 8분 동안인가, 단독 인터뷰도 하고. '지금은 말할 수 있다'도 나왔네요. 그때는 실컷 찍어놓고 불과 일이 분 나왔나! 그러고 말아버리고. 30주년 때 국회의원, 시의원 많이 왔었어요. 당시에는 명함을 주고 앞으로 어쩌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란 얘기죠. 자기들 라이트 한 번 더 받고 녹화 한 번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지나니까 끝나버리더라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나도 회의도 느껴지고, 어휴 들러리를 내가 뭐 하러 서러 다니냐, 이런 생각 밖에 안 들게 된 거죠.

그런 세상 다시 오면 안 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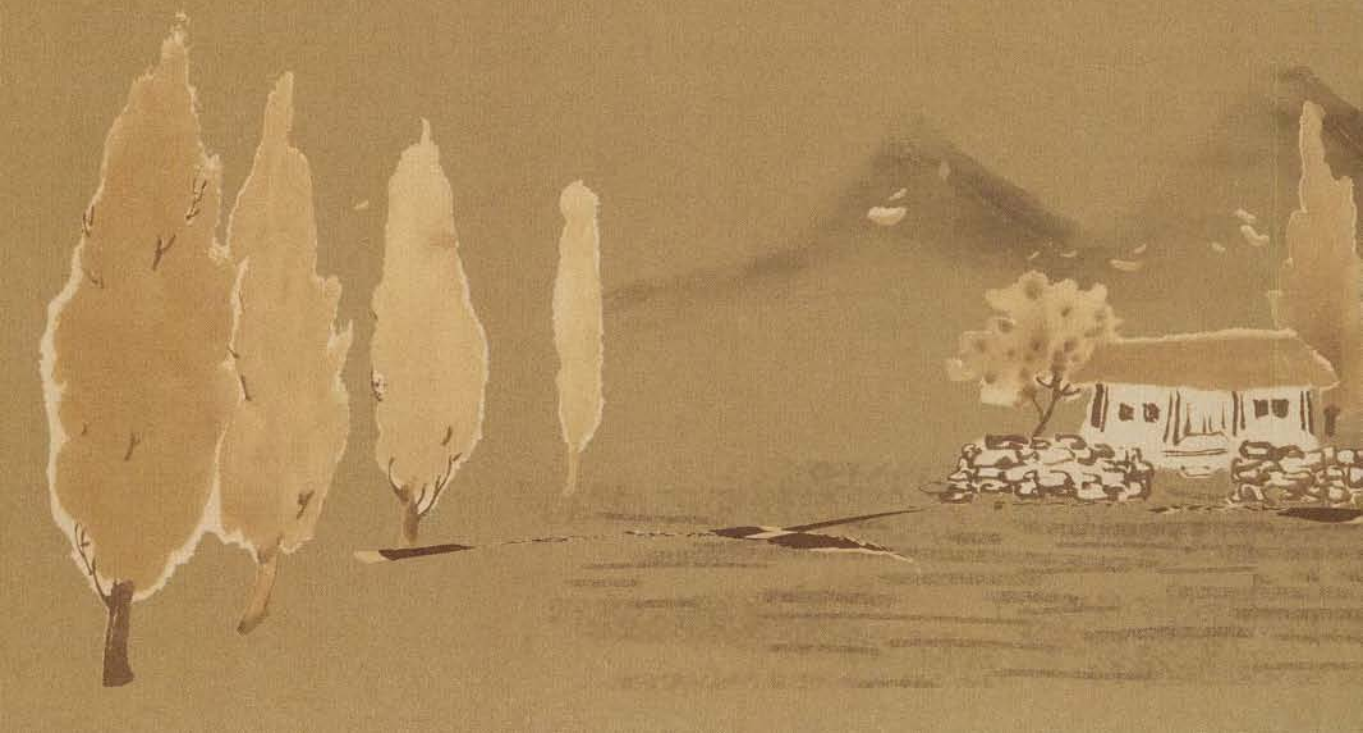
그때 일을 집에는 결혼하고 한 몇 년 지나서 얘기했어요. 미화를 조금 시켰지요. 부부지간에 숨기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건 내가 도둑질이나 강도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숨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일부러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말을 어떻게 내느냐가 그게 시간이 걸렸었던 거지. 일부러 숨기려고 해서 숨기고 그랬던 것은 아닌 거예요.

어머니가 88세신데 장애인이에요. 한쪽 다리가 없으세요. 골수암 걸려서 절단을 했어요. 근데 그 독한 약을 그렇게 드시고도 아직도 정정하게 살아 계세요. 저하고 같이 계시는데 밥도 다 하세요. 못 하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제가 좀 도와드릴 것만 도와드리고 뭐 사다 갖다 드리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갖다 드리고 치다꺼리는 해 드리지만 집에서 하시는 것은 다 하세요. 어머니한테는 그냥 지나가다가 재수 없어서 붙잡혔다고 그랬죠. 부모님들에게 걱정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아직도. 지나가다가 운 없어가지고 형사가 뒤에서 낚아채갔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에 대해서는, 그 시절, 또 오지 말아야지, 그렇게 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세상 다시 오면 안 된다고. 그게 개, 돼지보다 못한 생활이지 사람 사는 거냐고. 아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3장
성남의 문인들

김건중 소설가 · 한국작가회 회장

성남의 문인은 300여 명이 넘는다. 현재 거주하는 문인과 얼마간 살다가 떠난 문인, 그리고 작고 문인까지 합하면 꽤 많은 셈이다. 여기에서는 성남 문학의 초석이 되었던 초창기 문인이거나 또는 문학적으로 큰 영향을 준 30명의 문인을 선정하여 기술한다.



시인

홍완기는 순수한 시인, 가난하지만 올곧고 시 의식이 번득이는 시인, 이렇게 불러야 옳을 것 같다.

『사상계』 신인상으로 등단한 그는 늘 외롭고 가난한 길을 천형처럼 안고 살아갔다. 온종일 중원구 은행동 자택의 어두운 방에서 조그만 형광등 스탠드 불빛으로 책을 보고 시를 쓰는 반복된 생활, 외출이라고는 집에서 가까운 남한산성유원지 입구로 올라가는 약수터에 가서 약수 물이나 길어오거나 구멍가게에 가서 소주 한 병 사오는 정도였다. 어찌 보면 한심스럽게 보일 수 있으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 책 속에 있는 넓은 세상과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 속에서 교류하고 보다 좋은 시를 쓰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문인이었다. 어린 시절 사과 한 개를 훔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못내 양심에 걸린다며 고백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양심이 깨끗한 시인이었다. 가끔 후진들에게 '개똥은 혹 약에라도 쓸지 모르지만 잘못된 시는 어디에도 쓸데가 없다'는 소릴 할 정도로 시에 관해서는 엄격한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적 측면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세상 물정을 몰라 기만원의 원고료가 생기면 아주 큰돈이라는 생각을 갖는 시인이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이런 시인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시인이다. 그의 시 작품 또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수준이 높았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상화 문학상'을 수상했다. 4권의 시집을 출간해도 작품만 보라는 의미인지 이름이외 그 어떤 약력 따위도 표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 없이 맑은 영혼이 흐르는 시인이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세상과 타협 없이 살다보니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남 문인의 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재범은 성남초등학교 교사 시절 성남문인협회(약칭, 성남문협) 창립 회원으로 문단에 몸담기 시작하여 작고 시까지 성남문협을 지킨 문인이다. 물론 중앙 문단에 충분이 등단할 실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사양했다.

상품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까지만 해도 작품을 써서 『성남문학』에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1973년에 작사한 「성남시민의 노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성남시에

서 영원히 불러질 노래이며 그를 대표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1983년부터 1986년 봄까지 성남문협 지부장을 맡았지만 이끌 수 없었던 일이다. 이미 파벌로 얼룩져 있던 성남문협은 온유하고 합리적인 그의 성품으로서도 이를 수습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1985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성남지회(약칭, 성남예총) 창립에 성남문협을 참여시켜 성남의 문화예술에 초석을 쌓은 일에 한몫을 했다. 특히 권기홍과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가까웠으며 그 또한 술을 즐겼다. 그것이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말년에 중풍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것은 안쓰러운 일이다.

김병학은 별명이 꽁치다. 이 별명은 등단 작품이 꽁치였는데 생긴 모습도 담배에 찌든 검은 얼굴에 바싹 마른 그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시와 의식』을 통해 등단했고 다시 『현대문학』으로 추천 완료되어 '응시동인'으로 활동한 시인이다.

전문 잡지사의 편집국 근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술을 가까이 하게 했으며 박봉에 시달린 생활을 했다. 어느 날 나와 다방에 갔을 때 "이 사람은 소설가고 나는 시인입니다"라고 쓸데없이 신분을 밝혔다. 그만큼 스스로 시인임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물론 그의 시 속에는 삶이 녹아 있고 그 나름대로의 시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으니 그의 어설픈 사회생활이 그나마 시로 인해 덮어졌다. 그런 어느 날 단대동에서 살던 그가 홀연히 떠나 서울 변두리 대학가에서 헌책방을 하며 살아간 것이다. 그러나 얼마 안 돼 세상을 멀리했다는 소리가 들려 그를 아는 문인들은 모두 가슴 아파하며 인생의 허무함을 새삼 느꼈다. 그러나 그는 시를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았고, 성남 초창기 문학을 위해 나름대로 무던히 애쓴 인물이다. 우리는 그가 꽁치처럼 날렵한 몸매로 성남 문학을 위해 활동해주길 바랐지만 그건 한낱 바람일 뿐 그는 서너 권의 시집과 함께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갔다.

조윤제는 문학 단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 부족인데 이 문제를 해결한 장본인이다. 성남상공회의소에 근무하며 관내 기업과 유대 관계가 있어 이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1978년부터 1980년까지 성남문협 제4대 지부장을 맡으며 당시 사무실이 없는 성남문협 사무실을 상공회의소 내에 일시적이나마 마련했다. 또한 성남문협 기관지 『성남문예』를 연 2회 발간할 정도로 활성화시켰다. 소극적이고 안일한 문학 활동을 하던 성남문협을 역동적으로 활성화시켰다. 그는 시와 수필 장르를 넘나들며 작품을 썼다. 특히 2004년 전 5권으로 발간된 『성남시사』를 편찬하여 성남시에 커다란 역사 자료를 남기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문학에 애정이 깊어 1980년 성남문협 지부장 재직 시 '성남문학상'을 제정하여 지

제17회 성남문학상 시상식(1998.12)

역 문인들에게 창작 의욕을 고취시켰고, 긍정적 시각으로 후진들의 문학 활동을 지켜보며 오늘의 성남 문학을 발전시키는 데 한 몫을 했다. 이런 모든 것이 그에게 '성남시문화상'을 수상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장렬은 정이 많고 눈물이 많은 시인이다. 1979년 『시문학』 추천으로 등단했다가 몇 년 후 『월간문학』에 시가 당선되어 재등단했다. 당시 한국 문단에서 한국문인협회(약칭, 한국문협) 회원이 되기 힘든 상황을 잘 대변해 주는 일이기도 하다.

여성보다도 더 섬세한 감성을 지닌 그는 늘 고독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조그만 일에도 놀라고 낙엽을 보며 시울을 붉히는 사람이었다. 명절이면 두고 온 북녘 고향 평안북도 용천을 생각하며 어김없이 임진각을 찾아 마음을 달래곤 했다. 그의 시는 꽃을 주제로 한 연작시가 대부분이다. 꽃 속에 살아온 삶의 노래를 담았다. 그래서 사랑과 애잔함을 담은 연정 시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시인 장렬의 특유한 정서이자 시적 의식이다. 그리고 문학 열정과는 달리 1986년 봄 제7대 성남문협 지부장에 선출되었으나 해체 위기에 있던 성남문협을 추스르기에는 역부족으로 8개월 만에 스스로 사임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서너 권의 시집과 '미래시' 동인을 통해 폭 넓게 창작 활동에 임했다. 아쉬운 것은 두 딸을 모두 외국으로 출가시킨 데다 아내까지 먼 세상으로 보내놓고 원주 문막에서 쓸쓸히 외로운 노후 생활을 하고 있다.

최석운은 학구적이고 주지적인 시를 추구하며 순수시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넘치

는 시인이다. 1980년 초반에 『시문학』 추천으로 등단하여 기대를 모았던 문인이다.

특히 성남문협 제3대 지부장이었던 이재녕 시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시인으로 초창기 성남문협의 중심 구성원이었다. 장렬 시인과 함께 '싸리문' 동인을 결성하여 성남 시詩 문학의 중흥을 꾀하기도 했었다. 병원 병리사인 그는 병리검사실에서 현미경을 보면서도 옆에는 시집이나 문학 서적이 놓여 있었다. 가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삶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그도 이런 벽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는지 잠시 문학을 떠나 사업에 손을 댔다. 그 후부터 점점 문학과 멀어져 사업가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게 되었고, 아직도 문학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언제인가는 다시 문학으로 돌아오겠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믿고 싶다. 그의 번뜩이는 지성과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순수성과 인간미 넘치는 정이 살아있는 한 그는 반드시 문학으로 회귀하리라고 생각한다. 그와 커피라도 한잔 나누면 그가 얼마나 진지하고 원초적 인간의 순수성을 지녔는가를 단박에 느낄 수 있다. 그것이 최석운 시인의 매력인 것이다.

이광우는 ROTC 출신의 중위로 예편한 총각 회원으로 시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젊은이였다. 활판인쇄 시절이라 개인 저서를 발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또한 등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집 『빛 모음』을 출간하기도 했다.

호남형의 미남으로 서글서글한 성품을 지닌 그는 회원 간의 화합에도 앞장섰으며 늘 성남문협을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움직였다. 문학의 열정처럼 그 열정이 한 여인에게 쏠려 연정 서간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또한 활판인쇄 시대가 사라지며 사식출판 시대로 탈바꿈 될 즈음 '예시사랑'이라는 출판사를 차렸다. 성남문협도 이런 기류에 따라 활성화되고 회원들의 개인 저서 출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생각과는 달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은 무슨 연유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즈막 파벌로 성남문협의 결속이 깨지고 해체 위기에 직면했던 시기라 그러했다고 짐작된다. 그도 1984년 그즈음에 소리 소문 없이 성남문협을 떠나 종적을 감춰 버렸다. 그것은 그리움을 남긴 큰 손실이기도 하다.

배정웅은 성남문협 제2대 지부장을 지낸 문인이다. 성남문협 창립에 합류한 것은 당시 성남에 등단 문인이 두세 명 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등단 시인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와는 절친한 친구인 신세훈 시인이 성남문협과 인연을 갖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의 큰 업적은 『성남문예』(현 『성남문학』)를 창간한 일이다. 현재 『성남문학』은 36호까지 발간되었으니 그의 시작이 이루어낸 결과이기

도 하다. 1994년 해외 문학인대회가 한국문협 주최로 서울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파라과이에 있던 그가 대회 참가 차 왔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성남문협 향수에 젖기도 했다. 이런 시인이 성남문협에 남아 있었다면 성남문협은 더욱 큰 발전을 했으리라는 아쉬움을 갖는다. 현재는 미국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교포 문인들로 구성된 문학 단체의 수장이 되어 문학 활동을 하고 있다.

문정배는 경찰관 출신 문인이다. 잘생긴 미남형의 얼굴에 술이라도 한잔 들어가면 구성진 트로트 유행가를 곧잘 부르는 사람이다.

장렬, 최석운 등과 '싸리문' 시 동인이다. 문학에 빠져 경찰관도 사직하고 전업 작가의 길을 가려고 했다. 그러나 문학계의 현실이 원고료로 그것도 시를 써서 생활한다는 것은 어림없는 얘기다. 뒤늦게 이런 현실을 깨닫고 출판사도 해보고 했으나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다. 얼마간 소식을 몰랐는데 정남진인 전남 장흥 고향으로 돌아갔고 언제부터인가 소설가로 변신하여 소설을 쓰고 있었다. 어쨌거나 그를 문인으로 만든 것은 성남문협이라는 생각이다.

현장송은 성남문협 창립 회원이다. 산성문학동우회를 김민광, 이석기 등과 조직하여 배정웅의 자문을 받기도 했다. 풍생중학교에서 미술 교사를 하며 시를 써 온 문인이다.

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며 늘 좋을 시를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학구파였다. 학교라는 울타리에 묶여 활동의 폭을 넓히지는 못했으나 향토 시인으로서의 몫을 다했다. 1987년 20대 젊은 문학도로 결성된 '문학시대' 동인의 모임에도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는 미래의 성남 문단을 이들이 계승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10년이 지나면서 성남 문단은 이들에 의해 새롭게 형성되어 갔다. 그만큼 그는 미래까지 생각하며 애정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문학에 대한 열정과는 달리 시집 두세 권을 출간하는 것 외에 큰 문학 활동의 영역을 넓히진 못했지만 향토 문학 발전에 초석을 쌓은 문인임에는 틀림없다.

한새빛은 조윤제 지부장이 성남상공회의소에 근무할 당시 사보에 응모하여 글이 게재되며 성남문협에 입회한 회원이었다.

1978년 당시 성남문협에는 여성 회원이 많지 않았다. 더구나 젊은 미혼 여성은 두세 명밖에 되지 않았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가냘퍼 보이는 체격에 이국적인 모습이 시선을 끌었다. 그녀가 입회하던 해 가을 종합시장 기업은행 지하에 있는 '기은다방'에서 성남문협 시화전이 열렸다. 「지혜로운 물가」라는 시가 그녀의 작품이었다. 여성 특유의 감성으로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성남문예』 4집과 6집에 작품

을 발표하며 결혼과 함께 떠났다. 그런데 떠난 지 16년이 지난 1996년 연어처럼 성남문협으로 돌아왔다. 그 후부터 정진하더니 곧바로 김건중 추천으로 중앙 문단에 등단하여 본격적으로 문학 활동과 창작 활동에 전념했다. 국제펜클럽 기획위원, 경기문협 기획실장을 거쳐 2007년 경기문인협회 회장에 당선되었다. 전국 15개 광역시·도 회장 중에서 최초의 여성 회장의 탄생이었다. 그 후 한국문인협회 이사, 계간 『한국작가』 상임 운영이사를 겸임하였다. 그녀는 창작 활동으로 개인 시집 4권을 출간하고 성남문학상, 경기도문학상과 여러 기관장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주어진 직책의 문학 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향토 문학과 한국 문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란희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호남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엘리트 시인이다. 1993년 성남문협에 입회하여 현재까지 지역 문단을 지키는 문인이다.

성격이 차분하고 침착하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특히나 성남문협의 일이라면 그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군소리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다. 또한 자존심이 강하며 그만큼 누구에게 결례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그간 지성으로 다져진 결과라 생각된다. 『한겨레문학』으로 등단했고, 시집 2권 출간과 함께 경기도문학상을 수상했고, 각 기관으로부터 예술 공로상을 받는 등 창작 활동과 문학 활동의 폭이 크다. 현재 경기도문인협회 수석부회장, 한국작가회 사무국장, 계간 『한국작가』 운영이사 등의 직책을 수행하며 성남은 물론 경기도와 나아가 한국 문학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특히 계간 『한국작가』에 연작 테마시 「생명」은 그녀의 대표작이 될 만하다. 그 시 속에 평소 지니고 있는 민주화 의식과 생명을 통한 삶의 의식이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녀 또한 고중일처럼 향토 문단을 지킬 지킴이가 될 수 있는 시인이다.

김한성은 원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다. 재미난 것은 서양화 동양화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잘 그리는 화가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 글씨까지도 잘 쓰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런 그가 시를 쓰니 그것 또한 보통 재주가 아닌 것이다. 젊은 나이에 대머리가 된 데다 웃는 모습이 어찌 보면 코미디언 고 이주일을 닮기도 했다. 사람이 좋다보니 누굴 만나도 싱그레 웃는 모습은 천진난만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림이며 글씨며 시를 써도 잘 쓰는데 가난이 문제였다. 미술학원도 얼마 가지 못했고 표구점도 마찬가지였으니 지켜보는 동료들도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런 그가 1980년 초 소리 없이 성남을 떠난 뒤 소식이 끊어졌다. 그러나 그도 초창기 성남문협에서 함

께했던 문인이다.

김비오는 천주교 신자로 심성이 여성처럼 고운 문인이다. 1978년부터 1980년까지 『성남문예』에 작품을 발표한 뒤 '싸리문' 동인 활동을 하며 성남문협과는 소원해졌다.

그는 낚시를 즐기며 직장인 신협에 충실한 생활인이었다. 용인 자연농원 후원에 있는 금어리에 싸리문 동인들과 낚시를 가면서도 여성처럼 얌전하게 앉아 낚시하는 모습을 보고 동인들이 "고기가 너를 잡겠다"고 농을 던질 정도였다. 어쨌거나 그도 시를 향한 문학적 열정도 불꽃처럼 타올랐던 문인으로 그런 열정이 지금의 성남 문학이 자리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는 생각이다.

방성운은 수정구 신흥1동 팔각정 부근의 단칸방에서 어렵게 살았던 시인이다. 공장에 다니면서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가게를 꾸려 나가면서도 문학지를 구독하며 시 공부에 매달렸던 사람이다.

얼굴에 웃음기는 없어도 늘 우수에 젖은 모습에서 빛나는 날카로운 눈빛은 그가 뭔가를 해낼 것 같은 느낌을 준다. 1978년과 1979년 잠시 성남문협에 머물다 어디론가 떠나 소식이 끊어졌다. 그런데 20년이 훌쩍 지난 2002년 경기도문인협회 해변 시 낭송 모임에서 구리 대표로 참가했다. 당시 경기도문인협회 회장 김건중과 한새빛은 너무 반가웠다. 그런데 그는 무덤덤한 표정이라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얼마 안 돼 풀리고 말았다. 그것은 그때 만나고 얼마 안 돼 그가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 몇 날 며칠 마음이 저려 옴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주옥같은 시집 한 권을 남겨 놓고 떠난 시인으로, 홍완기 시인을 많이 닮았다.

이지엽은 당시 성남세무서에 근무했던 젊은 회원이었다. 『아리사의 눈물』이라는 첫 시집을 출간하며 서울 정동에 있는 '이따리노' 레스토랑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질 정도로 의욕이 넘친 문학청년이었다.

그런 그가 1979년 『성남문예』 4집과 5집에 시를 발표한 후 소식을 몰랐다. 20년이 흐른 뒤 경기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것을 알게 되어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 그리해낼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열린시학』이라는 시 전문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출판사도 경영하고 있는 중견 문인이 된 것이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니 마음이 흐뭇하기만 하다. 동시에 성남 문인이라는 것에 자긍심이 생긴다. 아울러 성남문협의 초창기 회원들이 한국 문단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어깨가 으쓱해진다. 이지엽 시인도 문학의 뿌리는 성남이기 때문이다.

소설가

권기홍은 성남 문단의 초창기 시절인 1970년대 중·후반 성남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문인이었다.

『한국일보』 장편소설 공모로 등단한 소설가였으나 순수 문학 작품보다는 TV드라마 집필에 치중했다. 그 당시 TBC TV드라마 「천녀화」, KBS TV연속극 「자매들」로 유명해졌다. 그로 인해 웬만한 시민이면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따라서 그는 당시 시장이나 그에 버금가는 지역 유지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1975년 8월 한국문인협회 성남지부가 창립되면서 초대 지부장을 역임했고, 그 후 성남예총의 전신인 '성남시 문화예술인총연합회'를 결성하여 회장을 맡았으며 성남문화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풍류도 즐길 줄 알고 때로는 객기에 가까운 괴팍한 성미가 있어 아니다 싶으면 한손을 이마에 대며 '어쿠' 하는 제스처 또한 재미있는 모습이었다. 그의 자식 중 큰딸도 소설가였다. 그러나 순수 문학 작품 보다는 대중소설을 쓰다 보니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권기홍 소설가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준 것은 아들이 세상을 떠난 일이었다. 그 후부터 심경에 많은 변화를 일으켜 폭음을 한 것이 어쩌면 그의 생을 앞당겼는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성남 사회에서 문인으로서는 나름대로 유명세와 품격을 유지하며 수정구 신흥1동에서 살다간 인물이다.

김건중은 태권도 8단의 소설가다. 문과 무를 겸비한 문인으로 현재 한국작가회 회장이다. 1979년 창작집으로 등단했으나 『월간문학』에 소설 당선으로 재등단한 소설가다. 이 소설가처럼 폭넓은 문학 활동과 창작 활동을 병행한 문인은 흔치 않다.

우선 제8대부터 제13대까지 성남문협 지부장, 경기도문인협회 회장, 국제펜클럽 및 중앙협회 이사,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등을 통해 해체 위기에 있던 성남문협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향토 문학의 정체성 확보와 기틀을 견고히 쌓아 전국 최고의 지역 문학 단체로 만들어 1996년 문학의 해에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경기도문인협회의 주도권을 잡아 경기 문단의 기류가 성남으로 집중하게 했다. 또한 지속적인 발전과 후진 육성을 위해 1992년부터 현재까지 문예대학을

성남문인협회 문예대학 제6기 수료식(1998)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중앙 문예지 계간 『한국작가』를 발행하여 성남 문단의 위상과 한국 문학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여 명의 문인을 중앙 문단에 등단시켰다. 이런 활발한 문학 활동으로 경기예술대상, 한국예총예술문화상, 성남시문화상, 경기도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열정적인 창작 활동으로 베스트셀러 소설 「바람 가르기」, 3000만 원 현상고료 당선작 「무너지는 시간」 등 18권의 개인 저서를 출간했다. 높은 창작 활동으로 경기문학대상, 한누리문학상, 중봉문학상, 류주현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그는 솔직 담백하며 약속을 잘 지키는 성격으로 위선과 불의 앞에서는 분노하는 어찌 보면 모난 구석이 있으면서도 순수한 문인이다. 늘 행동은 이육사처럼 문학은 김동인처럼 하고 싶다고 했다. 그의 꿈은 문인들의 복지 향상과 제도 개선인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제25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에 출마했던 성남 문단의 대부이자, 성남이 키운 문인으로 신흥동에서 38년째 살고 있다.

윤광섭은 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성남동 동장을 지낸 문인이다. 1978년 장편소설 『제가 잘못했습니다』를 출간해 당시의 출판 사정에서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로 인해 큰 기대를 걸었으나 그 후 점차 문학과 멀어져 갔다. 성남의 문학 부흥운동을 위해 결성한 『문학시대』 동인에 함께하며 문학의 끈을 다시 잡았다. 이를 계기로 김건중이 성남문협 지부장이 되자 부지부장을 맡는 등 문학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기독교 신자로서 신앙생활도 충실하게 했으며 늘 생각이 깊고 사색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뭔가 골똘한 생각에서 문학과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김건중은 그를 중앙 문단에 등단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성남을 떠나 아직도 소식을 모르고 있어 그와 함께했던 문우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선가 문학을 잊지 않고 좋은 작품 하나를 건질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지 않고 있다.

김만태는 낙생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재직하다 1980년 성남문협에 가입한 회원이다. 당시 성남문협에서 김건중, 윤광섭, 김만태 세 사람이 소설을 쓰는 문인이었다. 그중 나이로는 서너 살이나 많아 가장 위였으나 개인 저서는 제일 늦게 출간했다. 하지만 축적된 창작 의욕이 봇물처럼 터지며 연거푸 서너 권의 소설집을 매년 또는 격년으로 출간하여 성남 문단의 주목을 끌었다. 그런 가운데서 『월간문학』 신인상에 소설이 준 당선되어 등단까지 했다. 참으로 놀라울 정도의 창작열이었다. 그 후 『월간문학』 신인상 소설 등단인들로 구성된 '창작 동인'에서 몇 해 활동하더니 소식이 끊어졌다.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무슨 연유인지는 아직도 알 수 없지만 초창기 성남문협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문인이지만 지금은 성남을 떠나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살고 있다.

시조시인

림영창은 당시 성남 문인 중에서는 가장 연세가 높은 시조시인이다. 등단은 『여성』지에 소설로 등단했으나 불교에 심취하다보니 전통 문학인 시조시인으로 활동했다.

한국 문단에서 폭넓은 교류를 통해 지역 문단을 알렸고, 지역의 후진들과 함께 하길 좋아해 1981년부터 이듬해까지 성남문협 제3대 지부장을 맡기도 했다. 평소 술이 서너 잔 들어가면 "문학이 뭐 별 것이냐 쓰면 다 문인이고 문학이 되는 거지" 라며 달관한 모습을 보이곤 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은 한국불교문인협회를 창립하면서도 스님이나 불교 신자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저 불교가 좋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도 불교문협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식이었다. 바꿔 말해 문학이고 불교고 따질 것이 뭐 있느냐 글 쓰면 문인이고 절 근처만 가도 불교 신자라는 식이였다. 어찌 보면 해탈한 경지라고 볼 수도 있고 인생을 달관한 데서 오는 가치관일 수도 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문학적 경지가 넓고 불교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문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단의 거목으로 추앙받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비록 고인이 되었지만 그가 창립한 '한국불교문인협회'는 존속되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그를 대변하고 있다.

문한종은 성남서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으며 시집 『고향 꿈』을 출간하여 관심을 끌었다. 성남문협 창립 회원으로 초창기 성남 문단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를 전공했던 그가 등단은 시조시로 등단했다는 것이 의아했으나 결국 시조시도 시의 범주에 속하므로 문제될 사항은 아니다. 그런 그가 1980년 후반이 되면서 슬며시 이곳 성남을 떠나 한동안 소식을 몰랐는데 경기도 연천 고향에서 살고 있다는 소릴 듣고 김건중이 찾아갔다. 문학관처럼 서재를 꾸며놓고 아내 오령 시인과 함께 단란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또한 연천문협을 창립하고 초대 지부장으로서 문학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모습은 아름다웠다. 비록 지금은 성남문협을 떠나 있지만 애정만은 변함없어 보였다. 그의 아내 역시 현재는 연천문협 지부장을 맡아 향토 문학 발전에 노력하고 있어 문학의 불모지인 연천에 부부가 함께 문

학의 혼을 심고 있다.

한춘섭은 1980년 성남문협에 들어와 림영창 지부장 재임 기간 문협의 혁신을 위해 노력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서였는지 아쉽게도 성남문협을 떠나게 된다.

그 후 또 다른 문학 단체를 만들고,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전통문화 계승과 함께 이 지역 연고의 훌륭한 선인들을 재조명했다. 강정일당, 둔촌 이집, 송산 조견 등의 인물을 연구했다. 뿐만 아니라 시조시인으로서 『고시조 해설집』, 『한국시조 큰 사전』 등 시조 문학을 위한 많은 저서를 발간했다. 이러한 학구적인 업적과 문화 사업에 대한 안목이 높아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늘 돋보였다. 그 결과 성남시문화상을 수상했다. 이만큼 지역 사회의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풍생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대학 출강까지 하며 2014년 2월까지 성남문화원장으로서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특히 학구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은 본받아야 할 점이기도 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선 이런 장점을 지닌 문인으로서 문학을 위해 성남문협이 부족하더라도 떠나지 말고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었다면 하는 점이다. 다음은 향토 문화 발전을 위하고 시조 문학을 위해 그 어려운 연구 서적을 출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창작 활동 또한 더욱 왕성해지길 바란다. 문인은 어디까지나 작품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이 지역 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맡아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더구나 본 시사 편찬의 대임을 실제적으로 맡아 무거운 일이지만 올바른 이 지역 역사 자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필가

손홍식은 돈키호테 같은 사람으로 한편은 긍정적인 인생관을 지닌 문인이다. 전남 보성군 노동면 사람으로 광주대단지 시절 성남에 이주하여 정착한 토박이다.

미곡 도매상을 크게 하여 모범 납세자로 세무서에서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성남문협 초창기에 지역 유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회원으로 영입된 인물이다 보니 문인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가 있어 늘 배우려는 자세를 지니고 있었으며 글을 쓰는 문인이라는 자긍심에 차있는 사람이었다. 정서적으로는 문인과 잘 맞지 않아도 그 세계에 머물고자 무던히도 노력한 것이다. 그 결과 『시와 의식』으로 등단하여 수필집도 2권이나 출간했다. 하지만 말년에는 문학의 한계에 부딪쳤는지 본격 문학과는 멀어져갔다. 그래도 품에는 평소 수필이라고 쓴 작품을 몇 부씩 복사해서 넣고 다니다 지인들에게 주었다. 이처럼 자신의 글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어 했고 문인이길 자처했던 사람이다. 그런 어느 날 중풍을 맞아 수술을 받고 완쾌되었다고 성남문협 사무실에 찾아와 반갑게 맞이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안 돼 부음이 날아와 성남문협 회원들이 장례식장을 찾았다. 평소 그가 성남 지역 사회의 각계각층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살아왔음을 새삼 느꼈다. 조화가 줄잡아도 80여 개가 즐비하게 그의 마지막을 지켜주었다.

안성호는 충북 영동 출신으로 유해수의 추천으로 1979년 성남문협에 들어왔다. 지금의 중앙동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생활인이었다.

이웃에 혼자 살고 있는 유해수와 알게 된 것이 그를 수필가로 만든 계기였다. 성남문협에 가입하고 일 년쯤 지나 그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투덜대며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무슨 글을 쓴다고 요즘은 고물 처리도 제때 안하는지 속상해유" 이처럼 문학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으나 문학에 빠져들며 그는 열심히 노력했다. 그의 수필 소재는 거의 시골이나 농촌의 일상이나 삶의 체험이지만 그 나름대로 교훈이 담긴 작품들이다. 『시와 의식』으로 등단한 후 성남에서 수필 동인을 결성하여 활동하기도 했고, 림영창 원로가 창립한 한국불교문인협회 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원만한 성격으로 근검절약이 몸에 배

전국 순회 문학강연 및 시민백일장(2007.10)

어 있는 것이 장점인지 성남시 통장협의회, 새마을금고 등에서 임원을 맡아 지역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문인이기도 하다.

고중일은 1987년 '문학시대' 동인이 결성되어 20대 문학도들이 열정으로 모임을 갖고 진지하게 문학 토론과 향토 문학의 터 잡기를 할 즈음에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다.

그는 OPC(동양정밀) 총무과에 근무하는 총각이었다. 그의 자세는 늘 진지하고 순수했다. 흡사 정갈하게 떠놓은 정한수와 같은 사람이다. 밝고 맑아 인간적으로는 흠잡을 곳이 없었다. OPC의 공원으로 입사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생산직에서 사무직 사원으로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근면 성실해야 하는지는 상상에 맡긴다. 그가 문학시대 동인 대표를 맡으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그 활성화가 성남 문단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생활인으로서 문학으로는 생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였다. 다시 그는 성남문협으로 돌아왔고 문단에 등단했다. 어느새 그도 오십 중반에 접어들었다. 그간 성남 문단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을 눈으로 지켜보고 느낀 점이 많았다. 하여 비록 생활이 힘들지라도 향토 문학을 굳건한 반석 위에 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

다. 더구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진솔하고 진실한 그가 문학 활동에 전폭적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학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는 경기신인문학상을 수상한 성남문협의 제2세대 주자로서 향토 문학을 이끌어갈 문인이기도 하다.

조정선은 1988년 성남시민백일장에 장원으로 입상되어 성남문협에 들어온 사람이다. 강원도 춘천에서 표구점을 경영하며 그곳 문인들의 영향을 받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지역 신문에 수필을 발표하고 이런저런 문학 행사에 다니다보니 문학에 대해 접근하기가 쉬웠다. 부군이 미국에 취업차 떠나자, 고향이 지금의 하남이라 성남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성남문협 회원이 되면서 열심히 습작에 임했다.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며 문학 수업을 열심히 했다. 그러나 갑자기 몸이 아파 문학을 중단해야 했다. 가는 병원마다 병명이 달리 진단되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투병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병명이 '담석증'으로 진단되었다. 급기야 한쪽 쓸개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고서야 가까스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문학의 꿈은 끝내 접지 않아 수필가로 등단하게 되었다. 그 후 체험이 담긴 수필집 『산넘고 물건너』를 출간하여 경기도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교회 권사로서 신앙과 문학을 생활의 중심에 놓고 지금도 늦게까지 불을 밝히며 창작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이예지는 1992년 성남시 여성 기·예 경진대회 백일장에서 입상된 것이 계기가 되어 성남문협에 들어와 문예대학에서 문예 창작 교육을 받고 각종 백일장 입상자들로 구성된 성남여성문학회 회원이 되었다.

그 후 일 년 남짓 지나 소리 없이 떠났는데 『자유문학』 신인상에 수필이 당선되어 등단하여 다시 성남여성문학회와 성남문협에 돌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정진한 덕분인지 월드컵 성공기원 전국글짓기 공모전 대상, 경기예술대상 등 크고 권위있는 상을 수상했다. 또한 격년으로 수필집을 발간하여 5권의 개인 저서를 출간했고 경기도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성남여성문학회 대표를 맡아 동인지 『여성문학』을 발간하며 동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켰다. 뿐만 아니라 성남예총 부회장을 맡아 성남문협의 권익 신장과 지역 예술 발전에 힘쓰기도 했다. 이런 활동에 힘입어 2009년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 2010년 제14대 성남문협 지부장에 피선되었다. 현재는 계간 『한국작가』 편집장과 경기도문인협회 부회장까지 맡아 그야말로 문학 활동에 묻혀 살고 있는 수필가다.

유해수는 바둑의 고수다. 늘 바바리 깃을 세운 모습으로 우수에 깃든 모습은 외

로움과 지성을 겸비한 느낌을 주는 노신사였다.

지금의 중앙동에서 혼자 살면서 바둑과 수필을 쓰는 분으로 후진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아랫사람에게도 항상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고 조용조용한 말씨로 친근함을 주었다. 당시 높은 벽인 『현대문학』에 가끔씩 수필을 발표했다. 들리는 얘기로는 조연현 선생과 바둑을 함께 두는 사이라 그렇다고 했다. 이렇게 성남문협의 일원으로 조용히 밑받침을 해주었다. 이웃에 살고 있던 안성호를 성남문협에 인도하여 오늘날 수필가로 만든 것은 후진 한사람을 키운 일이기도 하다.

희곡작가

김은집은 참 재주가 많은 문인이다. 희곡작가라기보다는 극작가라고 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리는 문인이다. 성남문협을 창립하는 데 앞장서서 움직였다.

특히 권기홍 지부장과는 호형호제하며 일꾼처럼 이런저런 일을 도맡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1970년 후반에는 성남문화원 설립의 주역이기도 했다. 동양화에 조예가 있어 동양화를 그리고 표구점까지 경영했으니 당시 성남 문화예술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글을 쓰는 재능도 남달라 극작, 소설, 수필을 쓰고 김건중이 개설한 문예대학에서 문학 강의까지 했던 실력자다. 허나 재능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예술계이기도 하다. 이것저것 펼치긴 했어도 경제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활짝 핀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그가 사업으로 벌린 표구점도 그랬고, 화랑이라고 펼친 전시장도 그 당시에는 신통치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성남문협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미술계 쪽에 몸담으려 했으나 그쪽은 그쪽대로 기존 세력들의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고 희곡 작품이나 극작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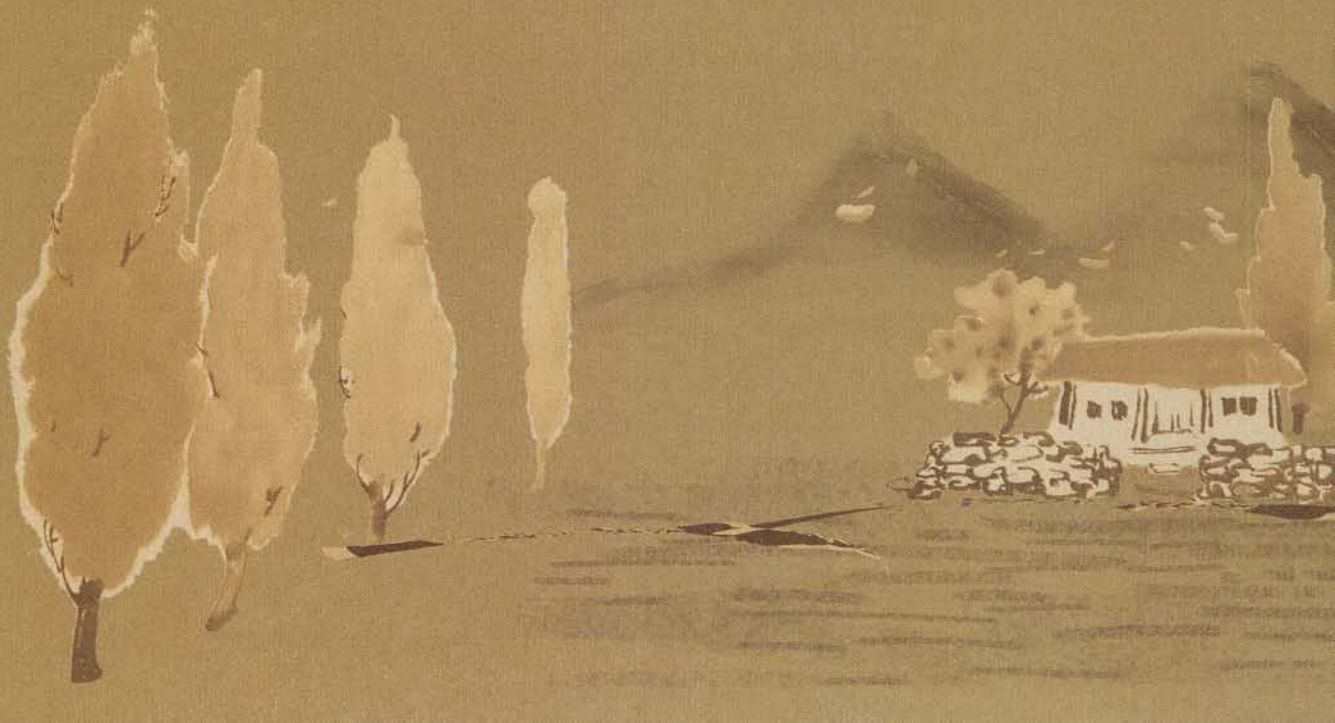
로 생계를 꾸려간다는 것은 더욱 힘든 현실이었으니 그로서는 최선책을 택한 것이 귀향이었다. 현재 경북 청송에서 아름다운 자연에 묻혀 그림을 그리며 전원생활로 아름답게 노후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서른 분의 성남 문인들 이야기를 적어 보았으나 단편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다 전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여기서는 필자가 기억하는 부분을 기록하되 문학적 측면과 인간적인 모습이나 성품, 그리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삽화를 곁들였다. 비록 크게 위대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성남에 살고 있거나 살았던 문인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임을 밝힌다. 또한 이런 문인들이 살았거나 살고 있는 성남은 분명 문학 도시이자 문화 도시라는 생각이다. 끝으로 여기에서 거론되지 못한 문인은 초창기 문인이 아니거나 또는 기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완될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기록할 생각이다.

제4장
성남시와 함께한 40년 공직 생활
- 박봉준 성남시청 전 재정국장 -

구술 정리 임미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박봉준 : 1936년 전라남도 진도 생. 1961년부터 36년 4개월의 공직 생활 중 1969년 9월 1일 광주군 성남지구 도시건설사업소 근무를 시작으로 1997년 6월 30일 성남시 재무국장으로 정년 퇴임하기까지 26년 9개월을 성남시에서 재직했다. 자녀는 3남 1녀를 두었다.



전남 진도에서 광주로, 다시 서울로

고학으로 학업 마쳐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향동리 출생이에요. 205세대가량 됐는데 밀양박씨들이 주로 사는 동네였지요. 태어날 때부터 참 아주 어려운 집안이었어요. 부모님이 계셨고 위로 누님, 형님 있었고 제가 있고 동생이 있었어요. 남의 땅 빌려서 농사를 지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수업료가 45전이었는데 4학년 때부터는 제가 짚신, 조리,[1] 가마니 같은 걸 팔아 수업료를 내면서 학교를 다녔지요. 다만 제가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시골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많지 않지만 제가 졸업 할 때도 1등으로 졸업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해방이 되고 1947년 8월에 졸업을 했지요. 어떻게든 성공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정치가가 되어서 없는 사람 위해서 일을 해보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1948년 3월에 광주로 오는 겁니다. 그해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 야간에 입학했어요. 9월 1일이 신학기 시작이었는데 입학등록금을 낼 수 없어서 첫날부터 매일 학교를 찾아가서 등록금 없이 입학시켜 달라고 담당 선생님에게 사정하면서 매달렸어요. 그때 조선대학교 총장이 박철웅씨였는데 아마 총장실에서 누가 봤던 모양이었어요. 그냥 입학시키라고 하셨대요. 이런 사연으로 신학기를 시작하고 1개월 지나 공부를 할 수 있었지요. 1학년 2학기 말쯤 교무실에서 불러서 갔는데 2학년도 아니고 3학년으로 월반을 하래요. 그런데 공부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성남시의 기초를 놓은 박봉준 옹(1936년생)

1) 볏짚으로 짜서 발가락에다 끼어서 신고 다니는 신발을 말한다.

생각에서 2학년으로 진학하겠다고 대답한 일이 있습니다.

신문 배달, 잡지 장사 등 닥치는 대로 하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1951년에 고등학교 입시를 봐서 주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바로 서울에 올라와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 학업을 계속했어요. 대학 입학 후 친구들과 함께 월세방을 얻어 자취를 했는데 1학년 2학기 말쯤에는 잠잘 집마저 없어 문전걸식했다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알고 지내는 분한테 부탁하여 돈 2만 환(화폐개혁 후 2천 원)을 빌려 책장사를 시작했어요. 대학교 교과서 위주로 팔았는데 생활비와 학비에 충당하고도 다소 여유가 생길 정도로 소득을 보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분에게 2개월 정도의 약속 기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드렸더니 이자는 절대로 안 받겠다고 거절하여 담배 10갑을 사서 드렸지요. 그 뒤에는 그분이 자기 집에 가정교사로 오라고 하여서 1957년에 학적보유병으로 현역 입대하여 만기 복역 후 제대하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집에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4·19혁명이 나고 민주당 집권 초기에 신인 등용 선발시험(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복무를 필한 자에 국한된 4·19세대 공무원 채용시험)이 있었어요. 1만 명이 응시해 2천 명을 합격시켰어요.[2]

장준하 선생, 함석헌 선생, 김영선 재무부 장관 등 유명 교수와 학자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2주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학생들이 사치가 대단해 양담배를 대부분 피웠는데 이 교육 끝나면서부터는 제일 질이 안 좋았던 '진달래'도 자연스럽게 피우는 거예요. 장준하 선생은 그때 국토건설사업본부 본부장이었는데 한 번에 이삼십 명씩 다과회를 하면서 2천 명 전부와 대담을 했어요. 교육이 끝나고 1961년 2월 27일 국토 건설 사업 추진요원으로 임명되어 3개월 간 전국 시군에 전원 파견 근무하게 되었는데 저는 경상북도 봉화군으로 가게 되었어요. 3개월 근무를 마치고 1961년 5월 31일 2천 명 전원이 발령이 났는데 저는 연천군 9급 공무원으로 발령받았지요. 7급 승진 시험이 있어서 응시했는데 합격해서 1년 4개월 만에 9급에서 7급으로 승진되었어요. 1965년에 강화군으로 전근 발령이 났는데 거기서 근무할 때 물납농지세에 관해 논문을 작성해 발표한 것이 우수 논문으로 채택되어 1등을 했죠. 이게 『지방행정』에도 실렸어요.[3]

---

2) 제2공화국 시기 국토건설본부가 신설되었다. 1961년 2월 27일 장준하가 국토건설사업본부 총책임자 역할인 기획부장을 맡았고, 학생 2천 명이 국토건설본부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3) 「물납농지세의 문제점과 개선점」이라는 제목으로 1966년 『지방행정』 15권 155호에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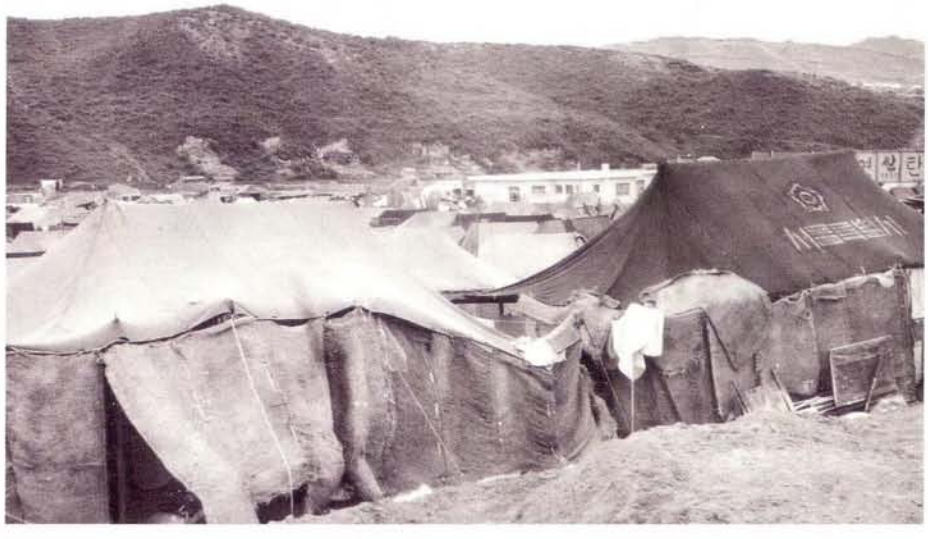
성남출장소 시절 성남과의 인연이 시작되다

철거민들 트럭으로 버려져

성남으로 온 건 1969년 9월 1일이에요. 강화로 갔을 때 애들도 자라고 해서 서울 인근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마침 광주군 성남지구 도시건설사업소[4]가 생겼던 거지요. 그 당시 성남에는 중부면 성남출장소가 행정을 보고 도시건설사업소는 건설 분야를 담당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광주대단지사업소[5] 설치를 하면서 도시건설사업소가 별로 할 일이 없어졌어요. 철거민 통계조사를 하거나 철거민들이 오면 돕고 그랬지요. 처음에 올 때는 보직이 없었는데 1970년 9월 1일 도시건설사업소와 중부면 성남출장소가 합해지면서[6] 개발계장을 하다가 1971년 3월 1일 광주군 직할 성남출장소가 되면서 개발과장 발령을 받았어요. 그때는 주사들이 과장이었어요.

철거민들 들어올 때,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판잣집에 살다 철거돼서 온 사람은 20평 땅 그것이 생명선과 같은 거예요. 화물차들이 사람들과 철거한 판자, 나뭇조각, 이런 것들을 전부 싣고 오는데 여기서 우선 바람막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지고 온 것으로 바람막이 움막집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한번은 진눈깨비가 심하게 내렸습니다. 움막집 안 판자 바닥 밑으로는 물이 흐르고, 어린애는 추워서 벌벌 떨고 있고, 먹지를 못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참상은 눈물 없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어요. 보고, 결재 등 행정 절차를 밟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해 사비 부담을 각오하고 백지에 내 도장을 날인해 주면서 이걸 미리 얘기해둔 음식점에 보이면 수제비라도 먹을 수 있도록 긴급조치한 사례도 있었지요. 사무실에 돌아와서 이런 사실을 보고하였는데 다행히 예산 조치를 해주어서 사비 부담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았

4) 광주군 성남지구 도시건설사업소, 1969년 8월 1일 설치되었다.
5) 서울특별시 중부면 대단지사업소, 1969년 9월 1일 설치되었다.
6) 1970년 9월 1일 광주군 도시건설사업소와 중부면 성남출장소가 합쳐져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를 설치하면서 서울시 광주대단지사업소는 개발 업무를, 광주군 성남출장소는 행정 업무를 맡기로 업무분장하였다.



서울시에서 광주대단지에 나눠준 천막(1971)

는데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인데 땅 20평이라도 줘가지고 내보낸다는 시혜적 견해가 주류인 듯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을 인간답게 최소한은 취급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었지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먹을 것이 있든 없든 '이게 당신 땅이요!' 하고 그냥 내려놓고 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싣고 온 운전기사야 내려놓고 가 버리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뒤에는 서울에서 천막을 나누어 줬습니다. 천막 하나에 작은 것은 두 집, 큰 것은 네 집. 그래서 여기(『성남시사』) 나오는 천막이 그런 거예요. 이 천막이 어디 있었냐 하면 맨 처음에 성호시장 가는데 그쪽에 있다가 또 단대동 지금 미도아파트 그쪽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한 거예요. 그다음에는 분양지 가기 전에 맨 처음에 천막으로 들어옵니다. 한참 지나서 분양지로 가게 되면, 빨리 집을 지어라 그러는데 그때 허가가 뭐 있어요!

그때 주민 생활이라는 것이 팔각정 인근에서 워낙 배가 고파서 애를 낳아가지고 먹었다는 헛소문이 먹혀들어갈 정도로 인심이 그랬으니까, 실제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보사부에 밀가루 100톤만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당시에는 광주대단지사업소에서 서울시로 해서 중앙에 보고하면 제

대로 통과가 되는데, 경기도청을 통해 보사부에 보고를 하면 통과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보사부에서는 요청한 밀가루 100톤이 누구 이름이냐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는 트럭 큰 것이 보통 4톤이었으니까 트럭 25대 분을 달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취득세가 부과된 겁니다. 취득세 부과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것을 부과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부과를 해야 돼요. 그러나 성남에서는 부과를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부과를 못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감사를 나와 가지고 부과를 해라 그런 겁니다. 당시 광주경찰서에서 아무래도 앞으로 무슨 일이 터질 것 같다, 우리 출장소에서도 무슨 일이 터질 것 같다 보고를 했는데 저 위에서는 법치 국가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전부 나왔던 거예요. 거기에 분양지 가격 문제가 겹쳐 같이 터져버린 거예요. 철거민들이 어려우니까 분양지를 팔았는데 서울시에서는 원래 분양 받아서 있던 사람들한테는 평당 2천 원씩인가에 분양을 하고 전매입주자에게서는 평당 6천 원, 8천 원 등 이렇게 받겠다 하니까 이것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맨 처음 발간된 시사[7]에 가까울 근, 멀 원을 써서 근인近因과 원인遠因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근인은 바로 그것이지만 멀 원자 원인은 최소한의 도시 기반 시설도 구비하지 않고 10만 인구를 거기서 무조건 살아라 했으니 이게 폭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8·10사태가 딱 터지니까 그때부터는 서울시에서 보고하는 것이 중앙에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경기도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만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경찰서에서는 만류하는 입장에 있었고, 우리로서는, 마음속으로는 공무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 행정 쪽에서는, 적어도 내 마음은 터질 것은 터져라, 이 처참한 것을 이대로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8·10사태, 자리 지키며 전 과정 목격

양택식 서울시장이 1971년 8월 10일 10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11시까지도 오지 않으니까 사태가 악화되었어요. 서울시로서는 철거 대상이고 언제든지 내쫓을 사람인데 땅을 마련해서 줬다고 선심 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주류였지만 여

7) 구술자가 1973년 상반기에 개인적으로 작성한 '성남 5년 약사'에 바탕 해 1978년에 발간된 『성남시사』를 말한다.

기서 그 처참한 생활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인간 취급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또 나 같은 사람은 특히 그랬죠. 내 자신이 그러한 생활을 어렸을 때 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철거민 편에 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시사에는 3만 내지 6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마트 위에 있는 산, 거기를 완전히 덮도록 다 있었으니까, 제가 8·10사태 났을 때, 성남출장소 그 자리를 떠나지를 않았어요. 옆에 보건지소가 있었는데 보건지소 앞에 있다가 출장소 울타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거기서 보이는 곳은 제가 전부 다 목격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달아난 일도 있었지만 간부가 거기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서울시와 삼영전자에서 면담한 것은 보고를 듣고 알게 된 거죠. 거기서 어떻게든 우선 집안은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삼영전자에서 회의할 때는 출장소 소장이 갔고 전성천 목사도 거기 참석했어요. 양택식 시장이 성남출장소 뒷산, 거기에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진척이 덜 된 희망대공원 뒷길로 해서 제1공단 내 삼영전자로 들어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리는 제가 못 갔어요.

주민들이 거의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런데 아마 6만은 못 됐을 거예요. 서울시가 그것을 난동으로 규정지었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공적을 올리려고 그런 게 있어요. 엄청난, 3만 내지 6만 명이 난동을 했지만 거기서 대표로 스물두 명만 구속했다 해야 공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제가 본 선에서는 난동자는 스물두

우산을 쓰고 중앙으로 모이는 광주대단지 주민들(1971)

명뿐이에요. 그 외에 수만 명은 집단 시위를 했을 뿐입니다. 그걸(난동을) 보고 만류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22명 중에 술 먹어서 막 때려 부수고 몽둥이 가지고 오는 걸 보고는 무서웠겠죠. 또 그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잘한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남을 아끼고 양심적인 사람을 제가 잘 아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박창구 회장이라는 분인데 정말 가슴 아팠어요. 참 강직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시 출장소 앞에서 봤는데,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데모 한 거예요. 집단 시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 지르고 그래가지고 22명이 버스를 탈취해가지고 가고 그러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상부에 보고하기는 크게 보고합디다. 또 그렇게 보고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태가 집단행동을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최악을 대비해서 경찰 인력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데모 진압을 하는데, 서울에서 온 경찰들은 많이 해봤으니까 경찰 지휘자가 착착, 잘해요. 지휘봉이 요만한데 서울서 온 경찰들은 좌로, 우로, 제2열, 후열,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 경기도서 온 경찰들은 요리가! 저리가! 저리 모두 모여! 데모 제지를 안 해봐서 그렇게 차이가 있었어요. 군중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평화적인 데모 군중은 수만 명이었으나 난동자는 22명이고 전원 구속됐다" 이게 맞아요. 이 사람들 전부 어떻게 잡아들였느냐 하면, 사복 경찰들이 섞여 있다가 뒤에서 옷에다 전부 체크를 한 거예요. 사인펜이것을 옷에다 한쪽에다 전부 해 놓은 거예요. 끝나고 그거 있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사에) 그것을 못 넣은 게 아쉬웠는데, 버스 탈취한 것도 전부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 어디 뭐 공사장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막노동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장사하는 것을 때려 부수고 했다는데 그때 22명 난동자들이 했으면 했지 다른 사람이 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만약에 그때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서 피해를 봤다고 그러면 당장에 쫓아옵니다. 그때 여건이 그렇지 않아요.

수만 주민들 절대 자제, "난동 아니다"

『성남시사』[8]에 나온 것도 틀린 게 있어요. 2권 414페이지 내용 중 "성남출장소 건물 1동과 행정 서류가 모두 불타버렸고"라고 돼 있는데 완전히 틀린 겁니다. 아

8) 2004년에 발간된 『성남시사』이다.

경찰과 대화하는 광주대단지 주민들(1971)

마도 완전한 오보인 『한국일보』 기사를 믿고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 당시 중앙지인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 중앙지와 『경인일보』 등 지방지 1971년 8월 10일과 11일자 기사를 확인하면 틀렸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불에 완전히 타버린 것은 광주대단지사업소 건물과 서류 등이고 성남파출소 건물이 파손되었어요. 성남출장소는 현관 입구 옆 사무실 모퉁이에 세무서 직원 1명이 주재 근무를 했고 책상 하나와 벽에 서류꽂이(책꽂이)가 있었는데 이 서류꽂이에 불을 질러 1평 정도도 안 되는 면적이 불에 탔어요. 난동자 22명 중 몇 명이 들어와 이곳을 불태운 것은 그 당시 부과한 취득세가 세무서 소관인 줄 알고 그 서류에 불을 지른 것이었어요. 취득세는 지방세로 세무서에서 부과한 것이 아닌데 그 난동자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요. 출장소 건물 전체로 봐서는 유리창 하나 깨진 것도 없고 모든 서류나 집기 등 아무런 손실이 없었어요. 집단 시위가 끝난 오후 늦게는 출장소 전 직원이 사무실에 들어와 아무런 지장 없이 근무를 했어요.

"4대의 차량이 불에 타 못쓰게 되는 등 22대의 차량이 파괴되었으며 ……",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때 차가 그렇게 있었나요? 도로

는 포장이 거의 안 돼서 시영버스만 다녔는데 차가 비가 오고 그러면 수진동에서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때 파괴된 차량은 광주대단지사업소 차량 1대와 서울시 간부 차량 1대에요. 시영버스를 탈취해서 서울로 들어가자고 그랬다는데 그 시영버스는 나중에 고쳐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차량 파손은 아마 3, 4대 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은 한 대뿐이니까. 그때 '변호성' 회장님 그 정도 사람들만 차타고 다녔어요. 그다음에 "그러나 3만 명이나 되는 흥분한 군중이 5시간이나 '난동'을 부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피해로 끝난 것은 그러한 사태가 우발적이었으며 주민들의 자제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하게 짐작케 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3만 명이 난동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이 뒤집혀버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법이라는 것은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효력을 발생하지, 완전히 질서를 지킬 수 없는 대 혼란 속에서 법이라는 것은 효력 발생이 어려운 것 같아요. 행정 주체의 안정은 행정 객체의 안정을 전제로 한다, 행정 객체의 안정 없이 행정 주체만의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시민들 생활이 안정이 되어야 행정 기관도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시민들의 생활이 극히 혼란할 때 행정 기관만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 이곳에 사는 주민들, 철거민들은 아무런 난동 없이 절대 자제가 있었어요. 다만 돈을 벌기 위해서, 복덕방에서 투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일부 사람들이 오히려 큰소리 쳐가지고 진실한 철거민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같은 사람 취급을 당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 있다 다른 데로 가버리면 되거든. 경찰 수사 기록을 보면 22명 난동자 중에는 노동자들이 많았대요. 성남 시민 5만, 6만 전부 난동을 부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을뿐더러 성남 시민에 대한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자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피해가 그쳤다? 말이 안 되는 거요. 처음부터 시민들이 자제를 해서 난동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 피해가 난 거죠.

사태 수습 실무 총괄, 격무로 건강 헤쳐

8·10사건이 난 그 당시 내무부에 가면 도시개발관실이 있는데 거기서 밤새웠어요. 내무부에서 '광주대단지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라서 그저 명령하면 움직이던 시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 문제가 빨

경기도 직할 성남출장소 시기의 청사(1972)

리 수습이 된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성남출장소에서 하는 것은 군수 결재를 맡아 가지고 도로 보고해서 내무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8·10사건이 난 직후에는 직접 내무부나 청와대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8월 10일 난리가 나고 그날 저녁에 경기도 북부출장소 소장으로 있던 이석봉 소장님이 이사관이었는데 성남출장소로 왔죠. 경기도에서는 도 직속 성남출장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기구를 만들기도 전에 바로 성남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8·10사건 그날 저녁부터 그분이 성남 공무원들이나 모든 것을 총 지휘 감독을 한 거고, 저도 그날 저녁부터 밤을 새워서 일을 하는 겁니다. 발령 나는 것은 그다음에 나는 거죠. 우선 사람이 와 있었고, 8·1사건이 나기 전에 광주군 성남출장소로 있을 때는 사무관이 출장소장이었고 그전에 중부면 성남출장소일 때는 주사가 소장이었어요. 9월 13일 경기도 직속 성남출장소가 개소를 하는데 8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8·10사건 수습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었지요.

이석봉 소장이 오고 그날부터 저도 밤을 새는 겁니다. 계속 밤을 샙니다. 내무부에서 내일 아침 열시까지 성남시의 문제점과 대책 방안을 작성해서 보고를 하라.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성남에 인쇄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요. 문제점이 열다섯 가지다 그러면 먼저 소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뒤에 우선 다섯 가지만 결재를 맡아가지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밤에 직원 한 사람이 서울 인쇄소에 가서 유인물을 제작토록 해요. 서울에서 이 작업을 하는 동안 그다음 다섯 문제를 만들어 또 결재를 맡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들고 그다음 직원이 올라가면 먼저 갔던 직원이 여기 내려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이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해서 그 다음 날 10시에 제본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총괄해서 문서를 만들어 상사의 결재를 받아 완성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석봉 소장이 올라가고 그랬어요.

당시 경제기획원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내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보사부, 교통부, 건설부 각 차관들로 성남 중앙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됐는데 소장이 가서 보고를 하는 거죠. 저는 같이 가서 관련 부처 실무자들의 작업에 참여하고, 예를 들면 은행이 들어와야겠다, 구호양곡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등이죠. 월동 식량 지급 대책으로 밀가루 1808톤이 나왔는데 그때 워낙 급하니까 경제기획원 차관보하고 저하고 마주 앉아 계산기, 요즘 같은 건 아니고 돌리면 숫자 나오는 계산기 갖고 월별 구호량을 배분, 작성하고 그랬어요. 내무부에서 도시개발관실에 가면 밤중에 전부 불을 환하게 켜두고 모두 밤샜어요.

8·10사건이 나고 다음 날 아침에 박대통령이 국무회의 일정을 취소해 버리고 광주 대단지 문제를 바로 다루면서 신도시로 성남시를 만들어 제대로 된 지방자치단체로 육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광주대단지 구역만으로는 어려우니까 낙생·대왕·돌마면을 합해 도시다운 도시로 만들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변경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데, 조례로는 불가능한 거지요, 난리통이니까 어쩔 수 없이 법률 통과 없이 사실상 행정 구역이 변경이 되어 낙생·대왕·돌마면까지를 관할로 하는 경기도 성남출장소에서 시 승격되기 전까지 행정을 맡아 합니다.

저는 9월 13일 경기도 성남출장소 설치하고 시정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광주군 출장소로 있을 때는 과장이 주사였지만 도 출장소가 되니까 과장이 사무관이에요. 그래서 과장은 될 수 없고, 시정계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때는 워낙 급하니까 사람 따라서 일이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총괄하는 실무자가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게 된 거죠. 밤에는 여관에다 방 얻어놓고 업무 처리를 하는데 과로에 지쳐 링거 맞고 와서 일하기도 했죠.[9] 그때 체

9) 차남 박우형은 "아버님이 과로하셔서 폐결핵에 걸리셨다고 어머님이 말씀하셨다"고 기억했다(박우형 구술, 2012. 11. 3).

중이 48킬로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걸어가는데 휘청휘청 해요. 균형이 안 잡혀요. 봉급이 많아 잘 먹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밤새워 그렇게 일하고 7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이나 백 원짜리 백반 하나 먹고 버텼으니 몸이 견뎌 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나중에 시정계장에서 민원계장으로 간 일이 있어요. 민원계장이라고 하면 누구나 원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 이재덕 소장님[10]인데 민원계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어요. 시정계장 하던 사람을 어떻게 민원계장으로 보내냐 해서 내가 건강이 이렇게 되었으니 우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랬어요. 원래는 이석봉 소장이 계셨는데 1971년 12월 1일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11] 밤새고 하니까 견딜 수가 있나요. 그래서 12월 4일 이재덕 소장님이 바로 후임 소장으로 부임합니다.

철거민, 가마니와 짚으로 이부자리

12월 4일 밤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은행동에서 불이 나서 사람이 타죽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조달현씨가 총무과장으로 있었는데 소장님한테 빨리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오늘 오셨는데 곤란하니 보고하기 난처하지 않냐 그래요. 그렇지만 보고 안 했다가는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밤에 잠자는데 가서 보고했어요. 이어서 바로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내무부까지 일사천리로 보고하게 된 거예요. 그때 구호 대책의 하나로, 각 시군에 짚하고 가마니를 보내달라고 해서 출장소에다 쌓아두고 생활고가 극심한 철거민들에게 이불 대신 덮고 깔고 자라고 나누어 줬었지요. 그런데 은행1동사무소 밑에 빈 땅이 있는데 가마니를 깔고 짚을 덮고 밖에서 자다가 불이 나서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타죽게 된 거예요. 그때 직접 보고를 안 했더라면 큰 문제가 났을 거예요. 이재덕 소장님에게 보고를 하니까 현지에 가자는 겁니다. 보고 후 1시간 정도 되니까 도에서 국장들이 와가지고 불도저 부르지, 왜 돌아가신 분을 여기다 방치했냐고 앰뷸런스에 모셔라 해서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유가족들은 차가 들어오고 하니까 얼떨떨했죠. 밤중에 제가 거기 가서 안내를 했어요. 가마니를 깔고 짚으로 의지하

10) 1973년 7월 1일 시 승격, 성남시 초대 시장에 취임하였다.

11) 당시 일간지에는 "출장소 직원들의 근무 시간은 평균 하루 16시간, 고된 격무 끝에 전 출장소장 이석봉씨와 시정계장 등 직원 5명이 과로로 쓰러져 입원하기도 했다"고 나와 있다(『동아일보』 1971년 12월 22일).

고 잠을 자라고 했을 때 그때 생활상이 어떻겠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는 그것을 직접 보았으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하다가도 그것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또 73년도에 제가 일직 하던 날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애를 데려와 현관 시멘트 바닥에 탁 내려놓는데 애가 말이죠,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땅에다가 놓아본 일 있어요? 파닥파닥 뜁니다. 애가 꼭 그래요. 자식을 왜 땅바닥에다가 놓느냐 하고 숙직실 의자에 옮겨 앉혔는데, 우리 애기 살려 달라 이거예요. 애가 죽게 되었는데 살게 해달라고 울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즉시 보건소로 연락을 했어요. 동장을 동행해 병원에 가면 응급조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당직차가 있었는데 돈 3천 원 뿐이어서 운전기사한테 주어서 그걸로 휘발유 넣어가지고 애를 수원 성모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탈장이 됐대요. 그렇게 하고 성남동장에게 바로 거택구호자 조치토록 했어요. 김찬재란 분이 당시 동장이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애 어머니가 주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구호 조치 등 사무 처리를 하려면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데 주소를 모르니 관련 서류 작성이 어렵지요. 다행히 아이가 입고 있는 상의에 명찰이 있었는데 성남제일초등학교 2학년 몇 반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해당 학교에 전화해 아이의 주소를 알려 달라니까 이날이 일요일이어서 캐비닛이 잠겨 학적부를 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 받은 선생에게, 당신이 선생이요, 캐비닛을 부숴서라도 빨리 알려달라고 강경하게 요구를 했어요. 조금 있다가 캐비닛을 어떻게 했는지 주소를 알려줬는데 성남동이었어요. 지금의 성호시장 도로변 움막 같은 판잣집이었는데 그런 곳에 살고 있으니 애 엄마가 주소를 모르는 게 이해가 되었지요. 그 후 성남동장한테 보고를 받아보니까 수원 성모병원에서 창자를 조금 잘라내고 잇는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사가 교장한테 보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다음 날 시장실에서 불러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학교 교장이 고맙다고 온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웃돕기로 얼마 모아서 그 애한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후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달쯤 있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그 아이 어머니야. 우리 애 다 나아가지고 퇴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나를 찾아왔소? 내가 큰소리를 쳐가지고 나한테 욕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담배 열 갑을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것은 거절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애가 지금은 50이 됐겠죠. 그런 일도 있어요.

'성남시 5년 약사' 정리

시 승격할 때 공보계장으로 있으면서 '성남시 5년 약사'를 썼어요. 누가 지시한 건 아니지만 제 일 전부 하면서 밤에 만들었어요. 남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웃음거리가 될망정 그걸 쓴 이유는 성남 탄생 과정의 일부라도 남기고 싶어서였지요. 시 개청할 때 발간하자고 했는데 워낙 바쁠 때여서 좀 기다려보자 해서 발간은 안 하게 됐어요. 나중에 시 예산으로 『성남시사』를 만들 때 그 자료를 전부 줬어요.[12] 거기에 나오는 일자 이런 것은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온 시사들은 틀린 게 있어요. 그 자료 전체가 지금 아마 시사 편찬 자료로 어딘가 남아 있을 거예요. 없애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자료들이 어떤 자료인데 말입니다. 제가 성남에서 이렇게 일해 오면서 정말 『성남시사』가 정확히 기록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난리통을 실제로 목격했고 또 제가 시정계장으로서 성남 지역의 총괄 실무자였다는 것, 그리고 대책이니 뭐니 했던 것을 각 과에서 취합해서 결재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내용을 가장 잘 안다 해도 건방진 말이 아닐 거예요.[13]

1973년 개청할 때 시장 기념사와 경기도 성남출장소 모든 행사 연설문을 조언을 받아 제가 썼습니다. 연설문 쓸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시장의 기념사를 듣고 일반 시민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고 공감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당시 서울특별시를 포함해 전국에 시가 31개였어요. 여기에 대한 통계를 제가 전부 조사했습니다. 성남시가 인구 면으로 볼 때는 여덟 번째예요. 면적은 아홉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기념사에 이 내용을 부각시키면서 "앞으로 성남시는 판교인터체인지를 관문으로 하는 전 시가지 동맥을 형성하여 파괴 없는 전진만을 기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걸 강조했었지요. 그때 중앙지 대부분에 성남시가 전국 31개 시 중 8, 9위라는 내용이 보도되었고 성남 시민들은 대부분 성남이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사를 보고 좋아하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보람을 느끼기도 했었지요. 또한 그때 이재덕 시장님한테 판교를 판교라고 하지 말고 인터체인지 들어오는 데를 성남이라고 이렇게 씁시다 했죠. 그러니까 판교는 전부 초가집인데 이 시골 같은 데를 성남이라고 하면 오히려

12) 시비로 편찬된 『성남시사』는 1978년 250부 발간된 것이 처음이고, 1982년에 이것을 보완해 다시 발간했다. 구술자는 1978년에 발간된 『성남시사』의 경우 사실 관계 기술에 있어서는 틀린 곳이 없으나 1982년 발간분부터 틀린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13)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둘째 아들 박우형은 구술자가 '성남시 5년 약사'를 집필하던 때를 기억했다. "『성남시사』는 아버지가 처음 썼고, 아버지가 밤새워 쓰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박우형 구술, 2012.11.3).

시 승격 축하를 위해 시청 앞으로 모이는 주민들(1973)

성남 이미지가 구겨지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결국 기념사에 "판교인터체인지를 관문으로 한다"는 말을 넣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92명 징계에 혼자 승진

76년도에는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14] 전국에서 들어가는 진정의 3분의 2 가량이 성남에서 들어가는 것이었다고 해요. 철거민들이 와가지고 안정이 안 되니까 밤에는 싸우는 사례도 종종 있었지요. 그러다가 자기에게 불리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진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에 엄청난 부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15일 동안 감사를 했는데 맨 처음에 50여 명이 와

14) 일간지 "성남시 부시장 등 33명 사표 종용" 기사에는 1976년 1월 15일부터 보름간 진행된 것으로 나온다(『동아일보』 1976년 3월 15일).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증원을 했어요. 날씨가 좀 추울 때에요. 그래 가지고 간부급으로 32명이 그만두게 됩니다. 92명이 징계를 받는데, 91명이 중징계를 받고 경징계는 1명이였죠. 제가 이 숫자를 어떻게 아냐면, 참 미안한 일도 이때에요. 많은 간부들이 면직되는데 저는 그때 승진을 하였습니다.

상사로 있던 분들이 승진을 해서 영전을 하고 나도 승진을 하면 괜찮은데, 모두가 그만두고 징계 받고 이런 와중에 저만 승진을 하게 되니까 미안함이 매우 많죠. 어떤 사유로 그만두게 됐든지 간에 상사로 모셨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부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 제가 사무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박인교 부시장이셨는데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송별회 때 행운의 열쇠하나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만두게 된 겁니다. 또 요즘 같으면 업무 추진비가 상당히 있는데 그때는 미미했어요. 그래서 수용비 등으로 충당하고 그랬죠. 양심적인 사람이라 해도 박봉으로 먹고 살기도 어려운 처지에서 자기 돈 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변태 경리 했다고 전부 다 잘린 겁니다.

그때 신문에도 대서특필 됐어요. 그래서 진도 제 고향에서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은 괜찮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유사 이래 지방에까지 그렇게 엄청난 감사를 한 것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감사 후에 어떻게 됐느냐, 성남이 완전히 썩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그 당시 부시장이 그만둔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실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감사원에서 성남으로 오지를 않았어요. 감사원 감사할 때 이재덕 시장님이 수원시장님으로 계셨는데 재직 중에 한 일 때문에 이재덕 시장님도 감사를 받는 거예요. 이재덕 시장이 나를 보더니 박 계장 그때 쓴 성남 5년 약사 있잖아, 그것 좀 줘봐라 해서 그것을 감사원 감사관에게 줬어요. 원고지 500매 정도의 분량밖에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 나온 숫자는 정확합니다. 날짜 이런 것까지 다 정확합니다. 박창구 회장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상도 분인데 굉장히 강직하고 양심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감사원에 잘 아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성남에서 만든 조그마한 책자를 보고 성남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고 말하더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쓴 것을 보신 것 같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감사원에서 바로 보내주지 않아서 제가 나중에 찾아다가 시사편찬 부서에 줬습니다.

감사원 감사 끝나고 박 대통령이 성남시청에 오셨는데 검은 고급 승용차 다섯

대가 쭉 들어와요.[15] 그때 이남두 시장님이 계셨어요. 경호원들이 귀에 무전기로 착착 하는데 굉장했죠. 그런데 박 대통령이 탁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이남두 시장실로 직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남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 대통령이 오셨다고 부랴부랴 왔는데 경호원들이 "당신 누구야, 누가 서장 오라고 그랬어, 나가" 그러니까 계단에 잠깐 서 있다가 민망할 것 아니에요, 그냥 가 버렸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디 특별 순시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 경찰에게 경호 책임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는 것은 지역 경호 책임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장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남두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청와대에서 연락이 오기를 여기서 VIP가 가게 되니까 시장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랬다는군요. 이남두 시장님은 대통령 오실 거는 생각도 못하고 거기에 주요 수석 이런 분이 오나보다 이랬는데 딱 나타난 거예요.

그때 도지사 초도 순시가 예정되어 있어 보고용 차트를 준비해 두었어요. 당시 박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새마을운동이 나오는데 내무부에서 지시 떨어지기 전에 연설문에 나온 것을, 목표, 방침, 실행 계획, 행정 효과, 이렇게 해서 전부 차트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딱 나타나니까 그 차트 가지고 보고 드린 거예요. 제 추측인데 대통령으로서는 내무부 가도 내가 지시한 것을 바로 이렇게 못 만드는데 일개 시에서 연두교서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하니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남두 시장이 영전을 합니다. 산림청 부청장으로 발령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죠.

무허가 카바레 폐업시키면서 고초 겪어

79년도에는 5월 4일자로 사회과장이 되었죠. 사회과장으로 있을 때 성남의 무허가 카바레가 30개소가 있었어요. 제가 사회과장으로 가니까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대포집은 아무런 돈도 없고 빽도 없고 그래서 영업정지가 계속 나간다, 그런데 무허가 카바레는 밤중에도 휘황찬란한 불빛에 춤추고 나팔 불고 하는데 영업정지 하나 당하지 않고 영업 계속하고 있다, 다 돈 먹고 봐준 것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거의가 사실이에요. 당시에는 유흥 음식점도 요식업조합 회원이

15) 일간지 "박 대통령 예고 없이 시청 들러, 성남시 팽창 억제 지시" 기사에는 3월 17일로 나온다(『매일경제』 1976년 3월 18일).

어서 요식업 조합장을 찾아가 무허가 카바레는 절대로 안 되니 즉시 폐업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때 박봉휘 시장님이 계실 땐데 3개월을 설득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다, 행정처분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업소에 가서 자의서 써달라고 그러면 잘 써줘요. 왜냐하면 나중에 무마시켜 버리면 되기 때문이지요. 대포집 영업정지 하지 말고 위법행위 큰 데 하라고. 그래서 위생계장에게 이번에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한다, 과장 지시를 받고 안 하면 명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업소에 가서 그렇게 말해도 좋다 그랬어요. 위법행위 적발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문을 합니다. 청문은 과장 전결이에요. 청문회 공문 나가버리면 아무리 높은 사람도 없애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없애면 공문서파기죄가 성립되지요. 그렇게 해서 손 쓸 새가 없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행정처분을 스물아홉 군데 하는데 일부 언론인, 일부 유력 기관원들이 봐달라고 그러는데 못 봐준다고 강력히 거절했지요. 그러니까 저의 상사인 국장급 이상 되는 분에게 굉장한 압력을 가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이때 저는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밀고 나가서 무허가 카바레는 전부 폐업시킨 일이 있었지요.

그때 박봉휘 시장님이었는데 어지간한 압력에는 굴할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79년 4월쯤에 대구 부시장으로 가시고 이봉학 시장님이 오십니다. 시장이 바뀌니까 인사 조치 압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무렵 무능 공무원에 대해 전부 사표를 받았는데 저를 거기에다 넣었데요. 이봉학 시장은 모르잖아요. 이봉학 시장이 이 사람 인사 기록 카드를 가지고 와 봐라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감사실장까지 했는데 무능하거나 불량한 사람을 감사실장 시키진 않았을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제외시켰답니다.[16]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든지 1980년 7월 25일 청소과장으로 발령이 나는 겁니다. 이봉학 시장이 불러요. 무슨 얘기를 들었던지 "박 과장 섭섭한 거 있소?" 해서, 아니라고, "저 아주 좋습니다", 사회과장 할 때 어찌나 시련을 당했던지 "저 청소과장이 좋습니다" 그랬죠.[17] 그때는 전보 제한 기간이 1년인데 1년도 못 된 1981년 6월 1일 다시 전보 발령으로 상공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지요.

16) 구술자는 그러한 사실을 정년 퇴직 10년 후 알게 되었다.

17) 둘째 아들 박우형은 "어느 날 아버지가 뭉치를 마당에 확 던졌는데 어머니 말씀이 누가 세금인가 뭘 봐달라고 했다고 …… 아버지는 고독한 공무원이었어요. 뇌물 이런 걸 안 받으셨으니까. 약점이 있으면 그 당시 경찰들이나 기자들한테 끌려 다니잖아요"라고 기억했다(박우형 구술, 2012. 11. 3).

97년 정년 퇴직, 성남에 묻힐 겁니다

정년 퇴직 당시의 박봉준 옹 모습

1986년 4월 1일 갑자기 광주군청으로 전출 명령이 나서 광주군 사회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서울대학교 재학 중이었지요. 또 이 무렵 광주 5·18이니 뭐니 해 가지고 정부에서 왜곡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그때 목숨을 걸고 데모를 하고 그랬습니다. 공무원 자제가 그랬을 경우에는 사직서를 내게 하거나 좌천을 시키거나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대학생 성남연합회장[18]인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나 광주군청에 재임한 지 1년도 안 되어 1987년 1월 26일자로 다시 성남으로 발령받아 와서는 세무과장, 총무과장으로 있다가 90년 5월 기획실장을 하고, 그 후 지역경제국장, 재무국장 하다가 97년 6월 30일자로 정년 퇴직한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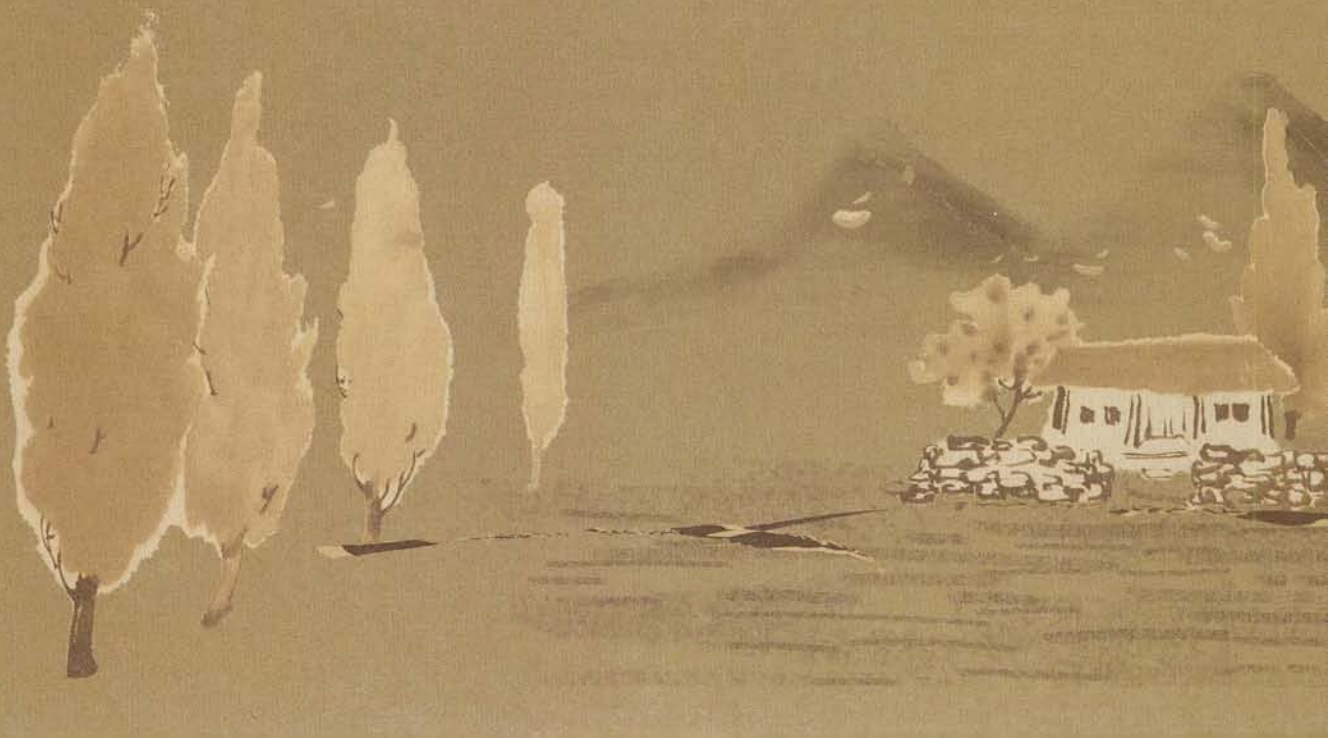
저는 죽어서 성남에 묻힐 겁니다. 성남 개발 초기부터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시련과 고통도 있었지만 성남에 대해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 조금 건방진 것 같은데, 애착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죽게 되면 성남 화장장에서 화장해라 얘기했습니다. 제 첫째 아들이 지금 뇌출혈로 입원해 있어서 손자 때문에 아들 집에 있으면서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요즘 묘지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3년 전에는 『성남시사』[19]를 보고 (잘못된 부분을 말하려고) 시청에 갔어요. 편찬위원회는 이미 해산이 됐을 때라 관계 공무원한테 갔는데 그 후에 별 조치가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름방송을 꼭 봅니다. 다른 곳에 가면 아름방송을 들을 수가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하니까 아름방송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외지에 나가도 아름방송을 꼭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방송에 시사편찬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한다고 나와서 편찬위원회를 찾아가 얘기를 하려고 하던 찰나에 우리 장남이 뇌출혈로 그렇게 돼가지고 못 했던 겁니다.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연락을 해줘서 저로서는 굉장히 고마웠어요.

---

18) 구술자의 둘째 아들 박우형은 1985년에 성남시대학생연합회(약칭, 성대련) 회장을 했다.
19) 2004년에 발간된 『성남시사』이다.

제5장
한맹순 할머니의 성남살이 일기

이보라 자유기고가(한맹순 할머니 손녀)



일기로 한글을 배우고 역사를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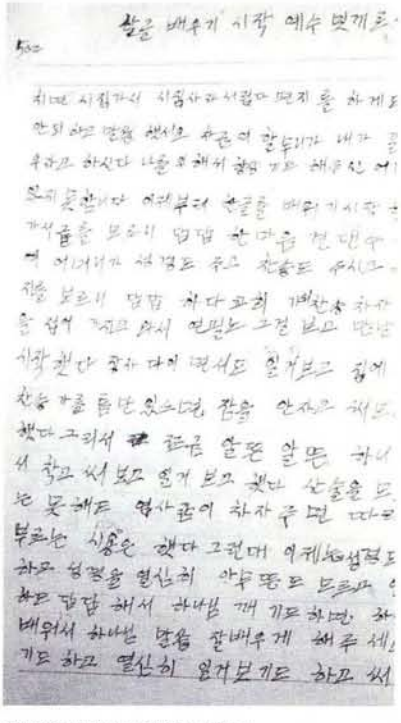
지금 100세를 바라보는[1] 할머니는 얼마 전 평생 동안 쓴 일기를 모아 책으로 내고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학교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할머니한테 일기 쓰기는 한글을 배우는 좋은 방법이었다. 어릴 적 나는 할머니의 일기 쓰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숙제로 내주지도 않는 일기 쓰기를 왜 저렇게 고생스럽게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지금도 고단한 하루 끝에 일기장을 붙들고 계신 할머니 모습이 눈에 선하다. 맞춤법도 모르고 소리 나는 대로 삐뚤빼뚤 쓴, 할머니의 온 힘과 정성이 들어간 그 일기가 지금 성남과 현대사를 담은 중요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추운 날에도 쉬지 않고 곱은 손으로 썼던 그 열정이 역사의 생생한 기록이 된 것이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했던 기억이 참으로 많다. 나는 국민학교(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할머니와 책을 읽으며 한글을 떼었다.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할머니가 손녀딸 한글을 가르치신 셈이다. 할머니는 한글을 교회에서 성경과 찬송가를 보며 떠듬떠듬 배웠고 본인의 입말로 일기를 쓰셨기 때문에 해석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다. 1987년쯤 이하얀언더기 선생님이 오셔서 한글 공부모임을 하면서 정식으로 한글을 공부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때 함께 읽었던 동화의 내용이 일기에 기록된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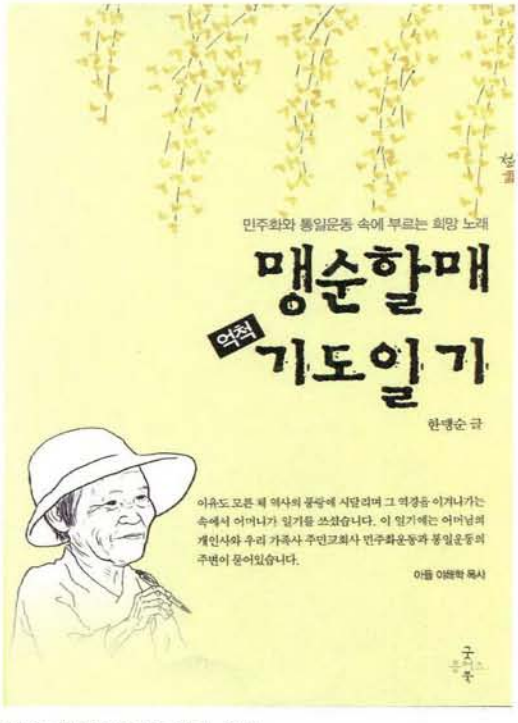
> 오늘은 한글 공부 처음 나오는 사람이 두 명이나 와서 재미있었다. 그리고 이하얀언더기 선생님께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을 가지고 와서 읽었다. …… 나는 이 글을 읽고 눈물이 글썽글썽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도 전에 시골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 먹지 못하고 헐벗었다. 나는 장사 다녔고 집에서 할머니 작은 어머니가 있었지만 너무 어렵게 살았고 그 사이 길쌈도 했지만 팔아서 돈 장만 하느라고 옷도 헐벗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다. …… 나는 이 글을 쓰면서도 옛날 아들 어렸을 때 일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거린다. (1987. 11. 30)

> …… 오늘부터 제자 훈련 공부 재미있었다. 처음 시작이지만 정말 나는 학교 문 앞에

1) 필자의 할머니는 1916년생이지만 호적에는 1919년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맹순 할머니가 직접 쓴 일기



『맹순할매 억척 기도일기』 표지

> 도 못 가보고 학생 되어 보기가 내 소원이었다. 교회 나가면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하면서 한글을 배웠다. 교회를 학교로 생각하고 그날 부른 찬송을 접어두었다가 집에 와서 연필로 자꾸 써보고 또 쓰고 또 읽어보고 나는 교회 다니면서 한글을 배웠다. …… (1983. 4. 25)

한글 공부하면서 읽은 책 내용에 공감해서 써놓은 할머니의 지난 일들이다. 일기에 등장하는 이하얀언더기 선생님은 이오덕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명 받아 어린이와 글쓰기 운동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분이다. 위 일기는 할머니가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고, 가난해서 아들을 잘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했던 일들을 회상하며 마음 아파하신 것이다. 아래 일기는 그보다 앞선 83년 내용으로 한글을 배우게 된 사연이 기록되어 있는 일기다. 그 당시 할머니 나이 67세였다. 그 나이에도 배움에 목말라한 표현이 간절하다. 그 이후에 잠깐이나마 정식으로 한글을 공부하셨으니 이미 그때가 71세이다.

우리 식구가 성남에 온 것은 1973년이다. 성남은 어린 나에게 꿈과 희망의 땅이 아니었다. 지금의 성남과 비교하면 1970년대 성남의 모습은 너무나 암담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대부분의 성남 사람들처럼 고향을 등지고 인생의 후반부를 성남에서 사셨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성남에서 평생을 산 것만큼 많은 일을 하셨다. 이렇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정작 할머니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기보다는 현실의 벽에 맞서서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 낸 분이셨다.

지금도 직접 바느질 해 만든 복주머니를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하곤 한다

할머니는 1916년(호적에는 1919년) 전라도 순창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일찍 남편을 여의고 외동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힘들고 외로웠던 시절 유일하게 할머니의 이름을 불러주는 교회에 마음이 끌려 시작된 믿음 생활이 아들을 목회자로 만들면서 평생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수유리 한신대 밑에서 살다가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한 아들에 이끌려 성남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때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와 손녀 둘(언니와 나, 본명보다 애칭인 도레, 미파로 불렀음. 1980년에 막내 솔라가 태어났음)로 가족을 이루고 있었다.

> 아들이 개척하는 교회에 갔더니 간판은 주민교회라고 씌여 있었다. 3평짜리 방에 문 열면 길가가 있고 조그마한 시멘트 벽돌 방에 주일 학생이 80명이 모이고 하루에 세 번, 5, 6학년 학생들과,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한다. (1973. 5)

아버지(이해학 목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위원회에서 파견되어 성남에 주민교회를 세웠다. 할머니가 성남에 와 본 첫 기록이다. 수진동에 처음 문을 연 교회는 늘 아이들로 북적거렸다. 아버지는 일 나간 부모들을 대신해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로 목회를 시작하셨다. 골목에서 아이들과 딱지치기, 공놀이

로 친해졌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이것저것 보여주기를 즐겼다. 아이들이 넘쳐나서 예배를 세 번씩 봤고 예배 시간엔 재미난 옛이야기와 마술쇼, 인형극 등 아이들의 볼거리들을 정성껏 준비했다. 아버지는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는 그네를 하나 얻어 와서 마당에 놓았다. 교회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돌봄이 필요했던 아이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다. 아버지 목회의 시작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종교적 역할의 수행이 중요한 과제였다.

> 수진동 41단지 집에 살면서 탁아소도 시작했다. 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별짓을 다했다. 좁은 마당에다 애들 타는 그네를 가져다 놓고 어린애들이 하나둘씩 모이자 나는 똥 치우고, 도레 엄마는 간식 사다주고 밥도 해서 먹이고, 어린애들 노래도 가르치고 기도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녁 8시, 9시가 되어야 애를 데려갔다. (1973년 회상)

아직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을 위해 가정 탁아가 시작되었다. 할머니는 엄마와 역할을 나누어 무엇이라도 일을 도와야 했다. 이후에 교회를 지어 어린이집을 운영했을 때의 이야기도 있다.

> 선교원 애들 중 너무 어린 탁아소 애들이 똥도 오줌도 막 싼다. 똥 싼 옷을 어디다가 뭉쳐놓을 수 없어 나는 빨아서 햇빛에 말려서 엄마들 오면 보낸다. 나도 기분이 좋고 엄마들도 좋아한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똥 싼 옷을 그대로 싸서 보내지 않는다고 성화를 한다. 나는 내가 고생이 되어도 똥 싼 옷을 그대로 보낼 수 없었다. 어린애들이 변소도 못 가게 따라다닌다. 내가 움직이면 세 놈 네 놈이 따라만 다닌다. 성묵이도 똥 싸고 원청이도 똥을 싸고 유이도 똥을 싸고 똥 하나 치우고 나면 하나가 싸고 교대해서 똥을 싼다. 내가 너무도 힘들다. 너무도 복잡할 때는 주님 나에게 감당할 힘주소서. 그리고 똥 싸서 치울 때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똥 치운다. 이상한 것은 똥 치울 때 화가 나지 않고 고무장갑 끼고 더러운지도 모르고 했다. 어린이들이 놀 때는 예쁘기만 했다. 미워해 본 적은 없었다. 새끼여서 무릎에 안고 잔다. 어떤 애는 엎드려 잔다. 어떤 애들은 저절로 잠이 든다. 연희는 꼭 업고 있어야 잠이 든다. (1984. 5. 15 태평동 새 건물에서)

지금은 「영유아보육법」이 만들어지고 나라에서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지만, 아이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던 당시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삶의 또 다른 과제였다. 할머니는 그 어려운 과제를 함께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웃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는 할머니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몸이 재산이었던 성남 사람들은 육체노동을 많이 해서 영양이 부족하고 아픈 사람들도 많았다. 병마는 가난한 이들의 몸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제대로 된 병원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어려운 살림에 병원비는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버지 친구였던 한의사 최형주 원장이 와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했지만, 나중에는 우리 집이 진료실이 되기도 했다. 아픈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순서를 기다리고 침을 맞고 약을 타갔다. 할머니는 발 디딜 틈도 없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붙이고 물을 떠다 주기도 하고 잔심부름을 하면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다. 침을 잘 놓고 맥을 잘 보셨던 최 원장은 다리를 삔 사람을 그 자리에서 걷게도 해서 보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모두들 감탄했다.

>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일은 기쁨이다. 어른은 한 사람도 없고 애들만 3부 예배를 본다. 우리 식구 다섯에 다섯 사람이 더해져 열 사람 정도가 예배를 보았는데 우리는 밥은 먹고 살았지만, 수진동 사람들은 너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았다.
> 아들이 부자교회 다니면서 모금을 해다가 쌀 다섯 가마를 사서 반장 통장을 통해 부대 봉지에 한 말씩 담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가더라.

병들었어도 병원 치료도 못 받는 사람도 많다. 서울에서 사업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산다. 영등포 최형주 원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동네 사람들을 진찰도 하고 침도 놓고 액(약)도 무료로 주었다. 주일마다 환자가 백 명도 넘게 모였다. 취로 사업 해서 벌어먹는 가난한 사람들이 8명이 되었다. (1975년 주민실업자대책위 활동)

오후에는 영등포 최 원장이 오셔서 환자들을 많이 모아 놓고 치료했다. 나는 환자들 여기저기서 오라고 다니느라고 분주했다. 우리 이웃집 골목 아줌마들이 많이 와서 진찰도 받고 침도 맞고 약도 공짜로 받고 나는 마음이 기쁘다. 왜냐하면 원장님이 무료 봉사하시니 기왕 오셨을 때 많이 환자가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979. 8. 15)

오늘은 예배 끝나고 영등포 최 원장이 오셔서 환자들 많이 진찰도 하고 약도 세 가방을 가지고 와서 무료로 다 주더라. (1983. 3. 14)

할머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신명이 나셨다. 일기에 나오듯이 교인 중에도 취로 사업을 해서 벌어먹는 삶들이 8명이라고 적혀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취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정상적인 일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동네에서 일거리를 맡아 하면서 근근이 살아가는 삶이다. 할머니도 가난하게 사셨던 분이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일기가 많다.

할머니는 누구라도 만나면 "밥 먹었어요?"라고 물었다. 밥을 거르고 쭈뼛거리는 사람에게는 얼른 밥을 차려서 대접했다. 할머니는 밥을 나눌 때 행복해하셨고 진정으로 기뻐하셨다.

오늘 또 도래 엄마는 면회 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체육대회 가려고 준비를 한다. 나는 밥을 가지고 가게 하려고 반찬도 장만하고 밥도 하고 혼자 애를 바둥바둥 썼다. 밥을 해서 보내고 집에서 이웃집 할머니들 오라고 해서 여럿이 밥을 먹었다. 밥을 할 때 여유 있게 해서 대접했다. 할머니들이 좋아하더라.

오늘은 어떤 분이 우리 집에다 밀가루 반 포대짜리 다섯 개나 가져왔다. 그래서 나는 어찌 기쁜지 마음으로 어려운 교인들 나누어 주기를 바랐더니 우리 목사님도 어려운 집 나누어 주라고 해서 나는 기쁨으로 수진동 어려운 집 두 집에 머리로 이어다 주었다. 두 번 왕복하고 나서는 몹시 피곤했지만 기쁨으로 했다. 내 육체가 늙은 것 같구나. 이제는 맘뿐이다. 마음으로는 무엇이라도 다 할 것 같다. (1983. 3. 15)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살다

할머니의 평생이 기록된 이 일기가 남다른 의미를 갖는 것은 그 속에 가난한 성남 사람들의 고단한 삶이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방 한 칸 제대로 없는 가난한 사람들, 일터에서 쫓겨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 그리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생하다. 당시 성남 지역에 살았던 가난한 여성들의 모습도 그려져 있다. 할머니는 가난한 여성의 삶을 이미 자신의 몸으로 살고 있었지만 항상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었다.

오늘은 김영순씨가 방을 얻으려고 태평동 전체를 다 헤매고 다녔다.

할머니 일기에 잠깐 나온 한 줄의 기록이다. 이 한 줄 속에 김영순으로 대표되는 당시 성남에 살던 보통 사람들의 삶이 다 담겨 있다. 그분은 남편과 어린 자식들을 위해 채소를 팔면서 살아가던 분이다. 가진 돈으로는 이 가족이 몸 누일 방 한 칸 마련할 수 없었다. 태평동은 언덕이 높고 골목이 구불구불한 가파른 동네다. 그 골목을 누비며 고생스럽게 다녀봤지만 방은 구할 수 없었다. 성남에 떠밀려 들어와 살던 여성이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이야기이다. 성남 사람들은 서울의 집이란 집은 다 지으러 다녔지만, 정작 자신들이 살 방 한 칸조차 구하기 힘든 이들이 많았다.

성남은 나중에 상대원동에 공단이 형성되기도 했지만, 몸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일찍 서울로 나가서 종일 일하다가 고단한 몸으로 밤늦게 돌아오는 막차 지역이었다. 할머니의 눈에는 가난한 남자들 못지않게 곤궁한 여성들의 삶이 밟혔다. 할머니 일기에는 같은 여성의 눈으로 본 여성들의 삶이 있다. 무를 가득 실은 리어카(손수레)를 끌고 가거나, 머리엔 장사 보따리를 이고 손에는 연탄 두 장을 들고 얼음 깔린 길을 걸어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모습이 생생하다.

오늘은 김영순 집사님이 리어카에다가 무를 싣고 왔다. 나는 장사하면서 하도 고생을 해서, 김영순 집사가 벌어먹고 살겠다고 저렇게도 고생을 해야 하니 웬일로 슬픈 생각이 났다.

오늘 또 날씨가 몹시 추운데 우리 교우들, 특히 가난한 교인들 얼음덩이 위에 다니면서 그날그날 벌어먹고 사는 교인들 불쌍히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연탄도 트럭으로 한 차씩 사서 쟁여놓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연탄 두 장을 사서 들고 가는 사람도 있다. 그것도 여자가 장사하다가 들어가면서 머리에는 장사 보따리, 손에는 연탄 사서 들고 가는 사람도 있다. 나도 전에 연탄 두 장씩 저녁에 집에 올 때 사서 들고 온 적도 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불쌍하냐. 가난이 제일 불쌍하다. (1984. 1. 20)

주님 저희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는 않았나 눈 감고 조용히 회개합니다. 어느새 올 금년 한 해가 펄쩍 지낸 걸 생각할 때 안타까운 생각뿐입니다. 주님 저희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는 않았나 눈 감고 조용히 회개합니다. …… (1984. 12. 24)

추운 겨울이 되면 할머니의 기도 소리는 더욱 바빠졌다. 어스름 새벽 먼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서서 함께 자는 우리들의 이불을 덮어 다독여 주시고는 새벽 기도 준비를 하면서 이미 할머니의 기도는 시작되었다. 가까운 식구들부터 교인들,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간 아들과 교인들, 군대 간 청년들, 할머니가 기억하고 보살피는 가난한 이웃들까지.

눈이 오고 바람도 휘몰아치고 추운 날씨다. 철거민들이 걱정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그날 벌어야만 사는 가난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가난한 교인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987. 1. 7)

국제시장 상인들이 근 한 달째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참으로 보기가 딱하고 안 되었다. 나는 도와줄 것이 없고 열심히 기도로 하나님께 도와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비가 날마다 오고 있다. (1987. 8. 6)

성동구치소 계신 권영환한테 면회를 다녀왔다. 그리고 박순자 집사님 같이 변점순 댁에도 갔었다. 변점순이가 아파서 장사도 못하고 누워 있으니 답답하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온다. (1988. 9. 29)

어머니와 할머니는 아버지가 안 계실 때에도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에 손을 놓지 않으셨다. 교회 일과 서울에서 연일 열리는 시국 관련 시위와 집회에 참석하느라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고단하고 바쁜 시절이었다. 할머니는 교회와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정성을 쏟으면서도 우리들을 보살피고 먹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

으셨다. 다음의 일기는 할머니와 깊은 인연으로 만나 할머니가 보살핀 분의 임종까지의 이야기이다.

오늘 또 ○○○ 할머니 집을 못 잊어 갔더니 아주 냄새가 코를 찔러 맡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몸이 착 가라앉아서 형편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서 ○○○병원에 택시 타고 가서 수속 밟았다. 대소변 받아내느라고 무척 고생했다. 그리고 냄새가 난다고 옆에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보호자 밥을 안 주기 때문에 집에 와서 식사를 했다. 환자가 끼니마다 밥을 다 잡수신다. 오늘은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들이 퇴원시키라고 한다. (1984. 3. 5)

○○○ 할머니를 우리 교회 여신도회에서는 한 달에 5만 원씩 거두어서 월금을 주고 백금선 댁에다가 맡겼는데 집주인이 새 건물 집에서 사람 죽으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해서 우리 교회 삼층 기도실 방으로 오시기로 해서 오늘 저녁에 모셔왔다. 많이 잡숫지도 않는데 기저귀도 늘 갈아주어야 한다. 나는 기저귀 갈아줄 때마다 큰 소리로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 품에 안아주옵소서. 사람들이 밥을 조금씩 드리라고 하지만 사람이 그럴 순 없었다. (1984. 6. 28)

○○○ 할머니는 지하실 방으로 옮겨놓고 자주 들여다보면서 임종을 준비했다. 어제 저녁부터 물도 안 넘어간다. 오후 6시 반쯤 숨이 갔다. 비록 아들이 없고 딸도 없고 하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아들 노릇하고 집사님들이 다 모여서 수고들 하셨다. 비록 가난하고 고독한 삶을 살았지만 아주 초상은 멋지게 치렀다. 영구차 나갈 때 내 마음이 슬퍼서 감당할 수 없었다. 화장터 가서도 그 분이 살아서 내게다가 그 어려운 말, 외로운 말을 다 했던 것도 생각이 나서 어찌나 불쌍하고도 슬픈지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참았다. 저녁 잠 잘 때도 그의 몸부림치는 것이 내 머리에 떠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새벽 기도를 하려고 나오면서 할머니 누워있는 방을 들여다보니 쓸쓸하기만 하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그분이 고통을 많이 받고 가셨지만 아버지 품에 안긴 줄 알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례도 무사히 치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984. 7. 4)

할머니는 항상 더 큰 물살에 휩쓸리는 자신의 처지보다는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약자들, 당장 고통 받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했다. 그것은 당시 정치나 사회 변화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살아가야 하는 문제, 삶을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문제, 생명을 낳고 기르는 데 여성의 구체적인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할머니가 성장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이 몸으로 습득된 '일하는 여성'이라는 각성이 할

머니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 우리는 복지를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복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당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구제를 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할머니는 나눔의 공동체를 꿈꾸셨다. 무엇이든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셨다.

> 오늘 또 삼양전자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삼백 명이 몰려 왔다. 전경차 20대가 와서 해체시키려고 했지만 몰아냈다고 한다. 회사 안에서 오십 일간을 일도 않고 지키고만 있었는데 특수 부대가 와서 치고 들어왔지만 몰아냈다고 한다. 회사 사장은 진작 떠나고 노동조합을 해체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다 부린다. 비는 주룩주룩 오고 있다. 아침은 국수를 삶고 저녁은 밥하고 종일 신경이 쓰인다. 분주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저들을 안 받아주면 어디에 가서 고생을 할까. (1988. 7. 2)

> 삼양전자 노동자들이 반반 합의 보아서 회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나는 참으로 반가웠다. 삼양전자가 해결되어서 교회가 점점 잠잠한 것 같은데 또 철거민들이 몰려왔다. 오십 가구나 된다고 하는데 애들이 어른보다 더 많다. 그들은 교회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우리 교인들이 아우성이다. 좋은 일 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가 산만해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민중교회이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교회이고 철거를 당해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안 받아주면 어느 누구도 받아줄 데가 없었다. (1988. 7. 27)

> 노점 상인들 호소를 들으소서. 날마다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한다. 불같이 뜨거운 볕에서 고생하는 국제시장 상인들이다. 성동구치소 산자교회 오길성 집사님께서 철거하는데 말리다가 연행되어서 감옥에서 고생을 한다. 얼마나 억울할까 죄 없이 감옥살이 한다. 오늘은 내가 가서 위로라도 하고 와야제 하고 가서 면회하고 돈 만원 영치금 넣어주고 왔다. (1988. 9)

주민교회가 성남에서 했던 선교 사업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집중되어 있기도 했지만 교인들이 항상 그 일에 공감하는 것은 아니었다. 억울한 사람들이 몰려오면 기도처소가 사라지기도 하고, 교회에 교인 아닌 사람들이 와 있으면 불편해 하는 것이 당연했다. 할머니는 교인이 아니라도 해직 노동자, 철거민, 빈민, 수감자, 가난한 여성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쏟고 기도하셨다. 그것은 세상의 법과 질서가 가난한 이들에게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각별해야 했다. 그래야 공평해진다고 믿고 있었다.

핍박받는 이들을 위한 할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예언자적 삶을 이해하는 일은 보통의 상식으로 어렵다. 원래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60년에 4·19혁명 대열에서 이마에 부상을 당하시어 민주화의 징표인 상처를 달고 계신 아버지다. 1971년 위수령 사건 때 한신대에서 제적되고 불구속 기소되기도 하셨다. 1973년에 성남에서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그해 9월 김대중 납치사건 교포신문 복사 건으로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심한 고문을 당하셨다. 그해 첫 성탄절을 김포공항에서 수도권 특수지역 선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며 교인들이 영등포경찰서에서 종일 매를 맞으며 보낸 사건은 시작부터 수난의 행보를 예고한 것이다.

갑자기 목사님들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우리 전도사도 같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15년 형으로 구속영장이 내렸다고 한다. 너무도 실망이 컸다. 우리 아들은 죄지을 리가 없는데 웬일일까. 내 속이 울화통이 터진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신 종 죄를 졌거든 회개시켜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시켜 주소서. 저는 아들 하나 하나님의 종 되게 해 달라고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제 감옥살이를 15년 한답니다. 이 목숨 차라리 죽은 목숨만도 못합니다. 주야로 기도합니다.

하루는 이영일 목사 사모님 집을 찾아갔더니 그 사모님이 나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신다. 우리 아들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하기를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 맘대로 헌법을 고치는 일 잘못했다고 편지를 써서 부쳤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해학이는 15년을 가두라고 하고 명령을 내렸다고 하시더라. 나는 그 말씀 듣고 우리 아들이 어려운 사람 돕는 데 앞장서는 사람인데 무슨 죄가 있어서 15년 형을 받았는가 너무도 답답했다. (1974. 1)

오랫동안 교인들 집에 심방 간 지도 오래 되어서 오늘은 심방을 가려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 성경 가방을 들고 마루 끝에 걸쳐 앉아서 교인들이 전도사 왜 안 오시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하는데) 라디오 소리가 난다. 라디오 소리를 들어보고 갈까 하고 듣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 진짜 석방한다고 라디오에서 말한다. 도레 엄마도 놀라고 나도 놀라서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사해서 눈물을 주체도 못한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종들을 베드로가 쇠사슬을 끌르고 옥문을 열고 나온 것 같이 석방했으니 감사합니다. (1975. 2. 15)

오늘은 수요일 예배다. 저녁 예배 시간이 다 되어도 아들은 오지 않고 박 집사님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마쳤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경찰들이 줄을 섰다. 온 집을 뒤지고 우리 아들 책이 많이 있는데 책꽂이에 책 꽂아놓은 걸 밤을 새워서 책을 뒤지고 하나하나 두드려보고 가지도 않고 지키고 있어서 아랫방을 하나 내주었다. 밤에도 지키고 낮에도 지키고 식사하러 갈 때도 교대하면서 지키더라. (1976. 3. 17)

아버지가 하시려고 했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목회는 쉽지 않았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정치를 구조적으로 바꾸지 않은 채 행하는 구제와 선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가난하고 억눌린 이들을 위한 삶을 소명으로 생각하신 아버지는 빈민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등 우리 사회에 금기시되던 일들을 주저 없이 펼치셨다. 그로 인해 1974년 1월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15년 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 이후에도 아버지는 쫓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반복했다. 1976년 3·1민주구국선언문 사건으로 3년 형을, 1990년 독일 베를린에서 남북 해외 지도자들과 민간통일운동기구 결성 혐의로 1년 6개월을 받았다. 여러 차례 연행, 구류 등으로 우리 집은 늘 아버지 걱정으로 바람 잘 날 없었고 사건의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 면회와 종로 5가 기독교회관 기도회를 다니시고 우리가 기억하기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간 동안 학교에 한 번도 못 오셨다.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선생님들은 은근히 핀잔을 주었다. 고등학교 총학생회장을 하였던 도레 언니는 교장선생님께 노골적으로 핍박을 당하였다.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로하는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였다.

1973년 3·1절 기미독립운동과 교회 창립일 행사에 문익환 목사님이 강연하시고 가시면서 그날 명동성당에서 읽을 민주구국선언문을 주고 가셨단다. 그리고 윤보선, 김대중, 함석헌, 문익환, 서남동, 이우정, 문동환, 이해동, 함세웅 등이 국가 내란음모죄로 구속이 되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발표가 나자 아버지는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였다. 그러다가 청년회장 김금용과 상의한 결과 선언문을 복사하여 전라도에서 돌리기로 하여 김금용, 숨겨준 김의경 등이 구속되고 우리 교회는 교회를 없애려는 시련을 겪게 된 때에 할머니는 이 시절을 신앙심으로 극복하신다.

무슨 일을 한 가지 처리하면 기분이 좋고 나가도 기분이 좋다. 하나님 살다 보면 언젠가 평탄한 날도 오겠지.
좋지 않은 꿈인가. 외아들 하나를 맨날 감옥살이나 하고 외아들 하나를 눈앞에 두고 살지 못하는 세상. 오늘은 아들이 불현듯이 보고 싶다. 자비하신 주님은 내 심정을 이해하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언제까지 끝이 날까요. 차라리 죽는 것이 만족할 것 같습니다. 피곤한 몸에다가 내 몸에는 식중독 가려운 병에 걸려서 거기에다가 어깨 팔이 아파서 잠이 들지 않고 아들 생각만 하다가 펄떡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잠자려고 하는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밤 열두 시쯤 왔다. '어머니 어머니 아들입니다' 나는 너무도 당황해서 거기가 어데여 물었더니 '성남경찰서에요' 한다. 나는 너무도 당황해서 물어보고 싶은 말도 못 물어보고 전화가 끊어졌다.
아들 음성소리를 듣고 나서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못하겠구나. 언제 자수해도 해야 할 걸, 이제 짐을 하나 더는 것 같다. 아들 음성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잠을 들지 않는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잡히지 않고 자기발로 걸어가서 자수해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참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교인들은 물론 주변 친구들, 고향 친척들까지 경찰이 뒤졌다. 성남시를 가가호호 이 잡듯 뒤지고 매일 복정동 모든 버스가 검문을 당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경찰은 아주 쉬운 표현으로 '이해학 빨갱이 잡는다'이다. 막걸리 국가보안법이 그랬듯이 가장 무서운 건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빨갱이로 내몰리는 일이었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로 성남에서 교회를 세워 목회하던 아들이 졸지에 "빨갱이"가 되었다는 말은 할머니가 감당하기 힘든 사건들을 몰고 왔다. 언니와 내가 초등학생일 때 아버지는 형사들에게 쫓겨 도망을 다녔다. 형사들이 아예 우리 집에 상주하면서 우리를 감시했다. 여자들만 있는 집에 형사들이 함께 살았다. 우리가 학교 갈 때, 봄 소풍 갈 때, 가을 운동회를 할 때도 쫓아와 함께 다녔다. 작은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나면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다행히 우리 집은 주변 이웃들에게 인심을 잃지도 않았고, 우리는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로 어린 우리들이 상처받는 일은 적었다. 오히려 매일 감시하는 형사들이나 경찰들이 소란스럽게 사건을 만들 뿐이었다.

나는 전경들하고 늘 싸웠다. 상부 명령이라고 하면서 엄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밤새껏 울타리 같이 지키고 새벽 기도 오는 우리 교인들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 …… 또 우리 선교원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오는데 못 들어오게 해서 애들만 들여보내고 간다. 선생들도 한 사람도 못 들어와서 오늘은 내가 혼자 애

아들 이해학 목사와 8·15범민족대회에 함께 참가한 한맹순 할머니(2012)

> 들 보면서 엄마소도 얼룩소 아빠소도 얼룩소, 돼지는 꿀꿀 오리는 꽉꽉, 그리고 내가 어려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손잡고 강강술래 노래도 해주고 간식도 주고 점심밥도 해서 먹이고 그렇저렁 하루가 지났다. 이틀째가 나면서 더 심한 것 같아서 교인들 집 연락을 해서 전부 모여서 경찰서 앞에 가서 소리소리 지르며 농성을 해서 한 삼백 명 된 병정들이 다 물러갔다. …… 어떤 전경이 교회에서 개헌 서명을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주민교회뿐이라고 말을 한다. 그분들도 추운 날씨에 밤을 새우며 약이 오를 대로 올랐다. 나는 또 말했다. 우리 집에 지하 큰 방이 있는데 불을 넣어서 방이 뜨끈뜨끈하니 와서 보라. 사람이 한사람도 없으니 교대해서 방에 와서 추위를 녹이라고 말했더니 자기들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만 떼어도 밥통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불쌍한 생각도 들더라. (1986. 2. 14)

교회를 막아선 전경들에게까지도 뜨끈한 방에서 좀 쉬라며, 젊은이들이 추운데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안쓰러워 하셨다. 전경들이 만든 울타리는 마치 전쟁터의 전선처럼 매서웠지만 할머니는 그 전선을 넘어서는 인간애를 품고 있었다. 가끔 모두가 좀 엉뚱한 할머니의 모습에 어이없어 하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그렇게 만든 위정자들에게 분노하면서도 늘 자신과 실랑이 할 수밖에 없는 전경들의 처지를 안타까워 하셨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다

할머니는 노동하는 삶을 사셨다. 생명을 심고 가꾸는 일에 열심이었다. 작은 공터만 있어도 늘 무언가를 심고 가꾸고 추수하셨다. 계절마다 피는 꽃들에 감탄하고 새들의 노래에 귀 기울이고 동물들과 이야기 나누는, 생명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다.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 집은 동물을 참 많이도 키웠다. 강아지, 고양이, 닭, 토끼 등 할머니는 바지런하게 동물들을 다 걷어 먹이셨고, 동물들이 아플 때는 아이가 아픈 것처럼 여기며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함께 지내기도 했다. 지금도 식구들이 모이면 옛날에 동물들 키웠던 이야기만 나오면 재미있었던 추억으로 한바탕 웃음꽃이 핀다.

> 오늘은 공터에다가 내가 악착같이 밭을 일궈서 콩도 깨도 녹두 호박도 심어서 주렁주렁 열렸는데 그 자리에다가 시청을 짓는다며 포클레인이 땅을 파서 하나도 못 먹게 되었다. 나는 너무도 화가 나서 땅 파는 사람더러 말했더니 나에게 말하지 말고 시장한테 가서 말하라고 했다. 나는 콩이 주렁주렁 열린 콩나무를 가지고 시청을 갔다.
> 여보시오. 한 보름만 있으면 콩을 먹을 수 있는데, 피땀 흘려서 해놓은 곡식을 말도 없이 땅을 파느냐, 말했더니 왜 당신들은 남의 땅에다가 심었소. 양심이 나쁜 사람이지요 한다. 나는 말했다. 왜 귀한 땅을 놀려둡니까? 공터에 심은 게 잘못 있습니까? 당신들이 미리 말을 했으면 우리가 고생을 안 하지요, 말뚝에다가 글을 써서 표시를 해 놓았으면 왜 우리가 헛수고를 합니까? 수고비는 그만두고라도 종자값이라도 주어야 합니다. 다투었더니 시청 사람이 종자값은 물어주겠다, 우리가 해결해서 물어준다고 해서 알았다며 그냥 왔다.
> 할 말도 못하고 그냥 와 버렸다. 나는 속이 상했다. 나는 또 이까짓 것 괜찮아. 우리 독자 아들도 감옥에다가 썩히며 살고 있는데, 내 땅도 아닌데 생전에 먹을 것처럼 일을 한 사람이 잘못이다. 나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밭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악착같이 떠드는 사람이 없다. 종자 값을 못 받고 말았다. (1977. 9. 1)

공터가 있어서 텃밭을 만들었는데 시청 공사를 시작한다고 말도 안하고 포클레인으로 텃밭을 파내어 보름만 지나면 콩 수확을 할 참이었던 할머니는 낭패를 보

노동하는 삶을 살아온 할머니(2012)

았다. 고향을 두고 온 할머니에게 땅은 어느 땅이나 모두 소중했다. 지금보다 더 살기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집집마다 집 대문 옆에 흙을 묻어 꽃을 심었고, 공사가 없는 공터는 늘 텃밭으로 변해 있었다. 조금만 더 사람들을 배려한다면 할머니 말씀처럼 말뚝에 표시를 해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시청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으리라. 환갑이 넘은 노인네도 아는 상식을 당시에는 결국 종자값도 물어주지 않고 공무원이 늙은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할머니는 결국 억울하게 아들도 감옥에 보냈는데 이까짓 것 하시며 마음속으로 정리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혀 친절하지 않았던 시대의 이야기이다.

한번은 제법 큰 개가 추운 겨울날 아궁이에 코를 박고 자다가 연탄가스를 마셨다. 토하고 비틀거리며 괴로워하더니 쓰러져서 곧 죽을 것 같았다. 동네 사람들도 몰려와 개가 죽을 것 같다며 한참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때 할머니가 동치미 국물을 떠다가 입을 벌리고 넣어주니까 벌떡 일어나 정신을 차렸다. 어린 나는 신기하

하면서도 할머니의 지혜에 감탄하기도 했던 일이다. 할머니 일기의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도 참 재미있다.

> 우리 집에는 새카맣고 이쁜 고양이가 있었다. 아주 번들번들 이쁘게 큰 고양이를 애들이 좋아한다. 그런데 도레 엄마가 고양이를 없애버리라고 자꾸 해서 모란시장에 가지고 갔더니 사람들이 서로 욕심을 내도 싸게만 사려고 한다. 돈 천 원 받고 팔고 왔다. 그 이튿날 도레가 "할머니 고양이 어디 있어?" 왜 고양이를 찾느냐고 물었더니 고양이 그려서 숙제한다고 한다. 나는 누가 새끼를 내려고 가져갔다. 별소리를 다해도 도레와 미파가 울어대면서 저랑 같이 고양이 찾으러 가자고 한다. 나는 팔았다고 했더니 그렇게 이쁜 고양이를 돈 천 원 받고 팔았다고 더 큰 소리로 울어댄다. 할머니 나랑 같이 고양이 찾으러 가자고 한다. 나도 어찌나 속이 상한지 고양이를 도로 데려오려고 생각했지만 도레 엄마가 고양이 없애버리라고 하니 가지고 올 수도 없다. 나도 같이 울었다. (1977. 10)

동물을 자주 키우다보니 할머니는 모란시장을 자주 다니셨다. 할머니 일기장에서 모란시장에 얽힌 이야기가 눈에 들어온다.

> 온 성남시가 소동이 났다. 70여 일 아시안게임 한다고 하루아침에 모란시장을 철거한다. 시장, 경찰서장 나와서 행정 명령이 떨어졌다고 파란 모자를 쓴 3000여 명의 사람들과 대형 트럭으로 시장 입구를 모두들 막았다. 4일 졸지에 장터를 잃어버린 시골 노인 상인들 수백 명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 해서 불쌍한 생각 금할 수 없었다. 경기도의 명물인 민속장터인데 서민 생활 터전인 전통적인 모란시장을 행정 명령 하나로 그것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쩔 수 없다며 88을 빙자하고 있으니 86, 88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시골 상인들이 발악을 한다. 못 산다 아우성이다. 보따리 이고 와서 팔아서 애들 학교 돈도 대주고 용돈도 쓰고 해야 하는데 갑자기 생존권을 빼앗긴 것같이 안타까웠다. (1986. 4. 6)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하던 시대였다. 모란시장은 그런 욕망이 모인 서민들의 공간이었다.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만 치르고 나면 모두가 부자가 되는 세상이 올 것처럼 언론들은 떠들었고 86과 88은 당시 모든 것의 위에 있었다. 할머니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철시나 철거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가 잘 살게 된다는데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냐'라는 생각들을 품고 있을 때, 이미 정의로움과 공평함을 상실한 사람들의 잣대에 '86, 88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할머니의 손은 늘 노동하는 손이었다. 일거리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고 일이 없을 땐 기도하고 일기 쓰는 손이었다. 늘 쓸고 닦고 쓰레기와 폐지를 모아서 고물상에 내다 팔아 푼돈을 벌기도 했다. 요즘 동네마다 늘고 있는 쓰레기유모차의 원조가 우리 할머니쯤 되지 않을까 싶다. 할머니는 다른 이들을 돌보고 돕는 데 남들보다 더 많은 용돈이 필요하셨다. 추위에 고물상에서 돈 이천 원을 받아오면서 자신의 욕심이 지나치다고 반성하신다.

내가 날마다 쓰레기에서 종잇조각과 박스를 모아서 한 달에 네 번을 고물상에 팔았더니 돈 천오백 원이나 된다. (1987. 8. 9)

굉장히 추운 날씨고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었다. 오늘은 유난히 춥다. 장갑을 껴어도 손이 시렵고 눈이 내 방에 들이오니 손도 시렵고 귀도 시렵다. 창문 틈을 비닐로 막았다. 고물 모아 놓은 것 네 번이나 날랐더니 돈 이천 원 고물상에서 받아가지고 오면서 너무도 춥고 길이 미끄러워서 오면서 내가 돈 이천 원 벌려고

성남노점상신문

폭력적 노점단속 규탄및 구속자석방 결의대회

『성남노점상신문』 제4호 머리기사(1989)

하다가 하나님 뜻을 어기는 일인가 싶어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했다.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욕심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1990. 1. 24)

상대원교회 터에 가서 농사짓는 재미로 산다. 진 날 개인 날 없이 걸어서 상대원을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다녔다. 호박도 심고 들깨도 심고 콩도 심고, 귀한 땅이니 먹든지 못 먹든지 골고루 심었다. 집안 일이 너무 밀려서 저녁에 다 해놓고 잠을 잤다. 얼마나 바쁜지 사람이 몸으로 사는 것 같다. 죽을래도 죽을 시간이 없을 정도다.

땀 흘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 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야지 …… (1980. 6. 27)

공단이 많고 노동자들이 많이 살았던 성남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노동을 하며 살긴 했지만 할머니는 몸으로 노동하는 삶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신 분이다. 할머니는 무슨 일이든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견해 하셨다. 벌어먹고 사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입는 노동을 소중하게 보셨다. 본인도 평생을 몸으로 일하신 분이다. 나와 내 가족의 안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이렇게 지독하게도 나눔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음이 놀랍다. 할머니의 일기는 노동을 통해 생명을 키우고 노동을 통해 생긴 이득을 함께 나누는 마을 공동체가 이미 성남 지역에 있었다는 증거이다.

우리 교회에서 여신도들이 수재민 모금했다. 나도 따라 다니면서 도와 달라고 외쳤다. 여섯 명이 소리소리 지르면서 라면 한 개 값이라도 도와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사람들이 다 그대로 지나간다. 집에 와서 세어보니 그래도 8만 원 든 통이 있고 5만 원 걷힌 데도 있고 다 합쳐 돈도 58만 원이나 된다. 수재민 도와준다고 여신도회에서 애를 썼다. 수재민 도와서 기분이 좋다. (1987. 8. 2)

주님 오소서. 철거민에게 오소서. 노점 상인들에게 오소서. 노점 상인들이 돈벌이가 안 되어서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죄 없이 고생하는 양심수들 그 한을 풀어주소서. 그리고 감옥에 있는 통일의 일꾼들 원한을 풀어주소서. 통일을 위해서 희생을 당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빨리 통일의 물꼬가 터지게 하소서. (1990. 12. 25)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사건 속에서 본 할머니의 일기

세상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은 함께 나누는 것이며 나눔의 근거는 공평과 정의였다. 할머니 일기 속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다루는 법과 사회를 고발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사람이 먼저였고 그중에서도 '가난한 이들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가'였다. 그러하기에 광주민주화운동의 죽음과 박종철의 죽음을 부활의 역사로 소망하신다. 또한 세계 평화를 위해 모든 이가 힘쓸 것을 요구하며,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갈망하고 있다.

5 · 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일기

오늘은 텔레비전에서 계엄사령부대가 광주에서 대학생들을 앵긴 대로 막 쳐서 죽인다고 한다. 갈수록 태산이군. 끔찍스러운 일이 있으니 참 기가 막힐 일도 많다. 최(귀님) 집사가 해남 자기 집을 다녀오려고 가다가 도로 왔다. 버스도 끊어졌다고 한다. 광주에서 대학생이 50명이 죽고 청년들도 무수하게 많이 죽고 그곳의 시민들도 죽고 한 천 명이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한다. 웬일인지 공포에 떨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노를 저어야 이 파도가 잔잔해지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애기 보느라고 철야 기도에 참석 못하고 집에서 애기가 아파서 철야 기도도 못 가서 애가 터진다. (1980. 5. 21)

오늘 또 공포의 떨리는 맘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고 걸어가면서도 자리에 누워서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광주 몰쌀(몰살) 죽음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광주 죽음을 보상해 주옵소서. 목사님들 원하신 뜻이 이뤄지게 하소서. 악마의 정치가들은 죄도 없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자꾸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예언자들을 자꾸 소란하게 합니다. 우리 전도사는 목사고시 시험 보려고 기도원으로 공부하러 가서 안 옵니다. 광주사태로 온통 사람들이 흔들흔들 소란합니다. 오늘은 이점례 권사님 돌아가실 때 입으려고 삼베로 오늘 종일 바느질을 했습니다. (1980. 5. 28)

국립 5·18 민주묘지 김종태 묘 앞에서(2008)

대학생들을 350명을 체포하라 명령이 내렸다고 합니다. 참 끔찍스럽습니다. 주님 속히 민주통일을 이뤄주옵소서. 광주사태 그 몰살 죽음에 보상해 주소서. 목사님들 그 꿈을 속히 이뤄주소서 …… 김종태 청년이 이화대학교 앞에서 자기 몸에다가 석유를 붓고 구호를 외치고 불을 질러서 죽게 되어 병원으로 가서 치료하다가 숨이 저서 죽었다고 한다. 자기 유서를 써놓고 죽었다고 한다. 그가 우리 교회도 더러 오고 우리 집도 더러 왔다. 아름다운 청년, 그는 광주사태 죽음을 보면서 답답한 맘 분을 참지 못해서 자기 몸에 불을 붙였다고 한다. (1980. 6. 21)

주님 감사합니다. 아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믿습니다. 나라들이 어찌하여 소란한지요. 백성들이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가. 전두환이가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빨리 서두는 게 숨통이 터진다. 그리고 의로운 자를 다 짓밟아버린 것 어찌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속히 나타나소서. 속히 평화통일 이뤄주소서. 빨리 이뤄주소서. 주야로 기도합니다. (1980. 9. 1)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에 관한 일기

박종철군 대학생이 죽었다. 소식 듣고 나도 가슴이 아프다. 그의 엄마는 오죽할까 기도합니다. 주여 박종철군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기도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는 것 같이 주님 보호해 주소서. 억울하고 한 맺힌 호소를 들으시고 민주와 통일 이루어 주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1987. 1. 26)

서울서 박종철 추모 예배를 을지로5가, 명동3가에서 각 교회 목사님들도 행진하고 청년은 청년들끼리 모이고 학생은 학생들끼리 모인다는 말을 듣고, 나 혼자 박종철이 추모 예배에 참석하려고 늦게 갔다. 데모하는 엄마들이 꽃 한 송이를 들고 종철이 살려내라고 소리소리 질러 외치는 것을 보고 나도 달려가서 손수건을 흔들며 내 맘에 분통터진 맘으로 외쳤더니 최루탄을 내 앞에 던져서 다른 이들은 익숙해서 도망을 잘 가는데 나는 눈도 따갑고 얼굴도 따갑고 눈물이 가려서 나는 눈도 못 뜨고 눈물이 가려서 걸어갈 수도 없었는데 어떤 젊은이가 나를 다방으로 안아다 주어서 살아났다. 거기서 한참 눈물을 흘리고 나서 눈을 뜰 수도 없었다. 나를 도와주어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다. 또 길을 물어 을지로5가 종점을 물어서 오는데 또 어디에서 큰소리가 나서 나는 도로 그곳으로 달려갔었다. 내가 이까짓 최루탄 가스 때문에 집으로 간단 말이냐. 내가 소리라도 마음껏 질러야 하지 않느냐. 생명을 끊어버린 악마들아 종철이 살려내라고 외쳤다. 나는 스스로 생각했다. 이제는 늙어서 소리도 지르기 힘들고 걸음도 힘없어 달음박질도 못 하니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아니어 민주화를 위해서는 나도 살아서 기도라도 해야지 하고 생각했다. 데모하는 소리가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 하나님 저 함성 들어주시고 여호수아 용사들이 소리 지를 때 여리고 도성이 무너진 것 같이 저 소리 듣고 죄악의 악마의 성이 무너지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1987. 2. 7)

3월 2일 날은 박종철군 사구제를 지내서 학생, 청년, 여자들 서울 전체를 뒤덮었다. 최루탄 가스를 마시면서 나도 기를 쓰고 다녔다. 집에 오려고 돌아서 오다가 도로 데모하는 함성 소리가 나면 또 쫓아가고 최루탄 가스를 마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올라갔다. 벌써 끝나고 도망들 가는데 전경들이 지프차에다가 학생들을 싣고 간다. 그걸 보고 박종철이 살려내라고 소리소리 질러서 나도 같이 소리 질렀다. (1987. 3. 2)

오늘은 전교인이 모여서 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범시민대회 준비위원회 주최, 고문살인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에 참가했다. 더 이상 못 속겠다, 거짓 정권 물러가라. 전경들이 앞뒤로 까맣고 시위를 했는데 최루탄에 나도 다리를 맞아서 걸음을 잘 못 걷고 감기몸살이 낫지도 않는다. 시민들이 앞뒤로 구경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다. 도레가 서울서 데모하다가 경찰서로 끌려갔다. (1987. 6. 10)

민주화 이루어졌다고 다들 재미있게 지내는데 이한열이 최루탄 맞아서 죽었는데 그 엄마가 얼마나 애통하며 슬플까 이한열이 엄마를 생각할 때 내 마음도 아프다. (1987. 7. 20)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마치 선물이라도 주는 듯이 대통령 직선제 수용, 구속자 석방, 김대중씨의 사면 복권 등 민주화 조건들을 발표했으나 그것은 우리 국민 대중이 쟁취해야 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의 피와 땀 그리고 숱한 젊은 생명들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얻은 소중한 결실입니다. 그가 늦게라도 우리가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되돌려 주겠다고 한 것은 다행한 일이기는 하나 그것도 그가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고 새삼스러이 민주주의 진리를 체득하여 베푸는 회개의 열매도 아닙니다. 치솟듯 일어나는 국민들의 힘에 밀려 마지못해서 내어놓은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1987. 7. 30)

통일에 관한 일기

온 세계가 하나님 긍휼 깨닫지 못할 인간 평화를 위해서 애 낳듯이 애를 써야 한다. 폭력과 평화를 자기들이 권력 잡으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고민은 빈부의 차에 있다. 어른 애들 할 것 없이 악에 도달하는데 무관심하다. 굶어 죽게 된 아프리카를 누가 구원하나. 아프리카는 자연이 좋다. 로마서 9:31. 휴전선 독일교회를 본받자. 통일을 구호로 외쳐야 한다. 평화통일 분단된 우리 동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능력이 같이 한다. (1988. 9. 2)

빨리 통일되게 하소서. 걸어가면서 통일, 꿈에도 통일, 간절한 맘으로 호소합니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응답하소서. 문익환 목사님 임수경양 빨리 석방하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1990. 1. 15)

우리 목사님이 판문점을 허락받고 가는데 한국 정치가들이 자리를 바꾸어 버렸다. 북한 사람들이 왜 자리를 바꾸었느냐 우리는 만나지 않겠다고 가 버렸다고 한다. 나는 늘 기도했지만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갔구나. …… 우리 목사님들 세 분이 여덟 시간을 종일 기다렸다고 한다. 걸어서 가다가다 누워 잠도 잤다고 한다. 여덟 시간을 기다리는 그 목사님들 얼마나 몸이 달았을까. 얼마나 다리가 아프면 남북회담 만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며 있는 정성을 다했는데 정치가들이 허락을 해 놓고 날치기를 해 버려서 남북회담 헛수고가 되어 버렸다. 아니다. 헛수고가 아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열두 번째 재앙을 내려서 장자를 모조리 죽이고서야 가라는 해방을 실현했다. 아직도 통일되려면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빨리 통일 이루어 주시라고 주야로 기도합니다. (1990. 7. 27)

문익환 목사님은 감옥에서 여태 계시는데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석방을 안 했지만 잠시 가석방으로 어머니 운명하시기 전 대화를 하시고 운명하시니 다행이다. 오늘은 우리 교회 봉고차를 타고 문익환 목사님 어머님 김신묵 권사 장례식 갔었다.
사람들이 장례식 참석을 여러 사람이 하고 또 꽃 한 송이씩 꽂아주면서 사람들이 우신다. 내가 면회를 못 갔지만 오늘 직접 문익환 목사님을 만나서 악수도 하고 안아도 보았다. 난데없는 눈물이 나와서 참느라고 혼났다. 그의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이 이제 곧 감옥에 다시 들어가실 걸 생각하면서 울었다. 장례 끝나고 저녁에는 감옥으로 그 놈들이 데리고 갈 걸 생각하면 분통터진다. (1990. 9. 20)

오늘 아침은 문익환 목사님 석방해 주시라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 주십니까 하소연 기도를 하는데 일곱 시 십 분 전 솔라가 전화 받더니 할머니 나는 왜 하고 대답했더니 할머니 기도가 하나는 이루어졌네요 할머니. 무어냐고 했더니 문익환 목사님 석방되셨대요 한다. (1990. 10. 29)

우리 목사님 해외 동포들 만나서 통일 회담 한다고 신문에 났다고 한다. 우리 집에는 요새는 텔레비전도 고장이다. 저는 주야로 기도합니다. 당신 종 꿈을 꼭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꼭 동행해 주옵소서. 주야로 기도합니다. 당신 종 통일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통일을 위해 애를 버둥버둥 쓰고 있습니다. 주님 걱정이 됩니다. 또 감옥에 가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또 지켜주실 걸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1990. 11. 14)

일본에서 우리 목사 온다. 김포공항 나갔다. 봉고차 두 대 또 장로님 자가용 두 대로 김포공항을 갔었다. 기장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다. 열두 시 온다고 했는데 초과되어 한 시 반에 도착한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나오는데 우리 아들은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지내도 안 나온다. 나는 혹시 늦게라도 오나 하고 길목만 바라보고 있다. 목사님들이 시간이 지났고 연행해서 가 버렸다고 한다. 나는 야 무정한 놈들아 식구들 얼굴이라도 보여 주고 데리고 가제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 우리 솔라는 꽃다발을 들고 안고 섰다가 아빠 나오면 주려고 서 있다. 아빠가 연행당한 줄 알고 눈물을 뚝뚝 떨어지면서 운다. 나도 같이 눈물이 북받치는데 간신히 참았다. 나는 구속되어도 안 울 거여. 왜 통일의 증인이 될 텐데 왜 울어 결심했지만 할 수 없이 견디기가 어려웠다. (1990. 11. 31)

통일의 일꾼들 원한을 풀어주소서
새벽 기도. 주님 오소서 철거민들에게 오소서 노점 상인들에게 오소서. 노점 상인들이 돈벌이가 안 되어서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죄 없이 고생하는 양심수들에게 그 한을 풀어주소서. 그리고 감옥에 있는 통일의 일꾼들 원한을 풀어주소서. 통일을 위해서 희생을 당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빨리 통일의 물꼬가 터지게 하소서. (1990. 12.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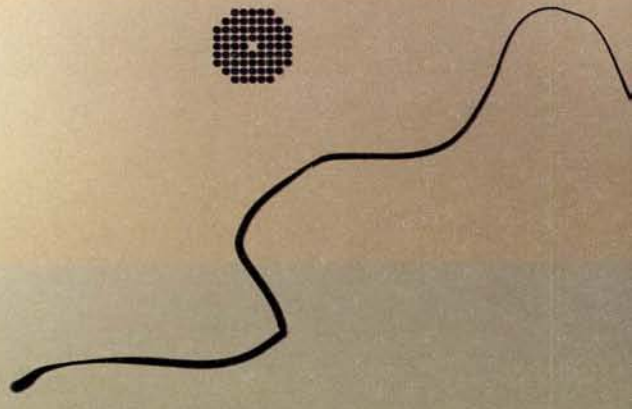
8·15범민련 통일 행사에 참가하여(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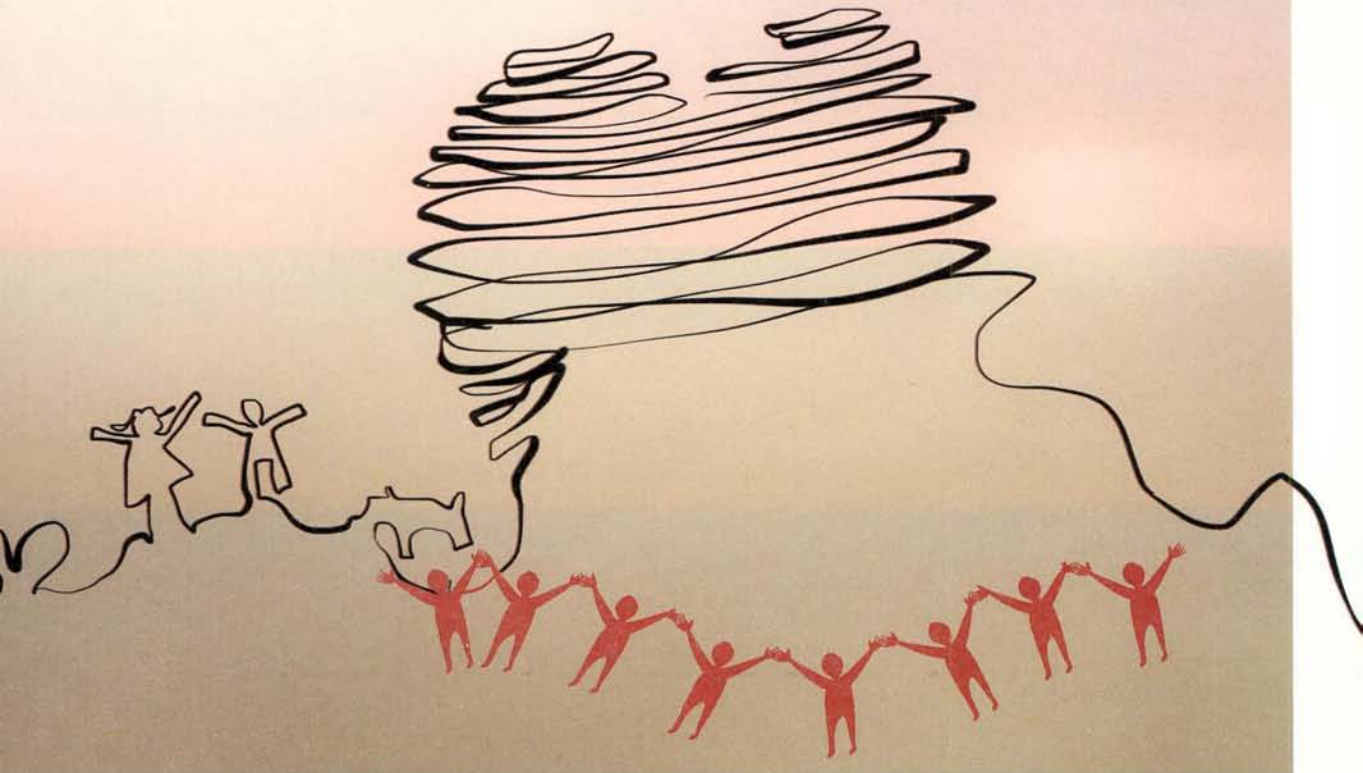
한국의 분단 상황은 모순된 사회에 대한 모든 저항을 '공산주의자', '빨갱이'로 만들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는 소신으로 일관된 꿈을 꾸며 사셨다. 그런 힘든 상황이었지만 가정의 울타리만을 챙기지 않으셨다. 할머니의 울타리는 가족의 경계를 넘어 교인들과 가난한 이웃들, 또 가난 때문에 더 강퍅해지는 북한의 동포들에게까지 넓혀가고 있었다. 그것은 가난할수록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적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할머니는 지금도 성남에 살고 있다. 할머니는 그 어디보다도 성남에 있을 때 편안해 하신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도 더 뽀얘지고, 머리카락도 도로 검어지고, 목소리도 점점 아기처럼 고와진다. 해가 갈수록 어린아이처럼 해맑고 예쁘다. 어려운 시절을 겪으신 만큼 여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할머니가 그토록 소원하시는 통일된 나라를 어서 보게 되길 바란다. 그러면 원이 없으실 것 같다.

2

성남에서 살아가기





제1장 성남에 고향을 심는 사람들

제2장 분당별곡

제3장 착한반 다자녀 가정 이야기

제4장 인력시장 노동자의 '하루 인생'

제1장
성남에 고향을 심는 사람들

고중일 수필가 · 한국문인협회 회원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우리나라 정치의 불안정과 경제 위기로 힘들고 어려웠던 격동의 시기였다. 농경사회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왔다. 그들은 당장에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공단에 입사를 하여 일을 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움도 변변치 않은 그들은 남들처럼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칠 때마다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섰다.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며 성남에서 살아온 지 어느덧 30년, 길고 긴 세월 동안 잦은 노사 분규와 IMF 외환위기를 겪어야만 했다. 그들은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살아왔다. 세찬 비바람과 혹독한 한파를 이겨낸 소나무가 더 푸르고 아름답듯이 그들의 마음 또한 푸르고 따뜻하다. 그동안 인고의 세월을 참아내며 성남을 사랑하고 성남에 고향을 심은 그들이 성남 땅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힘겨웠던 이야기를 들어본다.

공단의 근로자에서 기업가로 홀로 서기까지, 송기병

송기병(기업가, 71세)은 1943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8·15해방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던 때에 어린 시절을 보냈다. 농촌에서 대가족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상급 학교에 간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 다닐 때 그는 서울로 올라와 돈벌이를 해야만 했다.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으로 사회가 혼잡하던 1960년대 초 처음 직장이라고 다니게 된 곳은 인쇄소였다. 그는 남보다 먼저 출근을 하여 인쇄소를 깨끗하게 청소할 뿐 아니라 동네 주변 거리까지 깨끗하게 쓸었다. 그렇게 배운 기술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명성이 있는

중국 북경의 만리장성에서(송기병)

출판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1970년대 초 성남으로 이사를 하고 대한교과서에 입사하게 되었다. 그는 이곳에서도 날마다 남들보다 먼저 출근을 하여 작업장을 청소하고 하루 일을 시작하는 모범 근로자였다. 주위에서는 너무 열심히 일을 한다고 말들이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자기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되려면 모든 일을 내 일처럼 해야 한다고 직장 동료들에게 말하곤 했다.

밤늦도록 일을 하면서 받은 일당으로는 살림을 하기에도 힘이 들었지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직장상사는 일을 잘못했다고 큰소리를 치며 윽박지르기가 예사였다. 비록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면 잘 가르쳐주어야 할 일인데 인쇄기 옆에 있는 인쇄물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근로자들의 인권은 무시당하던 시절이었다.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나머지 그동안에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입사를 같이 했던 다섯 명의 동료들과 노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450여 명의 근로자들도 하나같이 동조하였다. 그들은 요구 조건을 들고 밖으로 나와 한목소리로 구호를 외쳐댔다. 그것은 최소한의 권리를 찾고 싶어 하는 간절한 외침이었다.

그가 사장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

농촌 봉사 활동(앞줄 가운데 송기병)

을 했다. 그 당시에는 노조 활동이 지금 같지 않아 회사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그는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대궐 밖에 설치한 북을 쳐 임금에게 알렸던 신문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일로 3년 동안 충실히 일해오던 회사로부터 부당 노동행위 명목으로 해고를 당하고 말았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그들은 다른 출판사에 입사를 하려고 했으나 이미 회사마다 다섯 사람의 명단이 통보되어 취업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 생활은 점점 어렵고 힘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꿈꾸던 인쇄소 경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1978년 살고 있던 집 마당에 천막을 치고 활판기 한 대를 놓고 교회 주보를 인쇄하는 성광주보사를 설립하였다.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이라 매주 토요일에는 밤새도록 일을 하고 통행금지 해제되는 시간이 되면 자전거를 타고 주보를 배달했다. 또 가까운 곳은 걸어서 가기도 하고 아주 바쁜 날에는 택시를 타고 배달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 당시에 성남시에는 교회 주보를 발간하는 인쇄소가 한 군데 있었다. 그래서 활자로 인쇄된 주보를 들고 성남시에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며 홍보하기도 했다. 재정의 어려움은 말할 수 없었으며 6개월이 넘도록 적자 운영을 했다. 3년 동안 네 번의 이사를 하면서 비좁은 작업장에서 밤샘을 하면

서 일을 했다. 힘은 들었지만 고객의 마음에 맞도록 정성을 다하여 제작했다.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지켰다.

인쇄소를 경영한 지 10여 년이 되면서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기 시작했다. 조금씩 삶의 여유도 생겨 남은 여생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봉사 활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며 교회에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장로이다. 성남기독실업인회장을 두 번 역임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 왔다.

그는 지난날의 어려웠던 삶을 되돌아보며 나눔과 봉사로 헌신과 섬김의 삶이 행복하기에 봉사와 나눔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부자는 아니지만 '초록우산', '월드비전', '컴패션'을 통하여 아프리카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그는 봉사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무조건 돕겠다고 나서기보다는 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맨손요법, 요양보호사, 웃음치료사, 미술심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웃음치료 강사로 활동하며 독거노인을 위한 간병 및 목욕 봉사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도 했다. 봉사를 한 번 시작할 때부터 몸은 비록 힘들어도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기쁨이 머리끝까지 올라 몸이 하늘로 날아가는 착각에 빠질 때도 있었다. 그 기쁨은 기울어 가던 회사를 천신만고 끝에 일으켰을 때나 자식을 출가시켰을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와 끊임없는 에너지가 넘쳐났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몸이 아직 건강하여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노동을 아무 대가 없이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살맛나게 하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음에 늘 감사한다. 이렇게 사업을 경영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어린 시절에 하지 못했던 배움이 한으로 가슴에 남아 있었다. 그동안 책을 가까이 하려고 했지만 언제나 시간에 쫓기는 생활 속에서 공부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2009년 67살의 노년에 이르러서야 회사도 안정되고 두 아들이 모두 장성하여 한숨을 돌리게 되자 그동안 하고 싶었던 학업을 위해 늦깎이 만학도 학생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했다. 모두들 배움에는 다 때가 있다고들 하지만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일흔 살의 나이에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다. 2012년에는 서울학생상을 수상하였고 KBS 9시 뉴스에 방영되기까지 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즐겁게 봉사하며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지난해 가을에 '가나안농군학교'에서 교육하는 '노인행복전도사' 과정의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슬로건인 '노인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를 실천하

기 위하여 경로당에서 총무로 헌신 봉사하고 있다. 그는 성남에서 살아온 4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며 기업가로 홀로 서기까지 고난과 역경이 사회봉사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성실과 정직으로 일궈 낸 기쁨의 삶, 이길선

이길선(회사원, 61세)은 11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산후풍으로 돌아가시고 누나와 함께 두 명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평소에 효행이 지극하여 초등학교 4학년 때는 효창초등학교장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효행상을 받기도 했다. 그해 어머니날로 기억된다.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효행상을 받은 모든 어린이들을 남산에 있던 KBS방송국에서 초청하여 방송 출연을 한다고 어머니를 꼭 모셔 오라고 하셨다. 그러나 어머니는 몸이 아파 앞을 분간하기조차 힘드셨기 때문에 함께 가실 수가 없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왔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날도 자리에 누워 계시다가 그만 그해 가을에 세상을 떠나셨다.

아버지는 상수도 공사를 하는 회사에서 기술자로 일하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셨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가 근무하시던 회사에 급사로 들어가 잔심부름을 하다가 현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동銅 파이프를 생산하고 상수도를 매설하는 일은 어린 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힘은 들었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에 궂은일을 하면서 기술을 배웠다.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회사에서 받는 급여로는 집안 살림을 꾸려가기에 부족했다.

1985년도 현대건설에서 사우디 건설 현장에 근무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

사우디 고압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이길선)

요양원에서 노인 수발 중인 이길선

고 돈을 벌 목적으로 지원을 했다. 그러나 막상 사우디에 도착하고 보니 그 회사는 고압선 송전탑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길도 없고 사람도 없는 오지 중에 오지에 중장비로 새로 길을 내고 철탑을 세울 때마다 강한 바람이 끝없이 펼쳐진 사막에서 많은 먼지와 또 다른 모래 바람을 몰고 왔다. 사우디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지대로서 토양이 척박했다. 비도 내리지 않고 50도가 넘는 한낮의 날씨에 숨이 막히고 난방기같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는 크레인과 트럭을 정비하는 중기 엔진실에서 근무를 했다. 현장에서 일을 할 때마다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으나 항공료를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것은 사우디에서 일 년이 안 되어 귀국을 할 경우에 왕복 항공료를 물어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었다.

사우디에서 힘겹게 일 년을 채우고 돌아와 누나의 권유로 저금통장을 털어 상대원동에 비디오 가게를 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비디오 대여 사업은 점점 사양길로 접어들 무렵이었다. 새로운 테이프가 나오면 바로 구입해야 하는데 재정이 부족하고 경험마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손해를 보고서 가게를 정리하고

말았다. 사우디 현장에서 배운 중기 기술자로 취업을 하려고 했으나 그런 대형 장비는 대기업의 건설 현장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몇 개월을 하는 일 없이 지내다가 엿장사를 시작했다. 넓적한 엿판을 담은 리어카를 끌고 쩔꺽쩔꺽 가위질을 하며 '엿 사려'를 연실 외쳐대야 하는데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다 엿을 팔 때는 얄팍하게 만든 엿판대기에 쇳조각을 대고 작게 떼어 팔아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야박한 생각이 앞섰다. 장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그만두고 말았다.

생활은 재정적으로 점점 어려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친척 소개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출근을 하여 일을 찾아가며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했다. 이것이 자재를 납품하던 사장님의 눈에 들었던지 그가 운영하고 있던 건재상에서 일을 도와 달라고 했다. 일 년 동안 사무실 관리에서부터 새벽에 자재를 차에 가득 싣고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배달하는 일도 가리지 않고 했다. 자재를 정리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는데 그것은 매우 힘들고 고된 일이었다. 그러나 매사에 성실하고 빈틈이 없는 그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재고 정리까지 철저하게 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1990년의 어느 날이다. 우연한 기회에 아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서 남성공업사를 소개해 주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안 되어 입사를 하여 엔진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었다. 부서의 업무는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했던 일이라 마치 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기쁘고 감사했다. 입사한 지 4년이 지나 A/S전담 부서로 옮겨 반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그에게 처음 거래를 한 고객은 다음에도 그를 다시 찾을 정도로 정직하고 겸손했다. 언제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근무 자세로 10년 동안 근속을 하는 동안에, 매년 우수 사원에 선정되어 표창장을 받았다. 회사를 남달리 사랑했던 그의 애사심은 1990년대 노사 분규가 잦았던 시절에도 사장님을 중심으로 전 사원이 화합함으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일거리가 많아져 회사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재정적으로 가정도 차츰 회복되기 시작해 사우디에서 일하면서 가입했던 사회 보험료까지 받아 가정생활도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1999년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회사에서 나이가 젊은 고객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반장직을 내 놓고 퇴사를 하고 말았다. 그 후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행을 하며 3년 동안 생활을 했다. 2008년에는 다시 아파트 건설 현장의 안전 시

설팀에 들어가 근무를 했다. 그러나 건설 현장은 나이가 많아 힘이 들 뿐 아니라 항상 위험이 뒤따르는 어려움이 있어 다른 일을 찾던 중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우며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해 겨울부터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교육을 3개월 동안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했다.

2010년 11월에 요양원에 입사를 하여 지금까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수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간병과 식사와 목욕과 대소변까지 그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봉사를 하는 동안에 이제는 이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정이 들어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이제는 그분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오늘도 연로하신 할아버지 한분을 가슴에 안고 하늘나라로 보내드렸다고 했다. 그동안 연로하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향한 그의 진정한 사랑과 섬김은 매년 모범 사원으로 선정되었고 올 봄에는 일본 연수까지 다녀왔다. 그는 지금까지 어려움을 함께한 아내와 아들과 딸이 있어 행복하다고 하면서 가난과 역경을 딛고 살아온 인고의 세월이 이제는 기쁨이 되어 불우한 이웃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었다.

역경과 고난
그것은 내일을 밝히는 등대, 정복진

정복진(고시원 경영, 57세)은 전남 함평군 월야면 소작농의 가정에서 7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어려워 매일 끼니를 거르며 자랐다. 고향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 목적으로 광주광역시에 있는 상업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방직 공장에 나가 일을 해야 했다. 그가 하는 일은 작업장의 먼지를 제거하는 후앙(fan, 팬) 속에 들어가 먼지를 털어내기도 하고 작업장 바닥을 청소하는 일이었다.

1975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지를 정리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여 근무를 하다가 입대를 한다. 제대를 한 후에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삼양타이어에 입사하여 3년간 다니다가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와 지인의 소개로 무역회사에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도 잠시, 결혼을 하자마자 회사가 부도를 맞아 직장을 잃고 신혼 초부터 실업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바람에 생활이 너무 힘이 들었고 무엇보다 곤궁한 살림에 힘겨워하는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다.

1983년 여름 친구로부터 성남이 없는 사람들이 살기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이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결혼을 한 데다가 직장까지 없어 살아갈 일이 너무나 막막하기만 했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동안 모아둔 돈 300만 원뿐이었다.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심정이었으나 희망을 잃지 않았다.

고생을 각오하고 방이 하나 딸린 가게를 월세로 얻어 만두집을 냈다. 그것도 자금이나 넉넉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목이 좋은 도로가에 가게를 얻었겠지만 가진 돈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노릇이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아내와 같이 만두를 빚었다. 그래도 생활이 쉽게 풀리지 않자 만두 가게는 임신을 하여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어쩔 수 없이 맡기고 그는 손수레를 끌고 과일 장사를 시작했다. 손수레를 밀고 장사를 하다가 단속반에 걸려 과일을 하나도 못 팔

생산부 사무실에서(정복진)

고 들어오는 날도 여러 번 있었지만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가게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다. 온종일 손수레에 과일을 잔뜩 싣고 언덕길을 다니다 저녁 늦게 돌아오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그렇게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지만 만두 가게마저 장사가 안 돼 사정은 점점 어려워졌다. 아내는 가게를 정리하고 아르바이트 일을 했다.

결국 체력의 한계를 느낀 나머지 과일 장사도 그만두고 1985년 봄에 산성동 주택가에 있던 회사에서 공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들고 갔다. 그곳은 회사라기보다는 마치 시골 장터 한 구석에 있던 대장간과도 같은 곳이었다. 다른 회사를 더 알아보고 싶었으나 그럴 만한 여유조차 없었다. 이 회사는 자동차 스타트 모터 속의 중심 부품인 코뮤네이터(comutater, 정류자)를 만들어 국내 자동차 및 선박용 시동모터를 만드는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었다. 입사를 하던 다음 날부터 생산 현장에 배치되어 일을 했다. 모든 공정이 수작업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했다. 그가 하는 일은 금형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려 프레스로 압축을 하는 일이었다.

어느 날 금형을 들어 올리다 바닥에 떨어뜨려 끝이 깨지면서 아주 작은 파편 조각이 눈에 들어가 한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매일 아침부터 저

녁까지 일을 하고 야근까지 했다. 힘은 들었지만 고난과 고통의 지난날을 생각하며 남들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입사한 지 6개월쯤 되자 현장의 문제점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불량률을 감소시키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과 작업장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사장님께 보고를 했다. 이것이 현장 업무에 반영되었고 생산과 대리로 진급한 그는 더욱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 남보다 일찍 출근하여 저녁 늦게까지 혼자 남아 일을 했다. 휴일도 없었다. 회사는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다.

입사한 지 3년이 되던 해부터는 회사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과장으로 진급을 했다. 그 후 회사는 급성장을 하면서 규모도 커지고 생산량도 늘어나 상대원동에 있는 공단으로 입주를 했다. 생산된 제품은 국내는 물론 미국, 캐나다,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호주, 아이슬란드, 스페인 등 여러 나라에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 그는 품질보증부 차창으로 또 한 번 승진을 했다. 그가 처음 성남시로 이사를 하여 어려운 시절에 입사를 하던 날을 뒤돌아보면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주택가의 작은 창고 같은 곳에서 가내 공업으로부터 시작한 회사가 불과 몇 년 사이에 공단으로 이사하여 성장해 온 것을 생각하면 감개무량했다. 이 모든 것은 사장님, 상무님과 각 부서의 장들과 현장 사원들의 아낌없는 정열과 수고로 맺어진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회사가 성장한 만큼 업무량도 많아지기 시작했다. 인원은 없는 데다 업무량은 산적해 정신적으로도 힘이 들어 개인 사업을 할 생각으로 10년이 넘도록 근무한 정든 직장을 떠났다. 그는 그때까지 회사를 위해서 아낌없는 혼신의 힘을 쏟았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그동안 회사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고도 했다.

그가 회사를 그만두자 아내는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그가 사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어린이의 학부형이 분당에서 떡집을 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떡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로 했다. 그러나 떡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고비가 있었다. 한번은 떡을 만들려고 찹쌀에 소금을 한 주먹 넣고 간을 맞추고 있는데 떡집 주인은 아무 말도 없이 떡쌀을 쓰레기통에 쏟아 버렸다. 이미 소금을 넣은 줄 모르고 실수를 한 것이다.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한지 생각이 만 갈래로 교차했다. 또 한 번은 소금을 넣지 않고 떡을 만드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것 역시 아무 말 없이 쓰레기통에다 쏟아 버렸다. 떡을 만드는 기술을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눈치껏 어깨 너머로 배웠다. 기계를 작동하는 방법과 수리하는 일도 매일 한 가지씩 배웠다. 이렇게 일 년 정도 일을 하다

회사 등반대회 기념(앞줄 왼쪽 정복진)

가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날, 떡 집 주인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왕 기술을 배우려면 철저하게 배워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고생했다고 손을 꼭 잡아 주었다. 그때서야 그분의 속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은행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떡집을 개업하던 날은 하늘을 날아 갈 듯이 기뻤다. 그 후에 은행시장 근처로 떡집을 옮겼다. 떡집을 개업하여 15년 동안이나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대학에 보냈고 가정이 차츰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로가 확장되면서 떡집을 정리해야만 했다. 떡집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만 요즘 골목마다 들어선 제과점에 밀려 떡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 떡을 만들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젊은 시절을 지나 나이가 들면서 떡집은 그에게 힘겨운 직업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아이들도 성장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복정동에서 고시텔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의 삶이 풍족하진 않았지만 고난과 역경을 넘어 쉬지 않고 달려온 지난날을 회상하며 아직도 할 일 많은 세상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있다.

작은 꿈이 꽃필 때, 고중일

고중일(회사원, 57세)이 처음 성남 땅을 밟은 것은 1982년 무더운 여름이었다.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가기 위해 서울에 올라와 공부를 하던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거리에 어둠이 내리는 초저녁에 막차를 타고 종점에 도착했다. 마을까지 가는 차가 없어 어둠이 짙은 10리 길을 정신없이 달렸다. 그때는 시골 마을까지 가는 택시도 없었다. 어머니는 평생 속병으로 고생을 하셨지만 이렇듯 갑작스런 부음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온 동네가 산으로 둘러싸인 시골길을 뛰어가며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실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정든 고향 집이 멀리 보이는 고갯마루에 올랐을 때 마당에 불을 피워 놓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서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실감했다.

어머니는 한평생 가난 속에서도 6남매를 기르시며 모질게 살아오신 분이셨다. 그가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 주셨고 막내아들 잘되기를 그렇게도 바라셨던 어머니였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5일에 한 번씩 산나물을 뜯어 머리에 이고 읍내 시장에 나가 학비를 마련하시던 어머니였다.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홀로 계신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입대를 했다. 군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새 엄마를 맞이해 함께 살고 계셨다. 제대를 하고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갈등을 겪다가 읍내에 있는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 놓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직업을 갖고 공부를 해 보겠다고 보따리를 들고 찾아온 곳이 성남 공단이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맨주먹이었다.

단대천이 흐르는 종합시장 앞에는 큰길을 따라 늘어선 게시판마다 공원을 모집한다는 포스터가 잔뜩 붙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통신기기 선두 주자 OPC(동양정밀)라는 문구를 보고 OPC에 입사를 했다. 그것은 내가 군복무를 할 때 사무실의 통신 장비에 쓰여 있던 OPC가 낯이 익었기 때문이었다. OPC는 1953년 창업하여 1973년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아 전화기와 각종 유무선 통신기기 그리고 교통제어기기와 컴퓨터를 생산하면서 종업원도 2500명이나 되었다. 특히 1983년 수

CRT 생산현장에서(고중일)

출의 날에는 '수출5천만불탑'을 수상했다. 입사를 같이 했던 30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불과 3개월도 안되어 사원은 반으로 줄었다. 그들은 다른 직장의 조건이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면 철새처럼 옮겨 다니고 있었다. 난생 처음으로 시작하는 직장 생활이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일 년을 넘도록 근무하는 사람은 불과 몇 명뿐이었다. 수습 기간에는 CRT 생산 현장에서 조립하는 일과 포장하는 일을 하다가 제품에 열을 가하여 성능을 실험하는 곳으로 제품을 운반하는 일을 했다. 그곳은 온도가 40도가 넘는데 한 번 들어가면 땀으로 목욕을 하는 듯 온몸을 적셨다.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생긴 습진으로 10년이 넘도록 고생을 했다. 처음에는 직장 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어 6개월만 있다가 그만둘 생각을 했다. 그 이유는 작은 급여에다 학력에 따라 너무 큰 차등을 두는 인사 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대졸자와 고졸자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대우가 그렇고 급여 수준 또한 컸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대학을 마치고 입사한 사람을 따라 가려면 10년 이상이나 걸렸다.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매일같이 밤늦도록 야근을 하여 직장을 갖고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았다.

1983년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에 입학을 했다.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대학생활이 시작된 셈이다. 그때부터 주경야독의 고초를 참아가며 여러 학우들과 학생회관이나 독서실에서 잠을 자면서 생활을 했다. 매년 1학기와 2학기에는 출석 수업을 해야 하는데 휴가를 내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무급으로 휴가를 주었는데 그것조차 몇 단계를 거쳐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갑자기 몸이 몹시 아팠다.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약을 먹어도 별 효과가

공장새마을 품질관리교육 이수 기념

없었다. 병명조차도 확실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아버지는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함께 살자고 하셨다. 고향에 사는 K형도 고향을 지키며 잘 사는 마을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했다. 그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다시 성남으로 올라와 회사에 복직을 했다.

그해 말 지난날을 회상하며 쓴 짧은 글이 사보에 게재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인사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분이 그를 찾았다. 사람이 괜찮을 것 같아 불렀다고 하면서 같이 일을 하자고 했다. 그런데 인사 부서는 현장보다 더 바빴다. 2000여 명의 사원들의 급여를 담당하면서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가 되면 매일 밤샘을 할 때가 많았다. 1986년에는 성남·광주 지역의 학생회장으로 일하면서 학생회관을 단대동으로 이전하여 많은 학우들이 보다 넓은 장소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의 분당 지역에서 농촌 봉사 활동과 남한산성에서 자연보호 캠페인 등을 개최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뜻있는 학창 시절을 보냈다. 회사에서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지원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1989년도 제16회 시민의 날에는 성남 사랑의 애향심과 봉사 활동의 공로로 산업 부문 향토개발시민상을 수상했다.

1990년대 들어와 노사 분규가 끝없이 계속됐다. 회사는 어수선하기 짝이 없고 집에도 귀가하지 못한 채 정문을 폐쇄하고 날마다 회사에서 살아가는 동료들이 불쌍하기만 했다. 수개월 동안 이어진 노사 분규는 좀처럼 그칠 줄 몰랐다.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에 노사 분규까지 겹친 나머지 경영의 악화로 1990년대 말 회사는 문을 닫고 말았다. 다시 일자리를 찾던 중에 신문에서 사원 모집 광고를 보고 건설회사에 관리직으로 입사를 했다. 그러나 1997년 일어난 IMF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다가 연쇄 부도로 인하여 회사는 입사한 지 일 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다. 사업의 실패와 실업으로 인하여 노숙자들이 지하철 역사에서 신문지를 깔아놓고 새우잠을 잤다.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 직원을 감원하고 임금까지 삭감하는 데도 많았다. 정부에서는 외국에 진 빚을 갚기 위해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고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가정마다 '아나바다 운동'으로 씀씀이를 줄이고 아껴 쓰는 생활을 실천하고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외국 상품 대신 국산품 애용을 장려하기도 했다.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다시 건설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관리 업무를 빼고는 대부분 생소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건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에 등록을 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학원에 나가 맨 앞자리에 앉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 1차 시험을 합격했으나 외환위기로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 6개월이 넘도록 급여를 받지 못한 채 회사를 정리하고 말았다. 이때는 생활의 어려움이 극에 달했다. 몇 개월을 하는 일 없이 지내다가 남들은 다 기피하는 일을 한 적도 있었다. 대부분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애환과 삶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여 그 이듬해 2차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 후 외환위기가 끝난 후에 건설회사에 입사를 하여 건설 현장을 관리하면서 건물을 직접 시공하는 일까지 담당하기도 했다. 대학에서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보면서 업무를 익혔다. 건설 현장에 이른 새벽부터 나가 하루 일과 인원을 파악하고 자재와 장비를 신청하고 부르는 일들로 현장의 아침은 생동감으로 넘쳐 났다.

이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 2008년 9월에는 수필로 문단에 등단을 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미뤄 왔던 일이 성취되어 기뻤다. 마치 세상의 모든 일은 바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둠을 밝히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중에는 남들이 기피하는 곳에서 일을 하면

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부와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렸다. 이렇게 성남에서 생활한 지 벌써 30년이나 흘렀다. 처음 성남을 오던 날이 어제 같은데 긴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갔다. 열심히 일한 만큼 세월도 빨리 흘러갔나 보다. 그동안 어렵고도 힘든 가운데 잘 참아준 아내와 아이들에게 잘 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다. 이제 인생의 후반전이다. 지금까지의 삶을 바탕으로 여지껏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꿈을 꽃 피우기 위하여 내일을 준비하고 성남에 고향을 심는 사람들과 함께 고향 같은 성남을 가꾸며 살고 싶다고 그는 이야기한다.

제2장
분당별곡

김명옥 성일정보고등학교 교사 · 시인

분당에 살어리랏다

드디어 분당 주민이 되었다. 그녀가 특히 분당 주민이라고 힘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7년 전 분당 주민으로 당당하게 입성하기 전, 그녀는 서울 시민이었다. 옛말에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했다. 그녀가 서울 사람이 되기 위해 완행열차에 몸을 실은 게 1983년이니 벌써 30여 년이 되었다. 그런 그녀가 서울 시민을 포기하고 분당 주민을 선택했다. 물론 그녀가 분당을 선택한 데는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분당을 '천당 아래 분당'이라 했기 때문이었다.

분당은 서울 강남을 대체할 만한 도시 건설이라는 특수한 목적 아래 정책적으로 개발된 540여만 평의 규모에 주택 10만 5000호, 인구 50만 명의 신도시다. 그러다보니 서울에 비해 자연 녹지와 보전 녹지가 엄청나게 많았다. 당연히 교육 환경, 문화 환경, 복지 환경, 자연 환경 등이 뛰어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으로 이루어진 신시가지 동편과 산록지대인 서편의 중앙부에 탄천이 동과 서를 가르며 아름다운 풍광을 만들었다. 게다가 산책로를 따라 산수유, 진달래, 개나리, 벚꽃, 철쭉이 앞다투어 피어날 때는 눈이 아찔할 정도였다. 또 탄천변을 따라 양쪽에 조성된 각종 운동 시설은 남녀노소 분당 주민 모두에게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다.

분당에는 도서관이 다섯 개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분당 주민의 문화 수준과 문화 향유 정도를 알 수 있다. 거기에다 성남아트센터, 탄천종합운동장, 한국학중앙연구원, 복지관, 주민센터 등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관과 단체, 학교가 분당 주민에게 각종 문화, 예술, 체육, 교육에 대한 혜택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분당은 서울의 중심부에서 한강을 접한 동남방 약 26km 거리에 위치한 도시로 동쪽은 광주시, 서쪽은 의왕시, 남쪽은 용인시, 그리고 북쪽은 수정구, 중원구와 접경을 이루고 있다. 특히 수정구와 중원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송파구와 접경을 이루고 있어서 서울 생활권이었다.

분당구 정자동 야경(2012. 6)

처음 분당 신도시가 발표될 때만 해도 그녀는 시큰둥했다. 그런데 막상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면서 남들이 분당! 분당! 분당! 하자 그녀도 덩달아 분당! 분당! 분당! 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다. 돈 가진 것들이 날뛰는 꼴만 봐도 배가 아팠고, 돈 많은 것들이 돈 있는 티를 내는 것도 눈꼴이 시었다. 거기다 민주화 바람을 타고 부활한 아파트값은 자고 나면 천! 천! 천! 하다가, 다시 자고 나면 억! 억! 억! 소리로 바뀌었다. 억!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억장이 무너졌다. 억! 소리 때문에 가위눌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남들은 아파트 한 채가 두 채 되고, 두 채가 세 채 되었다고도 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무언가. 한마디로 돈 놓고 돈 먹기, 센 놈이 약한 놈 덮치기 그런 게 아닌가. 그녀와 남편이 받은 쥐꼬리만 한 월급은 쪼개고, 아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남은 게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서울역에서의 첫 충격을 잊을 수 없었다. 서울의 밤은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자동차의 물결, 자동차 불빛이 거대한 파도처럼 흘러내리는 남대문로와 광화문,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이 빚어내는 역동적인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그녀는 쏟

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며 서울의 달콤한 공기를 가슴이 팽팽해지도록 심호흡했다.

서울 사람으로 누구보다 당당했던 그녀였지만, 불 꺼진 방안이 토해내는 을씨년스런 풍경은 늘 당황스러웠고, 고통스러웠다. 사랑이란 가장 무모한 투기라고 했지만, 외롭게 서른 살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한 남자와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했고, 강북 삼선동에다 소꿉장난 같은 신접살림을 차렸다. 큰놈, 작은놈이 태어났고 그녀는 돈에 원수 갚는 심정으로 가진 돈을 탈탈 털고 은행 융자까지 내서 삼선동에 32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입주하던 날 그녀는 남편 몰래 펑펑 울었다. 그랬던 그녀가 분당 양지마을로 이사를 하고보니 분당은 말 그대로 '천당 아래 분당'이었고, 분당의 공기마저도 그녀가 '천당 아래 분당 주민'이 된 것을 축하해 주는 듯 화사했다.

새소리가 아침을 열었다. 가까운 불곡산의 바람이 창문으로 달려들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크게 숨을 쉬었다. 달착지근한 냄새가 코에 확 끼쳤다. 분당의 봄 냄새였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굿 모닝! 굿 모닝! 굿 모닝!"

이놈의 알람은 그녀의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물론 다 낡아빠진 알람이 그녀의 기분을 알 리가 없겠지만, 오늘 따라 알람의 기계음 소리가 몹시 귀에 거슬렸다. 이 알람이 그녀의 집으로 온 게 벌써 몇 년째인가. 큰놈이 유치원에 들어갈 때였고, 그놈이 올해 대학교에 입학했으니.

굿 모닝만 해도 그렇다. 행복한 아침! 즐거운 아침! 아름다운 아침! ……. 좋은 우리말이 많고도 넘치는데 하필이면 굿 모닝이람. 그러다 그녀는 피식 웃음이 났

다. 처음 알람이 그녀의 집으로 오던 날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큰놈은 시계 속에 사람이 산다고 몹시 신기해 했다. 큰놈이 가장 먼저 익힌 영어도 굿 모닝이었다. 그녀는 참새처럼 굿 모닝을 쫑알거리는 큰놈을 볼 때마다 혹시 천재가 아닌가 했다.

평상시 같으면 그녀는 굿 모닝과 함께 튕기듯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왠지 오늘은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팔을 뻗어 알람을 눌러놓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썼다. 남편은 세상모르고 잠에 취해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53세, S생명의 상무이사다. 그 나이면 벌써 퇴직했거나 퇴직을 고민할 텐데 아직은 끄떡없다. 결혼 초 그녀는 남편이 대졸에, S맨이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그러나 자랑도 잠시였다. 남편은 별을 보며 출근하고 별을 보며 퇴근하는 회사의 소유물이었다. 그녀는 언젠가는 회사가 그녀에게 남편을 반환해 주리라 굳게 믿었다. 그런데 회사는 상무이사가 된 지금도 남편을 반환해 주질 않았다. 접대가 핑계인지, 핑계가 접대인지 모르지만, 남편은 늘 접대를 핑계로 나갔다. 남편이 대리였을 때였다.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현관으로 들어서는 남편을 향해 폭풍 잔소리를 해댔다. 양쪽 어깨가 푹 처진 남편은 간신히 현관문에 기댄 채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더니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했다. "과장님,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의 고개는 점점 아래로 꺾였고, 침대에 꼬꾸라져서도 "과장님,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연신 중얼거렸다.

남편은 출근과 동시에 고객들을 방문해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가입시키는 게 업무였다. 각종 보험 자료를 챙겨들고, 삼삼오오 회사를 나오면서 파이팅도 외친단다.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여전히 고객 방문은 어렵다고, 보험에 가입시키기는 일이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입을 권유했지만, 역시나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단다. 그날도 남편은 수위실에서 출입증을 쓰고 주민등록증을 맡긴 후 자기 최면을 걸었단다. '된다, 된다, 된다' 조심스럽게 사무실 분위기를 파악하는 남편의 눈에 앳된 여사원이 보이더란다. 조심스럽게 다가서서 명함과 함께 자료를 막 내미는데, 앙칼지게 "지금 바빠요!" 하더란다. 벌겋게 달아오른 목덜미로 돌아설 때 목구멍이 포도청인 게 슬퍼서 목이 막히더란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무실 주위를 맴돌다 점심도 굶은 채 회사로 돌아와 동료들과 고단한 술을 폈단다.

'과장님'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한 날부터 남편이 늦게 돌아와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남편은 어제도 예외 없이 새벽에 들어와선 이사 목숨은 파리 목숨이라며, 술 상무 노릇하기도 지겹다며 명퇴를 들먹였다. 대학생인 큰놈은 큰놈대로, 고등

학생인 작은놈은 작은놈대로 돈 잡아먹는 블랙홀인데.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작은놈을 자동차에 태우고 아파트에서 여섯 정거장 떨어진 학교로 향했다. 교문이 작은놈의 뒷모습을 완전히 감추어 버릴 때까지 지켜보다 돌아서는 그녀의 앞으로 불곡산의 봄바람이 불룩한 배를 드러내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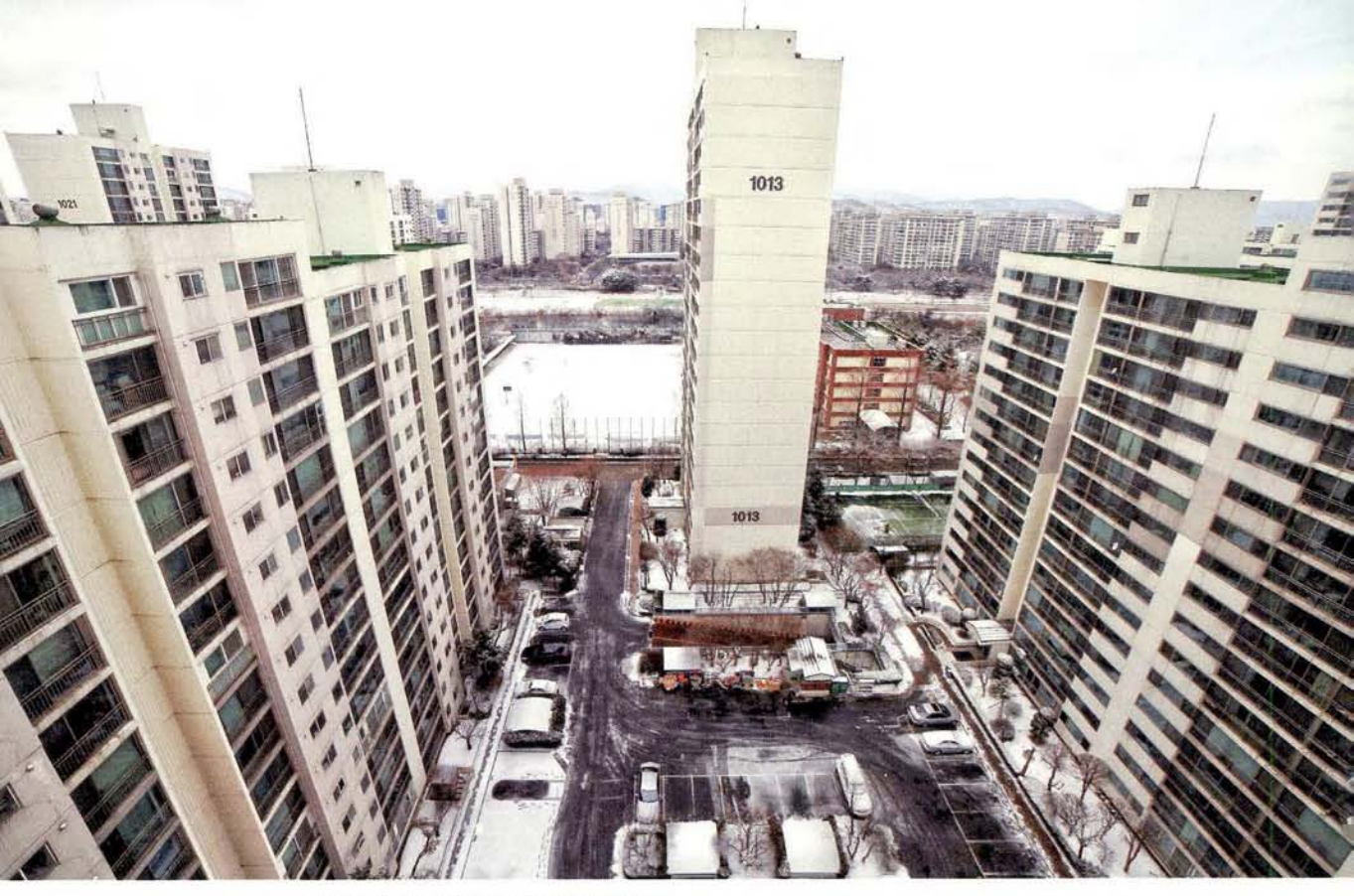
오늘은 대학입시 설명회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엄마들과 모여서 분석, 교환하기로 한 날이었다. 대학입시 설명회 날, 그녀는 잠실체육관을 가득 메운 학부모와 수험생들 틈에서 강사의 말 한마디라도 놓칠까 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선택형 수능 도입에 따른 변화된 입시 내용이 어떻고, 수시·정시 전형의 특징이 어떻고, 시기별·전형별 수험생 준비 사항이 어떻고, 수험생 특징에 따른 전형 선택 방법이 어떻고 …….. 예전에는 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불합격이라 해서 4당 5락이라 했지만, 지금은 정보의 유·무에 따라 합격 불합격이 결정된다.

큰놈이 분당으로 전학 온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그때부터 큰놈의 입시 전쟁은 시작되었다. 큰놈의 입시 전쟁을 끝내고 보니 작은놈은 이미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있었다. 혼자서 생존 법칙을 익혀야 했던 작은놈의 성적은 누가 봐도 'in 서울'과는 거리가 멀었다. 율동공원 가는 길에는 산수유, 개나리, 벚꽃이 앞다투어 피어 있었지만 작은놈 생각으로 그녀의 가슴은 냉랭한 겨울이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3년 사이 대학 입시 제도는 엄청나게 변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었다. 엄마들의 열성이었다. 그녀도 나름 맞춤식 입시 정보에 대한 탁월한 노하우를 자랑했다. 사실 큰놈의 성적으로는 S대학은 무리였지만, 다행히 무난히 S대학에 안착했다. 작은놈도 맞춤식 입시로 준비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누그러졌다.

창밖으로 오후 4시의 게으른 햇살이 주차장으로 길게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여성문화회관으로 향했다. 연초부터 기획한 수채화반 전시회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분당 주민이 된 후 그녀는 여성문화회관 수채화반 강좌에 등록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수채화반 활동에 참여했다. 수채화반 창밖으로 분홍색 어스름이 사위어가는 노을 속으로 실안개처럼 퍼지는 걸 보면서 그녀는 여성문화회관을 나왔다.

그녀는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차를 몰았다. 남들은 불경기, 불경기라 했지만 이곳은 불경기의 무풍지대처럼 4층에 102타석이 전부 꽉 차 있었다. 그녀는 아이언으로 천천히 몸을 푼 후 드라이버를 꺼내 들었다. 300야드 그물망이라도 찢을 기세로 힘껏 휘둘렀다. 팔이 느른해지고, 숨이 가빠지더니, 이마와 등에서 기분 좋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어버린 분당 신도시

은 땀이 솟아올랐다. 부유층, 상류층 스포츠의 상징이었던 골프는 이제 일반 시민들도 즐기는 스포츠가 되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골프 인구는 400만이라 했다.

큰놈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학교 앞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고, 남편은 오늘도 늦게 들어올 것이다. 밤 10시, 자율학습 끝나는 시간에 맞춰 작은놈을 픽업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녀는 교문 앞 가장 좋은 자리에다 주차를 하고 작은놈을 기다렸다. 교문으로 꾸역꾸역 밀려나오는 학생들 틈에 작은놈이 그녀를 향해 뛰어오는 게 보였다. 작은놈의 등에서 가방이 함께 출렁거렸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

그녀는 큰놈에게 한풀이식으로 그녀가 못해 본 교육을 다 시켰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은 기본이고 피아노, 태권도, 미술, 수영, 스케이트, 스키 등 남들이 시키는 건 다 시켰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했지만, 찢어져도 행복했다.

그런 그녀였는데, 요즘 들어 혼자서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어졌다. 앞다투어 피는 목련꽃, 살구꽃, 벚꽃, 철쭉꽃을 볼 때마다 상실감과 외로움이 엄습했다. 직장도 그만두고 큰놈의 사교육을 12년 동안 직접 챙긴 대가로 큰놈은 대학생이 되었지만 그녀에게 남은 건 이름 대신 ○○의 아내, ○○의 엄마였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고 했지만, 그녀는 왠지 그녀만 소외된 것 같은 불안감에 도서관, 공원, 문화센터, 탄천 등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다. 근무 시간과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취미 생활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주 가는 곳은 어디인지,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인지, 또 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판교도서관에서

판교도서관은 대지 94만 6887㎡, 연면적 1만 271.16㎡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다.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식정보화 환경을 구축하고, 최신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평생 문화교육 운영과 이용자 눈높이에 알맞은 체험 공간 제공 등으로 세계로 미래로 뻗어가는 성남시의 명품 도서관다운 면모를 자랑하고 있었다.

지하 1층은 자료 제공과 독서 공간인 어린이열람실과 장애인열람실,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청각실, 지상 1층은 인터넷과 디지털자료 공간인 전자정보실, 평생교육 공간인 제1, 2, 3 문화교실, 지상 2층은 자료 제공 및 독서 공간인 문헌정보실, 지상 3층은 학습 공간인 1, 2 열람실이 있었다.

판교도서관

그녀는 주위 환경과 잘 조화된 현대식 건물, 깨끗한 서고와 열람실, 시청각실, 문헌정보실을 둘러본 후 3층 휴게실로 향했다. 휴게실 안쪽,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는 여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독서회 회원들이라고 했다. 운중동에 거주하는 40대 초반의 전업주부와 백현동에 거주하는 40대 초반의 직장 여성은 자신들의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며 한국의 모든 엄마들은 슈퍼맘이라고 했다.

저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출근, 퇴근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애들 공부시키는 게 제 업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요즘은 초등학교 때 공부가 대학을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보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은 기본이고 피아노, 바둑, 축구, 한자, 심지어 줄넘기 속성반도 보내요. 토요일 오전에는 영어마을에서 다양한 영어 체험 교육을 하고, 토요일 오후에는 골프 사교육을 시켜요. 지금 1층 어린이열람실에서 독후감 발표대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위에서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엄마의 나태함 때문에 애한테 손해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취미 생활로 수영과 골프를 하고 있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도보 여행하고 싶네요.

전 워킹맘입니다. 출근은 전쟁입니다. 큰애는 초등학생, 둘째는 유치원생이에요. 울면서 떼쓰는 둘째를 유치원에 맡기고 출근할 때 기분, 워킹맘은 다 알 겁니다. 전 대학병

원 간호사예요. 의사의 진료를 돕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하고, 환자의 상태 점검을 위해 체온·맥박·혈압 등을 측정·기록하고, 병실 침대 준비, 장비 소독 등 끝이 없죠. 저는 시부모님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죠. 큰애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청소도우미 활동, 등하교도우미 활동, 식사도우미 활동 등을 제 대신 해 주셨으니까. 취미는 독서예요. 얼마 전에 읽은 동화책 '우주호텔'은 동화지만 어른들에게도 꼭 한 번 읽어 보라고 권하고 싶네요. 교보문고를 자주 가는데, 언젠가 꼭 오지 여행을 하고 싶어요.

누구는 한국 엄마들의 열성을 무시무시하고 징글징글하다 했지만, 그녀들 덕에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해 주는 국가로 최단 기간에 바뀔 수 있었다. 그녀들 덕에 세계 수학·과학 올림피아드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의 주체가 바로 엄마라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해져서 도서관을 나왔다. 여름이 가까워졌는지 햇살이 많이 따가웠다.

율동공원에서

율동공원은 도심 속에 위치한 인공호수 공원으로 총넓이 263만 7316m²에 공원 시설로, 개발된 넓이는 30만 8648m²이다. 호수와 잔디밭, 야산 등 원래의 자연을 최대한 살린 잔디광장, 사계절꽃동산, 갈대밭과 휴게소, 분수대, 배드민턴장, 국궁장, 발지압장, 어린이놀이터, 번지점프대 등 다양한 놀이 시설을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산책과 운동은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들이 공연장으로 이용하는 시민 휴식 공간이다. 그중에서 국내 최대 높이(45m)를 자랑하는 번지점프대와 100m 높이의 대형 분수대는 율동공원의 자랑거리 중의 하나다.

일요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라서인지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 호숫가를 거니는 연인들, 잔디밭이나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가족들,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사람들로 공원은 시끌벅적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번지점프대에서 커다란 비명 소리가 들렸다. 주변에서 봄을 즐기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일시에 번지점프대를 쳐다보았다. 한 여자가 점프대 로프 끝에 매달려 멋지게 낙하하고 있었다. 여자는 몇 번을 시원스레 솟구쳤다 떨어졌다를 반복했다.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구경거리였다.

그녀는 벚꽃과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핀 잔디광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조각공원 조각품 앞 벤치에 앉아계신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눈에 들어왔다. 배드민턴

율동공원 호수와 번지점프대(2013. 5)

동호회 회원들이라고 했다. 서현동에 거주하시는 70대 초반의 할머니와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시는 60대 후반의 사장님은 율동공원은 세상살이의 온갖 아픔을 치유해주는 공원이라고 자랑했다.

율동공원에서 매일 새벽 운동으로 배드민턴을 하고, 월요일은 여성문화센터에서 바리스타 강좌를 듣고, 화요일·목요일은 한국화를 배워요.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참 좋아요. 열심히 배워서 기회가 된다면 좋은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점심은 근처 복지관에서 해결하고, 오후 시간은 주로 집에서 지내요. 같이 살지는 않지만 손녀가 둘이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어요. 내 자식 키울 땐 예쁜 줄도 몰랐어요. 사느라 바빠서. 저녁때는 몸이 불편한 우리 아저씨랑 율동공원을 한 바퀴 돌아요. 둘이 건강하게 살다 딱 3, 4일 정도만 아프다가 한날 한시에 저승으로 같이 가는 게 꿈이지요.

IMF 이후, 퇴사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은 모두 장밋빛인 줄 알았습니다. 창업도 창업 나름이겠지만, 생겼다가 사라지는 자영업이 하루에도 수만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고배를 마셨습니다. 다행히 율동공원 근처에 땅이 있어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지하에 스크린골프장을 냈습니다. 스크린골프장 운영도 초기에는 괜찮았지만 요즘은 새로 생기는 건물마다 스크린골프장이 있을 정도로 과당 경쟁이라 어렵습니다.

율동공원 조각공원(2013. 5)

>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새벽 1시에 문을 닫다보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아직은 괜찮습니다. 율동공원에 자주 옵니다. 번지점프를 꼭 해보고 싶고, 요리를 배워서 고생한 아내에게 근사한 요리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분당 주민들의 사랑 덕에 봄·여름·가을·겨울 율동공원은 활기가 넘쳐났다. 특히 분수가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여름이면 활기가 더욱 넘쳐났다. 주민들은 율동공원에서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내일을 준비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공놀이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가족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율동공원에서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천천히 율동공원을 한 바퀴 돌았다. 그녀의 심장으로 시원한 호수가 퍼들퍼들하게 살아서 들어왔다.

탄천에서

탄천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원해 성남시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강남구를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는 한강의 지류로서, 그중 절반이 넘는 약 25km 구간이 성남시

의 중심부에 걸쳐 있다.

그녀는 쉼터에서 쉬고 있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에게 다가갔다. 분당동에 거주하는 30대 후반의 TV홈쇼핑 PD와 이매동에 거주하는 40대 초반의 펀드매니저는 운동으로 단련된 구릿빛 피부를 반짝이며 탄천이 넘치도록 활짝 웃었다.

저는 홈쇼핑 PD입니다. TV홈쇼핑을 현대사회의 꽃,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들 하죠. 출근, 업무, 퇴근은 남들과 같지만 직업 특성상 출·퇴근이 불규칙합니다. 저흰 모든 게 생방송입니다. 생방송의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입술이 타들어가고 피가 바짝 마릅니다. 물론 무한 생존 경쟁이라 힘들기도 하지만, 경쟁이 주는 긴장감과 승리의 쾌감,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최대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삶의 가치 창출과 행복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고객과의 소통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제 방송이 끝나는 시간이 제 퇴근 시간이다 보니 새벽 퇴근도 부지기수입니다. 제 취미는 운동입니다. 북유럽에서 남유럽까지, 영국에서 동유럽까지 자전거로 여행하고 싶습니다.

저는 펀드매니저입니다. 자금 사정의 변화,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항상 최대한의 이익을 얻도록 투자 계획을 세웁니다. 복잡한 금융시장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국제사회,

탄천에서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들(2013. 10)

경제, 정치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투자 기법, 리스트 관리, 주식, 파생 상품, 부동산 등의 투자 대상에 대한 분석 방법 등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믿고 자금 운용을 맡긴 고객들의 수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윤리관, 직업관, 책임감과 프로의 감동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어느 직장이나 다 힘들겠지만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야구를 좋아합니다. 전 두산 팬입니다. 운동장에서 실컷 소리 지르고 외치다 보면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한방에 확 날아갑니다.

탄천을 따라 한강까지 조성된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길, 산책로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각종 운동시설은 분당 주민의 심신을 단련시키고 건강을 책임지고 있었다. 또, 분당 주민들은 탄천에서 젊음, 낭만, 희망을 찾기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에 관계없이 여가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쉼터에서 호흡을 가다듬은 후 다시 대열을 이루어 썰물처럼 밀려나가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의 힘찬 발짓을 보면서 그녀는 저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탄천을 달리길 빌었다.

성남아트센터에서

성남아트센터는 오페라·발레·뮤지컬·콘서트 등 대형 공연을 올리는 오페라하우스, 국내 최고의 음향을 자랑하는 전문 클래식 공연장인 콘서트홀, 연극과 재즈를 비롯해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앙상블시어터 등 3개의 극장을 갖추고 있다. 이외 미술관 본관·별관, 회의실·세미나실, 음악·미술·무용·아카데미 강의실이 있고, 음악회·퍼포먼스를 열고 야외 조각 전시를 할 수 있는 춤의 광장과 시원한 물줄기와 다양한 음악의 아름다운 율동이 있는 음악분수가 있다.

성남아트센터는 전시, 공연뿐만 아니라, 정기 강좌, 단기 특강, 방학 특강 같은 다양한 문화 강좌가 있어 성남 예술의 메카, 수도권 지역의 문화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의 미로展'을 보기 위해 큐브미술관 상설전시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전시장에는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남궁원의 허수아비 그림 앞에 방금 맹산에서 내려온 듯 등산복 차림의 두 남자가 서 있었다. 황금 물결이 가득한 가을 들판에서 우줄우줄 춤추는 허수아비 그림이었다. 그녀는 그들과 함께 허수아비에 눈을 묶고, 가을 들판 속을 함께 걸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했듯,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그들은 아트센터의 전시관을 자주 찾는다고 했다. 50대 초반의 한 남자는 자신을 백현동

에 거주하는 건축디자이너라고 했고, 또 다른 남자는 이매동에 거주하는 50대 초반의 고교 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들은 친구라는 말에 특히 힘을 주면서 헛헛하게 웃었다.

저는 건축디자이너입니다. 건축가와 건축디자이너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건축디자이너가 건물디자인을 해서 건물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패턴인지를 컴퓨터나 자를 대고 그려서 건축가들에게 주면, 건축가들은 건축디자이너가 준 건물디자인을 보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고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저 역시 출근하고 업무를 보고 퇴근을 합니다. 물론 제 사무실이 제 직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유롭다고 봐야죠. 하지만 출근과 동시에 동료들과 미팅 그리고 현장 방문은 일반 회사원들과 똑같습니다. 전 골프마니아입니다. 사업상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거의 주말마다 라운딩을 나갑니다. 오지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철밥통이라서 좋겠다고 하지만, 오죽하면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 했겠습니까. 요즘 학생들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아가 아주 강해졌다

성남아트센터 가을 전경(2013. 11)

고 할까.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진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어느 직장이나 힘든 점은 있겠지만 가장 힘든 건 학생 생활 지도입니다. 등교 지도, 급식 지도, 교내 순회 지도, 야간 자율학습 지도, 귀가 지도, …… 아침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방학이 있어서 위로가 되지만 인문계고등학교 교사는 방학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교사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트센터와 도서관에 주로 갑니다. 등산이 취미인데, 꼭 히말라야를 가고 싶습니다.

공연 예술의 첨단 사조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지역 정서를 보듬는 문화 공간을 지향하는 성남아트센터는 성남 초연, 성남 단독,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문화 향유 계층과 문화 잠재 청중을 발굴하는 사업을 벌이며 수도권 내 문화 재단의 역할과 극장이 나아갈 방향을 리드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는 중년의 우정을 위해서 그녀는 속으로 힘차게 파이팅을 외쳤다.

그랬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았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출근 업무 퇴근을 했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은퇴생활자는 은퇴생활자대로 자녀 남편 가족을 위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화해지는 어떤 발열 현상을 느꼈다. 분당 주민들은 여유 시간에 도서관, 문화센터, 공원, 산, 운동장, 영화관 등을 주로 찾았다. 그들은 건강을 위해 운동을 했고, 자기 개발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받았고, 소외 계층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따뜻한 가족 관계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여행을 하고 싶어 했다. 그것이 국내 여행이든 국외 여행이든, 단기 여행이든 장기 여행이든. 그들은 사람을 만나고, 가족을 지키고, 자신을 위하는 일에 세대 간, 직종 간, 남녀 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작은 일에 웃고, 작은 일에 울고, 작은 일에 만족하고 작은 일에 감동받고 있었다.

그래도 난, 분당에 살어리랏다

"굿 모닝! 굿 모닝! 굿 모닝!"

그녀는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가 도로 누웠다. 작은놈이 어제 제주도로 2박 3일간 수학여행을 갔기 때문이었다. 봄이 많이 깊었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겨울 옷차림이었다. 갑자기 남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옷장을 열었다. 감색 양복과 노란색 바탕에 검은 반점의 넥타이를 골라 남편에게 내밀었다. 현관에 붙은 전신 거울에 비춰보면서 남편은 소년처럼 웃었다.

만약 신이 그녀에게 딱 하루만 그녀가 작성한 일과표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녀는 어떤 일과표를 작성할까를 고민했다. 어떤 사람은 대박 나고 어떤 사람은 피박 쓰겠지만, 상대를 알고 싸우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나 잘되는 것보다 남 잘못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게 세상인심 아닌가. 늘 거센 물줄기를 뿜어대는 수도꼭지처럼 반복되는 따분한 일상이 아니라, 해도 해도 지루하지 않고 늘 새 맛 나는 하루를 계획하기 위해 그녀는 일과표를 그렸다 지우고 그렸다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대통령은 어떤 하루를 살까? 백만장자는 어떤 하루를 살까? 인기스타는 어떤 하루를 살까? 대기업 총수는 어떤 하루를 살까? 권력 앞에 한없이 작아질 땐 대통령이 부럽고, 싸고 좋은 물건을 찾아 다리품을 팔 땐 백만장자가 부럽고, 이름 대신 ○○엄마, ○○아내로 불릴 땐 인기스타가 부럽고, 축 처진 어깨가 서러울 땐 대기업 총수가 부럽고, 돋보기를 꺼내 신문을 읽을 땐 건강한 사람이 부럽고, 자식들이 속 썩일 땐 무자식이 부럽고, 가정사가 복잡할 땐 싱글이 부럽고, 여름 해변에서는 비키니 입은 여자가 부럽고, …….. 이 모든 걸 충족시키는 일과표대로 산다면 정말로 완전 대박 나고 백전백승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하루가 될까?

정선의 한 부자는 양반 앞에서 비천하고, 말도 못하고, 굽실거리고, 코를 땅에 대고, 무릎으로 기고, 온갖 수모를 당하는 게 싫어 양반을 사겠다고 했다. 양반은 이웃의 소를 끌어다 자기 땅을 먼저 갈아도 되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 자기 논의 김을 먼저 매도 되고, 코에 잿물을 부어도 되고, 머리끄덩이를 잡아서 돌려도

시민이 행복한 성남, 분당에 살어리랏다

되고, 수염을 낚아채도 된다는 말에 그 부자는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이냐며 머리를 흔들며 가버렸다고 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어떤 얼굴일까 굉장히 궁금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다는 여자들의 눈, 코, 귀, 입 등을 모아 한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만들고 보니 아름답기는커녕 기괴했다고 했다.

그녀는 벌써 몇 시간째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도 그녀의 일과표는 어제와 동일했다. 그녀는 베란다로 나왔다. 중앙공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뛰는 사람, 걷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 숲 그림자가 담긴 돌마각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고만고만하고,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살부대끼며 사는 곳이 분당이고, 그 분당 위가 천당이라면 그녀는 분당에서 오늘 같은 내일, 내일 같은 오늘을 살리라 생각하니 갑자기 복잡한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것 같았다.

돌마각 아래로 태양이 풍덩 빠지면서 하늘이 빨갛게 불붙더니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었다. 빨간색이 그려내는 수채화에 넋을 묶은 채 그녀는 중얼거렸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분당에 살어리랏다.'

제3장
착한반 다자녀 가정 이야기

김연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공공 기관의 다자녀 지원 정책

사전적 의미로 다자녀는 '자녀가 많음 또는 많은 자녀'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자녀가 많은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 정부의 다자녀 지원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다자녀를 구분한다면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라고 할 수 있다. 3자녀 이상의 경우에도 해당 연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혜택을 주고 있다. 다음 표에 제시된 보건복지부 차원의 지원 정책 이외에 3자녀 이상 가정이 사용하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의 5% 할인, 2014년부터 셋째 아이의 대학 등록금 단계별 지원, 경기도교육청의 셋째 아이 이상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때 책가방 구입비 지원, 바우처 이용 시 1회 연장 사용 등이 있다.

옛 시장실을 개조해 만든 성남시청 하늘북카페

성남시의 경우 둘째 아이 출산 때 30만 원, 셋째 아이 출산 때 100만 원의 출산 장려금 지원 및 취학 전까지 매월 10만 원 양육비 지원, 다자녀 안심보험 지원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해 하나로 알기 쉽게 정리된 것이 없다. 그리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손수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보건복지부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정책 명	정책 대상	정책 내용
다자녀 가정 주택 특별 공급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 국민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10%, 그 외 5% 범위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저소득 가구 전세금 1억 1000만 원 근로자, 서민 전세 자금의 대출한도 1억 원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다자녀 추가 공제 확대(자녀 양육시 1인당 50만 원 → 100만 원, 3자녀부터 100만 원 → 200만 원으로 확대)
둘째 아이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2011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아이 이상	2011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아이 이상 자녀의 고교 수업료 지원
3자녀 이상 전기요금 감액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월 전기요금의 20%까지 할인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하였던 자 포함)	2008년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 이상 18개월 납부로 인정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족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다자녀 우대카드	2~3명(광역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름) 이상의 자녀 양육 다자녀 가구	문화 시설 등에서 할인 및 면제 혜택

출전 : 안희정,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의 효과적 정책방안』,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011, 23~24쪽.

하지만 이 정도의 지원 정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우선 꼽기는 하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 양육 문제와 사회적 인식 등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듯이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이 쉽지 않은 점,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다자녀 가정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 등은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함께 키워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성남시의 다자녀 현황은 어떻게 될까? 2000년부터 각 5년 단위의 출생자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정부의 지원 정책 확대로 출산 순위별 자녀수 증가 비율은 나타나지 않는다. 첫째 아이 비율이 50% 이상이고, 둘째 아이는 40% 전후, 셋째 아이는 8% 전후이다. 구별로 살펴보았을 때 분당구는 첫째 아이 비율이 증가하고 둘째 아이 비율이 감소한 반면, 중원구의 경우 2010년 셋째 아이 비율이 11.5%로 10%를 넘었다는 특징이 있다.

성남시청 아이사랑 놀이터

성남시 구별 출산 순위별 출생자수

단위 : 명·%

구분	출산 순위별	2000		2005		2010	
수정구	첫째 아이	1,959	50.7	1,550	54.8	1,331	53.8
	둘째 아이	1,591	41.2	1,032	36.5	896	36.2
	셋째 아이 이상	299	7.7	224	7.9	233	9.4
	미상	12	0.3	23	0.8	13	0.5
	계	3,861	100	2,829	100	2,473	100
중원구	첫째 아이	1,757	46.3	1,359	53.4	1,150	48.7
	둘째 아이	1,660	43.8	975	38.3	930	39.4
	셋째 아이 이상	365	9.6	195	7.7	271	11.5
	미상	9	0.2	16	0.6	9	0.4
	계	3,791	100	2,545	100	2,360	100
분당구	첫째 아이	2,749	52.0	2,606	58.7	2,847	58.4
	둘째 아이	2,140	40.5	1,554	35.0	1,727	35.2
	셋째 아이 이상	389	7.4	241	5.4	311	6.3
	미상	9	0.2	39	0.9	19	0.4
	계	5,287	100	4,440	100	4,904	100
성남시	첫째 아이	6,465	50.0	5,515	56.2	5,328	54.7
	둘째 아이	5,391	41.7	3,561	36.3	3,553	36.5
	셋째 아이 이상	1,053	8.1	660	6.7	815	8.4
	미상	30	0.2	78	0.8	41	0.4
	합계	12,939	100	9,814	100	9,737	100

출처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중원구에 셋째 아이 이상 자녀의 백분율이 증가한 점에 기초하여 중원구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로 하였다. 특히 은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착한반의 다자녀 가정을 특정한 것은 필자 역시 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주 양육자로서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다자녀 학부형과 라포를 형성하고 있어 인터뷰 진행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 필자의 첫째 아이가 병설유치원에 재원 중일 때 유치원 교사로부터 "이 동네에는 유난히 셋 이상 다자녀 가정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상자 선정에 앞서 은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착한반 26명 원생의 부모에게 간략한 설문지를 작성, 조사하였다. 그중 4명은 회신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자녀수가 1명인 가정이 2, 2명인 가정이 11, 3명인 가정이 7, 4명 이상인 가정이 2로, 다자녀 가정이 9가정이었다. 주 양육자는 이모(1), 외할머니(1)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엄마였다(응답자 중 엄마와 아빠 중복 응답한 경우가 2, 엄마·아빠 외 1, 엄마와 외할머니 1인 응답을 포함한다).

현재와 같은 자녀수를 두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자녀가 1명인 경우 한 자녀를 원했다는 응답과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1이었고, 2자녀 이상인 경우는 대부분 하나는 외롭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3자녀 이상의 경우 둘째까지는 계획 하에, 그 이후에는 의도하지 않았다는 응답(2)도 있었다.

자녀 양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9였고, 맞벌이여서 아이 돌보기가 힘들다는 응답이 2,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2였다. 나머지는 기타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한 응답이었다.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은 승겸이, 지윤이, 준서네 집이다. 승겸이네는 2남 1녀로 자녀의 나이는 각각 10세, 7세, 4세이다. 지윤이네는 3녀로 자녀의 나이는 9세, 7세, 4세이다. 준서네는 4남으로 자녀의 나이는 각각 15세, 11세, 7세, 3세이다. 아이의 성별 상 남아만으로 구성된 가정, 여아만으로 구성된 가정, 남녀아가 골고루인 가정이면서도 양육에서 어려운 점이 각각 달랐다.

착한반 다자녀 가정 이야기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웃음은 세 배 – 승겸이 엄마 심은자

승겸이네 집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 솔민이, 둘째 승겸이, 막내아들 승윤이, 엄마, 아빠 모두 5명이 가족이다. 엄마는 솔민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학습지 교사를 하다가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었다. 막내가 어린이집에 간 2013년 3월부터 집 근처의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하루 3시간씩 일하고 있다. 아빠는 대학교 교직원으로 학생처에서 일하고 있다.

1975년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난 엄마 심은자는 대학을 다닐 때까지 강원도에 살았다. 가정교육과를 전공한 후 서울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언니의 권유로 학습지 교사가 되어 상경하였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2002년 11월쯤 만나 2004년 2월 결혼하였다.

승겸이 아빠는 전라남도 영암 출신으로 재수 끝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후 서울에서 살다가 결혼하였다. 현재는 모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아빠는 항상 학교 일로 바쁘고 학생처에서 근무하다 보니 농활이나 신입생 수련회와 같은 학생회 관련 출장도 잦다. 결혼 날짜도 직장 일이 없을 때로 잡았다고 하니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결혼 초에는 서울 답십리에서 살았다. 결혼하던 해에 솔민이가 태어났고, 승겸이가 태어나기 전인 2006년 8월쯤 수정구 태평동 건우아파트로 이사 와서 4개월을 거주한 뒤 12월에 은행동의 한 빌라를 구매하여 이사하였다. 그래도 "거기서는 괜찮았어요. 아파트라. 그런데 여기 와서 고생한 거지"라고 은행동 빌라에서 살던 시절을 기억하였지만, "완전 급경사라 (자동차) 에어컨도 못 켜고 올라왔어요. 새 차도 못 켜더라구요. 경사가 너무 심해서. 나도 시골에 살았어도 이렇게 심한 길은 처음이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동네"여서 태평동에서의 생활도 그리 쉽진 않았던 것 같다. 거주하던 빌라가 도시정비구역에 포함되어 2010년 은행동 주공아파트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

아이는 원래 2명을 낳으려고 하였다. 어쨌거나 성별에 상관없이 둘을 원했으나

막내 승윤이의 돌을 기념하여 찍은 승겸이네 가족 사진

어찌하다 보니 아이가 셋이 되었다. 아이는 모두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하였다. 막내 임신 때는 담당 의사에게 민망하기도 하였고, 아이를 낳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많았다. 아마 두 아이를 둔 가정에서 셋째를 임신하였을 때 고민은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친정에는 임신 초기에 이야기하지 않았다. 시댁에서는 아들이 고생할까봐 "아이 키우기도 힘든데, 아들도 있는데 뭘 또 키우냐"고 크게 반기지 않았다.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건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크지만, '병원 다니는 거'라고 한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해요. 잠이 부족해요. 애 때문에 밤에도 몇 번 깨야 되어서" 피곤하다. 승겸이네 형제들은 또래에 비해 키가 작고 몸무게도 적게 나가는 편이다. 잘 먹지 않고 아이들이 많이 예민하기 때문이다. "한약을 먹여야 하나, 영양제를 꾸준히 먹여야 하나" 항상 고민이다. 다른 엄마들을 만나면 뭘 먹이는지, 어떤 게 좋은지 묻곤 한다.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솔민이가 불안이 높고, 불만·짜증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첫 아이가 임신했을 때 일을 한 게 내내 후회가 된다. "후회가 되게 많이 생겨요. 솔민이 가졌을 때 일했던 거. 그때 그만둘 걸. 그랬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첫째는 잠시 놀이 치료를 받았다. 6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경과가 좋아 치료를 종료하였는데, 스트레스가 많아지거나 체력적으로 힘이 들면 다시 불만도 많고 짜증도 늘어나는 것 같아 걱정이다.

> 일단은 아이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풀어주고 싶어서 간 거니까 조금은 풀어진 것 같은데 그게 형식적으로라도 가서 듣고 오곤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엄마도 해이해지는 거예요. 늘 같이 있는 날은 같이 있게 되니까. 혼자 몸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옛날에는 승겸이도 멋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나 봐요. 그래서 둘(승겸, 승윤)을 놓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 아빠 있는 날만 잠깐이라도 어디라도 데리고 와야겠다. 원래 성격 자체가 짜증을 많이 내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아이 심리를 들여다보지를 못 하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같아 안타깝다. 너무 쉽게 얻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우리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닐 것이다 예전에 비해 경제가 발전하고 자녀수는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레 자식에게 다 해주게 되는 게 요즘 세태이다. 그러나 그건 한 자녀 혹은 두 자녀일 때 이야기고 우리 같은 다자녀 부모에겐 아무래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아이들 입장에서도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건 친구들과 비교해서 똑같은데 단지 형제가 많다고 해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한 자녀든 세 자녀든 자녀에 대한 사랑은 다 같을 텐데 남들처럼 다 해주지 못했을 때 부모 맘은 오죽할까. 다자녀 가정일수록 교육비, 생활비 부담은 크고 또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다.

> 애들은 그러더라구요. 있는 거 사달라는 거 다 해줘도 하나만 안 되면 히스테리해지는 거예요. 솔민이도 그래요. (물질적으로 누리고 있는데, 그 하나가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쉽게 얻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침대도 졸라서 사줬잖아요. 침대면 침대. 가격에 상관없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필자 역시 아이들 간의 다툼으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아이들끼리 싸울 때 부모들은 가장 속상하다. 상황에 따라 싸우는 이유도 여러 가지이지만 서로 보듬고 이해하면 하나도 싸울 거리가 안 되는 걸 가지고 감정을 다치고 힘겨워한다. 물론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커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집이나 있을 성장

통의 하나로 보아야겠지만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그 횟수가 더욱 빈번하다 보니 부모들의 애가 더 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 제일 걱정은 애들 싸우는 거예요. 애들이 우애가 좋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한계가 있고. 엄마, 아빠는 늙어가잖아요. …… 근데 다른 집이 만약 10이라고 본다면 우리 집은 배로 느껴요. 부모가 느끼는 것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애 아빠도 속상해서 가끔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구요.

첫째와 둘째는 5세에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막내는 4세 때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으니 취미 생활을 해보고 싶단다. 한동안은 임파선이 부어서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하였는데, 의사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몸이 힘들어서" 라고 하였단다. 조력자 없이, 아빠도 늦게 들어오거나 없는 상황에서 예민한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 그런가 보다. 하루 세 시간씩 하는 일도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다. 어차피 둘째가 입학하면 더 할 수 없을 것도 같다.

하루 일과를 보면 아침 9시에 아이들이 모두 학교와 어린이집으로 간다. 9시 30분까지 출근을 해서 12시 30분까지 일을 한다. 일이 끝나면 집에서 잠시 청소와 빨래 등 가사 노동을 하고, 14시 이후부터는 불규칙하게 하교하는 큰 아이 마중, 16시가 되면 막내 어린이집 마중, 17시에는 둘째 태권도장 차 마중을 간다. 밤에 뭘 할 여유도 없이 금방 잠이 든다.

최근의 고민은 이사 문제이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생각하면 전학시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2년마다 이사를 반복하는 생활이 힘들기 때문이다. 은행동 도시 정비로 도촌동에 분양권을 받은 아파트가 있어 거기로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아빠 근무지 근처로 이사를 가야하나 어느 쪽이 좋은지 확신이 안 선다.

아빠는 "정년 후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시골에서 필요한 행정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고향에서 국어 교사를 하고 싶었지만, 현재 직장에 정규직으로 발령이 나면서 계속 근무하기로 한 선택이 내내 아쉽다. 엄마는 "정년해도 막내는 대학교 다니고 있을 텐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내려갈 거냐"고 하지만, 아빠의 뜻은 굳건하다. "연금을 모두 다 줄 테니 아이들과 서울에서 살라" 며 그래도 본인은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한다. 현재 걱정거리는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 부부가 충분히 상의하고 고민해보아야 할,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다.

세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분명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어찌 힘든 과정만 있을까? 예로부터

자식은 내리사랑이라 했다. 왜 그 말이 나왔는지는 다자녀를 가져본 가정만이 알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이를 돌보는 틈틈이 마주하는 천진난만한 눈동자와 때 묻지 않은 함박웃음은 이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해 주었다.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민도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집안에 웃음과 행복도 세 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남편의 도움이 필요해요 – 지윤이 엄마 나선미

지윤이네 집은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는 첫째 희경이, 둘째 지윤이, 그리고 막내 문경이 3자매와 엄마, 아빠 등 5명이 살고 있다. 엄마 나선미는 전라남도 나주에서 1970년에 출생하였고, 대학에 진학하던 1990년 서울로 가족이 모두 올라왔다. 서른 네 살 되던, 2003년 2월에 동갑내기 남편과 만나 그해 10월에 결혼했다. 나이가 있어서 집에서 결혼을 독촉하였기 때문인지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하였다. 이곳저곳 옮기기는 하였지만, 출판사에 계속 근무하다가 2011년 그만두면서 서울 여의도에서 성남으로 이사를 왔다. 아이들이 아토피가 있어서 공기가 좋은 곳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집값도 싸기 때문이었다.

아빠는 건설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강동구에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밤 12시까지 회사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 육아가 힘들다. 주말에는 축구 모임과 골프 모임 등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결혼하고서 원래도 아이는 세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고 특히나 아들을 원했던 남편인지라 둘째까지 딸이다 보니 막내는 아들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변, 특히 친정 언니들이 힘들다고 반대하였다.

> 남편하고 나하고는 세 명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친정 식구들이 반대하더라구요. 직장 생활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 그렇지만 셋째 임신했을 때 너무 좋아서 날(예정일)까지 받아 왔었죠.

직장을 다닐 때는 첫째와 둘째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막내는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종일 돌보았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4시 30분이 되면 첫째와 둘째를 집에 데려와서 6시 퇴근까지 봐주는 식이었다. 직장이 정시 퇴근이 보장되어 있었던 데다

전라남도 고흥군으로 놀러간 지윤이네(2012)

회사가 바로 집 근처여서 그나마 세 아이를 돌보면서 직장 생활이 가능하였다.

> 우리 막내가 입원을 했을 때 아침에 출근했다가 6시 15분 되면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일 하냐고, 직장 좋다고 부러워했었죠. 직장을 옛날부터 잘 맞춰서 다녔는데 중간에 이제 출판 도매 쪽 있잖아요. 총판 쪽을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구. 그래서 6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그거는 생각보다 일이 정말 많았어요. (도우미) 아줌마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육아의 어려움은 형제들과의 정보 교류로 어느 정도 넘겼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성남으로 이사 와서 아이만 종일 돌보는 것은 너무 힘들었다. 결혼 초에 많이 싸우는 여느 부부와 달리 부부 싸움은 자녀가 늘어날 때마다 그 횟수가 늘었다. 필자도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공감할 수 있었다. 특히 기존 거주지에서 멀리 이사하고, 이웃과의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양육에만 전념하면 원망이나 비난의 표적이 남편이 될 수밖에 없다.

정말 우울증 걸리겠더라구. 우울증 왜 걸리는지 알겠어. 그래도 직장에 나가니까 콧바람이라도 쐬고 오니까는 그게 유지되지 않았나. 애만 셋 봤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 그 스트레스를 형제간에 전화 수다를 떨고 아줌마랑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그 정도로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내를 혼자 계속 키웠었잖아요. 딱 돌 때부터 데리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죠. 셋이 한꺼번에 일이 다 생기니까 너무 너무 힘들었고, 남편이랑 싸움도 많이 했죠. 첫애 때는 안 했는데 둘째, 셋째 때는. 밤에 늦게 들어오니까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애들은 엄마가 보는 건 맞긴 맞아요. 회사 그만두고 제일 잘한 게 애기 보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보니까 큰 애가 성격이 자꾸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1학년 때는 고분고분했는데 지금은 거친 언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동생 때린다든지 성격이 수시로 바뀌니까 맞췄다가 제재했다가 큰 애한테도 신경을 많이 써 줬어요. 큰 애나 작은 애나 엄마 손이 진짜 필요하긴 해요.

나선미는 이처럼 전업주부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야기하면서도 궁금한 게 참 많았는지 인터뷰 중에도 도리어 많은 질문을 하곤 했다. 식사 땐 주로 뭘 해먹는지, 아이 방과 후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은지, 다른 집들은 어떤지 많이 물어보곤 했다. 특히 아이들이 아토피가 있어서 평소에 과자를 자제하고 짜장면과 같은 중국 음식은 잘 먹이지 않는다. 만두나 쿠키, 돈가스도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직접 다 해먹는데, 아이들이 도와서 손이 덜 가기보다는 서로 만들겠다고 해서 어지럽히기도 한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가끔 일품요리를 해 먹이면 마음에 걸리고 좋지 않다.

제일 쉬운 게 고기 갖다 구워 먹는 게 제일 쉬워요. 설거지도 없고. …… 어쩔 땐 다 시다 넣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한방에 끝나잖아요, 노력, 정성 없이. 반찬할 거 없으면 김치하고 두 가지 놓고 먹을 때가 있는데 그럼 애들이 불쌍한 거예요.

먹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청소이다. 아이들이 늘어놓는 것도 바로바로 치워야 하는데, 아이들은 엄마가 버리거나 말거나 아까운 줄 모른단다. 바로바로 치워야 하는 성격은 느긋한 남편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킨다.

내 성격의 단점이 뭐냐면 일이 주어졌으면 그때그때 치우는 편인데 남편은 할 거 다 하는 느긋한 스타일이에요. 그걸로 부딪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저희 언니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말도 해요. 그걸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재촉하지 말라고. 저 사람(남편)은 그게 맞는데 네가 너무 깔끔하고 조급한 거라고.

하지만 아이들을 돌봐줄 땐 참 좋은 아빠다. 처음 인터뷰를 마친 후 변화가 생겼다. 늘 12시나 되어서야 들어오고 "토요일을 위해 금요일에만 일찍 들어오던" 아빠가 7시 30분에 집에 와서 저녁마다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이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 애들은 자기들끼리는 TV나 컴퓨터 게임 등 노는 게 뻔한데, 운동 좋아하는 아빠랑 나가서 놀면 정말 즐겁다. 보통 아빠들은 아이가 의사소통이 되기 전까지 돌봐주기를 어려워한다. 특히 기저귀 떼기 전에는 더욱 그렇다. 지윤이 아빠도 마찬가지였다.

애들하고 놀 때는 재밌게 놀아줘요. 매번 여러 군데 데리고 다니지는 못하지만 등산이라든지 운동장 등 가까운 곳이라도 나가서 함께 놀아주고 집에서도 누워서 구르며 장난치는 거라도 아빠가 적극적으로 놀죠.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사용한 말이 재미가 없고 매력이 없다는 거였다. 딱히 그래 보이진 않았다.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몸놀이 해주는 아빠, 동네 산책을 나가면 아이들과 과자 사러 나온 모습을 보여주는 아빠인데 말이다.

지윤이네는 노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 노후 대비를 할 여력은 아직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지출에 대해 민감해진다. 당연히 남편과의 갈등도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 남편은 돈 아껴 쓰라고 자주 잔소리를 해요. 절약 정신이 배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 교육이라든가 물품 구입 이런 거. 그러니까 다 사고 나서 남편이 보면 한 마디씩 하는 거예요. …… 너무 절약을 강조해 가지고 어쩔 땐 스트레스 받아. 쓰면서 사는 스타일이면 스트레스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요. 남편 생각이 맞나? 쓰는 게 늘다 보면 노후라든지 교육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차질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옳은가? 이런 삶도 괜찮다. 수시로 바뀌어요. 그 삶을 인정하면 그래도 행복한 것 같아.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을 잘 데리고 노는 현재, 육아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병원 다니는 거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런지 병원에 가는 일이 많다. 지윤이네 자매들은 모두 운동 신경이 좋고 뛰어놀기 좋아하는데도 잔병치레가 많은 것을 보면 환경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현재는 재취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될지 모르겠다. 만약 취업할 수 있게 되면 일을 할 생각인데, 아이들 방학 때나 아플 때를 생각하면 일을 못할 것도 같다. 담양

에 사는 시어머님을 겨울에 올라오시게 할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함께 살지 않았던 시어머니와 아이들이 같이 지낼 일을 생각하면 그도 여의치 않은 것 같다.

> 내가 마흔 두 살에 그만두게 됐는데 정말 30대부터는 모든 게 바뀌어요. 나이 들면서 취업 자체도 힘들고, 지원도 힘들고, 오라는 데도 없고. 더 유능한 사람이 많으니까. 30대 이전이 제일 편했던 것 같아. 어딜 가도 편하고. 회사가 또 바뀌잖아요? 망하거나 합병되거나 그러면 힘들고, …… 취업이 되면 일단 해보는데 방학하고 애기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겨울 방학 때는 할머니 시골에서 올라와 계시라고 할까 그 생각도 하면서. 그런데 그러면 내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인건비도 비싸고 출퇴근하는 아줌마, 아침에 데리고 가고 저녁에 데려오는 아줌마 구하기도 힘들 것 같고.

남편은 "시험 봐서 조경기사 자격증 따라고. 그래서 면허 대여하고 4대 보험까지 넣고 몸 편하고 얼마나 좋냐?"고 하지만, "나중에 딸아이가 공직에 나갈 때 방해되면 어떻게 하냐"고 응수한다. 그랬더니 학교 서무실 같은 데 들어가라고 한단다. 절약 정신이 배어 있는 남편이고, 일반 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정년 후 노후 생활을 대비하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지윤이네는 아빠가 건설 회사를 다녀서인지 내 집 마련에 대한 미련이 없고, 무주택자로서 2015년에 임대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덕분에 주택 구입 자금이 필요없어 저축한 돈을 모두 노후 자금으로 쓸 생각이다.

성남시에서 매월 10만 원씩 주는 양육 수당은 아이들 앞으로 든 통장에 적금을 들고 있다. "10만 원씩 학교 갈 때까지 생각하면 그것도 꽤 되는 금액이에요"라고 말하며 필자에게도 아이 앞으로 나오는 돈이니 아이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두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씩씩한 4형제와 함께 – 준서 엄마 윤희순

준서네는 각각 15세, 11세, 7세, 3세인 네 명의 아들과 엄마, 아빠 6식구이다. 엄마 윤희순은 전라북도 전주 출신으로 1975년생이다. 25세 되던 1999년 여섯 살 많은 군무원 남편과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하여 성남으로 올라와 살게 되었다. 남편 직장이 성남인데 매주 전주까지 내려오는 남편의 성실함에 반해 결혼하게 되었다. "계속 주말마다 내려오지, 전화하지.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바뀔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하고 말하지만,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걸 보면 아마도 사이좋은 부부일 것이다.

2대 독자였던 남편과 4남매였던 자신의 경험상 아이가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자녀는 3명 정도는 낳으려고 계획하였다.

> 남편은 남매였고, 저도 4남매 사이에서 자라다 보니 아이가 여럿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죠. 특히 애기 아빠가 2대 독자여서 부담이 되었는데, 아들을 낳으니까 혼자보다는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해서 3명 정도는 낳으려고 했었어요.

아들을 세 명 낳고는 딸 욕심도 생겨서 마지막으로 아이를 더 낳자고 하였는데, 아쉽게도 막내도 아들이어서 아들 넷만 두게 되었다. 필자의 경우엔 아이가 하나일 때도 힘들었고 둘일 땐 더 힘들었고, 셋이 되었을 땐 여유가 생기기는커녕 점점 육아 스트레스가 늘어났는데, 준서네는 성별이 같아서 그런지 형들이 동생들을 잘 돌봐주어 크게 힘들지 않단다. 그래서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 하나에서 둘 되고, 둘에서 셋 되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하나만 있으면 오히려 외로울 것 같아요. …… 애네들도 형들이 데리고 잘 놀아요. 그래서 전 힘든 줄도 모르죠.

그도 그럴 것이 평상시에 둘째 형이 유치원으로 준서를 데리러 자주 오고,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도 노는 모습을 자주 보아온 터라 딸이 없어도 섬세한 둘째 덕분에 엄마가 양육 부담을 크게 덜고 있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친정어머니도 농한기 때면 손주들을 돌봐주러 성남으로 올라와 한두 달씩 머무른다고 하니 큰 도움이 될 것도 같았다.

하지만 아무리 순하다 해도 아들은 아들인지라 빨래와 같은 집안일은 너무 힘에 부친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밖에서 뛰어놀 일도 많고 그만큼 옷에 오염도 많이 되고 빨래도 힘들다.

> 힘들죠. 아이들이 깨끗하게 입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빨래를 하나하나 해야 하고, 세탁기 돌리지 무슨 손빨래를 하느냐고 하지만 손빨래 하지 않고 세탁기 돌리면 깨끗하지가 않아요.

아빠는 군무원답게 키도 크고 건강해보였다. 6시가 되면 퇴근 후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엄마가 일이 있는 날에는 휴가를 내서 아이들을 대신 돌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처음부터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준서네 집은 보통 가정과 달리 아이가 6세가 되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 다 6세에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전업주부 엄마들 대부분이 4세, 늦어도 5세가 되면 아이들을 보육 시설에 맡기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아이에 대한 애착이 다른 엄마들에 비해 많은 것은 분명하였다.

양육 갈등이 시작된 것은 엄마가 첫째 아이에 대한 기대로 과다한 학습을 시켰기 때문이었다.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의 방식을 고수하며 아이를 끌었고, 그로 인해 첫째는 혼란을 겪었다. 둘째부터는 엄마가 어느 정도 손을 놓아버리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준서네 형제들은 모두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

> 큰애 때 너무 제가 이것저것 많이 시켰었거든요. 첫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걸 다 따라가 주지 못하니까 실망도 생겼어요. 둘째,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점점 현실에 맞춰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었죠. 남편은 아이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라는 식이다보니 늘 양육 갈등이 있어요.

아들만 넷을 키우는 엄마이지만, 성장 과정에서 여자인 엄마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고, 아빠에게 그런 부분을 맡겼는데 엄마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갈등으로 이어졌다. 아빠가 아무리 아이의 교육과 양육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하루에 1~2시간 정도라면, 엄마의 의견을 따라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협의 하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전적으로 믿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하면 아빠가 따라와 줘야 되는데 방식이 다르다. 너는 이쪽으로 와라. 저는 아빠가 하는 방식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 특히 아이들이 모두 아들이다 보니까 아빠에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엄마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거예요. 하루에 아이들과 노는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인데, 엄마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빠의 의견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엄마와 의견이 다르면 넌 안 해도 돼. 엄마가 틀리면 아빠를 따라와도 돼.

특히 학습적인 부분에서 더욱 양육 갈등이 심하였다. 엄마는 "수학 같은 과목도

전 차근차근 하는데 아빠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답만 찾으면 돼" 이런 식으로 결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양육 갈등 이외에 힘든 점은 '워낙 귀하게 자란' 아빠가 가사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 아빠가 가사일은 아무 것도 안 하죠. 어쩌다 한번 제가 너무 힘들다거나 탁 놓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는 잘 안 하려 해요.

부부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맞춰가고 이해해주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가정이었다. 다소 무뚝뚝한 아빠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니 양육 방식에 대한 갈등이 있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야기를 하다가 성남시에서 지급하는 양육 수당 이야기가 나왔다. 이 집은 셋째와 넷째 두 자녀에게 매월 10만 원씩 양육 수당이 나오는 데다가 막내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으니 정부의 양육 수당이 또 나올 터였다. 준서네 역시 아이들마다 저축을 하고 있었다. 필자도 그래야 했었나 하는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다. 미래를 위해 아이마다 따로 적금을 들어 두었다는 말에 부모가 커가는 아이를 위해 해줄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청과 구청 등 6곳에서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더니 일주일에 두 번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하였다. 앞으로 바라는 점은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란다.

글을 마치며

양육에 대한 다른 고민들을 가진 가정의 엄마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부모라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고,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나 사회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중심인 나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계획이 이사가 되었건 취미 활동이 되었건 그 어떤 것이건 간에 그 계획을 가슴속에 늘 간직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부모가 몸과 마음이 건강했을 때 자녀들 또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다자녀 가정 부모님 모두 전반적인 아이 기르기의 힘겨움을 토로하긴 했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에서 느끼는 행복감 또한 감추지 못했다. 아이들은 미래의 꿈이자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

하나 낳아 기르기도 어렵다는 요즘 시대에 다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은 분명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 선택에 후회 없이 다른 가정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모범적이고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다자녀를 권유하는 만큼 이것을 단지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되며 더욱 실질적인 혜택과 정책이 절실히 요청된다.

제4장
인력시장 노동자의 '하루 인생'

박민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어느 일용 노동자의 하루

나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다. 지금은 새벽 3시, 아직 바깥은 컴컴하다. 하지만 40년 동안 나는 이 시간에 하루를 시작했다. 남들은 모두 잘 시간에 일어나고, 세수를 하며 이것저것을 챙긴다. 집을 나서는 시간은 4시다. 그리고 4시 반, 인력시장이 있는 곳에 도착한다. 거기서 가까우면 금방, 멀면 6시 정도가 되면 현장에 도착한다. 현장에 도착하면 아침밥을 먼저 먹는다. 회사에서 준비한 서류에 노동자들은 일일이 사인을 하고, 매일 반복되는 안전 교육을 받는다. 이전에는 안전 교육이 형식적이었다. 심지어 제대로 된 안전화, 안전모, 벨트 등을 지급하지도 않고 받았다고 사인하라고 윽박지르는 곳도 있었다. 다행히 지금은 건축주든, 노동자든 모두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 그 후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안전 교육을 받았는지, 안전 용품들을 다 착용했는지를 확인하는 사인을 한다. 어떤 곳에서는 아침 체조를 같이 하기도 한다. 그리고 6시 50분이 되면 모여서 오늘의 일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야기를 듣는다. 거기서 다시 한 번 안전화는 신었는지, 안전모는 썼는지, 안전벨트는 매고 있는지 현장 투입하기 전 점검을 한다. 안전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매일경제 1999년 5월 22일 토요일 사 회

새벽 인력시장 되살아난다

건설경기 회복·계절수요 힘입어
이달 일용직 '취업' 작년말의 5배

김대영 기자

새벽 인력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

IMF체제 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썰렁했던 새벽 인력시장이 최근 건설·건축경기가 곰플대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다.

노동부 산하 전국 15개 일일취업센터와 18개 일일취업안내소가 지난해 11월 한달 동안 일자리를 연결해준 규모는 4120명이었으나 올 3월에는 1만929명, 4월에는 1만8138명으로 늘어났다.

이달에는 최소한 2만여 명이 일일취업센터를 통해 취업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일일취업센터와 취업안내소는 봄이 되면서 새로 공사에 들어간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과 구리 용인 등 경기도의 아파트 신축현장 등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가 많이 모여 대표적인 새벽시장으로 잡히는 곳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인력시장.

이곳은 특별한 기술이 없이 막노동을 하는 근로자부터 건축현장에서 꼭 필요한 숙련기술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몰려드는 곳이다.

새벽 4시가 되면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가 7시 이전에는 작업현장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복정동에 있는 성남일일취업센터 이병문 소장(43)은 "현재 이곳 인력시장을 찾는 사람은 하루 평균 150~200명이며 이 가운데 120~160명이 일자리를 찾아 현장으로 나간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노숙자 무료쉼터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겨우내 쉼터에서 뭉크려 지내던 노숙자 가운데 일당을 받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일당 2만2000원을 받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던 노숙자 가운데 하루 3만~5만원을 벌 수 있는 새벽 인력시장으로 일터를 옮기는 사례도 많아졌다.

노숙자 320명이 거주하는 서울 대방동에 있는 '사랑의 전화 게스트하우스'의 한선영 씨(30)는 "지난해 말에는 하루 평균 200명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러 나갔으나 지금은 120여 명만 공공근로사업에 응사하고 150명 전도는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한다"며 달라진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건축현장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지만 일당은 IMF체제 전인 97년에 비해 2만~5만원 가량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97년 봄에는 미장공이나 목수 등 숙련기술자가 일당 10만~15만원을 받았으나 지금은 8만~10만원으로 떨어졌다.

IMF 외환위기 이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새벽 인력시장을 다룬 신문 기사(『매일경제』 1999년 5월 22일)

아침 9시 30분이면 벌써 허기가 진다. 우리는 꼭 오전과 오후 두 번씩 간식을 먹는다. 이때 쉬기도 하며 옆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간식은 빵과 음료수가 많다. 간식을 먹고 다시 일을 한 뒤, 11시 50분이면 점심을 먹는다. 바쁜 현장은 밥을 먹고 전혀 쉬지 못하고 바로 일에 또 투입되어야 한다. 마감까지 여유가 있는 현장은 12시 50분까지 쉰다. 3시 30분이 되면 또 간식을 먹는다.

우리 철근공은 4시 50분 정도 넘으면 하던 일을 정리하고 퇴근한다. 샤워하는 사람도 있고, 씻고 오는 사람도 있다. 목수나, 형틀 목공들은 6시까지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 또 도급으로 고용된 형틀 목공들은 일을 더 하는 경우들이 많다. 몇 명이서 한 조를 이뤄 엄청난 일을 하루에 끝낸다. 새벽부터 올라가서 어떨 때는 컴컴할 때까지 일을 한다. 물론 돈은 많이 벌지만, 그만큼 몸을 혹사시키는 거다.

40년 동안 철근공 일을 한 어느 한 노동자의 하루 일과를 조금 각색해서 적어본 글이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른 새벽, 이들의 하루는 시작된다. 우리는 그들을 일용직 건설 노동자라고 부른다.

법령에 따르면 일용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로 근로가 종료되면서 근로 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쉽게 설명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계약을 맺어야 하는 하루살이 노동자들이다. 당연히 이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문제는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이 불안정성이 자아낸 풍경이 바로 새벽 인력시장이다.

성남 인력시장의 풍경

성남시에는 이상하게도 인력시장이 많다. 수정구 태평동에 인력시장이 형성된 것은 1970년대다. 서울 청계천 복구 사업이 시작되면서 청계천 주변 움막집에 살던 건설 노동자들이 성남시로 몰려 들었다. 흔히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불린 1970~1980년대 건설 경기가 무척 좋았고, 서울에서 방출된 이들이 성남시에 거주하게 된다. 지금 성남의 모습을 보면 가히 상상할 수 없겠지만, 성남은 도시 빈민으로 형성된 지역이었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이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서울도 한 시간 권, 수원도 가까웠다. 건설 인력이 여러 지방으로 나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고, 그래서 인력시장이 성남에서 가장 크다고 권혁식은 이야기했다. 1980년대, 성남시에는 한 집 건너 건설 노동자가 산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건설 노동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수정구 태평동 건설 노동자 쉼터

1970년대부터 건설업에 종사하기 시작해 2002년까지 건설주로 일한 최정란은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다.

> 어, 그 복정동에 인력사무소가 성남에서 1호야! 그리고 딴 데가 군데군데 생겼는데 그거는 다 나중에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성남시 복정동에 인력사무소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 배낭 메고 길에 서 있었어요. …… 노동자분들이 배낭을 메고 길에 여기저기 서 있고 양쪽으로 쭉 그러면 가서 싹 둘러보고 일 잘 하겠다 생긴 분을 골라요. 그렇게 해서 초창기에는 건설 인력을 썼어요. 조금 후부터 이 인력들을 데리러 차가 왔고 차가 오면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사람을 고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노동자들끼리 싸우다시피 막 그냥 차에 뛰어들었어. 그렇게 인력을 데리고 오고 그랬지. 그러고 나서 인력사무소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편안해졌어요.

건축 일을 하는데 있어 노동자들은 기능공과 일반공으로 나뉜다. 기능공은 특정한 기술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목수, 철근공, 조적공, 미장공 등이다. 조적은 벽돌을 쌓는 일이고, 미장은 바닥과 벽을 시멘트 또는 흙으로 평평하게 만드는 일이다. 반면 일반공은 특별한 기술 없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흔히들 '잡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인력시장에서는 주로 일반공을 많이 데리고 왔다고 한다. 기능공도 더러 있었지만 원래 손발을 맞추던 사람이 아니면 기능공들 간에 현장에서 팀워크가 깨지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런 인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문 기술자들이라고 보면 된다.

처음 건설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인력사무소로 찾아가서 일자리를 구한다. 그러면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수수료로 10%를 내야 한다. 사무소는 또한 건설사로부터 임금을 받아주기도 한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 일당을 떼일 경우가 높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받아준다는 것만도 엄청난 메리트처럼 느껴진다.

인력시장에 오는 노동자들은 아주 이른 시간에 이곳에 도착한다. 새벽 5시가 되면 지하철 태평역 주변에 있는 인력사무소에 하나둘씩 전기가 들어온다. 전날 야근 노동이 있었다 할지라도 일을 하려면 일찍 올 수밖에 없다. 이전 이 주제로 글을 쓴 『주간조선』의 한 글에서, 그 이유를 '일찍 사무소에 나와야 빠른 순번을 받아 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통 아침 6시 반에는 현장에서 도장을 찍어야하기에 인력시장에서 먼 현장까지 가려면 5시에 나올 수밖에 없다.

건설 현장 이야기

건설 현장에선 어떤 일들을 할까?

이미 이야기했듯이 노동자들은 주로 기능공과 일반공으로 구분된다. 기능공의 경우 기존 건설 일을 오랫동안 한 분들이다. 목수, 조적, 철근 등의 분야에서 특별한 자격증과 경력을 인정받는 시스템이 없는 현재의 조건에서, '기능'은 오랫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축적될 수밖에 없다. 한편 잡부들(일반공)은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고, 특히 아르바이트 학생까지도 있다고 한다. 이 일은 특정한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힘은 들어도 웬만하면 누구나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

기능공에는 4대마가 있다. 목수, 미장, 철근, 조적이 그것이다. 최정란은 인부들을 직접 데리고 오고, 자재도 직접 구해서 건물을 지었다. 집을 짓는데 순서가 있다. 기초공사가 어느 정도 끝난 후면, 목수가 제일 먼저 들어온다. 목수는 나무로 집의 뼈대를 잡아준다. 그다음에 조적공이 들어오는데, 목수와 조적공 사이에 간혹 갈등을 빚기도 한다. 목수가 마무리를 지어야 조적공이 들어와서 일을 하기에 목수와 쓰미(조적공)하고 궁합이 잘 맞아야 싸움이 안 난다. 무엇보다 목수가 구조를 잘못 잡아놓으면 쓰미가 쌓는 게 안 맞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장을 하고, 건물 내부 설비가 시작된다. 보일러를 위해 엑셀파이프를 깔고, 전기 시설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한다. 흔히 마감, 내부 인테리어는 가장 마지막 순서이다.

초창기 건축 현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강도의 노동으로 이루어졌다. 건물이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기초를 쌓아야 한다. 기초를 쌓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한다. 그런데 장비가 없으니까 곡괭이와 삽으로 팠다. 지금 같으면 포클레인 등 장비가 많이 발달해서 손으로 직접 땅 파는 일이 거의 없기에 이 고통을 알 수가 없다. 최정란은 두 번째 건축을 시공했을 때, 기초를 위해 땅을 파다 마사라는 바위를 만났고, 그것을 남편과 보름 동안 '정'(못처럼 생긴 큰 쇳덩이)으로 깼다고 한다. 우스갯소리일지 몰라도, 제일 기억에 남는 추억이 남편과 마사바위를 정으로 부순 기억이라고 했다.

건설 노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모두 이전의 노동 강도가 훨씬 세다고 한다.

대부분의 일을 기계가 아닌 '수공 작업'으로 했기 때문이다. 철근공 일을 했던 노동자 한 분은 철근을 직접 사람 손으로 잘랐다고 한다. 한마(해머)를 이용하는데, 네모반듯한, 일본말로 '마끼다이' 위에다 놓고 한마로 철을 내리친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운반하는 것도 사람이고, 철근을 가공하는 것도 사람이다. 기계화가 덜 되었기에, 그런 일을 하는 데 모두 사람의 손이 필요했다. 공구리(콘크리트)를 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김방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 그 당시에 건축 용어가 일본 말이 대부분이었어. 옛날에는 공구리도 다 직접 손으로 해. 지금은 기계화되어서 힘든 작업은 없지만 그 시절에는 그것도 전부 …… 모래 자갈을 퍼서 시멘트와 함께 비비고. 그리고 자갈, 모래가 든 통을 메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 계단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시바 파이프로 모두 만들었어. 모래, 자갈, 시멘트가 들은 질통을 어깨에 메고 계단을 2층, 3층, 4층, 5층까지 올라갔지.

몇 분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다. 질통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층수를 이야기할 때 꼭 5층을 마지막에 이야기한다. 현재 경기기능건설학교에서 교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이태영의 기억으로는 5층짜리 아파트가 1973년 정도부터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마도 1970년대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의 기억에, '5'라는 숫자는 지고 올라가기 어려운, 인간의 한계를 뜻하는 숫자의 상징이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런 육체적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40년 동안 건축 일을 한 김방곤이 느낀 어려움은 무엇일까?

> 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옛날에 18살 때부터 노동일을 했거든. 검정 고무신 신고 그 때는 전부 다 수작업으로 완전히 힘든 일을 했어. 아마 임금이 400원, 500원 받았지. 그렇게 쭉 하다가 지금은 모든 게 기계화되고, 안전화에 안전모도 생기고 그때보단 덜 다치지만 옛날에, 민주노총 가입하기 전에 쉽게 이야기해서 어디 다치면 동료도 외면해 버렸어. 일하다 퉁퉁 부었는데 돈 몇 푼 던져준 거 밖에 없어. 다친 몸으로 어느 곳에 가도 도움도 못 받겠더라구. 지금 같으면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좋아지고 그런데 그땐 아무 데서도 도움 못 받았어.

조합 활동을 시작한 김방곤에게 건설 현장에서 겪은 가장 고달픈 기억은 고독감이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 현장에서 누군가 한 사람의 노동이 빠져버린다면 다친 동료에 대한 걱정보다 자기에게 올 더 강한 노동이 걱정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집 떠나와 아플 때면 부모님, 가족 생각이 가장 많이 난다던 그

말처럼, 그 아픔을 서로 공감할 수 없는 구조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가장 큰 공포다. 기계화되지 않는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라면 노동 강도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현재의 노동 강도도 실상 가볍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 건설 일도 너무너무 힘들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옛날과 비교해서 하늘과 땅만큼 노동 강도가 차이 난다면 과연 옛날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셨던 걸까? 한편 건설 일에는 계절에 따라 다른 어려움이 있다. 김방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창간호 1987년 11월 15일 발행

성남 인력 센타

전화 : 45-0826
주소 : 성남시 신흥1동 5543

일용직 노동자들의 조합 역할을 한 성남인력센터의 기관지 『성남인력센타』 창간호(1987)

당연히 겨울과 여름이 어려웠지. 겨울에 추울 때는 건설 현장이 꽁꽁 얼어버리거든. 주변이 얼면 우리 몸은 마비가 돼. 몸뿐 아니라 장갑도 꽁꽁 얼어버려. 그러면 당연히 손도 둔해지고 현장이 큰 곳은 난로라도 피워주지만, 얼른 가서 손을 녹이고 다시 가서 일을 해야 해. 무엇보다 겨울에 힘든 것은 땅이 미끄럽다는 거야. 눈이 쌓이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 또 눈보라가 심하게 치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야. 이렇게 눈이 오면 자재를 포장하고 일을 중단하는데 …… 그다음 날 포장한 걸 걷으면, 합판이나 알루미늄판이 다 얼어서 무척 미끄러워.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었지.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말, 딱 건설 현장에 적합한 이야기다. 겨울과는 반대로 여름은 여름대로의 고충이 많았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서 눈을 못 떴어. 회사에서는 찬물 먹어라 식염수 먹어라 하는데, 말이 그렇지 눈치 보여 쉬고 있을 순 없었고 잠깐 마시고 계속 일을 해야 해. 그렇게 땀이 흐르면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정도까지 속이 미식미식했지. 가끔은 어깨에 화상이 나서 불이 날 정도야. 철근 같은 걸 쥔다고 생각해 봐. 그렇다고 한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을 수도 없잖아. …… 특히 작년(2012년)엔 36도까지 올라갔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구. 진짜 작년같이 더운 해가 없었어. 그리고 재작년은 어땠나? 여름 한 달 내내 비가 왔잖아. 아침에 갔다가 일 조금 하면 소나기가 쏟아져 일을 못하는데, 기다리다가 절단기나 코드 같은데 물이 들어가면 누전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쓸 수도 없어. 절단기 같은 경우 전기가 찌릿찌릿 오거든. 또 비가 와도 눈을 못 뜨고 비옷을 주는데, 더워서 입지도 못하고. 대부분 노동자들은 비 맞고 일 안하고 싶어 해. 우리도 몸도 끕끕하지 덥고 안 좋지. 그래도 일이 바쁘면 회사에서 소나기니까 기다리라고 하

고, 비 안 오면 나와서 다시 하라고 하고.

다른 한편 현장에서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안전화가 생겨서 그렇지 난 옛날에 고무신 신고 일하다가 발톱이 다 죽었어. 철근을 맞아서 발톱이 힘을 못 써. 옛날에는 타이어표 고무신, 발바닥이 아프면 세멘트 푸대를 접어서 바닥에 깔았는데 얇으니까 발바닥이 더 아파. 그냥 밟으면 엄청 발바닥이 아프지. 양말이 어딨어. 맨발이었어. 또 검정 고무신 신고 미끄러우면 흙 좀 묻혀서 다시 신고 그것 밖에 없었어. 안전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누가 현장에서 다치면 보상받나? 치료가 어디 있어. 빨간약이라고 사 주면 끝이지. 그걸로 끝이야.

건설 현장은 안전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각종 장비와 자재들이 오가는 곳. 그곳이 현장이기에 물품 하나 잘못 떨어져도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다. 김방곤은 양말을 벗고 다리를 걷어 실제 다친 흔적을 보여 주었다. 큰 사고를 당한 적은 없다고 했지만, 찢어지고 멍든 자국이 온 다리를 덮고 있었다. 그곳에 남은 상처들은 그 일한 세월만큼이나 희미하게, 어떤 것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빨간약이 과연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었을까.

문제는 그렇게 다쳐도 아무 말없이 일을 나가야 한다. 그러니 40년 일하며 골병이 들 수밖에 없다. 손목이나 팔목, 무릎, 허리 뭐. 안 아픈 데가 없지만 급하면 병원에 가고, 허리가 아프면 통증클리닉 가서 (급하게) 주사 맞고 일한다. 그러기에 관절 부위가 안 아픈 노동자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안전 문제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경각심은 건설 현장에서도 많이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큰 사고뿐 아니라 작게 난 상처들이 일한 경험만큼이나 온몸에 남아 있다.

세상이 변해도 여전히 억울한 것

건설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얼마일까? 하루 평균 8만 원, 기술자들은 조금 더 받는다. 아마도 건설 노동자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는 직업도 없을 것이다. 임금이 오르지 않는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차례의 수수료가 문제다. 일반 건설업체, 전문 건설업체(단종업체), 도급이사, 십장 등 다단계의 하청을 거치며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실제 건설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임금은 10년 동안 동결됐다고 보면 된다.

하도급 체제는 임금 동결뿐 아니라 노동 통제 방식과도 연결된다. 김현욱은 2001년 12월 석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건설 일용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화에 관한 연구」에서 그 구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건설 일용 노동력은 기업과의 고용 관계가 대부분 간접적이며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각종 사회보장의 보호 밖에 존재한다. 또 작업 기술이 특별한 교육 훈련을 받는 것보다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습득하기에 건설 산업으로의 노동력의 진입 및 퇴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정형화된 직업 경력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해도 보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건설 일용 노동시장은 고용 구조에 있어 극도의 유연성을 특징으로 한다. 또 건설업의 생산 공정은 많은 부분에 있어 소공노동(handcraft)에 의존하기에 노동자의 기예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를 통제하는 방식은 제조업과 다르다. 제조업이 소수의 관리자에 의해 작업의 속도나 강도를 일괄적으로 통제한다면, 건설 현장에서는 돈내기 식 통제 방식이 사용된다. 건설사는 하청 팀장에게 일정한 건설 공정을 하청 주고, 회사는 하청 팀장과 작업의 최종 결과를 특정 시기까지 끝내는 것에 대해서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건설 작업에 대한 통제와 그에 따른 비용은 하청 팀장이 모두 책임을 지게 된다. 하청 팀장은 하청 과정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공정을 되

도록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하기 때문에 작업 과정에 대한 강도 높은 통제를 수행한다. 이것이 돈내기 식 통제 방식이다.

다시 말한다면 본 건설사는 노동자를 직접 통제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통해서 오직 성공한 '결과'만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는 건설 일용 노동력의 특수한 시장 상황에 기인한다. 하도급 체제는 건설 일용 노동의 강도를 높이고 임금을 동결시키는 자본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이다.

한편 40년 동안 건설 일을 해 온 김방곤은 하루 일당으로 받는 임금이 30만 원이라 했다. 그런데 이게 절대 많은 돈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 현장에 가면 일을 많이 하라고 요구하지 적게 하라고는 안 해. 그 사람들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혹사를 해야 해. 비오고, 겨울철에는 일거리가 적고, 여름철에는 기후 변화로 아파서 못나가고, 더워서 못 나가고, 나가는 날 하루 일당을 책정하면 30만 원인데 그러면 '엄청난 돈이네'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천만에 말씀이야. 건강할 때 17, 18일이 평균적이었는데 지난달에는 5일밖에 못했어. 5월에 5일, 6월에는 8일 했고. 자꾸 아프니까 며칠하면 힘들고 그러더라구.

건강할 때 17~18일을 평균으로 일했지만 결국 그렇게 일을 하면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다. 건축 일은 계절 영향도 많이 받기에 일당이 30만 원이라는 데 놀라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그나마 고난이도 기술을 소지한 김방곤이기에 일당이 어느 정도 높지만 8만 원, 혹은 15만 원을 받는 사람들은 기본 생활을 위해 노동일수를 더 늘리려 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8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20일 이상 일한다고 상상해 보자.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일이다.

과거에는 고용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조차도 갖춰지지 않았다. 지금은 고용보험 제도가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도 도입되었다. 그 법령에 따르면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근로일수)을 모두 더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③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고, ④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용보험은 그림의 떡이다. 목수로 일해 왔다는 익명의 한 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에세이를 적었다.

대단위 아파트 현장에서 1년씩 작업을 해도 고용보험 가입 한 번 못해봤어. 인원이 적거나 상용화된 전기 설비 직종들을 제외한 현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4대마(목수, 철근, 미장, 조적) 건설 일용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해줘.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당장 쫓겨나.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이야. 만약 강력히 항의하면 당사자뿐 아니라 오야지를 불러 함께 일하는 사람 전체를 그만두라고 협박하는 것이 보통이야. 인맥 위주로 구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일하는 동료 전체가 일터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고도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할 노동자들은 아무도 없을 걸.

퇴직금 역시 마찬가지다. 2012년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는 건설 일용 노동자가 1년 일한 퇴직금이 30만 원 정도라는 기사를 썼다. 사업주는 건설 일용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하루 4200원의 퇴직공제부금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해야 한다. 노동자는 적립일 252일 이상이면 근로한 뒤 퇴직하거나 60세가 됐을 때 적립된 공제부금액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2011년 기준으로 건설 노동자 한 명의 1년간 퇴직공제부금 납부일수는 평균 72일에 그쳤다. 이것을 계산했을 때 연평균 적립금 30만 원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방지대책으로 퇴직공제부금 관리시스템을 정비해서 공제부금 노동사업장에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고 하고,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건설 노동자가 직접 자신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회에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도 여의치 않다. 왜냐하면 퇴직공제금의 경우 대부분 대규모 공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소규모 건설 현장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돼야 하고, 턱없이 낮은 공제부금액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용보험과 퇴직금, 분명 기본적인 보험 제도가 확립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그 제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혜택이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분명 '그림의 떡'만큼 이 상황을 잘 묘사한 말도 없을 것이다.

이 문제 외에도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문제 중 하나는 유보금(일본 말로 쓰메끼리)이다. 유보금이란 건설 현장에서 첫 임금 지급 때 보통 15일 심지어 1~2달씩 임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일수와 임금 자체도 많지 않은데 유보금 때문에 이들의 살림살이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김○○는 유보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게 제일 큰 문제야. 일하면 제때 줘야지. 5일 정도는 시간을 줄 수 있는데 이건 뭐

한 달이 넘어가고 보름이 넘어가면 …… 저쪽 ㅊ병원 지금 짓고 있는데 벌써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면 …… 건설사들도 어렵다는 거 알지만 …… 그렇다고 사람의 노동력은 물건이 아니잖아.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지 않나. 노동자나 공무원도 똑같단 말이야. LH공사 같은 경우 성과금 잔치 벌이고 그 사람들은 뭐 25일 미리 받는다나. 그러면 형평성이 틀려지는 거 아닌가. 노동자도 똑같이 일하고 몸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데,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내나 우리도 그 사람들 내는 만큼은 다 내고 사는데.

건설 경기가 어려워 노동일수가 준 것도 어렵지만,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건 일하고도 일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할 때이다. 행정상 처리를 위해 5일 정도는 참아줄 수 있지만 그 일수가 길어지면 하루 일당을 받고 사는 이들에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노동자와 공무원을 비교하며,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다른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하소연을 한다. 세금도 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유보금'이란 말할 수 없는 좌절감과 차별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교의 대상은 국가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다.

또한 유보금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과 보험료를 더 크게 느끼게 한다. 일용직 노동자들 역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한다. 퇴직금의 경우 건설사가 전액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잘 안 되는 때가 많음),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반반씩 건설사와 노동자 자신이 부담한다. 그런데 임금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험료를 낼 수 있나? 그런 상황에서 이런 보험료들은 그들의 없는 살림에서 또 하나의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은 제때 월급을 받는데, 일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답답하지 않을까?

요즘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문제는 일자리이다. 일자리가 부족한 원인 중 분명 조선족, 한족 노동자들의 영향이 크다.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역시 건설 현장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를 외국인 노동자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평가는 다르게 내렸다. 중국이나 그런데서 온 이들은 아무데나 일을 하러 가지만 우리나라 분들은 일을 고른다. 그러기에 일을 뺏긴 것이 아니라 일을 고르기 때문에 건설 업주들이 외국인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 다른 부분을 짚어 보아야 한다. 김방곤과 대화를 나누며, 외국인 노동자를 이야기할 때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강조했다. 어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장의 80%를 차지하고 그러기에 정작 자신들은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하소연을 했다.

불법 체류자만 쓰지 말고 지역 주민의 50%는 꼭 써라. 우리는 일이 없는데 불법 체류자를 가득 태우고 몇 차씩 들어가는 거야. 아주 기가 막혀. 대한민국 일자리가 뭐야?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었나? 전혀 쓰지 말라고는 안하겠는데 50%만 쓰라고 요청했어. 이게 맞지 않나? 관공서도 다 인정하는 거야.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아니잖아. 싹 다 써버리면 도대체 우리는 뭐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불법'이라는 단어와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도,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자신들의 일자리가 뺏겼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감은 항상 '불법'이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여기서도 여전히 이등 국민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한 아픔이 묻어나왔다. 이 문제에 대해 이태영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일자리를 많이 뺏기는 건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 사람들도 합법적이라면 노조에서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주노총에서 부위원장 할 때 이주 노동자 담당을 했어요.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만국의 노동자는 하나다' 그런 거잖아요. 불법적으로 일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겐 교육도 시키고 같이 해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젊은 사람들이 점점 힘든 일을 안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정 부분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우리 한국 젊은 사람들은 새롭게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하면서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느 순간부턴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가 노동자들 간의 문제로 여겨졌을까? 언제부터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라는 분류가 생기고 내국인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적대하는 형국에 이르렀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다시 합법과 불법이라는 구분이 생긴 걸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애환과 마음을 고려하는 대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하지만, 그 이전 '만국의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구호가 무색해지는, 서로가 서로를 구분 짓게 만드는 그 조건과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 분석이 더 중요하게 요청되지 않을까.

아직도 우리는 산업의 역군인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박사는 세계적으로 건설 경기가 역U자형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역U자형의 정점을 찍고 하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 경기의 양적 팽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노동자들의 체감 온도는 IMF 때만큼 건설 경기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대다수 고령화된 건설 일용 노동자들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의 역군으로 추앙받았다. 1970년대 유류 파동으로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때 중동에 나가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모래 바람을 맞으며 외화를 벌어들여 경제의 초석을 마련했다. 권혁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산업예비군 성격이 있어. 건설 산업예비군 성격으로 도시 주변부의 인생이라고 하지 흔히들 …… 그런데 나는 건설 노동자만큼 현재 대한민국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월남에 가서 건설 노동 시작됐고, 중동 신화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야. 중동 신화는 건설 노동자들의 피땀이고 거기서 많이들 죽었잖아. 그런 희생의 몫이고 그런데 국가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분들이 사람다운 대접은커녕 …… 1세대들은 이미 많이 돌아가셨고, 2세대들이 건설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 목수만 해도 70대가 허다하고 힘들고 대접 안 해주니까 누가 하려고 하겠어.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의 역군이었고,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멸시, 천대의 대명사가 건설 노동자라고 한다. 노동자가 아닌 '잡부', '노가다'라는 말 자체에서도 건설 노동자들을 폄하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무엇보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 현실은 과연 이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대가가 이 정도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열악한 작업 환경 가운데 앞으로 이 일을 하고 싶은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작업 현장에 기계화가 많이 되었다고 하지만, 목수나 철근이나 모두 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더 이상 목수, 철근, 조적, 미장을 하려

성남 인력시장에 관해 조사 중인 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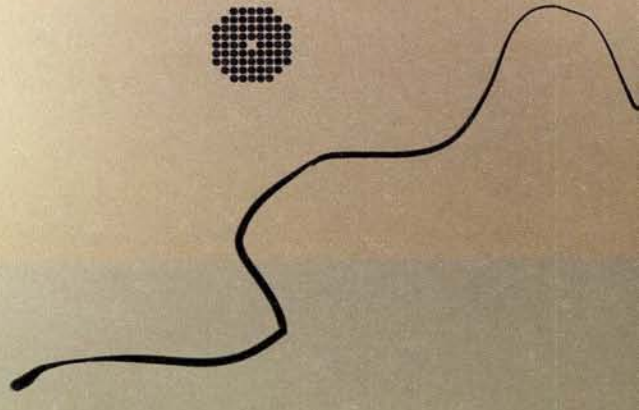
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까? 이 기술자들은 이제 대부분 고령의 나이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김방곤은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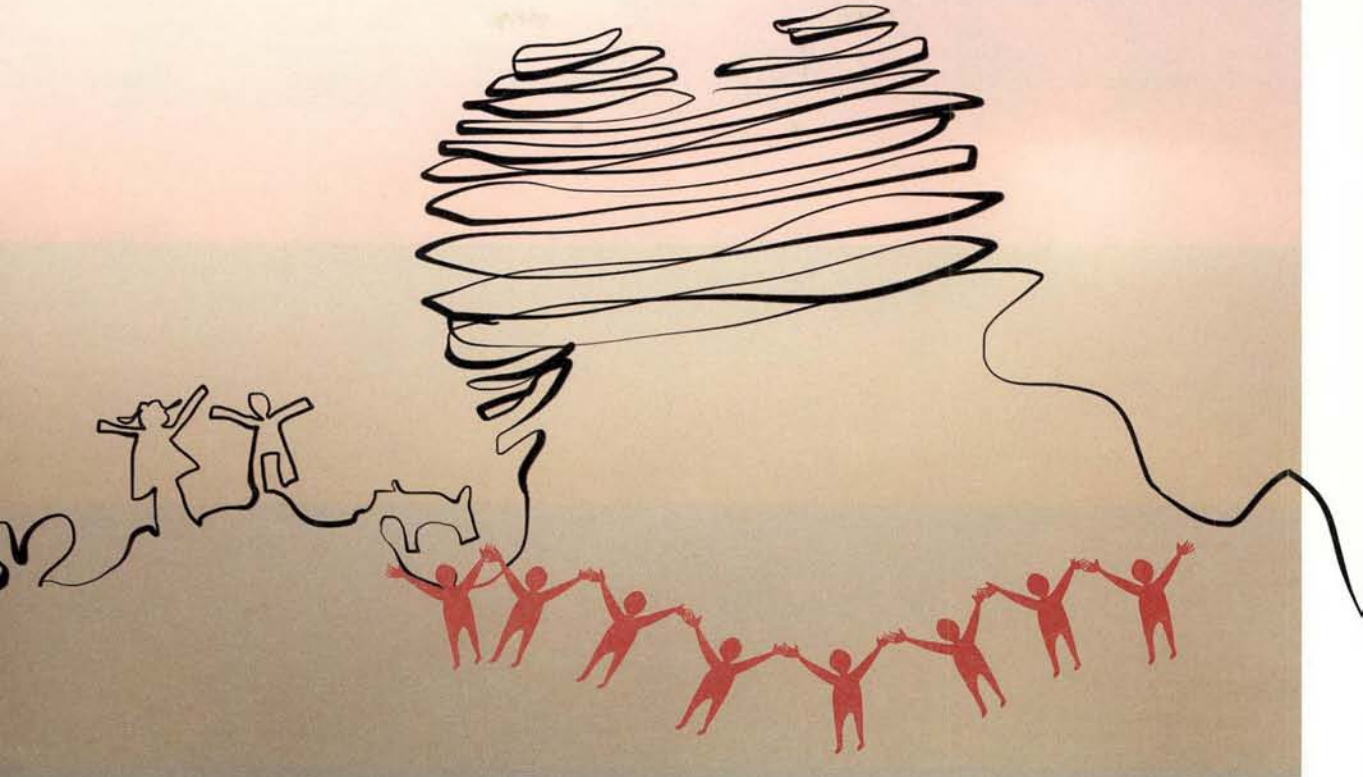
> 나는 철근공인데 완전히 이건 기술직이고 수작업이야 누군가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배울 사람이 없어. 모든 게 철근 제단, 가공부터 조립부터 그런 숙달된 기술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일이 안 돼. 우리는 오래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기술을 배워서 숙달하고 숙련공이 됐지만, 젊은 사람은 배우려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야. 젊은 노동자들이 대학교 나와도 건축 현장에 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 정부에서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20~30대는 하나도 없고, 40~50대, 60대 넘어가면 회사도 안 써. 큰 회사들은 55년생, 오지마라 나가라 그러면 또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 그 사람은 숙련공이란 말이야. 어쨌든 우리 세대로 끝나 버리는 거야. 노동자가 노동일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을 해줘야 하는데 조금 거시기 하면 싼 일꾼, 월남, 태국, 중국 그런 사람들 수입해서 쓰면 …… 하지만 그 사람들 와서 잠식해 버린다 그 말이야. 우리 국내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없다는 거야. 어떻게 할 껀지.

산업의 역군으로 불렸던 이들. 하지만 지금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술을 가진 이들이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들은 이등 국민의 취급을 받았다.

3

전통문화에 담긴 오롯한 정신





제1장 무형문화재로 살아가기

제2장 세상의 속도에 밀린 기억 저편, 전통놀이를 찾아온 사람들

제3장 성남 '맛의 장인'을 찾아서

제4장 모란민속5일장과 시장 상인들

제1장
무형문화재로 살아가기

김지욱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성남에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매듭장, 가야금산조, 금박장과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소목장, 나전 칠기(칠장), 벼루장, 화각장, 도편수 등이 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타지에서 성남으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다. 현재 성남에 자리 잡고 인간문화재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생애와 보유 기능에 대해 조사하고 기록해두는 일은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중요한 일의 하나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8명의 무형문화재 중에서 나전 칠기 장인의 삶과 기능에 대해 조사, 기록하였다.

성남의 무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는 가야금산조, 매듭장, 금박장이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伽倻琴散調 및 倂唱) 중에서 가야금산조 부문에 지정된(1968. 12. 21) 이영희가 있다.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 전통연행, 음악, 민속음악 분야로 구분된다.

산조란 장구 반주에 맞추어 다른 악기를 독주 형태로 연주하는 것을 말하며, 4~6개의 악장을 구분하여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 순서로 연주한다. 그 중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산조를 가야금산조라 하고, 직접 가야금을 타면서 노래 부르는 것을 가야금병창이라 한다. 가야금산조는 4~6개의 장단으로 구성된다. 가야금의 악기적인 특성으로 인해 여러 명인들이 다양한 음악 유파를 형성하였다. 가야금병창은 단가나 판소리 중 한 대목을 골라 가야금 반주를 얹어 부른다. 판소리 흥보가 중 '제비노정기', 춘향가 중 '사랑가', 수궁가 중 '고고천변', 심청가 중 '심봉사 황성가는 대목'은 가야금병창의 유명한 대목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19호로 지정(2006. 11. 16)된 금박장 김덕환도 성남에 살면서 그 기능을 전승하고 있다. '금박장金箔匠'이란 직물 위에 얇은 금박을 이용해 다양한 문양을 찍어내는 장인으로, 오늘날에는 여성의 혼례복 등에서 볼 수 있다. 금박장식은 조선시대에는 왕실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보관상의 문제로 현존하는 유물이 많지 않다. 순조의 3녀 덕온공주(1822~1844)가 혼례 때 입었던 것이라고 전하는 원삼에는 '壽(수)'와 '福(복)'자가 금박 장식되어 있다(중요민속자료 제211호 덕온공주 의복). 금박 장식은 접착제를 바른 문양 판을 문양을 넣고자 하는 위치에 찍고 접착제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금박지를 붙인 다음 문양 밖에 있는 금박지를 다시 떼어내는 방법으로 제작된다. 금박장 기술은 옷의 구성에 어울리는 문양을 선별·배치하는 안목을 바탕으로 문양 판을 조각하는 목공예 기술과 주재료인 아교와 금박지의 물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오랜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되는 기술이다. 이러한 금박 장식 기술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직물 공예 기술로

서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김경용金景用을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그의 사망으로 종목이 해제되었다가 김덕환이 다시 지정되었다. 금박金箔은 금 조각[金片]을 계속 두드려 얇은 종이처럼 만들어진 것을 뜻하나 오늘날에는 금박지를 이용해 직물 등에 문양을 장식하는 기술로 이해되고 있어 지정 명칭을 '금박장金箔匠'으로 명명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2006. 11. 16)된 매듭장 정봉섭도 성남에 살고 있다. 매듭장이란 여러 올로 짠 끈목을 사용하여 각종 매듭을 짓고 술을 만드는 기술, 또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명주실을 꼬고 합사하고, 각색으로 염색해서 끈목을 만드는 다회장과 굵고 가느다란 끈목을 두 가닥으로 늘어 뜨려가며 각종 모양으로 매듭을 맺는 매듭장을 구분하였다. 현재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매듭장으로 통칭하고 있다. 끈목은 여러 가닥의 실을 합해서 3가닥 이상의 끈을 짜는 것을 말하는데, 그 종류에는 둘레가 둥근 끈으로 노리개나 주머니 끈에 주로 쓰이는 동다회와 넓고 납작한 끈으로 허리띠에 자주 사용되는 광다회가 있다. 복식이나 의식도구 장식으로 사용되는 매듭은 격답·결자라고 한다. 매듭을 만드는 재료로는 명주실, 모시실, 닥나무실, 삼베실, 털실 등이 쓰인다. 끈의 색감, 굵기, 맺는 방법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며 지방에 따라 그 이름도 다르다. 매듭의 이름은 생쪽, 나비, 잠자리, 국화 등 우리가 쉽게 보고 사용하는 온갖 물건, 꽃, 곤충에서 따왔다. 끈이나 매듭의 하단에 다는 것을 술이라 하는데 각종 악기, 교통·용구, 불교 도구 등의 장식에 사용하였다. 술 또한 쓰임새에 따라 딸기술, 봉술, 호패술, 선추 등 다양하다. 같은 종류일지라도 궁중과 지방에 따라 그 품격이 달랐다. 매듭은 생활 전반에 폭넓게 이용되었으나 개화기 이후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현재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매듭장인은 성남의 정봉섭 장인과 서울의 김희진 장인이 기능 보유자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성남에서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으로는 나전 칠기장·칠장, 화각장, 대목장·도편수가 있다. 그중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1998. 9. 21)된 나전 칠기장·칠장 배금용의 생애와 보유 기능에 주목한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지금처럼 페인트나 화학 안료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나 철

로 만든 도구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 옻나무에서 채취한 옻을 칠하였다. 옻칠을 한 여러 가지 도구들에 멋을 내기 위해 색 옻칠로 무늬를 그려 넣기도 하고 금박이나 은박에 문양을 넣어 붙이기 시작하면서 칠기에 장식을 하였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나전 칠기는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국가에서 임시 기관을 만들어 나전 칠기 공예인들을 관리하였고, 세계 최고의 나전 칠기 작품이 많이 제작되었다. 성남에 사는 배금용 장인은 고려 나전을 복원하여 전승하고 있다. 고려 나전 칠기는 매우 섬세하고 화려한 무늬가 베풀어져 오늘날의 기술을 가지고도 똑같이 만들기가 힘들 정도다.

개화기 이후 나전 칠기는 전환점을 맞는데, 일제의 침략으로 일본인들의 취향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현재는 서구화된 주거 생활 환경에 걸맞게 제대로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서구식 가구에 밀려 난지 수십 년이 되었으며, 규모가 작은 소품 가구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나전 칠기가 언제부터 한국인의 생활에서 쓰이기 시작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중국의 역사서에 보면 한漢대에 칠기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낙랑 고분에서 칠기가 출토되었고, 신라의 관직 제도에 칠전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시대 이후 독자적인 기법으로 발전 전승되어 한때는 세계적인 기술을 자랑할 만큼 우수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고려 인종 때 서긍이 저술한 『고려도경』에 고려 나전 칠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기법은 매우 세밀하여 귀하게 여길만하고 나전이 장식된 말안장도 매우 정교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나전 칠기의 문양은 시대에 따라 구분된다. 조선 초기인 15~16세기의 나전 의장은 연당초문, 쌍봉문, 쌍용문, 보상화문 등 고려시대의 섬세했던 것에서 탈피하여 표현이 대담하며 활달하였다. 17~18세기경에는 기법이 다소 쇠퇴하면서 점차 매죽, 화조 등의 그림이 두드러지게 많아졌고 사군자나 십장생 등 문인 화풍의 문양이 성행하였다. 조선 말기에는 자연을 소재로 한 풍경화적인 묘사에 중점을 두어 십장생과 산수문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수많은 나전장들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경기도 무형문화재 나전 칠기장·칠장인 배금용은 나전 칠기 제작의 뛰어난 칠장으로서 전통적인 기능을 전승, 발전시키고 있다.

1999년에 지정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9호 화각장 한춘섭은 성남 중원구에 거주하며 작업장은 이천에 두고 있다. 화각은 한자로 畵角, 畵刻, 花角, 火角 등으로 쓰인다. 우리나라의 화각은 쇠뿔을 얇게 갈아 투명하게 만든 판을 말하며, 이러

한 화각을 이용해서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을 화각장이라고 한다. 화각 공예는 고려시대의 나전 칠기와 쌍벽을 이루는 조선시대의 왕실 공예이며, 한국적인 공예의 특성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독특한 공예 기법이다. 재료가 귀하고 공정이 까다로워 생산이 많지 않아 특권층의 기호품이나 애장품으로 이용되었다.

화각 공예는 속이 비고 투명도가 높은 황소 뿔을 삶아 압력을 가하여 종이처럼 얇게 펴서 갈아낸 다음 투명한 부분의 뒤쪽에 단청을 사용하여 갖가지 무늬나 그림을 그리고 채색하고 옻칠로 장식하여 만든다. 화각에 그리는 그림은 빨강, 파랑, 노랑, 검정, 흰색 등 5가지 색을 기본으로 십장생을 비롯하여 사군자 등 각종 상징물 및 자연물이다. 공예품으로는 장, 농, 사방탁자, 문갑, 예물함, 경대, 바느질자, 경상, 연상, 반짓고리, 부채, 붓대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화각 공예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민족적 색채가 짙은 민족 공예로 발전되었다. 현재 무형문화재 화각장으로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한춘섭은 화각의 단점을 보완하여 화각 공예의 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2001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6호 대목장·도편수로 지정된 장효순은 성남 수정구에 살고 있으며, 강원도 강릉에 작업장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 대목은 원래 궁궐이나 사찰, 가옥과 같은 것을 맡아 짓는 사람을 일컫는 말다. 조선시대에 이들의 조직을 보면 도편수(혹은 도대목)를 제일 대장으로 삼는다. 말하자면 이 일을 총괄하는 우두머리로서 지을 집의 법식을 정하고 일의 분담과 기법을 지도하는 소임을 맡는다. 특히 도편수의 경우 일의 시작은 통나무가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도편수가 통나무를 점검하여 그 크기와 생김새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을 부여하면 이에 따라 별도로 분류하여 쌓는다. 분류한 통나무는 자귀질만으로 다듬어지는 것이 있고, 인거장引鋸匠에게 넘겨져 각재角材나 판재板材로 켜지는 것이 있다. 켜내는 각재나 판재는 대목들의 소용 재목이 되고 또한 문짝의 살대 등을 깎는 소목들에게 돌아간다.

조선 철종 때인 19세기 중엽 『인정전중수의궤』에 의하면 도편수와 부편수가 있어 공사 전체를 주관하였고, 기둥과 보 및 지붕 구조는 정현편수, 공포 짜는 일은 공도편수, 서까래를 깎아 거는 일은 연목편수가 분담하였다. 전래의 대목들은 도제 방식에 의하여 건축 현장에서 양성되었는데, 고금의 뛰어난 건물에 대한 지식이 갖추어져야 함은 물론 제도술도 익혀야 하고 암기 능력도 뛰어나야만 했다. 곧 먹줄 튀기는 일은 우리 건축의 법식과 기법에 통달하여만 했을 정도로 뛰어나야 했다. 현재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목장·도편수인 장효순은 전통 건축물을 복원 및 신축하는 일을 전승·발전시키고 있다.

나전 칠기 · 칠장 배금용의 생애

나전 칠기·칠장 배금용은 1944년 10월 15일 전북 고창에서 출생하였다. 군대를 제대한 후 성남에 있는 공방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성남과 인연을 맺었다. 서른 살에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수정구 태평동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남한산성 입구에 있는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3층에 작업실을 두고 있다.

나이 여섯 살에 고아원으로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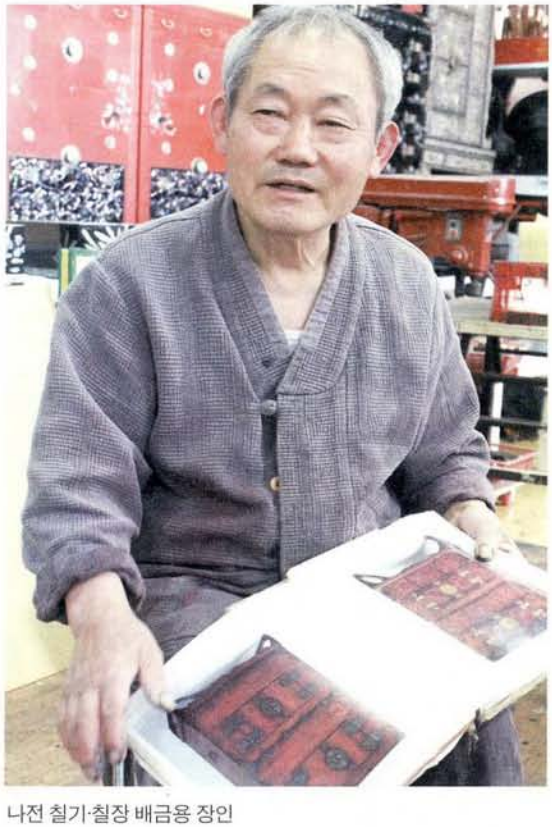
배씨의 부친은 소목장으로 일하다가 일제강점기 때 징용에 끌려가서 사망하였는데 이때 모친의 나이 20세, 배씨의 나이 6세였다. 남동생과 여동생이 함께였으며, '쌀도 없고 밥도 없고 ……. 쌀겨에 쑥을 넣고 죽을 끓여먹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

> 고창에서 한 시간쯤 가면 정읍인데, 거기 가면 고아원이 있었어요. 6살짜리가 걸어서 거길 갔어요. 일주일을 울었어요. 거기서 초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도망을 나왔어요. 고아원에서 한 살 더 먹은 애를 꼬여서 같이 고창을 간다고 …… 고창 못가서 홍덕인가 하는 데쯤 가니까 저녁때가 됐는데 어떤 아저씨가 새를 쫓고 있었는데, 우리를 보고 자기네 집에 가면 밥을 실컷 먹여 주겠다고, 집에 데려갔어요. 같이 간 애는 그 아저씨네 작은 집에, 나는 그 아저씨네, 큰 집에서 보냈어요. 오전에 나무 한 짐, 저녁에 나무 한 짐, 일을 시켰어요. 그 집에 19살 먹은 머슴이 있었는데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도망가자고, 개를 끌고 갔어요. 어떻게든 가서 밤중에 고창에 갔어요. 둘 다 말을 못했어요. 10월이니까 추웠는데 집집마다 밥 얻어먹고 멍석 말고 자는 생활을 했어요. 데리고 온 개는 고창에 두고 터미널에 갔는데 거기서 외삼촌을 만났어요. 외가가 잘 사는 집이어서 삼촌이 서울로 데려왔어요. 그때 고아원에서는 내 이름이 '백금용'이었어요. '백씨'. 서울역에 내리니 마포 공덕동은 다 초가집이고, 산동네라 골목이 좁았어요. 그 산동네에 외갓집이 살았어요. 어머니는 새로 시집가서 작은 동생을 고창 작은 집에 맡겨두고, 딸 데리고 시집가서 아현동에 살고 ……

나이 11살에 나전 칠기 공방에 들어가다.

배씨는 그 산동네에 살고 있던 삼촌 집에서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있었는데 삼촌네 뒷집에 나전 칠기 공방이 있었고 여기저기서 피난 온 사람들 15명이 모여 있었다. 그곳에 들어가서 나전 칠기 일을 배웠다. 그때 배씨 나이 11살이었다.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침부터 물지게를 지고 물을 길어오는 일뿐이었다. 늦게까지 재우지도 않았다. 당시 산동네에서는 아침에만 수돗물이 나왔다. 그래서 공덕동에 있었던 두 개의 우물에서 종일 물을 받아야 했다. 어린 나이에 종일 물을 받고 있는 일은 지루하기만 했다.

그, 심심하니까, 내가 그때 땅바닥에 내 이름을 쓰고, 중학생들, 학교 갔다 자나가면 붙잡고 물어보고 …… 한문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나전 칠기·칠장 배금용 장인

종일 물을 기르고, 저녁이면 선생(선배)들 일하는 것을 곁눈질로 보는 정도였지 다른 일은 시키지 않았다. 산동네 공방에서 3년 정도 일을 하고 있다가 보니 선배 기술자들이 수유리, 왕십리 등으로 독립해 나가고 나자 배씨 혼자 남게 되었다. 그때부터 개인 지도가 시작되었다. 고 최준식 사장이었는데, 배씨의 스승이 된다. 거의 10년 동안 일을 했지만 별도의 월급이 없었다. 고창에 있던 작은 동생까지 불러와 같이 일을 하고 있었던 터였다. 그러자 동생이 여길 나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자고 하여 몇 번 공방을 나갔다. 몇 번은 스승이 찾으러 와서 다시 돌아가야 했다. 당시에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수소문하여 찾는 일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 공방을 나오자 스승도 더 이상 찾지 않았다. 그곳을 나와 동생과 함께 왕십리, 아현동 등의 공방으로 총책임자 직을 맡으면서 돌아다녔다. 당시에는 아파트가 생겨 큰 가구가 필요하게 된 시

절이었기 때문에 가구는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였다. 그때가 나전 칠기, 가구 일이 가장 흥행된 시절이었다. 남동생도 같이 옮겨 다니면서 이 일에 종사하다가 인테리어를 하는 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배씨는 계속 이 일에 종사하고 있다.

> 그때는 가구가 없어서 못 팔았어요. 아파트가 막 생겨서. 그전에는 그렇게 큰 가구를 안 만들었거든. 가구 사려고 부인들이 곗돈을 타기 전에 선금을 걸고 그랬을 때였는데……

당시에는 장롱이 없었다. 그래서 장롱은 오랜 전통이 있는 가구가 아니다. 1960~1970년대에 들어와 9자나 12자 같은 큰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에 비해 농·문갑·반닫이는 전통적인 가구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다시 이런 가구를 주로 제작하고 있다. 그때가 1960년대였는데, 장롱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1년씩 기다려야 했다. 당시에는 장롱을 하나 팔면 집 두 채를 살 수 있었다. 당시 20평 집이 5만 원, 2층 집은 30만 원이었는데, 그때 화장대 가격이 70만 원, 장롱은 2000만 원을 할 정도로 고가였다. 아파트가 성행하면서 가구가 커진 것이다.

성씨(姓氏)가 여러 개였던 시절

배금용 장인은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는 '백금용'이었다. 그 후 나전 칠기를 배웠던 공방의 스승이었던 최준식의 성씨를 따서 선생의 호적에 '최금룡'이라고 올리고 있었다. 군대에 가기 전에는 깡패들과 어울려 놀고 생활이 좋지가 않았다. 변화를 주고자 결심하고 고창에 가서 호적을 찾아보니 그의 성은 배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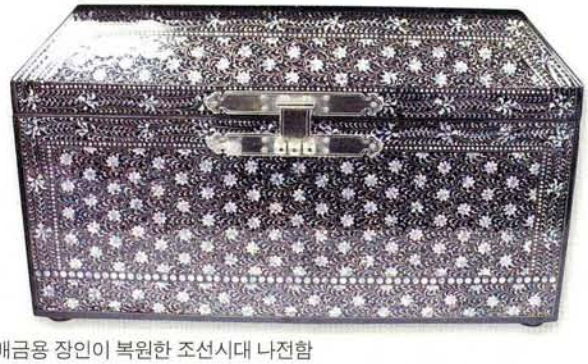
본 성을 가지고 29세에 군에 입대했다. 군에 입대하기 위해 신청을 하러 갔더니 무학자無學者는 갈 수가 없다고 했다. 이름을 써보라고 하여 '배금용'이라 제대로 쓰자 겨우 받아 주었다. 군대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직업이 나전 칠기 목공이라 했더니 6주 동안 훈련을 받고 목공반으로 배정을 받아 강원도 원주로 갔다. 1통신단에서도 목수 일만 했는데 가구를 만들 때 칠을 하고 자개를 붙였더니 모두 놀라워했다. 군 생활 36개월을 모두 채우고 제대를 했다. 제대 후에도 같은 업종의 일을 하면서 몇 차례 더 기술을 확장할 기회가 있었다.

서른 살에 성남에서 결혼하여 지금까지

30살에 성남에서 결혼을 했다. 제대 후 성남에 공방이 있던 민종태 선생 집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작은 아버지의 중매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부인은 여수 섬 출신으로 음식 솜씨가 좋아 지금까지도 음식을 잘 얻어먹고 있다고 자랑이다. 배 씨가 젊었을 때, 돈도 벌지 않고 나전 칠기 작품을 만드는 것에 빠져 있을 때 부인이 파출부도 다니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내조해 주었다. 그때는 혼례식을 바로 하지 못하고 얼마간 살다가 결혼식을 올렸다. 단칸방에서 냄비 하나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때만 해도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 혼자 일어설 수 있던 시절이었다. 젊은 시절 남편을 내조하느라 고생했던 부인은 요즘 성남의 아파트에서 살면서 수영도 다니고 놀러도 다닌다고 한다. 배금용 장인은 정규 학교에 다닌 적은 없지만 나전 칠기 관련 책을 발간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한 적도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자랑스럽기만 하다.

처음 기술을 배울 시절부터

1954년 처음 나전 칠기 기술을 배울 시절에는 선생이 가구를 짜고 칠까지 직접 했다. 그래서 배금용 장인은 모든 과정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기업가들이 가구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분업이 이루어진 것 같다. 가구를 하나 만들 때도 가구를 짜는 사람, 칠하는 사람, 자기를 붙이는 사람 등 기술이 나눠져 있어서 각자 자기 분야밖에 몰랐다.



배금용 장인이 복원한 조선시대 나전함

배금용 장인이 복원한 고려시대 나전함

배씨는 군대 제대를 하고 민종태 공방에서 일했다. 민종태는 경기도 이천이 고향인 사람이었는데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에 공방을 두고 있었다. 이후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공방에 있으면서 선생의 특기를 또 배울 수 있었다. 그곳에서 6년 정도 일하다가 본인의 공방을 차려서 나왔다. 가구, 화장대, 문집 같은 가구를 만들다가 1987년 민종태의 아들인 민길호를 만났다. 그는 캐나다에서 미술대학을 다닌 사람이었다.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1987년에 서울 마포에 들어와서 공방을 열었다. 배씨에게 작품을 배우라고 해서 성남에서 마포까지 배우러 다닌 적이 있었으나 1년 만에 그만두었다.

> 87년에 같이 일을 하던 선배가 전승공예대전에 작품을 내자고 해서 밤 새워 3점의 작품을 만들어서 88년 9월에 전승공예대전에 냈어요. 마포에서 선배와 같이 했는데 똑같은 2점을 만들게 됐고, 서로 모르고 같이 냈는데 …… 나는 어찌 됐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선배가 "배 선생 당선 됐어요"라며 연신 축하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 점이 다 붙었던 거예요.

배씨는 그때 고려시대 임금이나 스님이 책을 담아두는 '고려 나전 경함'과 '조선시대 두루마리 서류함'을 만들었다. 이 작품은 당시 문화공보부에서 구입하여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첫 스승에게서부터 배운 전통 기술

배금용 장인은 어려서부터 첫 스승에게서 전통적인 기술을 배웠다. 예전 스승들은 수제자에게만 '칠'을 시켰다. 그만큼 칠이 중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머리 좋은 놈은 안 가르쳐줘도 곁눈으로 배우기도 하였지만 중요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수제자로 전승하였던 것이다.

나전 칠기 기술의 경우 지역적인 특징보다는 스승의 뿌리가 어디인지가 중요하다. 첫 스승이었던 최 선생의 뿌리는 서울·경기 지역이었다. 지금도 경상남도 통영 자개가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도 통영 가구가 조직력을 갖추고 크게 번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1960년대에 통영의 장인들 대부분이 서울로 올라와 다른 직업을 가짐으로써 통영 자개의 위세가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고려시대 나전 칠기의 복원을 설명하는 배금용 장인

1970년쯤 되니까 경상도 사람도 다 떠나고 저, 순천, 전라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밥 먹여주면 이거 배웠다고. 지금은 빌딩 칠하는 대로 다 가버려서 싹 없어졌지. 그 때 한창 때는 공방이 400여 곳이 있었는데 열 곳 정도로 줄어서 서로 다 알지.

나전 칠기 장인들은 각자 잘 만드는 특기 작품이 있다. 배금용 장인은 고려시대 나전 칠기 기법을 문헌으로 보고 복원하여 본인의 특기로 삼고 있다. 고려시대 나전 칠기는 문양이 작으며, 가는 철사로 만든다. 반면 조선시대 나전 칠기는 문양이 크고 철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가는 철사로 선을 만들어야하는 고려 나전을 만들기가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배씨는 새 작품을 만들 때면 하루에 보통 3~4시간 잠을 잤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대한 재미가 유난하였다. 그는 전통 나전 칠기 작품을 찾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에 있는 책을 찾아보고 재현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1987~1988년 때 제일 어려운 걸 책에서 보고 선택하여 재현하였는데 그것이 고려시대 나전함이었다. 당시에는 공예전승대전 등에서 1년에 상을 7~8개를 탔던 시절이었다.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다.

나전 칠기 · 칠장의 전승

제작 판매 하고 있는 나전 칠기 소품들

배금용 장인은 1992년부터 무형문화재 명장 지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신청서가 너무 복잡하였다.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명장에 4년 떨어지고 난 후에는 대서방에 가서 서류를 꾸며 신청한 후 지정이 될 수 있었다. 그 후 다른 사람들이 명장이 되는데 도움을 주었다. 성남시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을 위해 시의 전승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데도 앞장서서 이를 성사시켰다. 이로 인해 성남시 거주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매달 일정 부분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현재 나전 칠기·칠장의 전수 후보자는 배씨의 막내아들 배광우(38세)이다. 두 아들 중 큰아들이 이어받아서 하다가 다른 장사를 하러 나갔다. 옛 시절 집에서 작업을 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들이라 어렸을 때부터 기술을 익히며 자랐다. 당시에는 부인이 일을 다녀서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막내아들은 군대에 갔다 와서부터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 결혼하기 전의 일이었다. 가구디자인과를 졸업한 터라 생활에 필요한 소품들을 디자인해서 만들고 있다. 부자가 전통을 이어가면서 현대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도 아들이 기능을 전수받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요즘은 성남시 인근 학교, 판교박물관, 전수관 2층 체험장 등에서 소품의 나전 칠기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수생인 아들이 현대적으로 만든 소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나전 칠기 제작 과정

제작 도구와 재료

나전 칠기 제작에 필요한 도구로는 귀얄(귀발), 주걱, 인두, ㄷ자형 실톱대, 상사칼, 칠긁기칼, 갈돌, 숫 등이 있다. 재료로는 생옻칠, 흙(검정)칠, 주칠, 토분, 자개, 황동선 등을 사용한다.

나전 칠기 제작 도구와 재료

명칭	용도
귀얄(귀발)	옻칠을 바르는 도구이다. 나전 칠기를 만드는 도구 중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다.
주걱	칠을 배합하고 떠내고 황토와 칠을 섞는데 주로 사용하며, 귀얄을 손질 할 때도 사용하며 칠 작업의 전 과정에 주로 이용한다. 노송나무로 만든 것이 가장 품질이 좋다.
인두	아교를 칠한 칠면에 자개가 잘 붙도록 자개 윗면을 지짐질 할 때 사용한다.
실톱대	세밀하고 정교한 모양으로 자개를 오려내는 ㄷ자 모양의 실톱대이다.
상사칼	자개를 길고 균일하게 만든 상사패를 끊음질할 때 사용한다.
칠긁기칼	자개 위에 있는 칠면을 긁어낼 때 사용한다.
갈돌	숫돌을 절단하여 만든 것으로 골회를 갈거나 모서리 등을 연마할 때 사용한다.
숫	칠면의 흠을 제거하고 평활하게 할 때 사용한다.
토분	물에 갠 황토를 고운 망에 걸러 건조시켜 만든 분말에 물을 섞어 만든 황토 반죽이다.

작업 공정

① **백골 다듬기** : 백골 바탕에 사포질을 하여 턱이 지거나 거친 부분을 고르게 하고 각진 것의 모를 약간 둥글게 하여 백골 전체를 매끄럽게 한다.

② **생칠 바르기** : 생칠을 묽게 배합(생칠10:테레핀유3)하여 백골에 칠이 충분히 스며들 수 있게 전체를 바르고 칠 건조장(온도 20° C 전후, 습도 70% 전후)에 넣어 7시간 정도 건조시킨다. 이 공정은 생칠이 백골에 스며들어 수분 흡수를 방지하고 백골이 견고하게 되면 다음 칠의 공정에서 접착을 강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③ **베 바르기** : 백골 전체에 베 바르기를 한다. 이때 사용되는 풀은 생칠과 쌀풀 혹은 보리풀을 약 1:1의 비율로 반죽하는데 이를 '호칠' 또는 '맥칠'이라 한

배금용 장인이 사용하는 각종 주걱

옻칠을 바르는 도구인 귀얄(귀발)

토분(황토 반죽)

생옻칠

다. 백골 바탕에 주걱으로 호칠 또는 맥칠을 바르고 그 위에 베를 올려 편편하게 주걱으로 고른 다음 베 위에 다시 칠을 한다. 실내 습도가 높으면 상온에서 건조하고, 실내 습도가 낮으면 칠 건조장에 넣어 건조시켜야 한다.

④ **골회 바르기** : 골회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힘주어 엷게 바른다.

⑤ **골회 갈기** : 건조된 2차 골회 바르기의 면에 연마용 숫돌로 물을 주면서 가볍게 갈아 골회 면을 고르게 맞춘다. 통풍이 잘 되는 실내에서 수분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건조시킨다.

⑥ **초칠** : 칠을 묽게 하여 엷게 바른 다음 칠 건조장에 넣어 건조시킨다. 이 과정에서부터 어떤 칠을 하여 완성시킬 것인가 결정하여 색상을 정리한다.

⑦ **숫 갈기** : 연마용 숫돌로 물갈이를 하여 칠면을 갈아 맞춘다.

⑧ **자개 도안 본뜨기** : 자개 위에 붙일 도안을 기름종이에 본뜬다.

칠 작업대

건조장 내부

⑨ **자개 오리기** : 실톱을 사용하여 도안대로 오려 나간다.

⑩ **자개 붙이기** : 미리 준비한 주름지의 자개를 붙이거나 끊음질을 한다. 주름지의 경우에는 자개 뒷면에 아교를 바르고 면에 붙인 다음 약 80°C로 가열한 인두로 자개 위에 부착시킨다. 끊음질의 경우에는 칠면에 아교 혹은 칠을 바르고 그 위에 상자 자개를 끊어 붙여 나간다.

⑪ **풀빼기** : 자개 위에 붙어 있는 종이(반지)와 자개 주변에 붙어 있는 아교를 60~80°C 정도의 뜨거운 물을 솔에 묻혀 문지르면서 깨끗하게 씻어낸다. 이때 뜨거운 물을 사용하게 되면 자개가 떨어지기 쉬우므로 빠르게 아교를 제거해야 한다.

⑫ **자개 손보기** : 풀빼기 작업 과정에서 자개가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교정하고 자개 주위에 아교가 남아 있으면 깨끗하게 씻어낸다.

⑬ 황동선을 꼬아 상감한다.

⑭ **생칠 메우기** : 완전히 건조되면 생칠로 자개 사이에 잘 스며들게 칠을 바른 후 칠 건조장에 넣어 건조시킨다.

⑮ **골회 바르기** : 자개의 두께와 같은 높이에 바르고 건조시킨 후 2차 골회를 바른다.

⑯ **면 갈기** : 숫 갈기를 하면서 자개 문양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간다. 골회 면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홈 메우기를 하고 건조시켜 갈아 맞춘다.

⑰ **초칠** : 칠을 바른 다음 건조시킨다.

도안 작업대

다양한 칠 안료

⑱ **숫 갈기** : 칠면을 갈아 맞춘다.

⑲ **중칠** : 칠을 바른 다음 건조시킨다.

⑳ **숫 갈기** : 칠을 갈아 맞춘다.

㉑ **상칠** : 여과지로 칠을 거른 다음 상칠용 귀얄로 칠을 한 후 건조장에 넣어 건조시킨다.

㉒ **자개 긁기** : 자개 위에 덮인 칠을 칠긁기 칼로 긁어낸다.

㉓ **숫 갈기** : 마감용 숫돌로 칠면을 물갈기를 하여 갈아 맞춘다.

㉔ **광내기** : 미세한 토분에 종자유(콩기름)를 혼합하여 반죽을 만들어 탈지면 혹은 모포에 묻혀 칠면을 고르게 문질러 광을 낸다.

㉕ **생칠 바르기** : 상급용 생칠을 묽게 하여 솜에 묻혀 칠면을 가볍게 문질러 바른 후 탈지면 혹은 박지로 생칠이 칠면에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문질러 닦아낸 후 칠 건조장에서 건조시킨다.

㉖ **마감 광내기** : 종자유를 탈지면에 묻혀 칠면에 고루 문지른 후 치분을 탈지면 혹은 손바닥에 묻혀 종자유를 제거하면서 광을 낸다.

제2장
세상의 속도에 밀린 기억 저편, 전통놀이를 찾아온 사람들

윤현자 비전 성남 시민 기자

"당신들의 삶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고 사라진다는 것이 좋은 일인가요? 힘든 시절의 기억이든 즐거웠던 시절의 추억이든 간에 남겨진 자들에겐 굽어볼 뿌리가 필요한 거예요." 청년은, '먹고살기 힘든 시절의 이야기는 상기시키고 싶지 않다'는 지역 어르신을 향해 호소한다. 또한 청년은, "우리 지역만의 뿌리를 이어갈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도와주세요"라는 부탁의 말 또한 잊지 않았다. 그러한 관심과 집념으로 성남의 대표적인 전통놀이인 '오리뜰 두레농악'과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쌍용거 줄다리기'의 맥이 이어질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가는 도시를 적응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도록 바쁘다. 그런 현대 사회에서 성남 지역 전통놀이를 꿋꿋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아천(雅泉) 방영기(56세) 선생과 청년 강승호(45세)씨의 이야기를 이 한 편에 엮어보기로 한다.

천상의 소리꾼, 아천 방영기

춤과 소리가 마냥 좋았던 어린 시절

다섯 살짜리 꼬마가 장단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겠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마당에 모여서 농악놀이를 곧잘 하면서 놀았는데 그 장단에 맞춰 내가 춤을 추면 잘한다면서 어른들이 10환씩 줬는데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렇다고 돈 받는 게 좋아서 춤을 춘 건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난 그냥 춤이 좋았고, 소리(민요)가 좋았어.

아천 방영기는 1958년 분당구 이매동에서 태어났다. 당시 이매동에는 100가구 정도가 살았고 그는 5대째, 200여 년을 한자리에서 살아온 뿌리 깊은 집안의 2남 8녀 중 장남이자 방씨 집안의 종손으로 태어났다. 내리 딸 넷을 낳고 아들을 낳았으니 집안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었고, 아버지(방학성)와 어머니(이기숙)의 사랑은 하늘만큼 높을 수밖에 없었다. 마을에서 과수원을 운영했으니 부자로 사는 건 아니었지만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한 형편은 아니었다. 형제자매는 많았지만 장남이니 공부만 한다고 하면 교육시키는 것에도 별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이야 분당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에 속하지만 1960년대 초만 해도 두레가 발달한 전형적인 농경사회였다. 너른 들이 있고 논농사, 밭농사가 주를 이뤘다. "조반朝飯 드셨어요?"가 아침 인사였으니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았다. 못사는 사람들에게 두레굿(풍물놀이) 놀이가 있는 날이나 지경 다지기(집터 다지기)를 하는 날은 모처럼 양껏 먹을 수 있는 날이 된다.

옛날에는 자식이 결혼을 하면 세간을 내준다고, 집을 새로 지어서 분가를 시켰거든. 지금이야 집 지을 때 중장비가 죄다 알아서 하지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일일이 다 지고, 쌓고 했어. 부엌 바닥에서 물이 나는 게 왜 그런지 알아? 집을 지을 때 지경 다지기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소리꾼 아천 방영기

방영기의 할아버지(방은길)는 마을 행사가 있는 날이면 어린 영기를 데리고 다녔다. 특히 두레굿이나 지경 다지기가 있는 날은 춤을 좋아하는 손자를 꼭 데리고 다녔는데 그런 날은 어린 영기 또한 실컷 먹고 놀고, 농악 장단에 맞춰 제일 좋아하는 춤을 신명나게 출 수 있는 날이었다. 지경 다지기는 주로 밤에 많이 이뤄졌다. 낮에는 일을 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터주신이나 귀신은 밤에 움직인다고 해서 밤에 해야만 액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경을 다진다고 해서 누구나 푸짐하게 차릴 수는 없었다. 잘사는 집은 소머리 고기에 밥과 떡과 술을 푸짐하게 장만했지만 못사는 집에서는 형편에 따라 소머리 고기를 맑은 장국으로 대신하기도 했다. 주인이 지경돌과 횃불을 준비해 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든다. 먼저 고사 술상을 준비해 동티나지 말고 큰 부자가 되게 빌며, 술을 사방에 뿌리고 동네 사람들은 술을 한 순배 마시고, 횃불을 켜들고 터를 다지는데, 선소리꾼이 선창을 하면 지경꾼들이 후렴을 한다. 지경 다질 때의 소리는 고된 작업을 흥에 겨워 힘든 줄 모르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화합과 협동심을 고취하는 건설 지향적이고, 미풍양속이 듬뿍 담겨 있는 것이다.

집터 다지는 소리는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불려졌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서두에 '에이여라'로 시작되는데 비해 경기 지역의 경우에는 '에이여라 지경이요'라고 불렀다. 밤새 지경을 다지는 어른들 속에서 제일 신나는 건 어린 영기였다.

다섯 살 때부터 즐겨 추던 춤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터는 본격적으로 배우기로 결심한다. 당시만 해도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다는 것은 '딴따라'라고 업신여기던 시절이었으니 춤을 춘다는 것은 대단한 집안 망신 중 하나였고, 그것도 장남이 춤을 춘다는 것은 부모의 입장으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신들린 아이처럼 춤을 향해서

'영기가 귀신들렸다지?', '신기가 있어서 춤을 춘다지?', '딴따라가 되려고 춤을 배운다더라고' 등 어린 영기를 향한 말은 밤낮을 구분 않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넜다.

"춤을 배우려고 하는데, 라디오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춤을 배우기 위해서 어린 영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속 백일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장소팔, 고춘자를 만나러 라디오 속에 들어가는 것뿐이었다. '남산에 가면 방송국이 있고, 거기에 가면 라디오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영기는 수확한 과일이나 채소를 팔기 위해 남대문으로 가는 쓰리꼬다(쓰리쿼터라는 짐차)의 짐칸에 몰래 숨어든다. 자다 깨다를 반복한 후에야 남대문에 도착할 수 있었고 물어물어 KBS 남산 라디오 방송국에 도착한다. 그때가 그의 나이 열 살,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 나 어렸을 때 이매동은 광주군 돌마면 이매리였어. 하지만 이매리라고 부르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지. '어디 사냐'라고 물으면 '이무술에 살아요'하면 금방 알아들었어.

이무술은 현 분당구 이매동의 옛 이름으로 원래 '이무술'이란 자연마을이었다. 이무기와 관련된 전설에 의하면, 약 300년 전 탄천변 방죽에서 천렵을 즐기던 주민들이 커다란 물고기를 안고 나와 죽은 일이 있었다. 그 물고기는 천년 만에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려던 이무기였다고 ……. 죽은 이무기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사람들이 위령 승천제를 지냈고, 그날 밤 주민들 꿈에 이무기의 화신인 백발노인이 나타나 주민들의 정성에 보답하여 저주를 풀었다고 하고, 제를 지냈던 자리에 매화나무 두 그루가 자라났으므로 이매동이라 부르게 되었다는데 ……. 어린 영기는 마을에서 내려오는 이무기에 관한 전설을 할아버지께 전해 들으며 성장한다.

"방송국에 가니까 어디서 왔느냐고 묻더라고. '춤을 배우려고 광주군 돌마면 이무술에서 왔습니다'라고 했지" 당시에는 이무술에서 서울까지 가는 버스가 하루에 두 번 있었다. 마장동이나 남대문에서 내려 남산까지 걸어가기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춤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대단했다. 우여곡절 끝에 춤을 배우게 된 영기는, 인간문화재 제19호 보유자였던 이창배 선생과 정득만 선생을 만났고, 드디어 우리 가락인 국악을 접하게 된다.

춤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았다. 눈치껏 행동해야 했고,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했다. 춤에 빠진 장남의 빈자리를 표시나지 않게끔 남

보다 일찍 일어나서 쇠꼴을 베어야 했으며, 남들보다 더 큰 나뭇짐을 지어 날라야 했다.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어둠 속을 헤쳐 가며 신문을 돌렸다. 서울 가는 버스비가 없을 때는 벽촌 이무술에서 서울까지 그 먼 길을 밤을 새워가며 걸어야만 했다. 춤과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을지로와 종로3가까지 걷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춤과 소리꾼이 되기 위한 집념 하나로 어느 땐 굶어가며 어느 땐 눈비를 맞아가며 오고갔다.

신들렸다는 소리, 미쳤다는 소문, 딴따라가 돼서 집안 망신을 시킬 거라는 억측이 난무했지만 춤과 소리를 배우겠다는 일념은 꺾이지 않았다. 중학교에 입학은 했지만 학교생활 또한 녹록치 않았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영기는 신들린 아이다'라는 소문이 퍼졌고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소문이나 친구들의 따돌림 따윈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학교생활로 인해 춤을 배워야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만이 유일한 문제일 뿐이었다. 방학 땐 아예 학원에서 먹고 자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중학교를 가까스로 졸업한 영기는 예술 고등학교 진학을 원했지만 부모님께선 '예술을 하면 밥 빌어먹고, 사람 안 된다'며 들어주지 않으셨고 어쩔 수 없이 성일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 저는 상 안 줘도 좋으니까 '젊은 사람이 크게 되겠네, 끼가 대단해, 부모님이 조금만 밀어주면 대성하겠어'란 심사평만 해주세요.

굳이 전국 노래자랑에 나간 이유를 들라면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방영기는 1974년 교복을 갖춰 입고 보무도 당당하게 전국 노래자랑에 도전을 했고, 부탁한 심사평을 듣는 것은 물론 장원이란 자리까지 차지한다. 도전 곡목은 물론 민요였다. "그 당시엔 장원을 하면 상품으로 19인치 텔레비전을 줬어. 텔레비전을 받긴 했는데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집에 가지고 갈 수가 있어야지. 어쩔 수 없이 모란 사는 친구 집에 맡겨놨어." 이매동에서 모란까지의 거리는 구불거리는 들길을 따라 약 7㎞ 남짓 되는 거리였고 택시 요금은 500원 정도였다. "식구들이랑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내가 나오는 거야. '부모님이 밀어주면 대성할 거다'라는 심사평도 나오고 ……"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던 아버지의 한마디, "텔레비전은 어딨냐?" 그 짧

은 한마디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아버지께서 텔레비전 찾아오라고 준 택시비 500원을 들고 모란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는데 미끄러운 고무신이 내 발을 잡겠어? 모란까지 달려가는 동안 내 다리가 보였겠느냐고?" 심사평 때문이었을까, '아들 잘 키웠다'는 동네 사람들의 호평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맞는 것일까. 아버지께서는 월 장원 대결이 펼쳐지는 12월이 되자 "너, 거기 안 가냐?"라는, 이제는 소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희망 섞인 말씀을 선물로 주신다. 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국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인정해 주신 아버지는 그로부터 5년 후 돌아가셨다.

어린 시절에 즐겼던 전통놀이 되살리기에 드디어 앞장을 서다

방영기 자신은 예술적인 끼는 있지만 소리하는 목은 타고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선소리 1시간 20분짜리를 완창하기 위해서는 4000번 이상, 목이 갈라지고 피가 터져 나올 정도로 연습에 매진한다고 하니 노력 없이는 이뤄낼 수 없는 결과라는 생각을 한다. 목표가 있으면 뿌리를 뽑는 근성이 대단하다고, 그런 그를 주위 사람들은 '천상의 소리꾼'이라 칭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후학 양성에 돌입한다. 그 과정에서 그에게 소리를 배우러 온 아내(이향우)를 만나 1985년 결혼을 한다. 현재 아내는 경기민요단장을 맡고 있고, 딸(방글) 또한 국악(서도소리)을 전공한 후 중앙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방영기의 국악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성남 지역의 향토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1975년 성남문화원 창립과 함께 문화원의 감사,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판교 쌍룡거줄다리기' 등 성남 지역 향토 민속놀이 복원과 시연에 많은 공을 세운다. 성남 지역의 향토 민속놀이는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자칫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에 선생은 그 옛날 마을에서 보며 즐겼던 집터 다지는 소리를 다시는 접할 수 없게 된 것을 아쉬워하며, 성남문화원과 집터 다지는 소리 경험자 및 전문가들의 고증을 바탕으로 발굴, 재현하며, 이매동의 옛 이름인 '이무술'을 따서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로 정하게 된다. 1983년에 첫 시연회를 가졌고 1985년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수차례 입상하는 쾌거를 이룬다.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를 준비하는 방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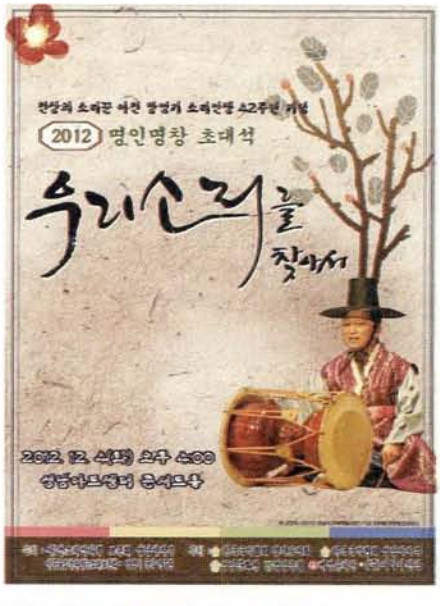
방영기는 판교 지역에서 새해 초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 행사였던 '판교 쌍용거줄다리기'를 발굴하는 데도 힘썼다. 도시화 이전의 성남 지역은 농경 문화를 전승해 왔기에 민속놀이도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주로 풍년을 기원하는 풍습이나 삶의 안정을 기원하는 민속이 전승되었다고 한다. 판교 쌍용거줄다리기는 대보름날 저녁, 너더리(판교동)에서 행해지던 놀이였다. 청룡 줄에는 기혼 남성이, 황룡 줄에는 여성과 미혼 남성이 한 편이 돼 각각 세 번씩을 줄을 당겨 황룡 줄이 두 번을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속설 때문에 대체로 황룡 줄이 이기도록 힘을 쓴다.

> 옛말에 '남녀칠세부동석'이라고 옛날에는 보는 눈이 무서워서 처녀, 총각들이 마음 놓고 연애를 할 수 없었잖아. 그러고 보면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대단했던 것 같아. 보름달이 두둥실 떠있는 달 밝은 밤에 줄다리기를 하기 위해서 마을에 있는 처녀 총각들이 모두 나오게 되지. 쌍용거줄다리기가 농경사회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기도 하지만, 줄다리기 놀이를 하면서 젊은이들 데이트 장소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었다니까.

흥이 많은 우리 민족 …… 집터를 다질 때 부르는 선소리가 있다면, 줄다리기용 동아줄을 꼴 때 또한 소리가 빠질 수는 없다. 줄다리기 복원 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판교 신도시 개발로 인해 줄다리기를 하던 주민들 대부분은 뿔뿔이 흩어졌고 몇 명 안 되는 원주민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80세를 넘은 고령자들이었다. 동아줄 꼬는 것은 알고 있다 해도 줄을 꼴 때 불렀던 소리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동아줄 꼬는 소리는 성남 지역 천상의 소리꾼인 방영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판교 쌍용거줄다리기'는 조선 중기부터 판교 지역 정월 대보름 축제로 전래되던 행사였지만 판교 신도시 개발로 인해 한동안 맥이 끊겼었다. 성남문화원에서 민속의 보존 전승을 위해 판교 쌍용거줄다리기 복원 사업을 펼쳤고, 방영기를 비롯한 원주민의 협조로 1984년부터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등에 선보였다. 그러나 2005년 판교 신도시 개발로 또다시 중단되었던 것을 2009년 보존회를 조직한 후 재정비하였고 2010년 정월 대보름 축제에서 시연회를 거친 후 현재는 매년 정월 대보름에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소리를 하기 위한 선생의 노력은 가히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소리꾼이 되기 위한 선생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소리를 시작한 지 30년 만에 1999년 '전국민요경창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으며 마침내 명창의 반열에 오른다. 대통령상을 받자 '집안의 경사며, 마을의 큰 경사다'라며 눈물 흘리셨던 어머니, 아내 이향우도 기쁨의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었다. 성남 지역에서 '전국민요경창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건 방영기가 처음이었다. 이에 대통령상 수상 기념 및 소리인생 30년 결산 무대를 시작으로 매년,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슬로건으로 발표회를 열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는 발표회 때마다 지역의 어르신과 불우 청소년들을 무료 초청하여 공연을 펼친다. '예술은 곧 봉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방영기의 소리인생 42주년 기념 발표회

국악인 최초로 성남시의원과 경기도의원에 당선되어 의원직을 역임하는 동안 '성남아트센터 건립', '성남문화예술발전기금' 제정, '성남시립예술단' 창단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큰 이정표를 세운다. 성남아트센터 건립 당시, 이무술 집터 다지기 소리를 하며 지반을 다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옛날 이무술이라는 마을에 새롭게 건립되는 아트센터를 옛날 방식 그대로 터를 다지는 것을 시작으로 성남아트센터는 건립된다.

방영기는 좀 더 체계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 만학의 길을 걷는다. 대구예술대학 한국음악과를 졸업하고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과 석사학위를 받고,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받는다. 2009년 드디어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타령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다. 중국 심양 '요녕성 예술제', '심양 한국주', 영국 에든버러 축제, 일본 미야자키, 미국 하와이 공연, 중국 남경대학, 남계대학, 동남대학 등 ……. 세계 곳곳에서 특강과 공연을 통해 우리 국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도 한다.

'우리의 문화를 제대로 계승할 수 있도록 쉼 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한 번 더 다짐하는 선생이다.

지역 전통문화 지킴이, 청년 강승호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판교 쌍용거줄다리기와 오리뜰 두레농악은 비슷한 시기에 발굴, 복원되었다. 앞의 두 전통놀이가 '천상의 소리꾼' 방영기의 지역 사랑에서 시작됐다면 '오리뜰 두레농악'이 복원될 수 있었던 것은 30대 한 남자의 지독한 농악 사랑에서부터 출발했다. 이 역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전통놀이를 계승하고자 하는 집념으로부터 출발한다.

본문 처음에 언급했듯이 '과거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 현재가 있을 수 없고, 또한 미래를 기대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의미

오리뜰 농악을 복원한 청년 강승호

에서 청년 강승호는 '남겨진 자들에게 굽어볼 뿌리가 필요한 것이다'라며, 오리뜰 농악 연희자였던 분들을 향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호소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된다. 당시 그의 나이 38세, 2007년 어느 날이었다.

농악은 들판에서 숨을 쉰다

예나 지금이나 강승호의 머릿속에는 온통 농악밖에 없다. 그에게 있어 농악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며, 스폰지에 물이 흡수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승호는 1969년 전라남도 영광에서 태어났다. "제가 세 살 때 성남으로 이사 왔으니까 저에게 있어 성남은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사는 곳에 대한 첫 기억이 성남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성남을 고향이라 여긴다. 1971년 성남으로 이사 온 그가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동네는 모란이었다. 당시의 모란은 천막촌으로 형성돼 있었다. 본시가지는 가건물이 즐비했으며 형식을 제대로 갖춘 건물은 아기들의 잇몸을 뚫고 나오는 치아처럼 하나둘씩, 이제 막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는 모습이었다. 그

오리뜰 두레농악 시연(2013)

는 살기에는 좀 불편했지만 목가적牧歌的인 풍경의 그때가 좋았고, 지금도 그때를 그리워한다.

강씨가 풍물風物을 접하게 된 시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였다. 대학교를 진학하는 대신 '동국대 전자계산원'에 입학을 했고, 그곳 풍물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풍물과의 인연은 시작된다. 그의 아버지(강대웅)는 성남 민선 초대 도의원을 지냈으며, '새마을 금고'를 설립하는 등 정치가이자 사회 활동가였다.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표영자)는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했다. 부모님께서는 이왕이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길 바랐지만 민속악民俗樂을 한다는 것에 반대는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또한 이사 오기 전 마을에서는 소문난 장구잽이였다고 한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일까? 그는 풍물 동아리 가입을 시작으로 원초적인 두드림(타악)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된다.

한국 고유의 민속악을 배우기 위해 하루가 멀다 않고 전국을 누볐다. 유명하다는 곳이라면 어디든 누비고 다녔다. 바쁜 일손을 도와가며 농악과 춤을 배우고, 소

리(민요)를 배우며 끼니를 때웠다. 그때 배운 것이 진도북춤, 안성농악, 이리농악 등이다.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촌이 자리 잡고 있지만 분당 또한 예전에는 한강 이남에서 손꼽히던 넓은 들판이 있던 곳이다. 지금은 수십 층짜리 오피스텔과 최고급 백화점이 들어서 있지만 20년 전만 해도 봄에는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는 가을걷이하는 풍경이 한 폭 수채화처럼 그려지던 곳이었다. 고된 농사일을 마친 농부들은 거나하게 농주農酒 한 사발을 돌리며 목청껏 꽹과리를 울리고 상모象毛가 하늘에 닿을 세라 한 판 신명난 놀음이 벌어졌다. 농번기와 농한기를 가리지 않고 풍물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다.

농악은 들판에서 숨을 쉰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시가 세워지면 꽹과리와 장구도 울기를 멈추고, 상모도 바닥에 주저앉고 만다. 농악은 갇혀서는 숨을 쉴 수 없다. 들판에서 뛰어 놀아야 하는 우리 음악은 그래서 '실내악'이 되기를 거부한다.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었을까. 그는 농악을 가르치고 공연하는 데 안주하지 않았다. 농악을 발굴하고 복원해 원형을 보존하는 쪽으로 활동 폭을 넓히면서 2004년 '한국농악보존협회 성남지회'를 설립한다. 좀 더 체계적이고 공신력 있는 틀 안에서 활동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성남만의 농악을 찾아서

어느 날부터였을까, 그의 머릿속에는 궁금증 하나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 '과거 분당에는 너른 들판이 있었으니 분당만의 농악이 있었을 텐데 …….. 왜 없을까'라는. 하지만 성남의 문화는 일부 전통 수공예품을 제외하고는 찾기 어려웠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남의 전통놀이 문화 찾기에 나서기 시작한다.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찾아다니며, "혹시 주변에 옛날 성남에서 농악을 했었던 분이나 풍물로 유명했던 분이 있나요?" 출강하는 성남의 문화센터에서도 그 질문은 계속된다. 젊었을 때, 꽹과리나 장구를 잡고 한 판 놀아봤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 다시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많을 거란 생각을 했고,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지역 농악을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예전에 장구 좀 두드려봤던 분이 있다는 소리에 성남은 물론 서울 지역 곳곳을 수소문해 찾아가 봐도 돌아온 답은 "옛날에 본 적은 있는데 ……, 지금 그걸 기억하는 사람

이 있겠나"라는 대답과 농악을 알고 있다 해도 연세가 모두 80대 가까이 되는 분들이라서 기억해 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반응뿐이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부터 "우리 아버지가 옛날 오리뜰에서 상쇠 잡으셨다는데 ……"란 말을 듣게 된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장양천 옹이다. 분당에서 5대째 살고 있는 토박이일 뿐 아니라 과거 '오리뜰'에서 한판 놀음을 벌였던 주인공이었다. 놀라운 것은 분당이 개발되면서 서울이나 성남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당시 '농악패'들이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회포를 풀고 있다는 것이었다. 농악을 복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다. 장양천 옹을 비롯해 여섯 명 정도의 단원들은 복장이나 공연할 때의 움직임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되살려낸 것이 바로 오리뜰 두레농악이다.

채록한 오리뜰 두레농악은 경기도 문화재전문위원인 이희병 등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완성된다. 이러한 움직임이 불씨가 돼 복원 사업 추진 후 2007년에는 문화관광부 공모 '전통예술 복원 사업'에 접수를 했고, 운 좋게(?) 선정된다. 그해 제16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공로상(3위 입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되고, 이어 2008년 제7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축제'에서는 장려상을, 2011년

강승호가 이끄는 농악단의 오리뜰 두레농악 시연(2013)

'전국풍물대회'에서는 금상을 수상하는 등 알찬 성과를 거둔다. 과거 연희자들은 대부분 작고하였고 현재는 김근배, 장양천 두 분만 생존해 있다. 그분들 또한 고령으로 건강이 안 좋은 상태다. 그분들을 못 만났다면 어쩌면 오리뜰 두레농악을 복원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분들께 감사하며 함께 신명나게 공연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슴속에 늘 간직하고 있다.

아버지 …… 그리고 가족

아내(김순분)를 만난 것은 1990년대 초, 농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도움소'라는 문화운동 단체를 결성할 때였다. 자신처럼 풍물을 좋아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작은 행복에 만족하며, 양손에 트렁크 두 개로 만족하며 살자"라며 그로부터 몇 년 후 결혼을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서정적이거나 단순하지 않았다. 과거의 민속악은 대체적으로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놀이였고, 광대라 불렸으며, 현재도 타악이나 국악하는 사람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는 경제적으로 보탬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하는 일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내는 가끔 다른 직업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남편의 농악 사랑을 알고 있기에 '하고 싶은 것 하라'며 남편의 농악 사랑을 존중해줬다. 그런 아내는 현재 자녀들과 함께 낯선 나라, '피지 섬'에서 살고 있다.

아버지, 그 이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두 눈에 눈물이 고이고 만다. '지역 전통문화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비춰지는 아들을 보며 한시름 덜었다고 마음 놓으셨을까. 2009년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아버지 살아생전 '성공한 모습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 그래서 눈물이 나고, 자신이 공연하는 모습을 단 한 차례도 못 보여드렸다는 것에 대한 미련과 후회스러운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난다.

물론 자신이 좋아서 시작한 농악이고, 자신이 하고 싶어서 손수 발품 팔아가며 복원해 낸 '오리뜰 두레농악'이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생긴 부채負債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났다. 이 일을 접을 수 있는 것은 이 나라를 떠나는 길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그는 2010년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타국으로 보낸다. "먼저 가있으면 모두 정리하고 양손에 트렁크 두 개만 들고 따라가겠다"라며. 하지만, 막상 떠나려고 생각하니 쫓겨난다는 느낌이 들었다. 20년 넘게 해 온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 남아 있는 거라고는 부채뿐이라는 것에 너무 억울하단 생각이

들었다. '시민들에게 성남만이 갖고 있는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뿌리 의식을 심어주자'라는 오기가 생겼다.

'포기는 없다', 농악에 대한 새로운 시도

선인先人들의 말에 의하면 '노력하는 자에게 길이 있다'고 했다. 마지막 발버둥이라도 쳐보자는 심정으로 마음을 다져잡은 그는 더 열심히, 더 부지런하게 활동을 했고, 지금은 피부에 느낄 정도로 시민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것 같다며, 비로소 두 눈 눈물자리에 환한 밝음이 들어차 빛이 나기 시작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의 농악에 대한 사랑과 하고자 하는 집념은 멈추지 않았다. 전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의 농악은 어떤 모습인가를 고민한 끝에 2006년에는 '퍼포먼스 뮤지컬 빠빠디바'를 기획해 연출 감독을 맡았다. 전통 타악기, 중국과 일본의 북, 모듬 북, 대고, 파이프 실로폰 등 다양한 타악기가 등장하는, 뮤지컬적 요소를 가미해 흥미를 높인 작품이었다. 처음 시도하는 퓨전 국악 공연으로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시민회관 전석 매진을 이뤘다. 더욱 좋아진 세상에서, 기회만 주어진다면 농악의 기존 틀을 유지하는 동시에 원초적인 두드림(타악)의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싶은 게 그의 바람이다. 또 하나의 바람을 들라면, 현재 초등학교 3학년 부교재로 사용하는 '내고장 알기'란 교육용 자료에 '향토놀이문화'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는 것으로, 성남 지역만의 전통놀이를 어릴 때부터 알아가며,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남 전통놀이 지킴이 두 분의 공통적인 바람이라면, 성남 지역의 독특한 전통놀이문화인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나 '쌍용거줄다리기', '오리뜰 두레농악'이 성남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더 크게는 세계에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정착시키고 싶은 것이다. '시민의 날 축제', '탄천페스티벌' 등 시민 행사가 있을 때 외국문화나 현대놀이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100만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질 수 있는 놀거리를 연출했으면 하는 것이다. 집터 다질 줄 아는 사람 모두 불러서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를 하고, 500미터 길게 새끼줄 꼬아서 신시가지와 본시가지 두 팀으로 나눠 한 편은 시의회 의장이 선두에 서고, 다른 한 편 선두에는 시장이 서서 으라차차 한바탕 힘을 쓰고 난 뒤, 농악 한판 펼쳐진 가운데서 성남탁주 한 사발

성남문화의집에서 풍물 강의하는 강승호

들이켜면 시민 화합은 절로 이뤄질 것이다. 100만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한 마당이라면 세계에서 먼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전주에 가면 흥부가 한 대목이 떠오르고, 남원에 가면 춘향이를 떠올리듯 '성남' 하면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가 있고, '판교 쌍용거줄다리기'와 '오리뜰 두레농악'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 목소리로 전한다.

제3장
성남 '맛의 장인'을 찾아서

류수남 칼럼니스트 · 성남일보 명예기자

프롤로그

'장인匠人'이라 함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거나 한 가지 기술을 전공하여 그 일에 정통하려고 하는 철저한 직업 정신을 말하는데 순우리말로 '장이'라고도 하고 쉽게 전문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예로부터 우리 사회에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직업이 존재하고 그만큼 넓은 직업의 세계가 있다. 그러다보니 장인의 분야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어떤 분야든 제각각 나름의 가치가 있겠지만 '맛의 장인'이야말로 장인 중에 으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먹는 일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행위이며 또한 누구도 예외 없이 행복한 일이기 때문이다.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음식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많은 식당들이 다 장사가 잘 될까 걱정이 될 정도이다 보니 쉽게 생기고 쉽게 망하는 게 현재 요식업의 실태이다. 경험이나 소질 없이 먹고살기 위해 차려지는 식당에서 장인이 나기를 기대하기는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이른바 체인점이라는, 공장에서 만든 듯한 조리 시스템으로는 세월이 갖는 깊은 맛을 절대 흉내조차 낼 수 없다. 그러니 음식점수가 많다고 해서 장인이 많은 건 분명 아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가야 맛의 장인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장인이라고 해서 딱히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 TV 드라마 「대장금」에서 임금을 위해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던 장금이가 되어 우리를 위해 음식을 만드는 장인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성남에도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오래된 맛집은 많이 있다. 성남 곳곳에 숨어 있는 맛집과 그 맛집 중에서도 장인이라 불릴 만큼 긴 세월 동안 열정을 가지고 음식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맛의 장인'을 찾아나서 보았다.

사람이 만드는 가장 큰 진심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변화하고 발달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취미와 소질들이 발전하여 전문 분야가 되고 있다. 각자의 소질은 누구나 타고났다고들 한다. 물론 취미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취미는 우연한 기회에 놀이삼아 시작했던 것이 타고난 소질처럼 전문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인지 취미로 시작했던 일이 소질처럼 변해 그 직종에서는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보니 최고의 경지를 뜻하는 '달인'이나 '장인'이라는 싫지 않은 수식어를 달게 된다.

가령 한옥을 짓는 목수도 대목大木이니, 기능장이니 하며 분야에 따라 불리는 이름도 다양하다. 그러나 로마로 가는 길은 하나이다. 그래서 불리는 이름은 달인이나 장인으로 다르지만 최고라는 뜻은 같다. 그래서 먹거리인 음식 분야에도 예외가 아니다. 누구도 흉내를 못 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고려청자도 장인 정신으로 만들었다고 하듯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먹거리 분야에도 여느 직업인과는 달리 장인은 있을 것이다.

음식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진심이라고 한다.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곧 먹는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일이기에 쉽게 만들고 가벼이 내놓을 수가 없다. 영양이 필요한 어린아이부터 근력과 활력이 부족한 노약자에 이르기까지 먹는 것은 한 사람이 나고 자라고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힘인 것이다. 그래서 좋은 재료와 안전성을 생명으로 해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한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장인은 다른 분야보다도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특히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먹거리에는 더더욱 장인 정신이 깃든 음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장인의 손끝으로 만든 음식들은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먹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인 정신으로 만드는 음식은 많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렇게 필요한 음식의 장인은 안타깝지만 많지 않다. 음식점을 생활 수단으로 오랜 세월동안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이에 비해 음식의 장인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이는 그동안 장인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식의 장인 찾기란 잔디밭에서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렵다.

음식의 맛은 사대부집이나 부잣집의 뒤뜰에 나란히 서 있는 된장독이나 간장독에 담겨 있는 장류의 맛과는 다르다. 간장이나 된장을 맛있게 담근다고 해서 이가 곧 음식의 장인은 아닐 것이다. 쓰디쓰고 짜디짠 간장과 된장을 가지고 맛있는 음

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맛의 장인이 아닐까 한다.

그동안 전국의 시장·군수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남발하는 수많은 상賞들 중에도 맛의 장인에게 수여하는 상은 어느 시, 군에도 없다. 안타깝지만 성남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성남은 먹거리 축제는 있으면서도 맛을 창조하고 찾아내는 장인대회는 없었다. 수천 또는 수억의 혈세를 들여 잠시 흥이 나는 행사는 많아도 숨어 있는 장인이나 예인들을 발굴하는 데는 머리를 못 쓰는 것이 현실이다.

수정구 신흥동의 음식점 밀집 지역

전국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들이 있다. 서울시 중구 장충동의 돼지족발이나 충남 서산의 계국지처럼 말이다. 그런데 성남은 여느 지역과는 달리 지역을 대표해 내놓을 만한 음식이 사실 많지는 않다. 그나마 알려진 바로는 남한산성의 닭죽과 여수동 갈매기살 정도이다.

또 한 가지, 전국에서 소비하는 보신탕補身湯 재료인 개[犬]의 유통 지역으로도 유명해서 모란시장의 개들과 보신탕을 연상하기도 한다. 성남이라고 해서 보신탕이 모두 값싸고 맛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보신탕이 알려진 것도 사실이다.

보신탕 문화는 먹거리가 너무나 부족했던 우리 역사 속에서 가난이 만들어 낸 음식 문화라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보신탕에 대해서는 서구의 비난도 있고 우리 사회에서조차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조선시대 가난했던 농경사회에서 보신탕을 먹게 된 배경을 알고 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보양 음식이다.

20여 년 동안 장인 정신으로 보신탕집을 운영해 온 보신탕 맛의 창조자, 조혜자를 성남 맛의 장인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보신탕의 장인 조혜자

'며느리 말미받아 본집에 근친갈 제 개 잡아 삶아 건져 떡고리와 술병이라.'

조선시대 농가의 1년 12달을 노래한 「농가월령가」의 한 구절이다. 이 노래의 한 구절에 농사일을 마무리한 농가에서 며느리가 휴가를 얻어 친정 부모를 찾아 뵈러 갈 때 며느리에게 떡, 술과 함께 개고기를 삶아 보낸다는 내용이다.

삼복더위가 한창인 때 개고기를 많이 먹는 이유는 음양오행설에 근거하여 더위를 이겨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고된 농사일을 하는 농가에서 기르던 가축 중에 값비싼 소나 돼지를 잡을 수는 없던 시절, 엄청난 노동력을 요구하는 벼농사 일에 개만이 몸을 보신하고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이처럼 개고기는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에게 귀한 몸보신용 음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우리의 음식 문화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김없이 복날이 되면 보신탕집은 자리가 없을 지경이기 때문이다.

'천당天堂 밑에 분당이요 분당 중에 명당明堂'이라는 분당구 서현동 먹자골목 뒤편에 자리한 아랫목이라는 보신탕집이 있다. 이 보신탕집이 맛을 창조하고 지키는 장인 조혜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이다.

외부에서 보면 여느 집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느낌은 다르다. 배꽃같은 피부에 보름달 같은 밝은 웃음은 다른 집들에서는 볼 수 없는 표정이다. 또 "어서 오세요"라는 손님맞이의 진심이 맛을 연구하는 장인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보신탕집은 여느 집들과는 확실히 다르다. 보신탕 맛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장인 정신이 배어 있는 집이다. 우선 아랫목 집은 손님맞이부터가 다르다. 항상 보름달 같이 밝고 친절하다. 이렇게 살갑게 맞이해주니 편안하고 부담이 없다. 그래서 주객主客이라는 느낌이 없어진다. 여기서부터 장인의 표가 난다.

아랫목 집을 운영하는 조혜자는 온천으로 유명한 충남 온양의 부잣집에서 3남매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충남의 명문인 온양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했다.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해 두 자녀의 어머니요 한 남자의 아내인

아랫목 집 전경

알뜰 주부로서 열심히 살고 있다. 어려서부터 음식 만드는 것이 취미여서 항상 어머니를 도와 식구들의 밥상을 챙겼다고 했다.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에서는 음식 만드는 데 앞장서 어른 몫을 해냈다고 한다.

학창 시절에도 취미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요리'라고 할 정도로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하니 취미가 아닌 소질을 타고난 것 같다고 한다. 음식 만드는 것이 취미인 조혜자는 결혼 후 매일 남편의 도시락을 정성과 열성으로 준비했다. 이런 도시락 맛이 입소문을 타고 사내에 퍼지면서 모두가 부러워했을 정도였다. 이런 소문 때문에 야유회나 운동회 등 사내의 큰 행사가 있을 때의 음식 준비는 항상 조혜자가 도맡아 했고 요리 솜씨는 누구도 따르지 못했다고 한다.

때로는 남편 사무실 직원들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준비가 하루의 일과였을 때도 있었단다. 그렇다보니 심신은 피로하고 살림살이는 축이 나는 적자 생활을 했었다고 한다. 이런 힘든 생활은 남편의 남다른 이해와 가족들의 협조, 그리고 본인의 타고난 부지런함과 열성, 또 남을 배려하는 봉사 정신 때문에 오랫동안 이어왔다고 한다.

가정집 같은 아랫목 집 주방과 거실

이런 조혜자가 보신탕 음식집을 하기까지는 나름대로의 사정과 각오가 있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남편이 1980년 회사 생활을 접고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10여 년 동안은 그럭저럭 잘 운영했다. 그러다가 1990년에 남편의 사업이 어렵게 되면서 살길이 막막해 고민을 하며 몇 날을 지냈다. 그러던 중에 음식 만드는 취미도 살릴 겸해서 시작한 것이 보릿고개 시절에 누구나 먹고 싶어 했던 설렁탕 음식점을 수정구 태평2동 구 시청 근처에 차렸다. 음식 맛이 좋다는 입소문을 듣고 인근 서울의 송파구 등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기다리기를 수십 분씩이었다. 조혜자는 손님들 연령대의 구미口味에 맞게 음식을 개발했다.

특히 육젓을 넣고 한참 동안 끓이다가 두부를 썰어 넣어 만드는 새우젓국은 별미 중의 일미一味로 성남의 나이든 개발 세대들에게는 인기 메뉴였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맛을 못 잊어 맛 담談을 하는 식객들도 많다. 식객들의 발길이 아랫목 집으로 옮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장인임을 알리고 모범이라도 보이듯 우선은 주방의 청결로 손님들의 신뢰를 쌓았다. 주방을 개방해서 누구나 내부를 볼 수 있게 해 남이 먹던 음식을 재사용하는 의심을 없앴다.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을 몸소 실천해 손님에게 신뢰를 갖게 했다. 주방 개방을 의무화하는 요즈음 음식점 문화를 예견하는 선견지명을 보였다. 음식에 쓰이는 식자재는 새벽에 가락시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열성과 정성으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내놓는다. 처음 오는 손님들은 마치 주방장으로 착각할 정도로 주방 근처를 떠나지 않고 식객들의 입맛에 신경을 쓴다. 그렇다보니 주종과 주객이 하나 되어 음식 맛은 물론 화합의 장인 역할까지 하고 있다.

화합만큼이나 어려운 음식 맛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여념이 없는 조혜자의 하루는 짧기만 하다. 그래서 25시 맨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현재 조혜자는 아랫목 집이라는 상호로 500년대부터 중국과 조선시대에서 먹었던 보신탕에만 20년째 전력하고 있다. 음식은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듯 보신탕 맛도 예외가 아니란다. 시장에서 파는 개들은 전국에서 모이기 때

조혜자 장인이 자부심을 갖고 추천하는 수육

문에 무엇을 먹고 컸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손수 주문 사육을 한단다.

모든 고기의 맛은 익히는 데 따라 맛이 좌우된다. 보신탕 역시 삶는 정도에 따라 맛이 좌우된다고 한다. 특히 개는 살이 찌면 좋지 않다고 하며 노린내를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이런 것을 맞추려고 많은 문헌들을 찾아서 실험을 한 후에 탕을 만들었다고 한다. 음식을 만드는 모든 이들이 맛좋은 음식을 만들겠다고는 하지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아랫목의 보신탕과 전골은 겉보기에 특별한 건 없어 보이지만 수육만은 다른 집과 달라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차이인 맛은 먹어본 사람들만이 안다고 한다. 오늘도 일인 다역을 하는 장인의 손길은 바쁘기만 하다.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지는 아랫목의 보신탕이 수도권 식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일취월장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맛의 장인 신미자, 김광렬 부부

수정구 신흥1동 구 시청 건너편에는 청기와집이라는 성남시 역사만큼이나 긴 연륜을 갖고 있는 음식점이 있다. 이 음식점은 지금의 성남시로 탈바꿈이 한창이었던 1980년 7월부터 수정구 신흥3동 종합시장 내에서 우족탕牛足湯과 설렁탕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개업해 7년 여 동안 운영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87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와 현재까지 34년째 운영하고 있다.

청기와집 식당의 외관은 예스러운 한옥이다. 주요 메뉴는 탕과 찜으로 한식을 내다보니 편안한 한옥과 잘 어울린다. 테이블이 없고 온돌방으로 식객들이 내 집 안방처럼 편하게 식사할 수 있으며 곳곳에 이 집만의 긴 역사와 부부의 개성이 묻어있는 소품들이 소박한 모습으로 걸려 있다.

이름처럼 한옥풍인 청기와집 입구

청기와집 식당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얼갈이배추에 소갈비뼈를 삶은 국물로 끓이는 '우거지 갈비탕'을 개발해 보급했다. 지금은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당시로서는 마음 놓고 먹기가 힘든 음식이었다. 우거지 갈비탕을 개발한 우거지의 원조이자 우거지 음식의 장인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기와집 식당의 신미자, 김광렬 부부는 항상 음식을 개발해서 여느 집에서는 먹을 수 없는 먹거리를 만들어 낸다. 청기와집 음식과 그 맛이 다른 집들보다 앞서가는 것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김광렬과 음식 맛을 연구하는 신미자 부부의 장인 정신이 배어 있는 연구와 노력 때문이다. 김광렬이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그 나라의 대표 음식을 우리나라 음식에 접목해 우리 입맛에 맞는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그래서 여느 집들과는 맛이 다른 새로운 음식이 탄생한다. 이렇듯 청기와집 음식이 맛있는 것은 김광렬, 신미자 부부가 장인 정신으로 음식 맛 연구를 꾸준히 하는 데다가 재료를 좋은 것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기와집 갈비찜은 여느 집들과는 다른 일미 중의 일미란다. 그래서 갈비찜을 먹고 싶어 청기와집을 찾는 식객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남기는 음식이 없단다.

신미자가 청기와집을 하게 된 동기도 음식 맛만큼이나 사뭇 달라서 잊히지 않는다. 신미자는 1970년대 중반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원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에 이웃에서 같이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동창의 사촌 오빠인 김광렬을 만나 1975년 10월 6일에 결혼해 한 남자의 아내이자 세 자매의 어머니가 됐다.

청기와집 김광렬, 신미자 부부

신미자는 서울 토박이이자 8남매의 막내딸로 태어나 온갖 사랑을 받고 자랐단다. 그렇다보니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묻혀 보지 않고 자라는 호강을 누리며 살다가 결혼을 했다. 고생을 모르고 살다가 결혼을 하고 나니 친정어머니의 걱정은 끊일 날이 없었다고 한다.

친정어머니는 매일 아침 딸네 집에 오셔서 하루 종일 계시다가 저녁

밥을 딸과 같이 먹고 집으로 갔다고 한다. 한 동네 사람끼리 결혼을 해서인지 시댁과는 사돈지간이라기보다는 이웃사촌으로 허물없이 왕래를 하고 살았다. 시할머니와 화투도 같이 치고, 시어머니와 여행도 같이 가는 친정어머니가 그때는 마냥 못마땅했었다고 한다. 철부지 막내딸이 마냥 안쓰러워 된장과 고추장은 물론 심지어는 김장김치를 담가주는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살았었다고 한다. 결혼해서도 딸의 살림까지 챙겨 주시던 친정어머니와 살면서 친정어머니의 솜씨를 익히기 시작했다.

'이건 내가 전문이다' 하시던 친정어머니의 솜씨를 익힌 신미자는 1976년 큰아이의 첫돌 무렵 분당구 궁내동에 전원주택을 지어 살았다. 그때 이웃에 살면서 종합시장 옆에서 거목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숙희와 세운상가에서 감○옥(설렁탕 전문점)을 경영했던 조말분이라는 이웃들이 있었다. 그런데 볼 때마다 친정어머니에게서 배운 음식 솜씨를 썩히지 말고 음식점을 경영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청기와집이라고 했다.

서울식 요리 솜씨가 뛰어난 시할머니와 속초에서 함경도 음식점을 크게 했던 친정어머니, 그리고 너무도 고마운 이웃사촌 덕분에 1980년 7월 종합시장 옆 뒷골목에서, '청기와집'이라는 상호를 달고, 설렁탕과 우족탕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개업해 운영했다. 그러다가 1987년 12월 30일 수정구 신흥1동 현 위치로 이전해 34년째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더 예쁘고, 더 신선하고, 더 맛있는' 3더의 한정식 도시락, 한정식 갈비찜, 한

청기와집 상차림

정식 산적구이 등 한식 메뉴로 먹고 싶은 한식집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오랜 노력 덕분에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지정업소가 되었고, 한국관광공사 성남시 한식 지정업소로도 선정되었다고 한다. 또 2001년 9월 6일 행정자치부 산하 (재)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으로부터 '경기도 향토 음식 지적 재산 기능보유자'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가족들 중 세 딸 모두 성남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명문 여대로 진학하는 영광까지 안았다. 김광렬은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여행가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음식점을 하는 바쁜 중에도 미주,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수많은 곳을 여행하며, 그 나라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의 전통 음식을 맛보니 이것 또한 우리 한식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때때로 어려움도 참 많았다고 한다. 시청사가 중원구 여수동으로 떠나고, 경제 위기가 오고 ……. 특히 시청사가 이전된 후 적막감이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한다. 마음에 상처를 받아 급성 간염으로 쓰러져 1년 6개월 동안 문을 닫는 아픔도 있었다. 다시는 식당을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지만, 성남시에서 마련해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대학에 남편과 함께 등록하여 강의를 들으며, 다시 음식점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고 했다. 1980년 개업하던 그 시절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한정식과 갈비찜 전문점을 하고 있다.

이제 옛 사람은 다 떠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 새로운 고객을 맞이하면서, 더욱 더 수정구 신흥동, 자기 동네를 아끼며 사랑하려 한다는 화합의 정신력까지 보였다. 항상 손해 보는 듯 어리숙해도, 언제나 빙그레 웃는 정다운 이웃이 있는 자기 동네가 너무너무 좋다고 한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래도록 맛있고 예쁜 음식 드실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신미자의 발길은 부엌으로 향했다. 이런 말은 장인만이 할 수 있는 다듬어진 각오들이다. 그래서 장인은 아무나 안 되는 모양이다. 세계인이 인정하는 음식 맛이 청기와집으로 연결될 날이 목전에 와 있는 것 같아 흐뭇하다.

에필로그

성남시는 지난 1973년 7월 1일 시로 승격해 2014년 40주년이 됐다. 성남시는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그동안 변천된 성남시의 역사를 정리하는 시사市史를 편찬한다. 통합 10권으로 발행되는 이번 시사의 목록 중에는 성남시 관내에서 영업 중인 7300여 개의 음식점 중에서 음식 맛이 좋거나 역사가 오래된 집을 골라 시사에 싣는 '맛집난'이 있다. 또 남달리 음식 맛을 잘 내는 맛의 장인란도 있다. 이런 난들을 필자가 집필하게 됐다. 필자 개인에게는 영광이다.

맛집과 맛의 장인을 취재하면서 애로가 많았다. 사실 맛이라는 것은 막연하다. 그래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맛은 기준도 통계도 없다. 맛은 각자들이 느끼는 것이 맛이다.

어느 분야나 애로 없는 분야는 없겠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취재가 힘들었다. 사전에 행정 기관이나 음식업협회의 협조 하에 약속을 받아놓은 집을 한다면 모를까 어쩌다 업주들과 연결이 돼서 대화를 하다보면 110%가 의심하며 연락을 안 한다. 그래서 필자가 연락하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남을 피한다. 그간 위생이나 보건증 같은 걸 들먹이며 사기 치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만큼 험한 세상에 시달려 봤다는 증좌證左라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성남의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맛집들을 찾아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을 만난 건 분명 행운이다. 식당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누구나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노동에 개인 시간도 별로 없지만 주방에서 조리하며, 혹은 손님을 맞으며 언제나 환하게 웃는 이 분들을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고마운 마음에 그간의 취재 노고를 잊게 되었다.

제4장
모란민속5일장과
시장 상인들

이수철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성남 시장의 일반 현황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 현대적 유통시설과 구분되는 재래시장은 시장이 열리는 시간적 차원에 따라 크게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상설시장은 일정한 판매 공간을 점유하고 상시적으로 열리는 재래시장이고, 반면에 정기시장은 상시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공간과 시간에 비상시적으로 열리는 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남의 '모란민속5일장'과 같이 4·9일 등 5일 간격으로 열리는 일반시장(5일장)과 파시와 같이 특수한 시기에 열리는 특수시장(전문시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재래시장의 분류

인구 100만 명에 육박하는 대도시인 성남에서 전통적 민속 정기시장인 모란민속5일장은 각양각색의 상품이 거래되는 상품 거래 시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성남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13년 1월 1일 현재 성남시에 등록된 전통시장은 모란민속5일장을 포함하여 24곳으로 총 4028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우리 사회의 변화 현상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성남시만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래시장은 도시화, 이동 수단과 대중 매체의 발달, 농업 생산의 전문화와 유통 근대화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환경의 현대적 변화

에 따라 점점 쇠퇴의 경향을 띠고 있다. 이 중 모란민속5일장과 같은 정기시장은 1970년대 이후 30여 년간 그 수가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감소되고 거래 규모도 줄어 점차 쇠퇴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모란민속5일장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현상과 다르게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그리고 성남의 전통 상설시장도 최근에 다소 침체를 겪고 있지만, 광주대단지 건설 직후부터 분당 신도시 개발 후 정착하는 시기인 199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성남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다른 지역과는 매우 다른 사회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 전통시장

단위 : 개소, 2013년 1월 1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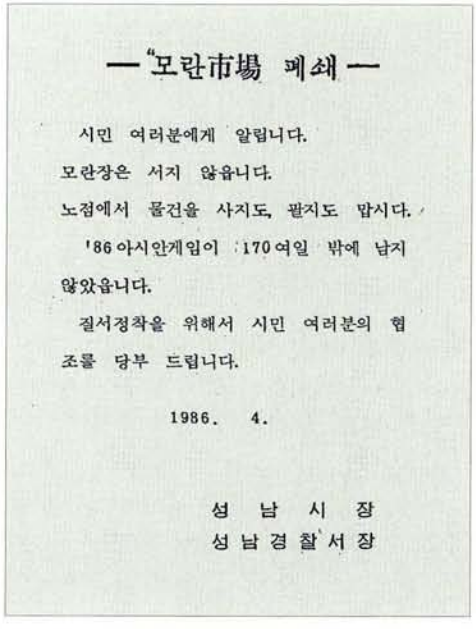
비고	상호	소재지	점포수
수정구	중앙시장	제일로 168(태평동)	73
	현대시장	수정북로 18(태평동)	73
	신흥시장	수정로214번길 6(신흥동)	5
	성남중앙지하상가	산성대로 지하271-7 외(신흥동)	663
중원구	모란시장	둔촌대로69번길 8(성남동)	65
	모란민속5일장	둔촌대로 79(성남동)	983
	상대원시장	희망로344번길 6 외(상대원동)	52
	성호시장	광명로 147(성남동)	320
	은행시장	산성대로 526(은행동)	47
	하대원시장	마지로 118(하대원동)	73
	금광시장	산성대로426번길 5(금광동)	30
	단대마트시장	광명로 289 (금광동)	90
분당구	현대시장	중앙공원로40번길 8(서현동)	92
	동신종합시장	돌마로 361(수내동)	179
	코코프라자	서현로210번길 20(서현동)	137
	미래타운 제1종합시장	불정로386번길 10(서현동)	183
	미래타운 제2종합시장	불정로376번길 31(서현동)	105
	분당우성시장	중앙공원로40번길 42(서현동)	76
	현대프라자시장	돌마로 364(수내동)	225
	분당종합시장	돌마로366번길 42(수내동)	84
	코끼리상가	내정로166번길 7-6(수내동)	70
	돌고래시장	내정로174번길 42(수내동)	136
	야탑에이스코아시장	야탑로 64(야탑동)	105
	금호재래시장	내정로165번길 38(수내동)	162

출처 : 성남시 전통시장(http://market.cans21.net).

모란민속5일장의 유래와 변화

모란민속5일장 부지는 중원구 둔촌대로 79(성남동) 대원천 하류에 있다. 길이는 350여m, 폭 30여m로 총면적이 약 1만 909㎡(2200평)에 이른다. 평소에는 상설시장의 상가 이외의 지역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매 4일과 9일(4·9·14·19·24·29일)에 장이 열린다. 성남 구도심과 분당 신도시의 중간 지역에 위치하고 모란역 등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여 장이 서는 날이면 10만여 명 이상이 몰릴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모란시장과 복개 전의 대원천



— "모란市場 폐쇄 —

시민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모란장은 서지 않읍니다.
노점에서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86 아시안게임이 170여일 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질서정착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986. 4.

성 남 시 장
성 남 경 찰 서 장

86아시안게임을 앞둔 시점의 모란시장 폐쇄 공고문

모란민속5일장의 기원에 대해서는 6·25전쟁 이후에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었다는 설이 있지만, 1964년 모란개척단과 주민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생겼다는 것이 정설이다.[1] 성남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김창숙이라는 예비역 대령이 모란 지역 마을 이장들의 도움을 받아 제대 군인 40~50여 명을 모아 '모란재향군인회'라는 사설 단체를 설립하여 모란 지역을 개척하면서 시장을 개설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모란시장의 유래는 1963년 모란 지역의 상인 대표와 지역 유지 및 마을 통반장 책임자들이 여러 차례 의논한 끝에 광주군청에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고 난 뒤에 5일마다 민속의 예스런 정서를 담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하였던 전통의 장이다. 처음 개설 당시에는 씨름과 윷놀이, 농악놀이까지 벌이는 등 마을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2]

이것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1974년 10월에 행정적으로 모란시장의 폐장 공고[3]가 나는 등의 변화를 겪었다. 또한 1986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도시의 환경과 관련해서 시 당국이 모란시장을 폐쇄하려 하였으나, 상인들의 자치적인 유치 활동과 경기도지사의 민원 수렴으로 1989년 대원천의 복개된 빈터 주차장을 5일 장날에 시장터로 사용토록 하는 해결책을 찾으면서 오늘에 이르는 전국 최대 규모의 모란민속5일장이 되었다.[4]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일반적으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정기시장인 5일장은 쇠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모란시장은 성남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인구 100만 명에 이르는 대도시가 되었음에도 그 세력이 계속 유

1) 성남 원주민 여성 친목 회원과의 이야기에서 현재는 서울에 편입되었지만 예전 광주 지역이었던 송파에 5일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모란 지역으로 이동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한다.
2) 한춘섭, 『성남 문화 유산』, 동명사, 1999.
3) 당시 행정상으로 시단위에서는 5일장이 설 수 없기 때문에 폐지 공고를 낸 것 같다.
4) 설성희, 「관광자원으로서의 장터 · 장날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지, 발전하는 것일까? 이것은 아마도 성남이라는 도시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성남의 탄생은 1968년에서 1971년 사이에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이루어진다. 즉 광주대단지 개척이라는 사건에 의해 인공적으로 도시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도시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모란시장은 성남 시민들에게 5일장이 제공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필요가 남아 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의 시장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시장 분포					
	정기시장	일반시장	대형 소매점	백화점	도매센터	합계
수정구	–	4	1	–	–	5
중원구	1	7	–	–	–	8
분당구	–	13	3	3	1	20
합계	1	24	4	3	1	33

비고 :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함.
출처 : 디지털성만문화대전(http://seongnam.grandculture.net).

모란시장을 가득 채운 상인과 방문객들(2011)

한편 1980년대 도시로서의 기능이 정비되고, 1991~1994년 분당 지역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도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시설이 지근거리에 많이 생겨나면서 모란시장의 전통적 기능은 쇠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란민속5일장은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며 그 규모를 확장하면서 발전해 왔다.

모란시장이 전국 최대 규모의 정기시장인 5일장이 되는 과정은 성남시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사회적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급격한 도시화와 분화로 인한 인간의 파편화와 소외에 대항하여 모란민속5일장이 새로운 공동체적 인간관계의 대안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많은 신문들의 방문 기사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지난 4일 낮 1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대원천 하류를 복개한 주차장이 인파로 가득 찼다. 바로 전날만 해도 1만여㎡에 이르는 주차장은 공터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밤새 각양각색 좌판이 차지하고 사람들은 그 틈새를 비집고 다녔다. 지나가던 장꾼들은 '뺑'하는 뺑튀기 소리에 놀라 잠시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시장 한가운데 긴 나무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를 앞에 두고 있었다.
>
> 바로 이날 5일장인 모란시장의 장이 섰다. 날짜 끝 숫자가 4·9일인 날, 이곳은 사람과 물건으로 넘친다. 수도권 도심 한복판에서 옛 시골 장날이 재현되는 것이다. 장날 하루 이곳을 찾는 사람 수는 평균 10만여 명, 장사를 하는 상인 수는 1500여 명에 이른다.
>
> 최정택 모란시장 상인회장은 "서울은 물론 이천·여주·평택·수원·의정부 등 각지에서 온 이들이 물건을 사간다"며 "모란시장은 성남의 관광 명소라 할 만하다"고 말했다.
>
> 모란시장은 서울 등 대도시와 가깝고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에 있는 덕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많다.[5]

위에 인용된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란시장이 단순히 상품만을 사고파는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시장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정'이라는 공동체적·사회적 관계와 그 관계에서 나타나는 푸근한 심성까지 얻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구 100만 명에 육박하는 대도시에 자리 잡은 모란시장은 평소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찾고 있는 명소가 되고 있다.

---

5) 『조선일보』 2009년 4월 7일.

모란민속5일장 운영 방식

모란민속5일장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란시장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노력이다. 모란시장의 이해 당사자인 상인들은 모란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이러한 상인들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행정 기관의 지원도 모란시장이 발전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지금의 모란시장 부지는 시비와 도비 등 총 33억 원을 들여 복개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넓은 시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상인들과 소비자를 이끌어 내는 요인이 되었고, 이는 모란시장이 더욱 발전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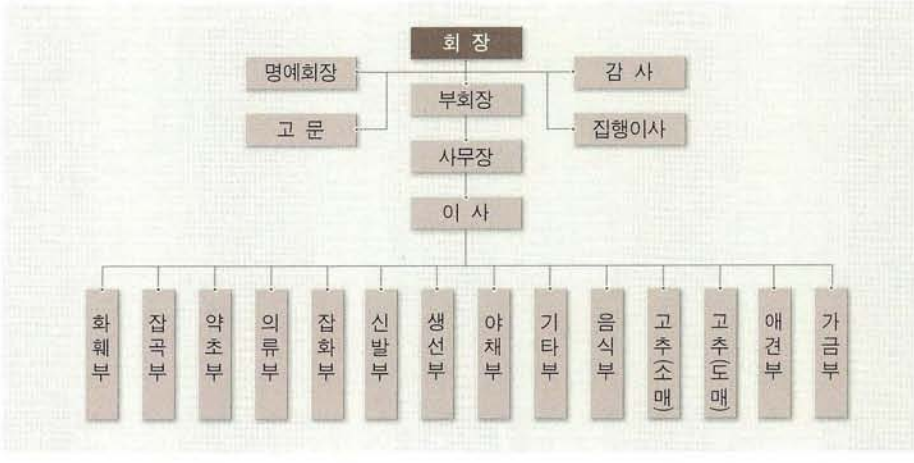
또 다른 요인은 거래되는 상품에서 찾을 수 있다. 모란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필요한 상품이 대량 유통되어 그 자체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모란시장의 특징을 설성희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고추가 집결되어 염가로 도매 및 소매로 판매된다. 둘째, 가축(애견, 염소, 닭, 오리)의 도매 및 소매 판매가 가능하다. 셋째, 잡곡 일체가 산지로부터 직접 매입되어 판매된다. 넷째, 약초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 다섯째, 향토 음식, 나물 등을 맛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란시장의 상품 유통의 특징은 모란시장에 가면 '없는 물건이 없어'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이는 다시 좋은 상품이 유통되게 하는 선순환적 요인으로 작동한다. 또 모란시장의 운영 구조의 체계성을 통해 유지되고 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 운영의 체계성은 상인들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상인회의 운영과 성남시 행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운영 구조의 체계성은 모란시장 상인회의 구조를 살펴보면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모란시장은 상인회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상인회의 조직은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회장과 2명의 부회장, 감사, 집행이사를 두어 전체적인 시장 운영을 관장하고, 하부 단위로서 화훼부를 비롯해 품목별로 14개 부로 조직

모란시장 상인회 조직도



되어 있다. 시장 운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율방범대를 두어 거래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방문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이러한 운영은 행정력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고, 운영의 체계성은 모란시장 발전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되는 모란시장의 하루 거래액은 현재 수십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 규모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다 보면 자연스레 혼잡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혼잡은 완전한 무질서가 아닌 일종의 질서 속에 즐거운 혼란이다. 5일장이 열리는 4일·9일에는 이러한 즐거운 혼란을 느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란민속5일장으로 몰린다. 그러다보니 주차난 등의 문제가 생겨 장날이 되면 손님들과 상인들이 타고 온 차로 장터 부근은 일대 혼잡을 이룬다. 혼란 속에서 다양한 거래가 형성되고, 이것이 새로운 볼거리를 만드는 모란민속5일장의 참맛으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소비자들은 그 혼란 속에서 오히려 인간적인 면모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모란시장의 특징은 모란민속5일장을 한번쯤 가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모란민속5일장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동력으로 역할을 하게 하는 좋은 순환의 상황으로 만들어 모란시장을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하였다.

모란민속5일장의 기능

역사적으로 시장은 인간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전개되어 왔다. 생산, 소비, 교환은 어느 시대에도 인간사회에 보편적인 경제 행위로서, 인간의 노동에 의한 생산과 이를 통한 잉여는 시장에서 교환 과정을 통해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 연결하는 순환을 통해서 인간은 필요한 물품을 소비해 왔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가격에 의해 매매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과정 또는 그것이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

시장의 본질을 가격 형성의 기능에 두게 되면 장소의 개념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의 개념, 즉 구체적인 공간인 시장은 시간과 공간의 일치를 통해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물자가 만나는 곳이며 이들이 유통되는 중심지이다. 이때 시장은 장시場市, 또는 줄여서 장場이라고도 한다.

모란시장에서 파는 각종 한약재

평상시의 모란시장 상가와 주차장(2013)

정기시장인 모란민속5일장은 규칙적인 시일 간격(5일)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기에 열리는 구체적인 시장 공간을 말한다. 따라서 시장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공급과 수요가 집중되므로 사람과 사람을 공간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한군데 묶는 역할을 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전체 사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당대 사람들의 생활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이고,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가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모란민속5일장도 역시 이러한 시장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단순한 물물 교환의 장이 아니라 성남의 문화를 보여주는 시금석 같은 공간이었다.

모란민속5일장은 설립 초기에 채소류와 잡곡류가 주로 판매되었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닭·오리·개·개고기·돼지고기 등의 거래가 성행하였다. 지금은 일부 가금류가 혐오식품으로 분류되어 단속의 대상이 되었고, 개 시장을 포함한 일부 가금류 시장은 시장 뒤편으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모란민속5일장에서 가장 유명한 거래 품목이다. 한편 1980년대 이후 모란시장은 가을이면 김장철을 대비한 마른 고추의 유통이 집중되는 곳이다. 충북 음성 등지에서 올라온 말린 고추가 이곳에서 도소매로 팔려 나간다.

다양한 품목이 거래되는 모란민속5일장의 가장 유명한 거래 품목은 개다. 모두 주지하다시피 모란민속5일장의 명성은 아무래도 개 시장에서 비롯된다. 모란시장에서 개를 사고파는 부서의 명칭은 '애견부'다. 애완견, 특수견, 잡견이 거래되며 원래 모란시장의 주요 품목이었던 식용견들은 다른 가금류와 함께 장 하루 전날 따로 도매장이 형성되기도 한다. 모란민속5일장의 식용견과 애완견이 서로 마주보면서 판매되는 아이러니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모란시장은 많

은 동물 애호가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모란민속5일장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현실이다. 모란민속5일장의 풍경은 산 것과 죽은 것 사이의 경계와 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삶의 한 단면일 것이다.

모란민속5일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거래가 형성되고, 그 거래를 촉진하고 흥을 돋우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벌어진다.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로 인해 매 5일마다 모란시장은 놀이마당이 되고 축제의 장이 된다. 아침 일찍부터 열리는 모란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출출해지면 시장의 싸고 푸짐한 먹거리로 요기하고 장터 무대에서 벌어지는 공연을 구경한다. 어떤 사람들은 장에서 거래되는 물품보다는 푸짐하고 저렴한 식사와 간단히 막걸리를 곁들이면 거나해져서 모란시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을 구경하며 한나절의 여가를 즐기기도 한다.

공연의 레퍼토리는 매우 다양하지만 주로 '각설이' 혹은 '엿장수'로 불리는 공연이 많이 열린다. 공연의 내용은 노래와 춤을 기본으로 해학적인 내용의 일종의 마당놀이가 펼쳐지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 공연을 바탕으로 엿, 성분을 알 수 없는 만병통치의 건강식품 같은 상품이 판매되기도 한다. 사람이 많을 경우 한 놀이마당에만 수백 명이 모여 구경하기도 한다. 초기에는 녹음기를 틀어 놓고 춤과 공연을 하다가 나중에는 북·징·장구 등을 두루 갖춘 종합적인 놀이패 공연으로 발전하여 상품 판매의 일환으로서가 아닌 공연 자체의 완결성을 가지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물품의 거래 이외의 각종 행사가 수시로 벌이지는 등 볼거리가 풍부하고 다른 지역의 사정, 즉 세상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일종의 공론장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적 교환과 함께 사회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場이며, 이 과정에서 문화가 발생하고, 거미줄 같이 연결된 다른 5일장과의 연결 속에서 문화와 정보가 전파되는 역할을 일정 정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모란민속5일장은 성남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락을 제공하며 문화가 창조되고 교류되는 장이기도 하다. 이처럼 모란민속5일장은 성남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시장 상인의 일상

성남은 이주민들의 도시이다. 1960년대 후반 서울 철거민들의 강제 이주로 도시가 시작되었고, 전국에서 서울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주거비가 비교적 저렴한 성남에서 일차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도시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성남의 도시 기능이 안정화되어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198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 성남에 정착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성남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서울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지역에 급조된 도시이므로 원주민들이 거의 없다.[6] 대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연대의 자원이 완전히 소실된 도시였다. 이런 이유로 모란시장의 상인들을 비롯한 많은 성남 시민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한 채 전국에서 모여들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성남의 사정은 시장 상인의 이주와 정착의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일부 사례는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였다.[7]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모란시장에서 소위 '개장수'로 자리 잡은 사람의 이야기이다. 그는 충청도의 한 마을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각지를 떠돌면서 다양한 일에 종사하였다. 그러던 중 동업자의 배신으로 절망적인 상태에서 성남에 이주하였고, 모란시장 상인의 도움을 받아 우연한 기회에 개장수로 성남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장 상인의 정착기는 성남의 역사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빈민들의 이주 공간으로 생겨났던 성남에서 낯선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는 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제2의 고향으로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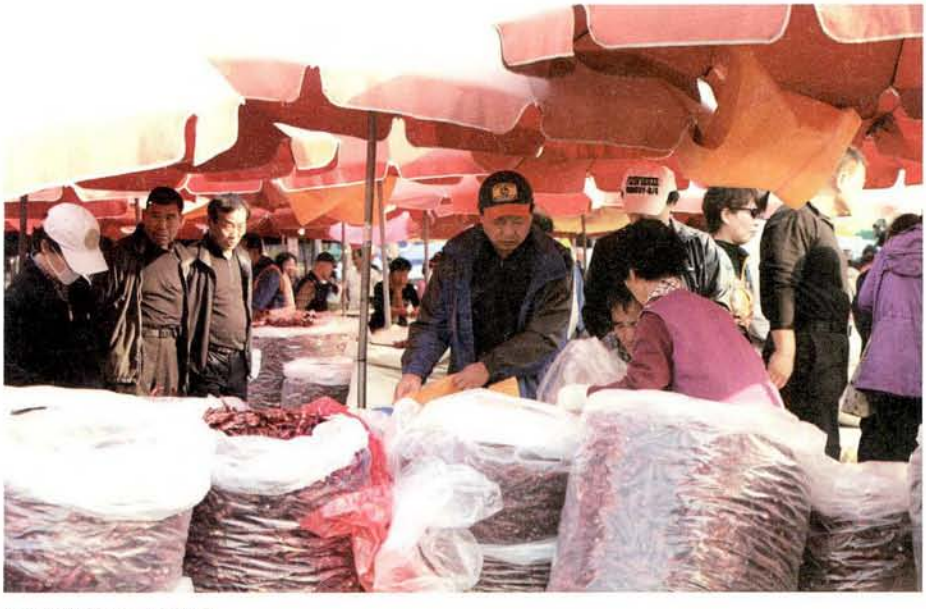
6) 현재 인구 100만 명에 육박하는 성남시에서 도시 개발 이전부터 거주한 원주민은 1% 내외로 추산된다.
7) 『뉴스메이커』 784호, 2008.

모란민속5일장에서 물건을 살피는 사람들

잡은 성남의 현재 모습을 모란시장 상인의 삶은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다양한 사연과 다양한 출신지의 시장 상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한 줄기 희망을 품은 채 성남에 이주하였다. 언젠가는 서울로 입성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을 간직하면서 성남이라는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성남은 그들에서 편안한 삶의 터전이 되었고, 이제는 떠날 수 없는 제2의 고향이 되었다는 것이 성남의 시장 상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삶의 유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시장 상인들과의 인터뷰에서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 우리 같은 경우에 사연이 많아요. 우리는 부모를 여의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여기저기 다니고 했거든요. 사연이라고 하면 강원도에서 오징어잡이를 같이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오징어잡이 같이하고 그 양반 동생이 여기서 체육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망나니야. 나를 만나서 여기 와서 동생네서 3개월만 있다 가라고 청을 해서 그때는 총각 때고 술도 많이 먹던 시절인데, 3개월 동안 술도 한모금도 안 하고 있다 보니 그게 계기가 되어 성남에 정착하게 되었지요.[8]

8) 체육사 경영 시장 상인 인터뷰이다.



모란민속5일장 고추 장터

필자와 인터뷰했던 위 시장 상인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생활을 하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전혀 연고가 없는 성남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이와는 조금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 저는 서울에 있었는데 남의 집 점원이었어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산도 없이 점원을 7년 했는데, 돈을 좀 모아서 독립을 하려고 서울에서 가게를 보러 다녔어요. …… 7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인데 섣불리 배팅할 수가 없드라고. 그래서 서울 시내를 두 달 다녔어요. 근데 가보면 가게가 내 맘에 들면 돈이 비싸고, 돈이 싸면 입지가 안 좋고. 그런데 숙부님 친구 분이 성남 쪽에 건물이 있었는데, 마침 가게가 비었다는 거야. 그래서 너랑 인연이 될지 모르니깐 가봐라 해서 올라왔죠. 서울서 내려와서 며칠을 지켜봤어요. 결론은 그랬지, 여기서 장사하면 점원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한 거보다 잘 팔리더라구. 그래서 서서히 자리 잡아갔죠.

언론에 소개된 사례와 필자가 인터뷰한 사례들 모두 이주 시기와 상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성남이라는 도시에서의 삶은 서로 낯선 사람들로 구성되어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다 보니 이제 성남은 제2의 고향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성남의 시장 상인들로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서울 등에서 삶의 기회를 엿보다 성남으로 이주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한 사람들이 많다. 초반에는 낯선 도시의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응의 어려움을 겪지만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하면서 적응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장 상인으로서, 그리고 성남 시민으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정착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의 터전인 성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던 시장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을 제공해주었던 것은 향우회와 상인회라는 조직이다. 이곳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교류하면서 시장 상인으로 자리 잡게 된다. 시장 상인들에게 상인회와 향우회는 서로 분리된 조직이 아니라, '모란시장 충청향우회'와 같이 결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특히 향우회는 많은 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대다수 이주민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커다란 도움이 되는 조직이었다. 상인회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자치 조직이고 향우회는 이주민의 도시라는 성남의 특성에 가장 잘 부합하는 친목 조직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 상인들은 상인회의 회원이자 각자 출신 지역의 향우회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서 향우회는 '같은 고향 친구'인 이주민이 모여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낯선 도시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를 지닌 모임으로 시장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사회적 기능을 지닌 모임이었다. 모란시장의 상인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향우회에 참여하고 있다.

첫째, 이들에게 향우회는 정서적 만족을 제공한다. 낯선 도시로 와서 적응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고향이라는 동질 의식은 정서적으로 매우 큰 만족감을 제공한다. 향우회를 통한 교류는 낯선 도시에서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회관계를 제공했다.

둘째, 자신들의 생업과 관계에서 고객이 될 사람들의 연줄망을 확보하는 사회자본으로서 역할을 한다. 도시화와 이농으로 인한 전통적 연대 자원의 소멸 상태에서 향우회는 서로 상호부조하는 중요한 사회자본의 원천이 된다. 필자가 인터뷰한 한 상인의 말처럼 향우회 회원들은 쌀을 살 때도 고향 사람들 가게에서 사고, 무슨 모임 할 때도 고향 사람들이 하는 식당에서 개최하여 서로의 매상을 올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부상조 조직이었다.

마지막으로 향우회는 전통적인 경조사를 치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경조사는 친척이나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치러지는데, 성남

의 이주민의 경우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친척이나 이웃이 없었다. 따라서 향우회는 같은 고향이라는 동질 의식을 바탕으로 경조사 발생 시 큰일을 치러내는 데 필요한 부조금, 일손, 손님 등을 일거에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었다.

따라서 향우회 조직은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장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조직이었다. 이러한 조직은 시장의 상인회 조직과 결합하면서 상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조직이 되었다. 대부분의 시장 사람들은 '모란시장 충청향우회'와 같이 시장 내에서 향우회와 연결된 모임에 참여하고, 이를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많은 시장 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확인된다.

> 그때는, 지금은 좋은 말로 상가번영회고, 옛날에는 상인들끼리 바쁠 때, 시장은 업종이 다르니까 조금 한가할 때 (서로 장사를 봐주지). 한 구탱이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장사를 하는데 우리 운영회비라도 내고 경조사 있으면 동참하자. 조금 발전되니깐 연말에 상인들끼리 돈을 모으고 언제 문을 두 시간 일찍 닫겠다. 일괄 모두 닫아라. 식당 잡아서 술 마시고 가족같이 지내면서 가다가 발전되니깐 이왕이면 노래자랑도 해서 상품도 주고 아줌마들의 기도 살려주자 그런 것도 하고, 그렇게 발전하는 거죠.[9]

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같은 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모임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상부상조 모임의 발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향우회였다. 이들은 초기에는 다른 바쁜 일이 있을 때 서로 가게를 봐주는 등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지만, 이러한 모임이 자리를 잡으면 상가번영회라는 정식 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경조사 등의 상호 부조 활동을 한다. 최근 이러한 상인회는 재개발, 모란시장의 이전 문제 등의 중요한 이슈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그들의 생활 모습은 낯선 도시에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삶의 전략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9) 향우회 참여자 인터뷰이다.

모란민속5일장의 변화와 발전 방향

급격한 도시화와 농촌 인구의 고령화는 모란민속5일장의 변화를 촉발할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 2500만 명에서 2005년 4700만 명으로 45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주로 서울을 비롯한 도시 지역에 집중되었다. 즉 전체적인 인구 증가와 농촌 지역에서 서울로의 이농 현상은 서울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명시적으로 알 수 있다.

서울의 인구 추이

단위 : 천명·%

연도	서울 인구수	서울 인구 분담률	전국 인구
1960	2,445	11.0	24,989
1970	5,536	17.6	31,435
1980	8,367	22.3	37,445
1990	10,630	24.3	43,522

출전 : 한상진, 『도시와 공동체』, 한울, 1999, 152쪽.

위의 표를 보면 본격적인 산업화가 추진되던 1960~1970년대 서울의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90년에는 1960년에 비해 약 245만 명의 인구가 그 4배가 넘는 약 1063만 명에 이른다. 그리고 1960년대 서울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농촌 지역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수도권인 경기·인천과 비교하더라도 4배 이상인 8.21%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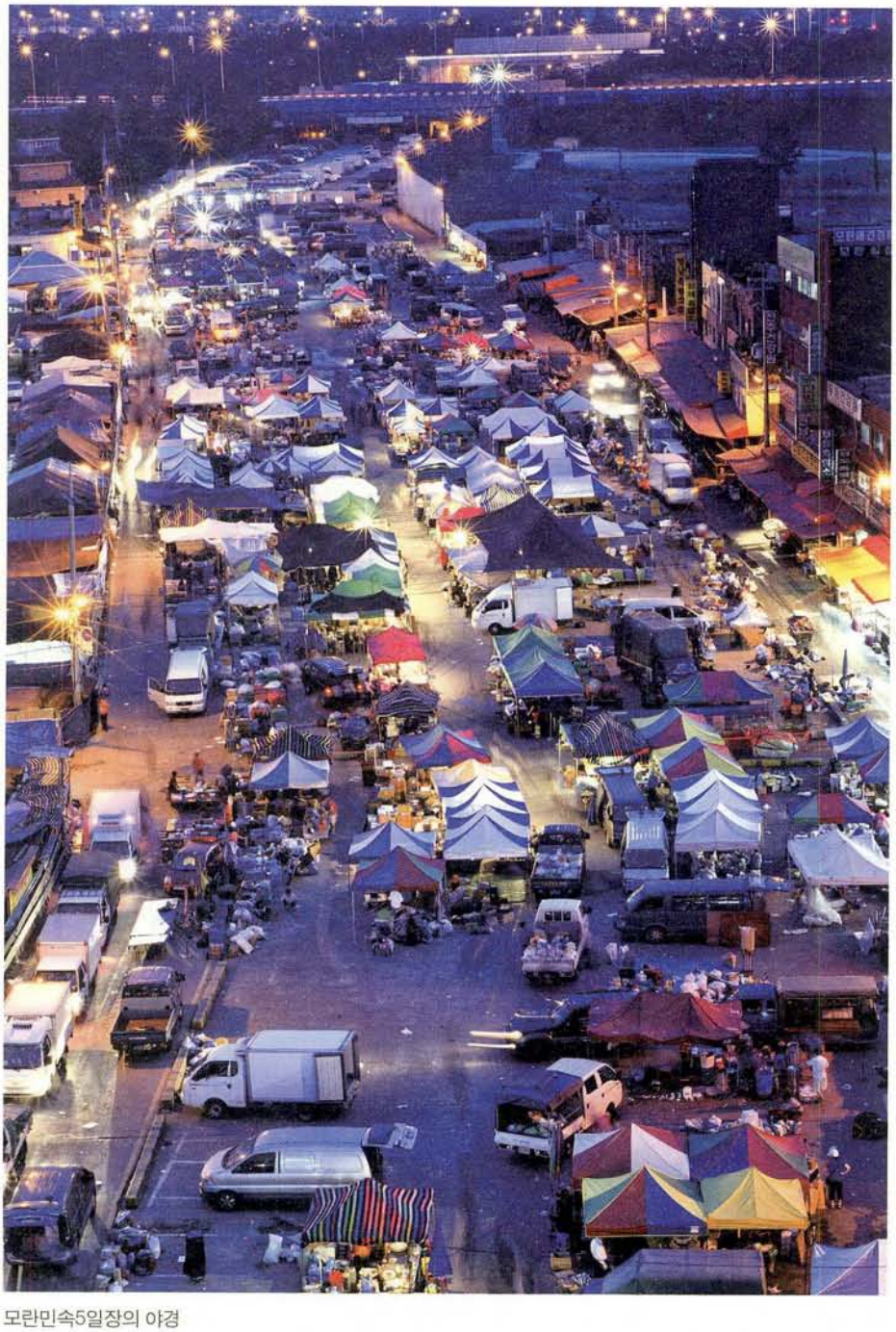
서울로 대표되는 도시 지역의 인구 증가는 인구밀도가 증가함을 의미하며, 이는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인구 변화는 단순한 인구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인구의 직업적 구성의 변화에도 나타난다. 1975년 경제 활동 인구의 45.7%가 농림어업에 종사하였으나, 2005년에는 7.9%만이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2005년 서비스 산업의 종사자는 73.5%나 달해 한국사회는 과거의 1차산업 위주에서 3차산업 위주로 급격히 변화하게 된다. 또한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는 인구 구조의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급증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와 그에 따르는 인구 구조의 변화는 성남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모란민속5일장의 모습은 이제까지와는 다르고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급격한 도시화는 인구 증가를 초래하여 5일장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수도 있는 반면,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와 같은 새로운 유통시설과의 경쟁 속에서 전통적인 5일장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변화의 양상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 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모란민속5일장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달도 모란민속5일장의 기능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교통 인프라, 통신 수단 및 대중 매체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발달하였다. 이러한 교통 및 정보통신과 대중 매체의 발전은 사람들의 이동성을 높여 전통적인 지역 공동체적 관계를 급속히 쇠퇴시킨다. 반면 도로 조건이나 교통 수단의 발달은 시장 상인이나 방문객의 이동을 수월하게 하여 모란시장의 상권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의 발전이 5일장에서의 정보 교환이나 오락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어 모란시장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 생산의 전문화와 유통 근대화도 역시 모란민속5일장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발전과 더불어 농업 생산이 전문화되고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농가들이 보다 나은 조건으로 판매하기 위한 출하처를 모색하게 된다. 특히 원예 농산물은 저장이 어렵고 부패하기 쉬운 작물 특성상 수요가 밀집된 소비지로의 유통 개선이 요청되었다. 이는 곧 전통적인 출하처인 5일장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이는 모란민속5일장의 위기로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 대규모 할인점 등의 유통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현대적 소매시설의 증가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커지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역으로 구매 장소로서 모란민속5일장의 역할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변화는 5일장 같은 정기시장의 역할을 축소하게 한다. 그러나 모란민속5일장은 일반적인 정기시장의 위상 추락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 및 유통의 측면에서 기능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문화관광과 공동체 측면의 사회적 기능이 강화되어 새로운 성남의 명소로서 명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즉 모란민속5일장은 성남의 문화 및 관광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남시와 상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꾸준한 자구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모란민속5일장을 지역의 문화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 상정하고 이를 중요한 문화적 자원으



모란민속5일장의 야경

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대표적인 예로 성남시는 '모란시장 명품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부지를 세우고 모란시장을 상징할 조형물을 세우고, 3D홍보판 등을 설치하여 모란민속5일장을 글로벌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모란민속5일장은 성남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도시 주민들은 모란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등 경제적 상품만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정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문화 현상으로 모란민속5일장을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다. 성남 지역은 급격한 도시화와 이에 따른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와 유대가 소멸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적 인간관계가 붕괴된 도시에서 모란민속5일장의 역할은 일상의 팍팍한 삶 속에서 따뜻한 인간적인 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모란민속5일장은 실질적 경제적 효과보다 더 큰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파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모란민속5일장은 매력적인 문화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성남의 문화적 상징으로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모란민속5일장이 장밋빛 미래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더라도 시장은 기본적으로 상품이 유통되는 공간이다. 현대 사회에서 일상 깊숙이 파고든 현대적 유통 공간은 모란민속5일장의 위상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는 많은 고객들이 모란시장에서 소비하던 것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소비하고, 모란시장에는 단지 구경만 하는 구경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즉 소비 없는 유동 인구만이 증가하고 실질적인 소비는 오히려 쇠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모란민속5일장의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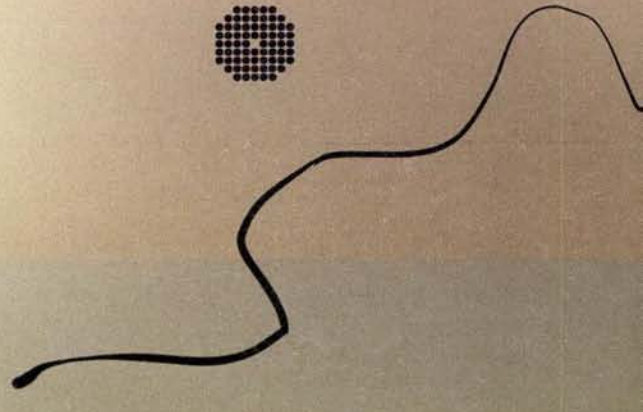
이와 함께 2015년으로 예정된 새로운 부지로의 장터 이전도 모란민속5일장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 중 하나이다. 1990년대 후반 성남시는 모란시장 일대의 무질서와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란시장을 새로운 부지로의 이전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상인들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어 상인회를 중심으로 집단 반발이 있었고, 많은 갈등을 야기하였다. 상인들의 반발 이유는 이전 부지가 기존의 상가와 떨어져 있고, 교통시설로부터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반발의 이면에는 기존에 구축하였던 상권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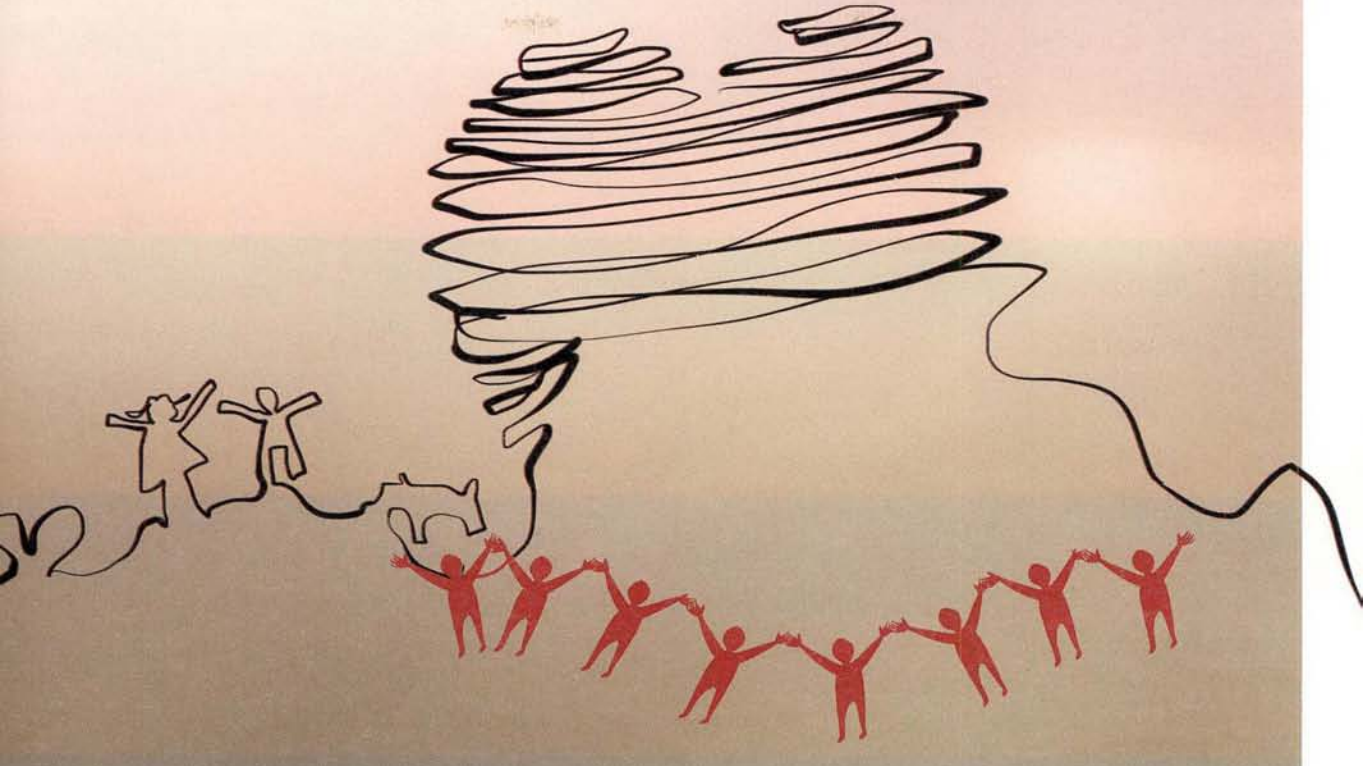
모란민속5일장이 겪고 있는 새로운 변화에 성남시와 상인회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도약의 방향을 세우지 않는다면, 모란시장은 어쩌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상인들과 정책 당국자들이 협력하여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도출해 낸다면 모란민속5일장은 삭막한 도시에 활력을 주는 공간으로 성남시의 명소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란민속5일장은 단순히 장사꾼과 소비자가 만나는 장터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정을 느끼고 유대를 형성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4

이방인들의 두 번째 고향 만들기





제1장 다문화 가정 이야기

제2장 한국학대학원 유학생 이야기

제3장 이주노동자에서 성남 시민이 된 어느 중국동포

제4장 판교테크노밸리, 성남시가 되어가는 중

제1장
다문화 가정 이야기

이소영 전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여성가족부가 2013년 2월 26일 발표한 '2012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는 26만여 가구로 추정되는 다문화 가족의 삶을 어렴풋하게나마 보여준다. 첫 조사가 실시된 3년 전보다 한국에서 오래 산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늘면서 이들의 취업이나 언어 문제가 일부 완화되고 경제 형편도 나아졌지만 사회의 시선은 오히려 따가워졌고 자녀 양육 등 고민거리는 여전하다.

전국의 다문화 가족은 26만 6547가구로 추정됐다. 구성원인 결혼이민자나 귀화자 등 이민자는 여성 22만 6084명, 남성 5만 7140명 등 총 28만 3224명, 그중 만 9~24세의 다문화 가족 자녀는 6만 6536명이다. 이번 조사는 다문화 가족 1만 5341가구를 표본으로 이뤄졌다. 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귀화자 1만 5001명, 배우자 1만 3859명, 만 9~24세 자녀 4775명을 상대로 각각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거해 지원을 받는 다문화 가족의 범위는 출생 때부터 한국인인 순수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에서 2011년 귀화자와 외국인으로 이뤄진 이민자 가족까지 확대됐다.

다문화 가족을 구성하는 이민자의 출신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인 이른바 '조선족' 출신(32.1%)을 포함한 중국이 53.3%로 가장 많고 베트남(18.3%), 일본(5.8%), 필리핀(5.3%), 미국(2.9%), 캄보디아(1.9%) 등 순이다. 1990년 이후 결혼한 다문화 가족의 구성 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이 53.0%, 부부만 사는 가족이 26.8% 등이었으며 한 부모 가족도 3.0%였다. 이혼·별거 중인 이민자는 4.5%였고 사별한 경우도 1.9%를 차지했다. 이혼·별거는 학대나 폭력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5.1%로 3년 전 조사(12.9%) 때보다 감소하였다.

한국 국적은 이민자인 여성의 47.4%, 남성의 46.0%가 취득했다. 작년(2012년) 7월 조사 시점 현재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 중인 모국 출신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지(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여자 형제(18.7%), 어머니(14.8%), 남자 형제(13.8%) 등으로 답했다. '없음'이라는 응답은 52.9%였다. 한국어 교육, 통역·번역 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봤다는 응답자는 46.2%였다.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5점 만점)는 취업 교육

우리의 이웃이자 구성원인 다문화 가족

이 3.56점으로 가장 높고 자녀 생활·학습 지원(3.23점)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 출신 배우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성은 26.3%가 재혼이다. 외국 출신 배우자와 결혼한 한국인 아내도 재혼 비율이 24.8%에 달했다. 이는 2011년 인구 동향 조사에서 재혼 남성 비율이 15.7%, 재혼 여성이 17.2%인 점에 비춰 크게 높은 수준이다. 상대방을 만난 경로가 결혼중개업체라고 답한 한국인 배우자는 27.3%였다. 상대방의 출신 지역별로는 캄보디아(75.7%), 베트남(65.8%), 남부 아시아(60.5%), 우즈베키스탄(40.0%) 등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만남이 많았다. 이혼·별거 중인 한국인 배우자는 그 이유로 배우자 가출(32.8%), 성격 차이(30.9%), 경제적 무능력(10.6%) 등을 들었다. 특히 한국인 남성은 50.3%가 배우자 가출을 꼽았다. 이에 비해 외국인 출신 배우자는 이혼·별거 이유로 성격 차이(48.1%), 경제적 무능력(20.7%) 등을 꼽았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5점 만점)는 여성 이민자 4.11점, 한국인 남성 4.21점이다. 이는 통계청 2012년 사회조사에서 일반 기혼 여성의 만족도가 3.68점, 남성은

4.03점으로 조사된 점에 비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식습관 등 문화 차이를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50.7%였다. 상대방의 출신 국가별로는 파키스탄(74.0%), 필리핀(71.6%), 캄보디아(71.0%) 등의 순으로 문화 차이를 많이 느꼈다. 상대방이 자국 문화를 포기하고 한국 문화에 동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6점 만점)은 이민자와 결혼한 한국인 남편(3.52점)과 한국인 아내(3.38점)가 일반인들보다 오히려 높았다. 여성가족부의 2012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 이 경향은 일반 남성이 3.35점, 일반 여성이 3.36점이었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수는 평균 0.9명이며 평균 연령은 만 7.38세다. 연령대별로는 6세 미만 52.4%, 6~11세 25.7%, 12~14세 8.4%, 15~17세 4.6% 등 순이며 18세 이상도 8.9%를 차지했다. 이 중 9세 이상 다문화 가족 자녀의 26.9%는 외국에서 성장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거해 제2차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가 2012년에 실시되었다.[1] 이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2009년 제1차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와의 차별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09년의 제1차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목표로 진행되었으나, 2012년에 실시된 제2차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전환되어 전국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1만 5341가구의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제2차 실태조사에는 2009년 조사 대상이었던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가구(이하 결혼이민자 가족)뿐만 아니라 2011년 「다문화 가족 지원법」 개정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대상에 포함된 일반 귀화자 가구(일반 귀화자 가족 등) 등도 대상에 포함되었다.[2]

---

1) 여성가족부, 「제2차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변화된 다문화 가족 진단 및 정책 과제 도출 발표 요지」, 2012, 21~22쪽.

2)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로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 가족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다문화 가족의 수도권 거주 비율

2012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다문화 가족은 26만 6547가구로 추산된다. 이 중 결혼이민자 가구는 22만 625가구(82.8%), 일반 귀화자 등의 가구는 4만 5922가구(17.2%)를 차지한다.

다문화 가족의 58.6%는 수도권(경기도 26.9%, 서울 25.8%, 인천 5.9%)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이하 2009년 조사)의 51.9%에 비해 6.7% 증가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 전체 가구 중 수도권 거주 비율 47.6%보다 11.0%가 더 높은 것으로, 지난 3년간 다문화 가족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거주 다문화 가족이 증가한 것과 더불어 도시 지역인 동부 거주 다문화 가족 비율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동부 거주 다문화 가족 비율은 77.5%로,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동부 지역 거주 비율(80.9%)보다 3.4% 낮은 것이나 2009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72.1%) 대비 5.4% 더 높다. 이는 다문화 가족이 전체 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지만 점차적으로 도시 지역 거주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등은 2011년 4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2009년 실태조사 당시보다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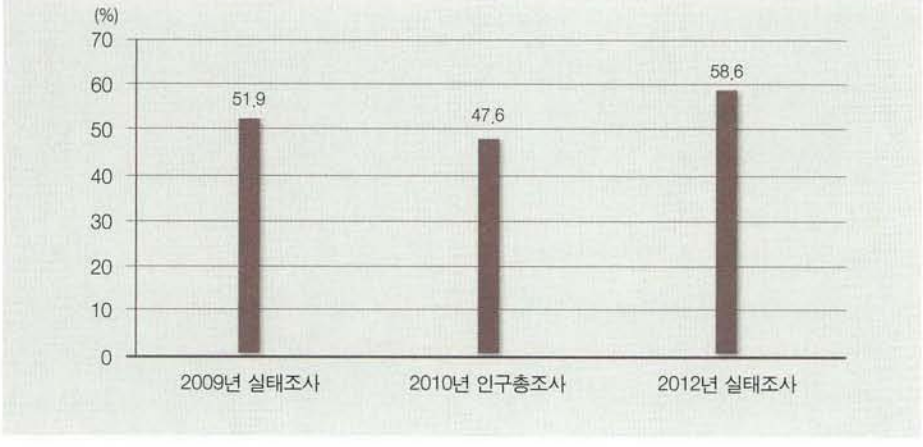
2012년 실태조사 결과 전국에는 총 28만 3224명의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성 79.8%와 남성 20.2%의 분포를 보인다.[3] 경기도 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44만 명으로, 도내 주민등록인구(1209만 명)의 약 3.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7% 증가한 수치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에는 144만 5361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30.5%로 가장 높다고 한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6만 4709명이 거주하는 안산시이다.

3) 행정안전부 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이다.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성남 지역의 결혼이민자수는 2603명이고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합친 다문화 가족수는 4099명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와 기타 체류인수를 합친 총 외국인수는 2만 7457명이다. 이들은 성남시 각 구에 고루 분포하여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과는 다르게 결혼이민자 여성과 그 자녀들만 주민으로 인식하고 그들만 우리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들만 우리에게 적응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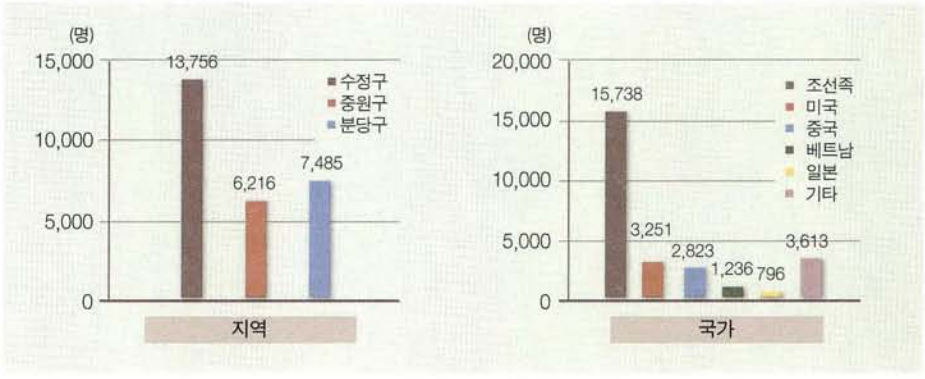
성남시 외국인 현황

단위 : 명, 2012년 현재

외국 국적					한국 국적		외국인 주민 자녀			외국인 주민 세대	합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재외 동포	기타	혼인 귀화자	기타	외국인 부모	외국인·한국인 부모	한국인 부모		
10,128	2,603	774	4,987	3,621	1,496	1,254	259	2,168	167	5,067	27,457

비고 : ①지역별 : 수정구 1만 3756명(50.1%), 중원구 6216명(22.6%), 분당구 7485명(27.3%).
②국가별 : 조선족 1만 5738명, 미국 3251명, 중국 2823명, 베트남 1236명, 일본 796명, 기타 3613명.
③전년도(2011) 대비 2469명 증가함.

성남시 지역별, 국가별 외국인 현황(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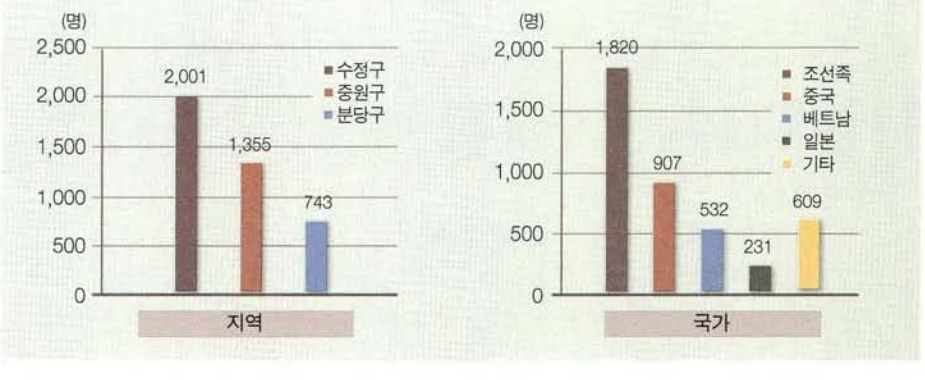
성남시 다문화 가족 현황

단위 : 명, 2012년 현재

외국 국적(결혼이민자)			한국 국적(혼인귀화자)			합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495	2,108	2,603	82	1,414	1,496	577	3,522	4,099

비고 : ①지역별 : 수정구 2001명(48.8%), 중원구 1355명(33.0%), 분당구 743명(18.1%).
②국가별 : 조선족 1820명, 중국 907명, 베트남 532명, 일본 231명, 기타 609명.
③전년도(2011) 대비 88명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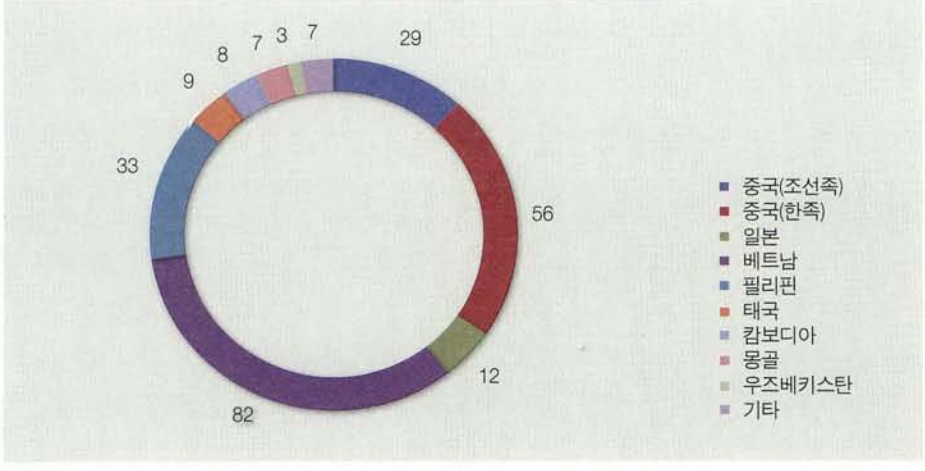
성남시 지역별, 국가별 결혼이민자 현황(2012)



실태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혼이민자들의 욕구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는 결혼이민자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들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하였다. 우선 모든 결혼이민자들의 만남을 일반화해선 안 되지만 대부분은 중개업체를 통해 관계가 이루어졌다. 상업적인 성격을 띤 결혼으로 인해 여성들이 적응을 위한 준비 없이 급하게 한국으로 와서 거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한국의 언어나 문화 등에 대한 적응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살게 됨에 따라 느끼는 어려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내용은 수거된 설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설문 분석을 통해 본 성남 거주 결혼이민자 현황



설문지 기준 결혼이민자의 국적 분포 현황

설문을 받은 248명 중 조선족 중국인 29명, 한족 중국인 56명, 일본인 12명, 베트남인 82명, 필리핀인 33명, 태국인 9명, 캄보디아인 8명, 몽골인 7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 기타 9명 등으로 집계되었다.

거주 지역별로는 분당구에 가장 적게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이민자

의 58.8%가 5년 이내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봐서 2008년 전후로 성남 지역의 다문화 결혼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성별은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대부분이 기혼자인 것을 감안할 때 결혼이주 여성으로 볼 수 있다. 결혼이주 여성과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 차이는 15~20세로 높았으며, 결혼이민자들은 40세 이하의 젊은 층이 77.0%로 대다수였다.

직업은 대부분이 주부였다. 이를 감안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나 취업 알선 프로그램이 우선시 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출산율 저조로 인해 고령화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다문화 가족은 해답이 될 수도 있다. 결혼이민자 가구의 자녀수는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을 웃도는 수치를 보였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도 확인되었다. 또한 다수의 가구가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나 이들이 경제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해당된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결혼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조사되었다. 그 결과 한국어 의사소통, 자녀 양육, 경제 문제, 취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어 의사소통의 경우 불편함이 없이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은 70명(28.2%)밖에 되지 않았으며, 거의 이해를 못한다는 사람도 13명(5.2%)나 되었다.

거주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무응답
계	123	101	22	2

한국 거주 기간 단위 : 명

구분	6개월	6개월~1년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무응답
계	25	23	45	53	70	32	0

성별과 결혼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	여	무응답	기혼	미혼	무응답
계	10	232	6	218	4	26

연령대 단위 : 명

구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무응답
계	19	88	84	46	8	3

직업

단위 : 명

구분	주부	회사원	자영업	제조업	없음	일용직	기타	무응답
계	185	10	7	4	6	5	25	6

자녀수

단위 : 명

구분	없음	1명	2명	3명	4명 이상	무응답
계	57	70	68	35	13	5

월 평균 가계 소득

단위 : 만원·명

월 소득	100 미만	100~200	200~300	300~500	500 이상	기타	무응답
계	28	95	59	22	8	2	34

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명

순위	가장 어려운 점	응답자수	순위	가장 어려운 점	응답자수
1	한국어 의사소통	45	7	현재 가족들의 건강 문제	13
2	자녀 양육이나 교육 문제	35	9	배우자와의 갈등	10
3	경제적 어려움	29	10	주위 사람의 편견과 차별	8
4	취업의 어려움	26	11	시댁 식구와의 문제	7
5	한국 생활 적응	25	11	친정 식구와 관련한 문제	7
6	무응답	24	13	본인의 건강 문제	6
7	국적 취득 관련 문제	13	합계		248

한국어 실력

단위 : 명

구분	거의 이해 못함	간단한 단어 사용	생활에 필요한 짧은 대화	불편함 없이 의사소통 가능	무응답
계	13	58	90	70	17

이상으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조사 내용만으로 성남시의 모든 결혼이민자들에 대해 일반화해선 안 된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지역 사회에서 어울리기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노력을 해볼 순 있다. 결혼이주 여성들의 적응과 의사소통, 그리고 자녀 문제를 돕고 더 나아가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며 언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조모임을 지속적으로 열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다문화 가족의 이해를 돕는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좀 더 가까이 가도록 돕고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성남시를 만들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으로 살기

여기에서는 결혼이민자 4명을 대상으로 2013년 질문(설문)과 대답(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후 대답만을 모아서 각각의 글을 재구성했다. 전체 질문은 6가지로 ①결혼은 언제 하셨나요? ②성남에 오셨을 때 첫 느낌은 어떠셨어요? ③성남에서 살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④반대로 성남에서 살면서 불편하거나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⑤남편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⑥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등이었다.

최연분(중국)

최연분은 중국 교포 3세로 결혼이민자이다. 한국에 온 지는 15년이 넘었으며, 한국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친지의 소개로 1998년 2월에 남편을 만나 5월에 결혼하였으며 11월에 귀화하였습니다.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15세이지만 결혼 당시는 나이 차이에 대해 크게 불편감은 없었고 현재 13세 딸, 11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남에 처음 왔을 때 인상은 도시 모습이 마치 성냥갑 같아 보였습니다. 옥상에서 주위를 둘러보니 산비탈에 건물들이 들어 있어 드라마에서 비치는 생활상과 많이 달라 보여 한편으로는 실망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개신교 신자이기도 해서 결혼도 남편의 승낙 하에 교회에서 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살던 중국은 공산국가라 말로는 종교 자유라고 하지만 감독이 심해 신자들이 거의 숨어서 종교 활동을 할 지경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면서 보니 옥상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 십자가가 30여 개까지 셀 수 있어서 무척 놀라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좋았던 점은 동사무소를 비롯해 모든 관공서 분들이 무척 친절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 입국 후 1주, 2주 두 번에 거쳐 경찰서에서 신원 확인 차 전화를 하였는데 너무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 주셨습니다. 중국에서는 권력 기관이 민원인한테 상냥한 태도로 대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동사무소에 가서 신분증

을 신청하는데도 동사무소 직원은 마치 자기 집 가족처럼 따뜻하게 안내해 주셔서 고향인 중국과 비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마트의 물품 가격이 정찰제라서 공정하며 가격 비교가 편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특정 공산품을 제외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면 부르는 값의 절반을 제시하고 흥정을 시작하는 것이 습관처럼 여겨졌는데 한국에서는 정찰제가 있어 흥정할 필요 없고 상품 선택이 자유로워 쇼핑이 무척 편리했습니다.
물론 성남에 살면서 모든 게 다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교포 3세여서 다른 이민자들보다 문화, 음식 등 적응 면에서 훨씬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밥상에 젓가락이 가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너무 짠 것이었습니다. 젓갈, 김치류가 많았으며 국이나 찌개 하나로 한 끼를 먹는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전에 살던 친정에서는 매 끼마다 큰 접시에 음식을 서너 가지씩 준비하여 맛있게 먹었는데 여기에서는 상차림이 꼬마들 소꿉놀이 같았습니다.
외국인 신부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좀 나아진 편이지만 제가 한국에 오던 15년 전만 하여도 주위에 외국인 신부가 눈에 띄지 않았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를 들인 가정은 동네 웃음거리며, 화제의 중심이 되곤 했지요. 그것도 부정적인 시각이 훨씬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남편과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미래의 아름다움을 약속하고 꿈꾸는 친한 사이였었습니다. 살면서 두 자녀를 낳아 키우다 보니 꿈에 대해, 미래에 대해 점점 대화하지 않고 필요한 가족 대사, 자녀 문제 등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언제나 가정적이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 큰 불만은 없습니다.
한국, 성남에 살면서 적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역시 자녀를 키우는 문제만큼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한국의 정서에 알맞게 키우지 못한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결혼이민자들은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외부 노출이 적고 아무래도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육아 정보 능력도 부족하기 마련이지요. 한국은 학부모 모임이 참 많은데 다른 부모들은 내가 모르는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을 듣고 오면 자신은 왜 다문화여야 하는지 묻곤 합니다.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질문의 답을 미리 준비했었지만 아이들이 듣고 이해하기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호소 세비(캄보디아)

호소 세비는 캄보디아에서 온 결혼이민자이다. 한국에 온 지는 5년이 넘었다. 결혼이민자 여성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다. 기본적인 언어의 문제는 이들에게 고립된 생활을 하게 하며 다양한 정보의 접근을 어

이동주-호소 세비 부부 가족(캄보디아, 『비전 성남』, 2009. 4. 23)

럽게 한다. 호소 세비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고립을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2008년 1월 19일 모란성당에서 결혼한 후 처음 성남에 왔을 때는 좀 낯설었지만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설렘과는 다르게 현실의 생활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언어의 문제는 저에게 고립된 생활을 하게 했으며 다양한 정보의 접근을 못하게 했습니다. 언어의 벽을 하루빨리 허물기 위해서는 공부할 곳이 필요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남에 살면서 점차 좋았던 점은 센터가 많이 생겨서 공부할 곳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센터에 나가 공부도 하고 사람들과도 어울리다 보니 한국말로 대화가 가능해졌고 한국 문화에도 조금씩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한국 문화 체험 행사도 많아서 여러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참여의 장들이 저희 같은 결혼이민자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한국의 문화에 친근해 질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를 위한 일자리도 만들어 주신 점은 언제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힘들었던 점은 제가 다문화 부모라서 학교 다닐 때 왕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그리고 한국말이 늦어서 아이가 선생님에게 혼나지 않을까 하는 점 등 자녀교육에 대한 부분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고향 생각이 나긴 하지만 성남 이웃들도 친절하고 저는 남편과 지내는 게 좋습니다. 남편이 착해서 생활력도 강하고 가정을 잘 이끌어주셔서 행복하고 아들딸까지 곁에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온드라(몽골)

온드라는 몽골에서 왔다. 한국에 온 지는 8년이 되어간다. 그녀는 시설이나 행정

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을 배려하지 못해 생기는 불편함을 호소하며 성남시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한 달에 두 번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성남시청에 오기는 하지만 정해진 날에 가기는 매우 힘든 편이고 서울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는 것은 너무 힘들다고 말한다.

저희 집이 신흥1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 단독 주택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따로 없어서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는 것이 너무 위험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가족들과 산책할 수 있는 공원 등 시설물이 부족하여 조금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들이 인도, 횡단보도, 차도 등 아무 데나 다니는 것이 무서웠으며 그로 인해 인도나 횡단보도로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피해 다니는 게 힘듭니다. 오토바이 단속을 강화해서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다니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 이외에도 시설이나 행정적인 부분에서 저희 같은 외국인을 배려하지 못해 생기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거주한 지 8년이 되었지만 성남시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없는 것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한 달에 두 번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가 성남시청에 오기는 하지만 정해진 날에 가기는 힘든 편이고 서울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는 것은 더욱 힘든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육아와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보니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체벌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판단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첫 아이를 키울 때 언어도 불편하고 육아 방법도 모르는데 제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일 하느라 바쁘고 육아와 관련된 지식이 없으니까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고 저는 산후 조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한국에 적응하며 사는 것이 이렇게 여러 면에서 불편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제 가족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문화 차이 때문에 다투기도 하지만 남편과는 잘 지내는 편입니다.[4] 그리고 살아오면서 그렇게 힘든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남에서 살면서 좋았던 점은 성남시에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활동(세계인의 날, 걷기대회 등) 기회를 많이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행사 참여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만나 어울릴 수 있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4) 음식 문화를 예로 들면, 한국에서는 밥을 국과 함께 여러 가지 반찬을 곁들여서 식사하는데 반해 몽골에서는 칼국수를 만들면 칼국수만 먹고, 찐 만두를 만들면 그것만 먹는 등 일품요리를 즐긴다. 또한 몽골에서는 찐 만두, 군만두, 삶은 고기 등의 음식을 손으로 먹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수저를 사용하는 등의 문화적 차이가 있다.

오은영(베트남)

오은영은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민자이다. 한국에 온 지는 6년이 되었다. 그녀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베트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2007년 9월에 우연한 기회로 현재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 생활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만나니 참 반갑고 새로웠지만 친정 가족들과 헤어지게 돼서 많이 속상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기엔 날씨도 몹시 추워서 외출도 많이 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살던 베트남은 한겨울이 없는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한국의 매서운 겨울은 저의 몸과 마음을 다 얼어붙게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성남 지역은 특이하게 언덕에 마을이 많았습니다. 도로 경사가 너무 높아서 눈이나 비가 오면 미끄럽고 넘어질까 봐 무서웠습니다. 다른 결혼이민자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한국말, 풍습과 문화도 모르고 가족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저 역시 몹시 외로웠습니다. 물론 음식도 전혀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배려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시골은 산이 많고 집도 별로 없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한국 시어머니들은 엄격하며 며느리를 괴롭힌다고 했었으며 한국드라마 속에서도 많이 봐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 시어머니는 전혀 무섭지 않았고 친딸처럼 제게 많이 잘 해주셔서 감동했었습니다. 물론 성남시는 시골도 아니었고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남편이 한국에서 두 달 동안 베트남어를 배웠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저와 남편은 처음부터 사이가 좋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제가 외로울까 봐 주말마다 함께 놀러 다니며 제 입에 맞는 음식도 많이 사주는 등 자상합니다. 남편이 한국어도 정말 열심히 가르쳐 줬으며,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많이 이해해주고 위로해줍니다.

전 20살에 아이를 낳았는데 어린 나이 때문에 첫 아이의 양육 문제로 많이 힘들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모르는 것이 있을 땐 남편과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만 실제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한 제언

성남 지역의 외국인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지역 곳곳에 민족적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 준비는 아직 덜 되어 있다고 본다.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들과 이민자 양쪽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적응을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은 이민자들에게 가중된다. 그들은 한국어를 배워야 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여야 하며,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이민자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부터가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학습해야 한다. 그렇기에 앞으로 성남, 즉 지역 사회가 인지해야 할 몇 가지 숙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다.

첫째, 결혼을 하고 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결혼이민 여성은 국민으로서 완전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보건, 교육, 복지 등 각종 제도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언어 소통의 한계와 정보 부족으로 이런 어려움은 더욱 배가될 것이다. 경제적 빈곤과 가족과의 갈등, 가족들로부터의 무시와 불신,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출신이라고 차별받으며 고립된 상황에 놓일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결혼이민 여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서비스와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5]

둘째,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그들만의 자조모임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이주 여성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 스스로 다문화 사회 형성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조례가 필요하며, 주민들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 및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5) 이은영, 「결혼이민자 가족의 현황과 사회복지 개선 방안」.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의 요리 강습

셋째, 여성 이민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한국어 이해가 가능한 결혼이민 여성에게는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취업 및 창업 교육이 필요하고, 적응 중에 있는 결혼이민 여성에게는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통역 및 번역 서비스로서 언어별 통역자·번역자를 배치하여 소수 언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사회도 기존 외국인을 그저 지원의 대상으로 삼았던 데에서 탈피해 공생 관계로 설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완비되고 이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다른 문화에 대한 성남 시민들의 이해와 개방적인 태도가 확립된 지역 사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언어 지원을 제공하고 거주와 교육·노동·복지·보건 등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보장하며 다문화에 대한 성남 시민의 의식 개발과 외국인 주민과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다문화 분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모든 사업의 중점 허브 역할을 해야 하며 유관 기관들은 성남시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이나 기타 교육 등에 대해 서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중복 사업은 최대한 줄이고 특화 사업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교육을 하더라도 동화를 중심으로 한국어를 교육하거나 검정고시를 중점으로 교육하는 등 결혼이민 여성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2013년 7월 1일로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가 개관되었다.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등록 외국인뿐만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의 처우에 관해서도 중심 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차별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우리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국내 노동자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주면서 직장 이동은 사실상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의 컴퓨터 정비사 교육

금지하고, 그나마 일이 익숙해질 만하면 출국시키는 고용허가제와 차별적인 임금제도 등을 고치지 않는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수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단속만 강화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법적 신분이 뭐든 이주노동자는 여러 면에서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역시 경제 활성화 등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득실을 따지기 전에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안산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거주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6] 조례에는 국적, 피부색, 인종, 언어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외국인 주민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공공시설물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성남시도 안산시의 모습을 학습하고 뛰어넘어 진정으로 세계화에 걸맞은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

6) 안산시는 「안산시 외국인 주민 인권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2장
한국학대학원 유학생 이야기

송치욱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릴 외국인 유학생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수는 15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의 귀화인 등은 28만여 명에 이르고,[1] 외국인 유학생은 2011년 현재 8만 9537명에 이른다. 1980년 1015명에 불과하던 것이 30년 만에 90배가량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2] 2010년 현재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53만 9996명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는 9860명으로 총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대비 1.78%를 차지하고 있다.[3]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렇게 외국인과의 공존이 많아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은 더이상 '이방인'이나 '타자'로만 인식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다양한 국가와 민족의 문화를 뜻하는 '다문화'라는 말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 특히 최근까지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가를 초월하여 지식과 자본, 그리고 기술 등을 이동시키는 주체[4]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향후 고국으로 돌아가 대학이나 연구 기관 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 문화를 그 사회에 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여기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자기 민족이나 국가의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기도 하며, 내국인(한국인)이나 다른 외국인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성남의 경우, 이러한 다문화 시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이다.

---

1)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 현재, 결혼이민자 및 인지 · 귀화자 현황은 총 28만 1295명으로 이 중 남성이 4만 5348명이고, 여성이 23만 5947명으로 여성이 절대 다수이다(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www.liveinkorea.kr)).

2) 「유학생 10만 명 시대, 그들도 '우리'다. 국내 실태와 현황」, 『경인일보』 2012년 9월 3일.

3) 정미량,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이민자 사회통합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세미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주최, 2011. 10. 27, 강남대학교 교육관 소강당, 37~39쪽.

4) 정미량,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이민자 사회통합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세미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주최, 2011. 10. 27, 강남대학교 교육관 소강당, 35쪽.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자락에 위치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전경(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한국학중앙연구원은 1978년에 개원하였고, 한국학대학원은 1980년에 문을 연 이래, 2013년 현재 30개국 12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다. 이곳은 한국과 관련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중심 대학원이다. 한국학의 내실화와 세계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학생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 양성하고 있는 곳이다. 여기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국가에서 학비 혜택은 물론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매월 소정의 국비 장학금[5]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해 양성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의 학생들은 한국의 역사와 사회를 배우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다문화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학'의 학위 과정을 마친 후 고국에서 '한국'을 가르치거나 이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며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성남의 주요한 교육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룰 것이다. 이들의 삶은 다문화 시대의 성남을 이루는 여러 가지 삶들 중 하나이다. 이곳 학생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들의 생활을 살펴보고자 한다.

5) 2013년 현재 매월 7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4년도 전기 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입생 모집 안내』, 2013. 1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의 연혁과 현황

한국학중앙연구원은 197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과학 분야에 '과학기술원'을, 인문사회 분야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세웠다. 초대 원장인 이선근李瑄根 박사[6]를 비롯하여 한국학 분야의 최고 석학들로 구성되었다. 이후 2005년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7]

한국학중앙연구원(약칭, 한중연)은 "한국 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 진흥"[8]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는 물론이고 이 분야의 교육, 출판, 번역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편찬은 한국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중연은 대학원을 설립하여 한국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자 및 교수 요원을 양성하고 있다. 한국학대학원이라는 이름으로 1980년 3월 5일 개교하였는데, 현재 총 230여 명의 재학생 중 외국인 학생이 120명 정도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사 과정 2년, 박사 과정 3년이다. 석사는 인문학부·문화예술학부·사회과학부·국제한국학부 등 4개 학부에 한국사학·인류학·민속학·정치학·한국문화학 등 15개 전공이 있으며, 박사 과정은 인문학부·문화예술학부·사회과학부 등 3개 학부 14개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외 비학위 과정으로 '연구 과정'이 있으며, 차세대 한국 학자에 대한 지원으로 세계의 한국학 전공자들 약간 명이 지원을 받으며 대

6) 이선근(李瑄根, 1905~1983) 박사는 언론인 · 교육가 · 역사학자로 본관은 전주(全州), 호는 하성(霞城)이다. 경기도 개풍 출신이다.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냈으며, 문교부장관이 되어 국사편찬위원회를 설립했다. 성균관대학교 · 영남대학교 · 동국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대표적 저서로는 『조선 최근세사』(1931) 등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7)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학대학원은 2004년에 간행된 『성남시사』를 만들 때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때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대학원의 경우에는 계열별로 구성되어 6개 개열 14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성남시사』 제5권, 2004, 269쪽.

8)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제1조(목적) 참조.

대학원 소속 외국인 학생들의 자국기가 걸려있는 한국학대학원 입구(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학원에 머무르고 있기도 하다.

1982년 첫 졸업식 이후, 지금까지 740여 명의 석사와 400여 명의 박사를 배출하였다. 이들은 전국의 주요 대학, 연구 기관, 문화 단체 등에서 교육과 연구 활동을 통해 한국학 발전의 초석 역할을 하고 있다.[9]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2014년 3월 기준으로 247명의 석·박사를 배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입학 시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수업 연한 내에서 매월 75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단 학기마다 학점이 3.7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외 한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문화학당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10]

석·박사 학위 과정뿐만 아니라 해외의 한국학 관련 연구자, 박사 학위 후보자가 한국에 체류하여 자신들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지원하는 펠로십 프로그램과 1993년부터 한국학 전공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하계 4주 동안 한국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한국 문화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11]

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http://www.aks.ac.kr) 대학원장 인사말 참조.
1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4학년도 외국인 학생 모집 안내」.
11) 정미량,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이민자 사회통합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세미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주최, 2011. 10. 27, 강남대학교 교육관 소강당, 49~50쪽.

한국에 오게 된 계기와 인상

이제부터 이들 유학생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중 2010년 부부로 유학을 와 4년째 공부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출신 자울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이들의 한국 생활을 들어보기로 한다.[12]

남편인 자울(Abishov Zaur, 정치학 전공, 현 박사 과정 3학기 차)와 부인인 바하르(Aliyeva Bahar, 사회학 전공, 현 박사 과정 2학기 차)는 입학하기 직전인 2010년에 결혼을 했다. 그들에게 한국은 결혼 후 바로 온 신혼여행지이기도 하다. 한국에서의 거주는 남편인 자울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외국이었고, 부인인 바하르는 2007년, 2009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방문한 이후 세 번째였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대학원 과정으로 몇 년씩 생활하기는 처음이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온 계기는 대부분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크게 작용한다. 한류 등으로 인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유학을 선택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학대학원을 선택한 것은 주로 교수의 추천이나 장학금, 기숙사 등의 경제적 지원이 주요한 요소이기도 하다.[13]

자울 부부의 경우에는 학부에서 아제르바이잔 외국어대학교 한국어과에서 공부를 했고,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하기 위해 이 대학원을 선택하게 되었다.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 차이점은 그들이 한국으로 유학 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직 아제르바이잔에서는 한류가 유행하기 이전이었다. 다만 한국이라면 떠오른 것이 삼성이나 현대 등의 한국 브랜드였다고 한다. 지금은 아제르바이잔도 한류의 영향으로 '코리안 러버스(Korean Lovers)'라는 모임도 만들어졌다고 한다.

한국에 오기 전 그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매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인식되

12) 자울 부부와의 인터뷰는 2013년 9월 12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13) 정미량,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이민자 사회통합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세미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주최, 2011. 10. 27, 강남대학교 교육관 소강당, 51~52쪽.

아제르바이잔 출신의 자울-바하르 부부

었다고 한다. 단순히 부지런하다는 것을 넘어 감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열심히"라는 표현이 어울린다고 할 정도로 한국인에 대한 인상이 깊었다고 한다. 물론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다보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농담도 덧붙였다.

그들의 한국학대학원에서의 생활은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알아나가는 과정이었다. 한국에 처음 온 자울의 경우는 물론이고, 부인인 바하르의 경우에 이전에 방문했음에도 머문 기간이 짧아 한국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 2007년에는 대학의 기숙사에서 공부만 했고, 2009년에는 한국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분위기가 좋은 가정에 머물렀던 탓에 한국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가질 수가 없었다고 한다.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박사 과정에 입학하여 4년여 기간 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는 단순한 여행객이나 이방인이 아닌, 한국에 거주하는 한 사람으로 한국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부부는 한국의 문화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낭비'라고 했다. 자신들의 문화에서는 어떤 물건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한국인들은 너무도 새로운 것, 특히 휴대폰 등을 새로운 것으로 자주 바꾼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식물을 많이 남기고 낭비하는 것도 지적했다.

정신없이 바쁜 학기 중의 생활

외국인 유학생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다. 대학원의 전체 4개 학부 15개 전공(박사 과정의 경우 3개 학부 14개 전공) 중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곳은 석사 과정만 있는 국제한국학부 한국문화학 전공과 사회과학부 등이다. 이들 학부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편이고 이외 다른 학부에서는 국어학·국문학과, 인류학, 종교학 등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한국사학, 철학 등의 전공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비해 내국인 학생이 더 많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의 경제 발전, 민주화 등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학대학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라 할 수 있다.

외국어로 공부하는 유학생의 어려움

유학생들이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보다도 언어이다. 한국학대학원의 유학생들은 같이 공부하는 내국인들도 놀랄 만큼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렇지만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대학원 과정의 전문 서적을 읽어 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 게다가 수업을 위해 읽어야 할 분량이 내국인들도 힘겨워 할 만큼 많은 경우가 있어, 학기 중에는 수업 준비로 다른 일은 거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학 연구의 기초 능력은 바로 한국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도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한중연의 한국어 시험이나 국가 공인 기관의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일정 기준을 넘어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

은 한국어를 게을리할 수가 없다.

한국학대학원에는 한국어 능력 배양을 위해 한국문화학당을 무료로 운영하는 등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단 국제한국학부는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한국어 능력의 기준이 덜 까다롭다).

한국어 중에서도 유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은 한자漢字이다. 한자 문화권 출신의 유학생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점이 있지만, 자울 부부와 같은 비한자 문화권의 유학생들은 전공 서적이나 몇 십 년 전의 자료를 볼 때 수없이 등장하는 한자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 때문에 자울은 대학원에 기초 과목으로 개설한 한문 수업을 듣기도 하고, 한자능력시험에 응시하는 등 별도의 공부를 하기도 한다.

기초가 없는 전공의 어려움

다음으로는 전공에 대한 어려움이 문제가 된다. 자울 부부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유학생들은 학부 과정에서 한국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대학원의 전공 서적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부하고 있다. 대학원에서는 외국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전공과목(외국인 학생을 위한 전공과목)을 개설하여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학생들은 수업 외 별도의 '스터디(Study) 모임'을 구성해 전공과 관련한 고전 등을 읽고 토론하는 경우도 많다. 자울이 속한 정치학 전공의 경우에 내국인 학생들과 함께 정치학 분야의 주요 고전들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으며, 바하르의 사회학 전공 또한 대부분의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스터디 모임을 통해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이번 2013년 두 사람의 수업과 스터디를 보면, 자울은 전공 수업 3과목에 스터디 모임 1곳(정치학 고전 읽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바하르의 경우 전공 수업 3과목에 스터디는 2개(독립신문 읽기, 한국소설 읽기 등)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학기 중의 생활은 이곳 한중연 한국학대학원 외국인 유학생들 대부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어 공부와 전공 수업, 스터디 등으로 정신없이 바쁜 학기를 보내고 있다.

빠질 수 없는 즐거움, 답사踏査

유학생들에게 답사는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다. 아제르바이잔 출신 자울-바하르 부부

한국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꼽으라면, 매년 이루어지는 답사를 빼놓을 수 없다. 이 답사 프로그램은 대학원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매년 봄에는 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체 답사'가 진행되고, 가을에는 전공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전공별 답사'가 진행된다.

'답사踏査'라고 하면, 학술 연구를 위해 현지에 방문하여 직접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봄에 이루어지는 '전체 답사'의 경우 120여 명 이상이 참여하여 대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학원의 교수와 전공별 재학생들이 준비위원회를 꾸려 일정을 계획하고 자료집, 숙박, 식사 등 전반에 걸친 준비를 한다. 답사 지역은 강원도 문화권, 경상도 문화권, 전라도 문화권 등 권역별로 매년 돌아가면서 진행된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비롯하여 참여하는 모든 재학생들은 한국의 역사와 관련한 명소, 문화유산 등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함으로써 한국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또한 답사 장소에 대한 사전 정보를 모은 답사 자료집의 집필자로 참여하고 현장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단순한 여행이 아닌 학술 조사 차원의 경험을 하게 된다.

전체 답사는 이러한 학술적인 차원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문적 동료로서의 교류를 증진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전체 답사가 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자들 중에는 내외국인 신입생들 중의 대부분이 참여하게 된다. 2박 3일 동안 진행하는 답사를 통해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대학원의 같은 동료로서 친밀감과 교류를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또 봄의 전체 답사가 중요한 것은 새로운 얼굴들과 더 많이 친숙해질 기회를 제

공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신입생의 경우는 1학기(봄)와 2학기(가을) 2번에 걸쳐 신입생이 입학하지만, 내국인의 경우에는 1학기에만 신입생이 입학하기 때문에 봄 학기에 새로운 얼굴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된다. 봄에 이루어지는 전체 답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과 내국인 학생들은 전공을 넘어 폭넓은 친밀감을 형성하게 된다.

가을에 이루어지는 '전공별 답사'는 전공별로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전체 답사의 경우 전공별로 교류를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전공의 특성을 살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가을에 이루어지는 전공별 답사는 답사 지역, 일정, 방식 등을 모두 전공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전공별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숙박을 하지 않는 답사부터 시작하여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하게 기간을 설정하고, 답사의 주제와 장소는 전통시대의 문화 유적부터 근대의 문화 유적까지 다양하게 선정된다.

박사 과정의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해외 학술 답사를 진행한다. 박사 과정 6~7차 학기에 재학 중인 국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해당하는 학생들이 답사할 지역을 선정해 진행한다. 해외 학술 답사는 '우리 문화의 전파와 교류에 대한 이해의 수준과 폭을 높이기 위해'[14] 진행된다.

유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대학원의 과정에서 준비되고 진행되는 답사가 매우 중요하다. 매년 이루어지는 대학원 차원의 답사 외에도 한국학대학원에서는 수업 차원의 답사도 종종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준비되는 답사는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해 정보가 빈약한 유학생에게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유학생의 경우 방학 중을 이용하여 몇몇 유명한 곳은 개별적으로 방문할 수 있겠지만, 대학원 차원의 답사를 통해 일반 여행으로는 갈 수 없는 곳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곳, 기숙사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시습재時習齋'라는 이름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습재'라는 이름은 『논어』 학이學而편의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현재 총 222명 가운데 내국인 학생

1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요람 2009~2010』, 2009, 285쪽.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정에서 봄을 즐기는 아제르바이잔 출신 자울-바하르 부부

이 82명, 외국인이 140명(남 40명, 여 100명)이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15] 한중연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저렴한 비용[16]으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민족의 유학생들이 같은 건물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시습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민족 출신들끼리 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제법 있다. 문화적인 차이, 성격적인 차이로 인해 룸메이트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였다는 점에서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다.

층별로 남녀가 생활하는 곳이 나눠져 있지만 자울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로서 같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자울 부부가 2010년도 입학할 당시, 대학원에 부부 학생이 같은 방에서 생활하도록 한 제도가 없었다. 이들 부부의 입학으로 인해 제도가 마련되었고, 이후 대학원에서 결혼한 부부는 같은 방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

15) 기숙사 사감보와의 전화 인터뷰(2013. 10. 2).

16) 2013년 현재 학기당(6개월) 47만 7400원(2인실 기준)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4년도 전기 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입생 모집 안내」 참조.

자울 부부에 따르면 기숙사 생활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한다. 자울 부부는 잠깐 동안 외부에서 방을 얻어 생활한 경험이 있어 비교하며 들을 수 있었다. 기숙사의 좋은 점은 경제적인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만만찮은 생활비가 필요한데, 기숙사가 아닌 곳에서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숙사가 한중연 내에 소재하고 있어, 수업의 참여, 연구실, 도서관 등 연구원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기숙사의 생활은 학업의 연장으로 느껴지는 점이 좋지 않다고 말한다. 외부에서 통학하면, 학업에 열중하는 시간과 개인적인 시간이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것이다.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개인적 생활 공간인 집에서 해소할 수가 있는데, 기숙사에서의 생활은 이러한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학업의 스트레스를 공간적으로 연장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부인인 바하르의 경우는 기숙사가 자기 집이라는 느낌이 없었지만, 외부에서 얻은 집은 자기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 애착이 갔다고 하였다. 이 점은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유학생들에게 기숙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문제이다. 한중연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이 있고 이곳에서 365일 하루 세끼 식사를 할 수 있지만, 구내식당의 식단으로는 30개국의 다양한 학생들의 음식 문화를 충족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해 별도로 취사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다양한 음식들이 함께 조리되고 향유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유학생들은 고국에서 가져온 음식 재료나 이태원 등에서 구입한 재료를 가지고 각자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한 유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몇몇 모임이 종종 이루어진다. 기숙사 내의 학생 휴게실에서는 학위를 마치고 귀국하는 학우를 위한 송별회, 생일 파티, 할로윈데이나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파티 등이 열리기도 한다.

그 밖의 이야기

밀린 독서와 여행의 기회를 주는 방학

학교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방학'이다. 공부하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대학원생들에게 방학이라는 것이 초·중·고교나 학부의 학생들과 다를 수 있지만, 언어적인 문제로 수업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학기 중 엄두도 못 냈던 것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진다.

방학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잠깐이나마 고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다. 비행기 표 값 등 경제적인 이유,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많은 기간을 고국에서 보낼 수는 없고 자주 갈 수는 없지만, 가족들과 고국의 지인들을 만나며 향수병鄕愁病을 달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많은 유학생들은 학기 중에 읽지 못했던 책이나 여행 등을 통해 학업을 보충하거나 한국의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도 한다.

자울 부부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부인인 바하르는 전공 공부로 인해 학기 중에는 보지 못했던 소설책 등을 많이 보거나,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한다. 부부는 이번 방학(2013년 여름) 기간을 이용해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경주와 울산 등을 여행했다고 한다.

유학생들은 방학이나 연휴 기간을 이용해 국내의 명소들을 여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자울 부부는 그동안 한국에서 가보았던 곳 중 가장 좋았던 곳으로 제주도를 꼽고 있다. 제주도가 좋은 이유는 '한국이면서도 한국이 아닌 느낌을 주는 곳'이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경주 또한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대학원의 방학에는 이런 독서와 여행이라는 여유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학을 배우고 연구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한국어 공부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원에서는 한국문화학당의 한국어 집중 강좌를 여름과 겨울의 방학 기간 동안에 개설하여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다. 유학생 개개인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이 과정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지공예 체험

을 이수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수업을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고, 방학 중에는 밀린 공부와 한국어 강좌를 듣느라 여념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학위 취득과 졸업 후의 진로

대학원생으로서 학위 과정을 마친다는 것은 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학위를 취득한다는 것이다. 석사 2년과 박사 3년의 수업 활동 기간(코스워크, coursework)을 마치고 수료를 즈음하여, 논문 제출 자격시험과 어학시험(유학생은 한국어시험)에 합격하면, 논문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유학생들은 한국어라는 외국어로 논문을 제출해야 하기에 학위 논문을 쓰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논문을 쓰면서 본격적인 학업의 스트레

스에 시달리게 된다. 자울 부부는 2010년 석사 과정에 입학해 모두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 그 과정을 충분히 경험하였다.

그런 스트레스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는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박사 과정에 입학해 공부를 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한중연의 유학생들은 박사 과정으로 진학을 가장 많이 희망한다고 한다.[17]

현재 자울의 경우는 정치학 분야에서 국제 관계(한미 관계)와 관련한 분야를 공부하고 있으며, 바하르는 한국의 테마파크 등을 연구하는 여가사회학 또는 문화사회학이라는 분야를 공부하고 있다. 자울 부부의 이러한 전공은 다른 아제르바이잔의 유학생들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들에 의하면 아제르바이잔 출신 유학생이 전국에 약 80여 명이 되는데, 이들 중 많은 유학생들이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에서 IT 분야를 전공하고 있고, 이와 비슷하게 각 대학에서 경영학 등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즉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한국의 IT를 배우러 오거나, 경영학 등 실용적인 학문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들 부부는 석사 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박사 학위 논문 또한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것으로 준비 중이다. 전공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학과 관련된 주제 중에서 고국과 관련 있는 것을 찾아 논문을 쓰는 경우가 많다. 고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고국의 자료를 통해 특유한 주제의 논문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내 놓은 논문들은 다양한 국가와 인물, 사회 현상 등과 관련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 결과들은 한국 학계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학위를 취득한 후에는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고국으로 돌아간다. 박사 과정을 마친 유학생들은 고국의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국학을 공부한 장점, 한국어 실력을 통해 한국과 관련된 분야나 한국계 기업의 외국지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자울 부부와 같은 아제르바이잔 출신을 예로 든다면, 이 대학원을 다녔던 아제르바이잔 출신 학생은 3명인데, 한 명은 개인 사업을 하고 두 명은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의 직원이라고 한다.

---

17) 정미량,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이민자 사회통합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세미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주최, 2011. 10. 27, 강남대학교 교육관 소강당, 51쪽.

자울 부부 또한 학위 과정을 거친 후 고국으로 돌아가 이 분야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며, 학위를 취득한 후에 진로를 결정할 것이라고는 말하지만,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최근 한국학 연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하니, 한국의 학계에서 생활하기보다 고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한중연 생활 이야기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분당구 운중동의 청계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매우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최근의 판교지구 택지 개발이 있기 전까지는 도시와 동떨어진 분위기가 있었다. 이러한 조용한 분위기는 연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연구원에게는 매우 적당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크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연구원과 조용한 분위기는 공부하기에 적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의 입장에서는 약간 다를 수 있다고 한다. 수업과 논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용한 분위기의 연구원이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다. 공부하는 곳이기에 모두들 자기 공부나 논문 쓰는데 바쁘다 보니 학생들 간 교류가 많지 않은 것도 그 답답함의 원인으로 생각된다고 자울 부부는 말한다. 게다가 연구원 주변에는 이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유학생들은 서울의 명동이나 동대문, 이태원 등 서울의 번화가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태원의 경우는 자울 부부가 자주 가는 곳으로, 그곳은 한국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문화와 음식이 존재하며, 모스크(mosque)라는 이슬람 예배당이 있어 자주 방문한다고 한다. 성남에서는 자주 가는 곳이 서현역, 야탑역 부근이라고 한다. 자울 부부를 비롯한 유학생들은 이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영화 등의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한다.

한중연의 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식사 문제라고 유학생들은 입을 모은다. 한중연의 구내식당은 연구원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식단을 준비하고 있기에 다양한 문화의 유학생들의 입맛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자울 부부와 같이 종교적인 이유(자울 부부는 이슬람교도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음)로 금기禁忌하는 음식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원 주변의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만족스럽지 않은 식단으로 인해 유학생들은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적 손실을 감수하고 외

부에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원 생활에서 좋게 생각하는 것은 답사 등 앞에서 소개했던 것 외에도 24시간 열려 있는 대학원생 연구실, 편안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연구원 등이다. 그리고 매 학기 전공별로 진행하는 신입생 환영회, 종강 파티 등의 모임도 학생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좋은 것으로 꼽고 있다. 자울의 경우에는 비록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내국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저녁 식사 후 이어지는 2차, 3차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학생들과의 깊이 있는 친목도 그렇지만 한국인들이 2차, 3차를 거치면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감정들이 점점 고조되어 나가는 것이 재미있다고 한다.

한중연이 대학원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장점도 있다. 대학원은 한중연의 한 기관일 뿐이고 여러 곳의 연구센터나 연구소들이 있다. 학제 간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 많고 여러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나 콜로키움 등의 소규모 학술 행사들이 많아 예비 연구자로서의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내 · 외국인 간의 편견이 더 없어졌으면

최근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제대로 된 관리가 부족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Study Korea Project' 등의 제도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유학생들이 급증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이 친한親韓 정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보도에 의하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한국으로의 유학을 권유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23.3%나 됐고, 반한 정서가 있다고 답한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18]고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필자가 보기에 한중연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러한 조사와 다르다고 생각되지만, 보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양성하여 한국학 분야의 저명한 학자로 키워 내기 위해서라도 유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프로그램과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 생활에서 자울 부부가 바라는 것은 내국인 학생들과 친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들 부부는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들 간

18) 「창간 68주년, 다문화를 말하다」, 『경인일보』 2013년 9월 4일.

성남문화원 주관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 중인 외국인 관광객

의 거리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내국인들 중에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내외국인 학생들의 비율이 비슷하고, 사회과학부의 경우 외국인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지만 유학생들은 내국인 학생들의 태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부부는 대학원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축제나 각국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행사 등이 자주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는 매년 7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한다. 이들은 2년 이상의 정해진 과정을 통해 한국학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접한 후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간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들의 삶은 여러 다양한 삶 중 한 편린片鱗에 불과할 것이다.

이들에게 '한국은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그리고 여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공부했던 것을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그러나 그런 의문도 잠시, 자울 부부가 말한 '편견'이라는 말이 맴돌았다.

질문을 다시 해야겠다. '우리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과연 우리는 다문화시대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민족적인 편견

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도 질문해야겠다.

만약 우리가 그런 편견을 깰 때 그들도 한국과 한국에서 이방인으로서가 아닌 함께 사는 거주자로서 생활할 것이고, 이러한 삶이 그들에게 편안함과 좋은 기억을 선사하는 것은 아닐지, 그것이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제3장
이주노동자에서 성남 시민이 된 어느 중국동포

한준성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그의 집에서 가진 마지막 인터뷰 때였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그는 아내와 함께 손수 만든 고추멸치볶음과 맥주 한 병을 내어 주었다.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정감어린 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맥주 한 잔을 한숨에 들이켠 그의 눈시울은 어느새 지나간 칠십여 년 삶의 굴곡들에 대한 회한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전상명(全相明)씨이다. 이 글은 전씨의 지난 칠십 평생에 대한 기억을 펼쳐 보이면서 이주노동자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성남의 시민이 된 한 조선족의 생애사를 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이제 전씨의 마음 속 기억의 시공간을 따라가며 굴곡진 그의 생애와 그가 거쳐 간 사회의 풍경을 들여다보도록 하자.

'파란곡절'의 어린 시절

"파란곡절이 많았어요."

올해 칠순인 전상명씨는 자신의 유소년 시절을 이렇게 기억했다. 전씨의 가족은 1940년 경상북도 영천의 고향 마을을 뒤로 하고 간도 지역으로 머나먼 이주의 길을 떠났다. 당시에 전씨 가족을 포함해 많은 조선인들이 그리로 떠나갔다. 누군가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먹고살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다른 누군가는 일제의 강제 동원으로 인해 억울한 심정을 꾹꾹 누르며 조상 대대로 지켜온 땅과 작별해야만 했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에게 간도 지역은 피난처인 동시에 민족의 생활과 독립의 터전을 일구어 간 개척의 땅이기도 했다. 전씨 가족 역시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 타는 마음 삭이며,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그 먼 별리의 이주 길에 들어섰다. 그 길 끝에 전씨 가족이 당도한 곳은 길림성 유수현이라는 곳이었다. 전씨는 이곳에서 1944년 음력 11월 14일, 집안의 막둥이로 태어났고, 난 지 얼마 안 되어 길림성 내 서란현으로 거처를 옮겼다.

당시 그의 가족은 조모와 부모, 영천 태생의 형 둘과 길림성에서 난 두 살 터울의 누나 하나, 이렇게 모두 일곱이었다. 객지에서 그 많은 가족들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고, 험난한 삶이 주는 곤고困苦함은 가혹한 것이었다. 전씨의 어머니는 막둥이가 돌이 지나기도 전에 사진 한 장 남겨 두지 않은 채 세상을 뜨셨다. 이후 '서란진 조선족 중심소학교'에 들어간 전씨는 5학년인 열두 살에 아버지마저 잃고 말았다. 아내를 여의고 난 뒤 가족을 건사하며 보낸 힘든 시간 속에서 약주를 벗삼아 외로운 타지 생활을 하셨던 아버지도 이내 어머니 곁으로 떠나 버리셨다. 전씨는 그 당시 아버지의 행상行喪에 함께한 이웃의 말을 기억했다.

> 행상 나가는데 이웃의 아줌마들이 다 와가지고 '어머님 데려가이소' 막 이러더라고. '어머님 같이 모셔가이소' 막 이러더라고. 할머니가 연세가 많고 그러니까 모셔가라고 그러더라고요.

1958년 3월, 둘째 형(앉은 사람)의 군 입대를 앞두고 형제가 함께 찍은 사진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치매기가 있던 여든이 넘은 노구의 할머니도 이듬해에 어린 손주들을 남겨 두고 아들의 뒤를 따라 하세했다. 그렇게 전씨의 조모와 부모는 다시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타관 객지에서 한 서린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같은 해 집안 어른들과의 사별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열다섯 꽃다운 나이의 하나뿐인 누나마저 비명에 망자가 되었다. 이제 열 셋의 전씨에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형 둘뿐이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함께 살지를 못했다.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두 형은 마을을 떠나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고, '서란현 조선족 제일중학교'에 들어간 전씨는 형들과 떨어져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다. 난생 처음 가족과 떨어져 혈혈단신의 삶을 체험하게 된 것이다. 전씨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과 형들이 번 돈의 일부를 받아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며 지냈다. 또한 그는 중학교 시절 수시로 이런저런 집단 작업에 동원되어 일을 했다.

> 중학교 학생들까지도 전국이 대동해가지고 '대량으로 강철을 생산하자' 막 이래가지고 …… 양식 같은 거도 다 소련 빚 갚는다고 그래서 먹을 게 없었어요. 군대에서는 깡낭송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배식품으로 사람 먹게끔 하고 옥수수 알 다 까고 안에 그걸 다 갈아가지고 식품 대신으로 그냥 해가 먹고 야단하고 말도 아니었어요. …… 밤에도 그냥 나가가 일하고 그랬다고요. …… 우리도 그냥 그 숙사에 있으면서도 학생들 다 동원해가지고 시내 거기 가가 …… 숯불 같은 거 피워놓고, 철광석 갖다가 망치 같은 거 갖다가 깨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유난히 몸이 허약했던 전씨의 건강은 이러한 중학교 생활 속에서

더 악화되었다. 병치레가 부쩍 늘었고, 특히 이유를 모르는 손과 발의 통증은 참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인근 위생소를 찾아 침도 맞고 약도 써 봤지만 통증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전씨는 고등학교 진학은 고사하고 중학교 학업마저도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학교에서 전씨의 딱한 사정을 이해했던지 그에게 졸업장을 주었던 것이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난 전씨에게는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 그 후로는 말 그대로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의 정처 없는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당시 그는 두 형이 일하는 곳을 번갈아 찾으며 임시로 지내기도 했다. 그러던 중 마침 큰형이 결혼을 했고, 전씨는 길림시 용담구 강북향 2가촌의 한 농촌 마을에 있던 형수 친정집에서 살게 되었다. 큰형 내외가 모두 다른 곳에서 일을 하던 터라 전씨를 직접 돌봐줄 수 없기에 그곳에서 신세지게 된 것이다. 그곳에서도 전씨는 한동안 몸이 너무 약해서 농사일을 거들기조차 어려웠다. 전씨는 당시 논농사는 중국동포들 사이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는 방식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기에 단순한 일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 중국에서 동포들을 만나게 되면 …… 논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산에다 화전밭 그런 걸 좋아하지만도 중국에 간 조선 사람들은 주로 논농사를 많이 하거든요.

형수 댁에 지내면서 점차 기력을 회복한 전씨는 마을에서 다른 조선족들과 함께 농사일을 하며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갓 스물을 넘긴 청년, 북한 땅을 밟다

1964년 이른 봄, 갓 스물을 넘긴 청년 전상명씨는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북한 땅을 밟게 된다. 남과 북이 영토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분단된 엄혹한 시절에 북한행이라니 무척 위험하게 들린다. 하지만 당시 전씨에게 북한행은 큰 결단을 요구하는 선택이 아니었다. 당시 한반도 영토와 그 경계선에 대한 조선족들의 관념은 우리의 통상적인 사고와 그 결이 달랐다. 전씨와 같은 중국동포에게 북한은 낯설고 어려운 곳이 아니라 오히려 친숙한 기억의 터에 가까웠다.

> 그때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잖아요. …… 중국의 연변이라고 하면 한 개의 자치주거든요. 조선족 자치주라고 하는데, 거기는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거의 고향이 북한이에요. 접경지대가 북한하고 많이 가깝고, 어떤 때는 강 하나, 두만강 하나 사이로 그냥 그러고 ……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저쪽에는 북한 사람들 하는 거 다 보이고.

전상명씨는 그 당시 많은 중국동포들의 북한행은 북한에 대한 그들의 정서나 태도와도 관련이 있지만, 북한이 중국동포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했다는 점도 이들의 북한행을 촉진시킨 요인이었다고 말한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1960년부터 1964년까지 북한은 중국동포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 공민증까지 주었다고 한다. 전씨는 당시 북한이 '중국에 있는 동포들도 우리나라 사람이다', '나라가 버젓이 있는데 왜 중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의 조선족이라고 하느냐?'라는 논리로 조선족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기억했다.

전씨는 수많은 중국동포들이 북한 땅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북한에 정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당시 북한에 머물러 산 사람들의 수가 대략 십여 만 명일 것으로 추정했다. 전상명씨는 당시 중국동포들이 가족 단위로 새로운 정착지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행을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체로 젊은 중국동포들이 공부를 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 북한으로 건너간 것으로 기억했다. 전씨도 예외가 아니었다. 갓 스물을 넘긴 전씨는 무엇보다도 허약한 몸 때

문에 중단했던 학업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던 터라 상급 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북한행을 결심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북쪽 '코리안 드림'은 기대했던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는 못다 한 학업을 하기는커녕 황해남도 송화에 있는 큰 과수농장에 배치되어 타지에서 온 많은 청년들과 함께 농장 일을 하며 합숙 생활을 했다. 전씨는 그렇게 청운의 기대가 꺾인 채 북에 체류하고 있었고, 중국에 있는 가족들마저 편지를 보내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권유하자 이듬해 초봄에 압록강을 건너 길림으로 되돌아갔다.

> 기차 타고 휴가 가는 셈치고 만포 그리로 나왔다가 …… 내가 올 때는 초대소 같은 거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 중국에서 건너오는 교포들도 안 받았고 …… '나는 중국에서 왔다' 그러니깐, 도로 중국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맨 중국에서 입던 옷 그거 그대로 입고 갔는데 …… 그래서 일 년 좀 못 있다 돌아왔어요. …… 원래는 학교 갈라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 그래서 65년도에 왔는데 와가지고는 …… 회사 같은 데 그런 데서 임시공으로 일당 받기도 하고 지냈죠.

혼란기 속에 일군 소중한 가정

학업의 꿈을 접은 채 헛헛한 마음으로 돌아온 전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일대에 벌어진 문화대혁명(1966~1976)의 혼란기를 겪게 된다.

> 66년도인가 해서 문화혁명이 일어났어요. 중국에서 10년간 전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머물러 있었다고요. 문화혁명 일어나서 사회가 문란하고 굉장했죠. 군인들도 군인들끼리 서로 파벌이 생기고, 집안에서도 서로 다른 패가 되어 가지고 싸우고 했어요. 동포들 사이에서도 맨 마찬가지였어요. 이후 10년간 전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으니깐 중국에서도 한심했지.

결혼을 앞둔 전씨 내외의 모습. 사진사가 사진에 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라는 뜻의 '호조호애(互助互愛)'라는 말이 눈에 띈다.

그는 장기간 지속된 문화대혁명 시기가 극심한 혼란기이자 정체기였고, 동포 사회도 그 여파에서 예외 지대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조선족 사회에서 소수 민족의 민족주의적 색채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전개된 반우파 투쟁과 민족정풍운동에 이어서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조선족 사회에 대해 전개된 중국의 동화 정책으로 인해 조선족들은 큰 수난을 겪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이 무려 2653명에 이르렀을 정도로 문화대혁명 시기에 조선족 사회는 말 그대로 '재해지구'였다.[1] 전씨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조선족 사회에서는 보통 한 마을이 한 '패'를 이루었기 때문에 마을 내에는 마을 간의 반목에 비해 갈등의 정도가 그나마 덜한 편이었다고 한다.

어찌 되었든 전상명씨는 바로 그러한 격동과 혼란의 시기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일구면서 자신의 삶의 토대를 다져 나갔다. 전씨는 1970년 봄, 나이 스물일곱에 길림성 서란에서 세 살 아래의 최선옥崔善玉씨와 결혼해서 이듬해부터 두 살 터울로 아들 둘과 딸 둘을 낳아 길렀다. 첫째, 넷째는 아들이고 중간에 둘은 딸이다. 사랑받고 자라야 할 어린 시절에 줄줄이 혈족을 잃고 세 형제만 남게 되었고, 그마저도 같이 살 처지가 되지 못해 외로이 생활해 왔던 전씨는 가장 혼란한 시절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정을 일구어 나갔다.

당시 전씨는 주로 농사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전씨는 대략 30세대를 포함하는 소대를 기준으로 배분된 토지경작권에 따라 집체 방식으로 주민들과 함께 농사짓고, 토론하고, 회의하며 평범하게 살았다. 그리고 그는 시간이 남으면 시내로 나가 날품팔이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에 중국 정부가 토지를 식구수에 따라서 개인에게 나눠 주는 식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그렇게 점차 집단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전씨는 그렇게 늘어난 개인적 시간들을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말 그대로 '호조호애互助互愛'하며 지낼 수 있었다.

1) 곽승지, 『조선족, 그들은 누구인가』, 인간사랑, 2013, 257쪽.

친족을 찾아 나선 한국행, 그리고 '이주노동자'로서의 삶

1992년 6월 19일, 전상명씨는 마침내 아버지의 고향 땅을 밟게 되었다. 전씨 가족이 중국 길림으로 이주한 지 50여 년 만이었고, 전씨가 북한 땅을 밟은 지 30년 가까이 되던 때였다. 전씨의 두 발은 영토와 이념의 경계가 낸 상처들을 어루만지며 중국 땅 위를, 북한 땅 위를, 그리고 마침내 한국 땅 위를 내딛었다. 조선족이었던 전씨에게 그 모든 경계의 선은 인위적이고 불편한 것으로 느껴질 뿐이었다.

전씨의 한국행은, 한국 땅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친지를 찾아야겠다는 그의 의지가 '사회교육방송국'이라는 매체의 효과를 등에 업으면서 일사천리로 성사되었다. 당시 라디오 방송인 '사회교육방송국'은 중국동포 사회와 한국 사회의 주요한 소통 창구였다. 한국과 중국 간에 정식 수교가 맺어지기 전에는 중국 정부에서 남한 방송을 못 듣게 했다고는 하지만 수많은 중국동포들, 특히 이 가운데 한국에 친지가 있는 동포들은 거의 모두 방송을 들으면서 지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포가 중국 정부로부터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가 어머니와 상봉한 소식이 라디오 전파를 타고 중국동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전씨 또한 한국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친지를 찾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겨나 작은 삼촌네 식구를 찾는 편지를 사회교육방송국에 직접 써 보냈다.

> 그 방송을 듣고 나도 '사회교육방송국'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우리는 원래 경상북도 영천에 살았는데, 어느 때에 중국으로 왔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이 얼마고 어머니는 …… 작은아버지는 원래 일본에 있었는데, …… 옛날에 인편으로 중국으로 편지 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광복되고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편지 썼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되어서 영천에 있는 둘째 사촌 동생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 자기는 못 들었는데, 그 마을에 있는 같은 종씨, 전씨 집안에 있는 사람이 밤에 무슨 작업하다가 방송을 듣고 얘기해가지고 '사회교육방송국'에 전화하니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찾아보니까 내가 사진을 다 동봉해 보냈거든요. 작은아버지하고 작은 엄마 젊었을 때 같이 찍은 사진을 동봉해 보냈더니 그게 …… 맞다

고 그러면서 …… 그래서 '작은 아버지하고 작은 엄마 다 살아 계시고 형제는 네 형제다' 이러면서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 얼마 안 되어 영천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둘째 사촌 동생이 초청장과 인천항으로 오는 배표 두 장을 (당시는 한중 수교 전이라 양국 간 비행기 편이 없었음) 보내왔다. 전상명씨는 당시 길림의 한 섬유 공장에서 일하며 지내던 큰형과 함께 3개월짜리 단기 체류 비자를 받아 마침내 한국 땅을 밟게 되었다. 고국 땅을 다시 밟아 보지 못하고 머나먼 타지에서 불귀의 객이 된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신해 한국 땅을 밟은 것이다. 인천항에 도착하니 전씨의 셋째 사촌 동생이 마중 나와 있었다.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해 밤늦게 영천에 도착해보니 숙부와 숙모, 그리고 사촌 형제들이 다 모여 있었다. 그날은 그간 서로 몰랐던 가족 소식들을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전씨 형제는 얼마 뒤 조상 묘에 들러 자신의 뿌리를 직접 확인했다. 이후 영천에 있는 외갓집을 찾았는데, 그때 전씨는 이모 얼굴에서 생면부지로 떠나보낸 어머니의 얼굴 모습을 엿보기도 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을 보낸 뒤 전씨 형제는 곧 영천 인근의 작업장들을 찾아 일을 시작했다. 이후 형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전씨는 한국에 남아 있기로 했다. 이른바 '이주노동자'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는 입국 당시만 하더라도 조금 머물다가 돌아간다는 생각이었지만, 함께 입국한 다른 중국동포들과 통화해 보니 대체로 한국에 머무른다기에 큰 고민 없이 더 남기로 결정했다. 더욱이 자신을 '한인韓人'으로 부르는 전씨에게 부모님의 고향 땅에 머무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전상명씨는 그 후로 경상남도 일대에서, 주로 부산과 양산 지역에서 닥치는 대로 일하며 지냈다.

그렇게 일하다가 그는 이듬해 한 지인의 소개로 양산에 있는 가구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임금 체불을 견디다 못해 가구 공장을 나왔고, 현대중공업의 한 하청 업체로 작업장을 옮겼다. 그곳에서 그가 한 일은 용접된 부위를 갈고 손질하는 일, 중장비 부품을 조립하는 일, 포장하고 짐을 운반하는 일 등이었다. 당시 그의 월급은 60만 원이었지만 연장 근무나 철야 근무를 해서 매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다. 이미 장년이 된 전씨에게 공장 일은 무척 힘든 작업이었다. 하지만 중국에 남기고 온 가족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참고 계속 일했다.

당시 전씨에게 작업장의 공간은 일상의 공간이기도 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전씨뿐 아니라 당시 한국으로 건너온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겪었던 공통된 경험이

영천의 작은 삼촌 댁(1992, 왼쪽에서 두 번째가 전씨, 맨 우측이 전씨의 큰형, 나머지 네 사람은 전씨의 사촌)

기도 했다. 이들이 일하는 곳이 많은 경우 영세업체이다 보니 개인당 일감이 많은 편이고 급하게 납기일을 맞추어야 하는 때가 많아 야간 근로를 수시로 해야 할뿐더러 마땅한 숙소를 마련해 주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들의 숙소가 작업장 건물 안이나 인근에 마련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전씨의 기억에 따르면,

> 당시에는 숙소가 공장 작업장 바로 위에 있었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러니깐 …… 컨테이너 비슷한데, 근데 크지. 가건물 형식인데 컸고, 용접해가지고 밖으로는 기와 같은 걸로 그래 놓고 했죠. …… 잠자는 건 …… 가끔씩은 실습생들이 와서 둘이 같이 자기도 하고 …… 식사도 공장에 식당이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거기서 다 먹었죠.

전씨는 그때 일하던 경험을 떠올리며 문화적 차이에 관하여, 그 가운데 특히 근무할 때 등급이나 위계가 너무 강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의 이런 심경은 한국에 온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공감하는 것이기도 하다.

> 눈꼴사나운 것은 한국에 오니깐 좀 사장이나 되면 남한에서는 자기 아들 같은 사람한

테 '예 예'하고 허리 굽히고, 그런 게 꼴 보기 싫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안 그러죠. 여기 와서 말 들으니깐 군에 간 신병들은 기합도 받고, 애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엔 그런 게 없다고요. 중국에서 관병일치라서, 평상시에 병사하고 장교하고 씨름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지. 훈련하는 기간에는 안 그래도 보통 때는 장난도 치고 하는데, 여기는 조금 오래된 고참만 되어서 신병들한테 못살게 굴고 하는 거 잘못되었다고 봐요.

전씨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이전에 일했던 가구 공장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마지못해 가서 일손을 거들어 주기도 했다. 심지어 차후에 돌려받기로 하고 한국에서 어렵게 모은 1400만 원의 거액을(이 돈은 당시 중국에서 괜찮은 아파트 하나를 구입할 정도의 거액이었다고 함) 급전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하던 가구 공장에 빌려 주기도 했다. 그의 말로는 당시에는 저축통장을 만들 수도 없고, 봉급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고, 또한 가구 공장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직접 본 기억도 있고 해서 믿고 빌려 줬다고 한다. 그는 아직까지도 이 돈을 직접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일례로 전씨가 일했던 또 다른 회사에서는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근로자들이 남은 자재를 처분해 얼마 안 되는 돈을 나눠 가지고 헤어진 적도 있었다고 한다.

전상명씨는 이렇듯 힘들게 홀로 생활하다보니 중국에 두고 온 가족들이 그리울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에는 지금처럼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고 전화기 역시 흔한 통신 수단이 아니었다. 그러다보니 전씨는 보고 싶은 가족과도 통화를 자주 할 수 없었다. 통화하려면 우선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전화기가 있는 집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 모이고, 그때 전씨가 전화를 걸어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는 식이었다. 전씨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전화를 했는데, 그마저도 가족들에게 전화가 있는 친척 집을 찾아 이동하는 수고로움을 끼치는 것 같아 부끄러웠다고 한다.

그렇게 지내며 5년이 흘렀고, 마침내 전씨는 외환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하던 1997년 말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그때는 이미 한중 수교가 맺어지고 양국 간 취항 항공 노선이 만들어졌기에 배편 대신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하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면서도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우선 중국의 생활 수준에 비추어 보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믿고 빌려준 업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채 법적 조치만 취해 놓고 떠나야 했던 상황이었다. 게다가 공장 일이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뿐더러 아버지의 고향일 뿐 사실상 객지 생활이나 마찬가지였던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서의 삶이 주는 육체적, 심적 피로함에 많이 지쳐 있

어 그만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1964년에 갓 스물을 넘긴 청년이 북한행을 선택할 때 가졌던 첫 번째 '코리안 드림'이 꺾여 버렸다면, 1992년에 장년이 되어 들어온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살면서 가졌던 또 다른 '코리안 드림'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중국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바라본 한국 땅은 그에게 어떤 모습이었을까?

두 번째 한국행, 그리고 성남살이

전상명씨는 2001년 4월 28일 다시 한국 땅을 밟았다. 9년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촌 동생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입국했는데, 이번에는 그의 아내도 함께했다. 전씨의 두 번째 한국행 결심에는 1997년에 한국을 떠나면서 내심 해결을 기대했던 돈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한몫했을 테지만, 이미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던 아들 가족을 보기 위한 마음도 컸다. 그러나 그는 혈족과의 상봉을 목적으로 했던 첫 입국 때와는 달리 특별한 감정을 갖지는 않았다. 실제로 그 당시 중국동포들 사이에서는 한국행 자체가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 있었다. 전씨는 그때 중국 조선족 마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애들, 학교 다니는 애들 그렇지. 뭐 일반적으로 나와서 일할 사람들은 거의 다 나왔어요. …… 그러니깐 시골에는 일 못하는 사람들하고 학생들, 학교 다니고 하는 사람들만 그러지 뭐. 능히 한국에 와서 일하고 할 사람들은 다 와 있고.

전씨의 두 번째 한국행의 도착지는 영천이 아니라 성남이었다. 흥미롭게도 그의

두 번째 '이주'의 종착지 성남은 이주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했다. 전씨가 중국에서 한창이던 문화대혁명의 격동기를 보내고 있던 1969년 5월부터 1971년 8월까지 한국에서는 무려 12만 6215명의 철거민들이 서울을 뒤로하고 지금의 성남시 일대로 강제 이주를 떠났다.[2] 현재도 찾을 수 있는, 당시 철거 이주민을 대상으로 마련된 분할 토지 위로 들어선 낡은 건물들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 위로 부는 바람은 이들이 당시에 겪었던 인생 역정을 조용히 노래하고 있는 듯하다. 전씨가 이런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 성남을 정착지로 택한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큰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정착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씨 내외는 성남에 온 뒤 중원구 상대원동에 집을 구해 큰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전씨는 자식에게 신세를 지는 대신 직접 구직 활동에 나섰다. 구인 정보지를 보고 롯데제과에 지원하여 미금에 있는 제과 물류창고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가 하는 일은 물류창고에서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각종 제과류를 부리고 싣는 작업이었고, 월급으로 9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곳에서 팀 단위로 한 주는 주간에, 또 다른 한 주는 야간으로 교대 근무하며 약 3년간 성실히 일했다. 야간 작업은 대략 저녁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이어지는데 주로 하차 작업을 하거나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전표를 확인해 각지로 배송될 물품을 차량에 싣는 일을 했다. 그러던 중 일부 업무만 남겨두고 회사가 서울로 이전하면서 일이 크게 줄게 되었다. 하지만 일감이 몰릴 때 짐을 나르고 싣는 일은 이미 환갑을 눈앞에 둔 전씨에게는 감당키 어려울 만큼 고됐고, 결국에는 너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 일이 들어오면 껌 17킬로 한길 높이 컨테이너 안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억수로 힘들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만 뽑았는데도 내가 힘이 들어서 그만두고 나왔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전상명씨에게도 중국동포 출신의 '이주노동자'로 살면서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체류 자격 문제로 인한 고통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는 그가 정부의 체류 연장 방침에 따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몇 차례 체류 연장을 받으면서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2) 고건, 「철거민 눈물이 '개발 후 입주' 정책 씨앗 됐다」, 『중앙일보』 2013년 4월 2일.

이후 전씨는 2004년 3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적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듬해 국적 회복 신청을 하고 8개월을 기다려 2006년에 마침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 당시 전씨의 아내도 그를 따라 귀화 신청을 해서 비슷한 시기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제 전씨 부부는 단지 조선족이나 이주노동자가 아닌, 법적으로도 엄연히 대한한국의 국민이자 성남의 시민이 되었다. 전씨는 국적 회복 신청 당시 중국 국적을 포기하는 데 따른 망설임은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었고, 또한 영천에 있는 친척이 신청 시에 많이 도와주어서 절차상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국적을 회복할 수 있었다.

제주도 여행 중의 전씨 내외(2001)

하지만 전씨는 이 과정에서 국적 회복의 기쁨과 더불어, 체류 자격과 관련하여 다른 중국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전씨는 중국동포들, 그 가운데 특히 항일 투쟁의 이력을 가진 동포가 단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조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사실을 말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 하얼빈에 집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 자기 아버지가 조선의용군 해가지고 …… 상해임시정부에서 파견 받고 …… 가르치는 학생들 몇하고서 같이 중국에 가서 의용군을 해가지고 싸웠고, 뒤에는 중국 군대하고 같이 결합해 가지고 …… 중국에는 '항일투쟁간부'가 있고, '해방간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항일간부 대우를 받는데 한중 수교하면서 와가지고 고향에 찾아가서 얘기하니깐 '의용군 그거 했던 사람은 세 사람 이상 증명인을 해라' 이러니깐, '그 사람이 다 죽고 없는데 어디 가서 증명인을 찾느냐? 내 중국에서도 일본놈들하고 싸웠다고 접대 잘 받고 있으니까 한국에 안 온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한국에 대고 오줌도 안 눈다.' 그러고 다시는 안 왔어요. …… 지금 중국에 간 동포들은 항일운동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 많은데 그 후손을 불법체류자라 하니깐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러한 전씨의 심경은 그의 유년 시절의 기억과도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전씨는 해방 직후였던 어린 시절부터 전설 같은 항일 무장 투쟁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그러한 이야기들은 그를 포함해 수많은 중국동포들에게 '일본놈들하고 싸운 우리 동포 후손'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 주었다.

> 여름에 모깃불 피워놓고 이야기 같은 거 하면 일본놈들하고 싸운 이야기, 어디서 어떻게 이겼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 일본이 망하고 난 다음에도 해방되어가지고, 우리가 6~7살 때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노래 같은 것도 잔칫집 그런 데서 …… 노래도 부르고, 의용군 행진곡 이런 거 많이 불렀고, 지금도 생생한데.

전씨는 세월이 지나 가물가물해진 의용군 행진곡을 뜨문뜨문 기억하며 불러 주었다.

> 우리는 자랑찬 조선의 의용군/ 강도 일제 때려부시고/ 용진 용진 나가세, 용맹스럽게/ 억천만 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

그는 또한 같은 '조선' 사람인데도 북한을 고향으로 둔 동포에게는 신청 시 8촌 이내로부터 신원 보증을 못 받아 국적 신청이 불가하는 등 형식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큰 아쉬움을 토로했다.

> 저같이 고향이 남한 사람인 경우는 덜 할 거예요. 고향이 북한인 사람들은 왜 욕을 안 하겠어요. 결국 너희들은 고향이 북한이니깐 나중에 북한에 가라는 것밖에 더 돼요? …… 울면서도 떠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반한 감정을 가져요, 안 가져요? …… 중국에 사는 사람은 그럼 북한 사람이냐, 안 그러면 중국 사람이냔 말입니까? …… 통일을 부르짖으면서 북한 고향 둔 사람을 국적 회복도 안 시켜주고 ……

이처럼 전상명씨는 체류 연장이나 국적 회복 과정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기뻤지만, 동시에 다른 중국동포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성남살이를 하고 국적까지 회복하고 보니 전씨도 어느덧 초로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동안에도 일을 멈추지 않았다. 전씨는 롯데제과 창고 일을 정리한 뒤 판교 신도시의 한 지하도로 이설 공사장에서 약 2년간 야간 경비 업무를 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일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곤 했다. 그러

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분당구청 부근의 버스 정류장까지 와서 인근에 서 있는 나무에 자전거를 묶어 놓고는 버스로 갈아타고 귀가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가보니 누군가 자전거를 가져가 버렸다고 한다. 그는 그런 식으로 세 차례나 자전거를 잃어버렸고, 그 후로는 아예 자전거를 타고 집까지 다녔다고 하는데, 꼬박 한 시간을 타야 집에 올 수 있었다고 한다. 공사장 경비 업무를 끝마친 뒤 전씨는 한동안 쉬었다. 하지만 일생을 일해 온 전씨는 일하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 되었는지 쉬는 것도 곧 지겨워져 다시 일을 찾았다. 그때 마침 같은 교회를 다니던 지인의 소개를 받아 오리역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곳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외곽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전씨는 지금까지 이 일을 5년째 해오고 있다.

이런 일상 속에서 전씨의 마음 한편에는 늘 아내에 대한 걱정과 애틋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다. 전상명씨 아내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서의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 최선옥씨는 유치원에서 밥을 짓는 일도 하고, 가정부로도 일해보고, 청소 일도 하는 등 궂은일들을 하며 살아 왔다. 그러던 4년 전 2월 어느 날이었다. 전씨가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아침에만 하더라도 멀쩡하게 거동하던 아내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 게다가 전씨의 기억에 따르면 그날은 우연히도 아내의 생일이었다. 그날 이후 최선옥씨는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하반신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그런 아내를 어떻게 해서든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에 백방으로 애를 써 보았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는 아내를 보며 애틋한 마음에 깊은 숨을 내뱉었다.

노년이 된 전씨의 일상과 소회

칠순의 전상명씨는 여전히 부지런히 생활하고 있다. 그런 그의 주중 일과를 보면 단순하다. 아직 어둑한 새벽 시각, 중원구 상대원시장 부근의 언덕 위에 자리한, 오래된 어느 다세대 주택 2층에 불이 켜진다. 가파른 경사의 언덕은 이곳이 1960년대 말에 서울시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지로 개발되기 이전에 울창한 산림지대였음을 말해준다. 나갈 채비를 마친 전씨는 여섯 시 즈음 집을 나와서 버스에 몸을 싣고 인근 전철역에 내려 오리역까지 간다. 역에서 내린 뒤 다시 마을버스로 갈아타고 작업장을 향한다.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그렇게 성남시를 위에서

인터뷰 당시의 전상명씨(2013. 7)

아래로 크게 가르며 작업장인 아파트 단지 외곽 지역에 도착해 환경미화 업무를 시작한다. 일을 마치고 세 시 반쯤 퇴근해 귀가하면 어느새 시계 시침이 한 바퀴 돌아가 있다. 집에 와서는 우선 아내의 건강을 살핀다. 그러고는 잠시 함께 TV를 본 뒤 저녁을 하고, 다시 연속극이나 뉴스를 본 뒤 잠을 청한다. 참으로 단순하고 평온해 보이는 일상의 모습이다.

전씨는 그렇게 부지런히 한 주를 보내다가 일요일 오전이면 어김없이 태평역 부근에 있는 '성남이주민센터'라는 곳을 찾아 예배를 드린다. 전씨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은 성남에서 살면서부터였다. 2001년 롯데제과 창고에서 일을 하던 시절 우연히 전단지를 통해 알게 된 교회 단체의 도움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구 성남시청 부근에 자리했던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이라는 곳을 ('성남이주민센터'의 전신임) 다니게 되었다. 처음에는 같은 중국동포들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런저런 정보나 소식을 전해 듣는 것이 좋아 교회를 다녔다. 그러다가 그는 교회에서 중국동포들의 고충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기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다. 전씨에게 그곳은 종교적 믿음의 처소일 뿐 아니라, 성남 살이의 중요한 일부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예배도 하고, 함께 모인 사람들과 식사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도 받는다.

그러나 성남살이의 일상 속에서도 전씨에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보물은 역시 가족이다. 어린 시절 가족과의 연이은 사별이 만들어 놓은 긴 그림자 속에서 보낸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기라도 하듯이, 그는 이제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자식들과 손주들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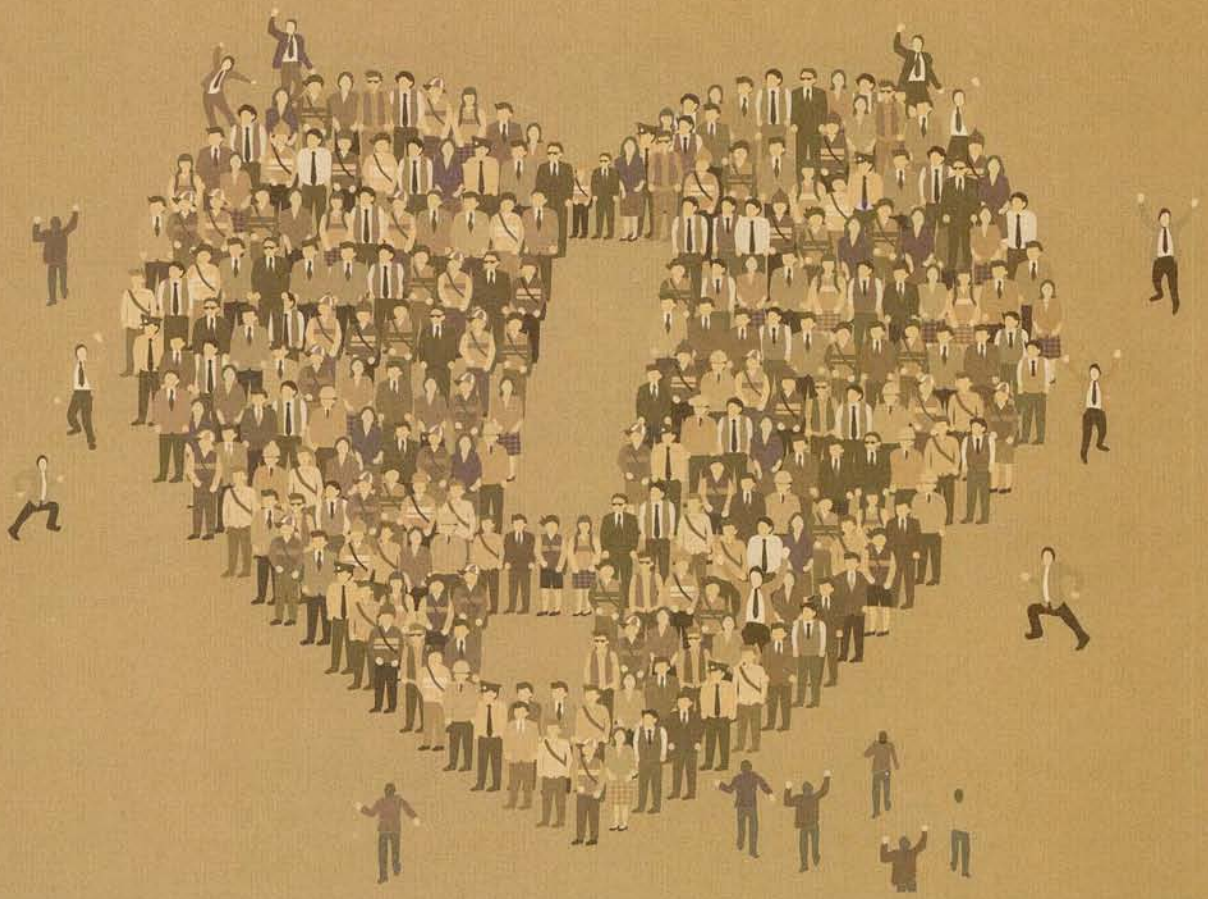
잠깐 그의 풍성한 가정을 들여다보면, 전씨의 첫째와 둘째는 한국 영주권을 얻고 모두 성남에 정착해 살고 있다. 셋째와 넷째 역시 한국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현재 중국 청도에 정착해 살고 있다. 자식 넷을 둔 전씨에게는 손자들도 많다. 그에

게는 곧 대학생이 되는 장손녀, 둘째 밑의 중학생 손주, 셋째 딸 밑의 어린 남매, 그리고 언제나 눈에 어리는 막내아들의 갓난아기 손녀가 있다. 손주들 사진이 가득한 가족 사진첩을 펼쳐 보이는 전씨의 얼굴에는 미소 꽃이 피어 있었다. 하지만 전씨는 소박하고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지나간 세월이 무상하게 느껴지는 듯하다. 지난 세월에 대한 소회를 풀며 말끝을 맺지 못하는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그렁그렁 물기가 차올랐다.

> 그냥 사는 게 그저 이렇구나 이런 거죠. 별로 변한 것도 없고 나이만 칠십이나 됐으니깐 이제 인생도 다 된 건데, 이런 생각하면 서글프죠. 사는 게 별로 뭐 이렇다 할 그것도 없잖아요. 그저 둥둥하며 살은 건데 …… 좌우간 그냥 우리 인생 살아온 게 서글펐죠, 뭐. 어릴 때랑 이래 살았는 거 가만 생각해보면 …….

제4장
판교테크노밸리, 성남시가 되어가는 중

김영미 성장과 비전 리더십 강사



어느 날 불쑥 판교테크노밸리가 우리에게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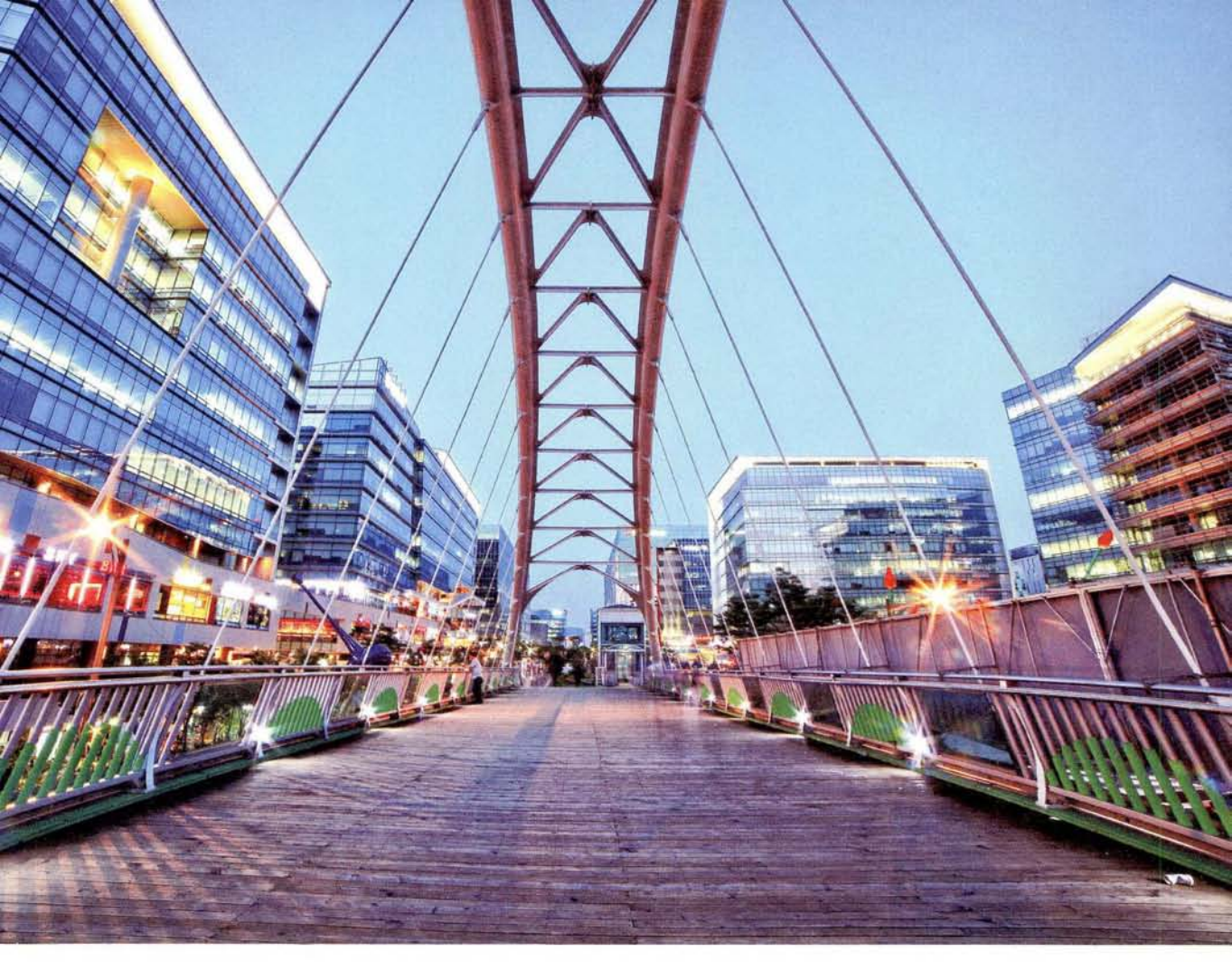
성남시에 오랫동안 살았어도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판교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테크노밸리'에 직접 가 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느라 신분당선 판교역을 오가며 주변에 점점 늘어가는 사무용 빌딩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거나 유명한 맛집을 검색하다 판교유스페이스 건물 내에 있는 음식점에 가 본 사람을 제외하곤 그곳, 판교테크노밸리가 우리 성남시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판교테크노밸리는 경기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판교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한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콘텐츠기술(CT) 및 융합기술 중심의 연구개발 단지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이 최적의 비스니스 환경에서 일하도록 글로벌R&D센터, 공공지원센터, 산학연R&D센터 등 지원 시설이 구축되었을 뿐 아니라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단이 경기도의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총 66만 1925㎡(약 20만 평)에 이르는 첨단 산업단지로 초청연구용지,[1] 일반연구용지,[2] 연구지원용지[3] 등 기능별로 나누어 분양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했다. 총 66만 1925㎡ 중 49만 5868㎡(15만 평) 건물, 16만 5289㎡(5만 평) 정도가 도로, 통신 등 기반 시설로 쾌적한 환경의 첨단 산업단지다. 2007년 착공해 2009년 준공을 시작했으며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 10월 현재 400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2만 5300명이 근무하고 있는 그야말로 거대한 첨

1) 초청연구용지에는 글로벌 R&D센터, 한국파스퇴르연구소, LIG넥스원, 차그룹컨소시엄 등이 입주해 있다.
2) 일반연구용지에는 삼성중공업, 에이텍,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 시공테크, 넥슨 컨소시엄, 미래에셋벤처타워, 안철수연구소컨소시엄, 엔씨소프트 등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3) 연구지원용지에는 판교 에듀파크, 산학연지원센터, 엔이이치엔 네오위즈 컨소시엄, 유스페이스, H스퀘어, 삼환컨소시엄 등이 입주해 있다.



단 산업단지다.

글로벌 기업들도 상당수 있는데 국제 연구소인 한국파스퇴르연구소, GE에너지, LIG넥스원, SK케미컬, 게임 기업들에는 NHN, 넥슨, 엔씨소프트 등이 있다.

이러한 거대한 첨단 산업단지 판교테크노밸리가 도시로 형성된 지 40년 된 성남시와 성남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서울이나 다른 도시의 회사로 출퇴근하다가 어느 날 회사 이전으로 판교테크노밸리로 출근하게 된 사람들의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은 성남시와 판교테크노밸리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일까?

판교테크노밸리 엔지니어의 서울-판교 오가기

게임 업체 '스마일게이트'의 서상봉 실장

2013년 3월 20일 요즘 뜨고 있는 게임 업체 스마일게이트의 서상봉 실장과 인터뷰를 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신분당선 판교역 1번 출구에서 나와 동안사거리를 지나 직진해 동안교를 지나는 곳에 위치한 글로벌 게임 회사다. 이 회사에서 개발한 CrossFire[4]는 중국, 베트남, 북남미, 유럽 등 70여 개국에 서비스되고 있는 성장 중인 게임업체다.

서상봉은 대외협력실 실장으로 법무, 홍보, 사회 공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질] 바쁘신데 시간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사 소개를 간략히 부탁합니다.

[답] 온라인 게임 개발 기업입니다.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관계사에서 온라인 게임 서비스나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관계사로 투자회사도 있어요. 회사 역사는 10년 되었습니다. 2002년 (주)스마일게이트가 설립되었죠.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중국에서 일등하고 있는 CrossFire라는 게임이 있고 이 게임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내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진행된 인터뷰 중 바로 옆에서 직원들이 포켓볼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질] 저기서 포켓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일 하다가 중간에 여기 와서 게임도 하고 그러나요? 얼마 전 SBS 방송에서 방영한 다큐 '리더의 조건'에 나온 파주에 있는 IT회사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직원들이 근무 시간 중에 수영도 하고 자유롭게 일하는 분위기가 좋아 보이더라구요. 그 회사 대표인 이원영 사장에게 직원들이 이렇게 놀아도 됩니까? 라고 진행자가 질문을 하니까 정색을

4) 크로스화이어는 동시 접속자 420만 명을 자랑하는 세계 1위 온라인 FPS 게임이다.

스마일게이트 건물 카페에서 인터뷰 중인 서상봉 실장

하며 "왜, 놀면 안 되나요?"라고 하더라구요. 다른 산업보다 창의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업종에서는 이러한 회사 분위기, 문화가 중요한 것 같네요.

[답] 우리도 업무 중간 중간에 카페테리아에 와서 커피 마시고, 게임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우리 회사도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대기업보다는 유연해요. 제가 실장이라 해서 직원들이 제 눈치 안 봅니다.

[질] 맞아요. 사람이 책상에만 앉아 있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답] 개발 쪽은 아무래도 창의적인 것이 중요한 것 같구요. 지원 조직은 그래도 규율이 필요하겠죠.

[질]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지원 조직이죠? 대외협력실에 계시니까. 홍보 맡고 어떤 일을 하시나요?

[답] 홍보, 사회 공헌, 법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 이 회사에서는 사회 공헌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답] 우리 회사의 사회 공헌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과 달리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단순한 기부보다는 사회 공헌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연탄 배달을 하거나 이런 것처럼 요보호 계층에게 현물로 직접 기부하는 것보다는 심오한 철학을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경영진의 사회 공헌에 대한 의지입니다. 글로벌하게 사회 공헌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하지만 주로 세계적으로 사회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사회 공헌 키워드는 희망입니다.[5]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전 세계 아동 청소년 대학생 청년에게 확산할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질] 이곳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었고 사는 곳은 어디며 어떻게 출퇴근 하시는지요?

[답] 이 회사에 근무한 지는 2년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하기 전에는 게임 쪽, 주로 IT 쪽에 있었고, 이곳에 올 때 실장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사는 곳은 마포 성산동인데

5) 스마일게이트 홈페이지(www.smilegate.com) 맨 위에 회사 소개, 게임 소개와 함께 CONTRIBUTION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서 이 회사가 사회 공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아동의 교육 및 보육을 위한 ECCD센터를 건립한 후 베트남 khekhe 마을과 중국 산시성 Yuhemao 마을에 희망학교를 건립하였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공덕역에 가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한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막히지 않으면 한 시간 20분. 가끔 차를 갖고 오기도 하구요.

[질] 출퇴근 시간이 길어 업무 끝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불편하지는 않은지, 운신의 폭이 좁지는 않은지요?

[답] 회사 끝나면 여기서 운동하기도 하고 야근하기도 하고 저녁 약속 있으면 이곳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저녁에 직원들하고 소주 한잔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동종 업계 사람들이 많거든요. 게임 업계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합니다.

[질]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 같은 것은 없는지요?

[답] 그런 것은 없고 서로 한 다리 건너면 다들 아는 사람들이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업계가 큰 건 아니니까. 모임에서 만나기도 하고 대략 알죠.

[질] 실장님을 만나러 오면서 이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이 탄 사람들이 '드레곤 플라이트는 매출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같은 업종이 몰려 있으니까 시너지도 나고 그러겠네요?

[답]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시너지 생기죠. 몰려 있으면 교류는 많이 하겠죠? 모여 있으니까 모임 같은 건 좀 있으면 생기지 않을까요. 게임 업계 사람들이 매니지먼트는 그들끼리 다 교류를 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일하는 분들의 연배들이 다들 젊으니까 형, 동생으로다 편하게 지냅니다. 이 업종에는 50대가 거의 없어요. 우리 회사에도 50대가 딱 한 명(부사장) 있습니다. 평균 연령은 30대로 보시면 될 거에요. 대부분 CEO들이 40대 초반에서 중반, 모바일 쪽은 30대 초반까지도 있어요. 산업의 역사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외국은 나이 많은 개발자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15~20년 정도의 업력입니다. 산업 자체가 짧은 신생 산업이라 임직원들의 나이가 다른 업종보다 젊은 편입니다. 저는 이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편입니다(웃음).

[질]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답] 원래는 인터넷 기업 쪽에 있었습니다. 온라인 기업이요. 그 업종에서 상거래 업무, 콘텐츠 업무를 담당하다가 스마일게이트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기업에서도 지금처럼 개발 업무는 하지 않고 기획 업무를 담당했어요.

[질] 직원들은 몇 명인가요?

[답] 직원들은 여기 판교테크노밸리에만 4~500명, 방배동에는 모바일 업무가 남아 있고요. 다 합치면 4~500명 정도 됩니다.

[질] 회사가 이리로 이사를 와 직원들이 출퇴근하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신지요? 판교 쪽으로 이사 오는 직원들이 있나요?

[답] 우리 회사 직원들은 서울,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사 오면서 용인, 판교 쪽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젊으니까 자취하는 친구들이 있고, 양재 쪽으로 이사 오는 직원들도 있고요. 다른 회사는 많이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판교의 집값이 워낙 비싸요. 분당은 미혼이 감당하기 힘든 전셋값이잖아요. 우리 회사는 70% 정도가 미혼이에요.

[질] 실장님은 이사 계획이 있나요?

[답] 저는 맞벌이를 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 학교도 옮겨야하고, 비싸기도 해서 결정하기가 여의치 않네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이들에게 교육비 들어가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지죠. 제 둘째 아이가 7살입니다.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이곳으로 이사 오면 우리 부부가 맞벌이를 하니까 아이 양육이 걱정인거죠. 예전에는 아이들이 동네에서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도 별 일 없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웃이 누군지 모르고 살잖아요.

[질] 회사 주변에 있는 편의 시설은 많이 이용하시나요?

[답] 식당, 커피숍, 안경점, 미장원, 약국, 문구점 등 다양하게 입점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음식점들은 깔끔한 편입니다. 그런데 더 발전해야죠. 새로운 음식점들이 속속들이 생기고는 있는데, 서울 시내의 골목골목에 있는 특성 있는 음식점 같은 것은 아직 없는 거 같습니다. 거의 10년이나 20년 된 그런 집들 있잖아요. 당연하죠.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거니까. 우리 회사의 복지 시설로는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이 카페가 있고 지하에 있는 헬스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 창의성이 많이 요구되고 트렌드가 매우 빠르게 변하는 업종에서 일하시느라 긴장도 많이 되겠어요.

[답] 예. 변화가 아주 많습니다. 대중적인 호응을 얻는 게임을 개발하게 되면 회사가 급속도로 성장하지만 업계 트렌드를 못 좇아가면 한 순간에 거꾸러지기도 쉽습니다. 100원을 벌다 어느 날 갑자기 50원, 3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변화의 속도를 잘 좇아가지 못하거나 변화의 방향을 잘 잡지 못하면 회사가 금방 거덜 날 수도 있어요. 이에 비해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안정적이죠.

[질] 저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치라는 이 회사의 미션을 보고서 좀 놀랐어요.

[답] 보통 온라인 게임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게임이라는 것 자체는 즐거운 것이잖아요. 즐거운 문화입니다. 어쩌 보면 같이 하는 걸 전제로 게임을 하는

거죠. 나 혼자 한다면 다른 걸 하지 게임을 하겠어요? 어릴 적 오락실도 친구들이랑 우르르 몰려가고 그랬잖아요.

[질] 게임이 즐거운 문화이긴 한데,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양면이 있는 것 아닌가요? 심하게 하면 중독이 되는 거고요. 설탕 중독, 커피 중독, 다 있잖아요. 즐기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아이들이 너무 늦게까지 하면 부모가 제재를 하고 또 그러한 역할을 가정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신경을 써야죠. 모든 책임을 게임 업체에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질] 제가 방금 드린 질문을 많이 받았나 봐요(웃음).

[답] 우리 집 아이들도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스마트폰 때문에 게임이 다시 부흥기가 된 거죠. 게임하면서 아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딸하고도 카톡(카카오톡)하면서 게임 보내주고 캐릭터 사주기도 하고. 게임 자체의 순기능이 있잖아요. 공부도 하면서 놀기도 하고 밖에서 공차기도 하고 영화도 하고. 게임 이것만 줄창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신 눈이 나빠지는 게임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눈에 부담되는, 눈이 피로해지는 과도한 게임이 있습니다.

[질] 이후 전망은?

[답] 이곳 판교에서 살고 싶습니다. 환경이 좋아서요. 서울과 달리 시선이 편안해지는 곳입니다. 특히 판교 쪽은 쾌적해요. 분당이 1990년대 초반부터 분양되기 시작해 20년 되어 조금씩 낡아가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판교 신도시는 형성된 지 얼마 안 돼서 깔끔하고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스마트 디바이스 게임 업체 '팜플'의 이승곤 팀장

2013년 9월 12일 팜플의 이승곤 팀장을 만났다. 팜플[6]은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 스마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 개발은 물론 운영, 커뮤니티 서비스, 해외 사업, 마케팅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디바이스 게임 기업으로 스마일게이트의 관계사다.

이승곤 팀장은 올해 36세로 결혼 8년차다. 만나자마자 노랗게 염색한 머리를 보고서 깜짝 놀랐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부인이 나이 더 들면 못할 테니 지금 해보

6) 팜플(http://www.palmple.com)은 판교테크노밸리 아이디스타워 6층에 있다.

라 해서 염색을 했단다.

[질] 이 업종에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답] 10년이 넘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이 업종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정보통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공학부로 시작해서 3학년 때 정보통신학을 전공으로 택했어요.

[질]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재미있나요?

[답] 게임의 품질을 관리하는 일을 해요. 게임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공학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일이 있고 테스팅(testing)을 해 해당 품질이 어떤지를 보고 버그(bug, 프로그램 오류)가 있으면 추적해서 해결하고 런칭(launching, 제품 출시) 시점에 최소한으로 문제점이 없이 런칭할 수 있게 합니다. 각각의 개발 과정 속에서 필요한 품질 활동을 하죠.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1년도 안 된 회사고 저도 여기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들어올 만큼 가치가 있고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모바일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서 모바일에 대한 새로운 도전, 지금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회사는 모바일 게임 전문 업체입니다.

[질] 그렇군요. 모바일 게임 전문 회사요. 맞아요 요즘은 모바일 게임이 유행인 것 같아요. 애니팡부터 드래곤 플라이트, 차차차 …… 얼마 전 잠을 자는데 스마트폰에서 '애니팡', '애니팡'하는 소리나 나는 거예요. 몇 년간 연락 없었던 친구가 밤에 잠 안 자고 모바일 게임하는 거죠. 친구로 초대한다고 메시지가 뜨고요. 처음엔 이게 뭔가 하다가 모바일 게임이란 걸 알고 그 친구에게 문자를 했죠. 이 업종에 일하다 보면, 게임의 주기가 빠르잖아요. 애니팡, 드래곤 플라이트, 차차차 등등 계속 새로운 게임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긴장이나 아이디어 개발 쪽에 스트레스는 없는지. 물론 개발 분야가 아닌 관리 파트라서 개발자보다 스트레스가 덜하긴 하겠지만.

[답] 아무래도 워낙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미 모바일 게임 자체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것보다는 여러 개 업체들이 소규모 벤처식으로 시작해서 성공한 사례가 꽤 있어 다방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머리 아프고 고민해야 하는 일이 많아요. 특정 타켓 시간에 맞춰 서비스를 해야 하는 압박감이 있는 것은 사실 같아요.

지금 시기에는 그런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가 되기도 하고 시기상으로는 이런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는 상황인 것 같다.

[질] 성남문화재단에서 한 달에 두 번 이곳 판교테크노밸리 H-스퀘어 광장에서 문화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가서 공연을 즐기시나요? 문화생활은 주로 어디서 하시나요?

[답] 문화생활은 주로 집에서 합니다. 여기서는 몇 명씩 모여 회식을 한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곳은 운동을 한다든지 해요. 요즘은 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교에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멀리서도 많이 타고 다닙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했었습니다. 정자역까지 한 시간 반 혹은 한 시간 십 분 걸려요. 회사에 샤워 시설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잘 나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면 운동도 되고 좋습니다.

[질] 지난주에 회식할 일이 있어서 판교테크노밸리 음식점에 온 적이 있는데, 이 주변 식사나 이런 것들은 만족하시는지요?

[답] 처음에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많은 게임 업체들이 들어오고 후발 업체들이 들어오고 보니 상권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 직원이 몇 명인가요?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은 어떤가요?

[답] 70~80명 됩니다. 남녀 비율은 반반 정도 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많아요. 여자가 더 많은 회사들도 있죠. 우리 회사는 데빌 메이커란 게임이 유명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인기 많았죠. 해외 서비스도 합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일본 중국(큰 시장)은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 기성세대들은 게임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제 친구는 게임에 대한 철학이 있더라구요. 이게 무슨 종합 예술이라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게임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아이들이 중독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그렇죠. 어느 면이나 사회적으로 볼 때 10대 예술이라 표명하는 것이 꽤 있던데, 영화, 만화, 음악 …… 이런 예술들도 사회적으로 나쁜 부분을 예로 들라면 다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다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개인 스스로의 자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게임에 대한 개인의 자세도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스트레스 푸는 데 게임만큼 좋은 게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게임이 아주 좋은 것이 될 거구요. 그런데 그게 중독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은 따로 관리를 해야 하는 거구요. 그렇지만 게임 자체는 사람에게 새로운 재미를 주고 새로운 문화를 주는 것입니다.

[질] 여기(이 회사) 오시기 전에도 제작보다는 관리하는 일에 종사했나요?

[답] 예. 저는 만드는 것은 하지 않고 계속 만든 것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질] 내년 완공되면 테크노밸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몇 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일은 여기서 하고 문화생활은 주로 서울에서 하는 것인가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문화·여가를 즐기시나요?

[답]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 해요. 딱히 문화생활이라고 말하기가 그런 게 …… 왠지 문화생활이라 하면 고급스런 공연을 보는 것이나 극장을 가거나 연극을 보는 것이 생각나서 그랬지 여기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여기서 함께 어울려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 카페 골목도 있고, 정자동 카페 골목, 근처의 맛집도 많이 있고 고기리 쪽에 있는 음식점에서도 워크숍을 자주 합니다. 족구도 하고, 당구장, 피시방, 볼링장, 술도 마시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많은 문화생활을 합니다.

[질] 성남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답] 저는 방이동에서 출퇴근하는데 서울에서 내려오는 차라서 그런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당-수서에서 판교테크노밸리로 진입하는 곳에서 교통이 많이 막혀요. 처음에는 괜찮았었는데 최근에 많이 막히기 시작했네요. 출퇴근하는데 한 시간 걸립니다. 성남시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가 급합니다.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딱지를 끊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나 모퉁이에 주차하지 않으면 봐주는 것이 있었는데(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한두 달 전부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어쩔 수 없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인데 딱지 끊는 것으로만 해결한다면 …… 딱지를 끊는다고 해서 미리 차를 안 갖고 오거나, 갖고 나온 날은 회사에서 먼 곳에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에 세웠었는데 어느 날 달랑 딱지를 끊어서(웃음).

문화복합 공간으로 진화하는 판교테크노밸리

2013년 9월 27일 판교테크노밸리 H-스퀘어와 U-스페이스 앞 공원에서 사랑방 정오콘서트가 열렸다. 사랑방 정오콘서트는 성남문화재단의 '사랑방 문화클럽'과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단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 직원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매월 2, 4번째 주 금요일 정오에 열린다. 이날은 14번째 공연으로 사랑방 통기타 클럽인 흰여울과 성남시립국악단의 공연이 있었다.

사랑방 통기타 클럽인 흰여울이 1980~1990년대 대중들에게 사랑받았던 대중가요 「그날」, 「바람바람바람」, 「꿈의 대화」, 「젊은 미소」, 「나는 행복한 사람」 등을 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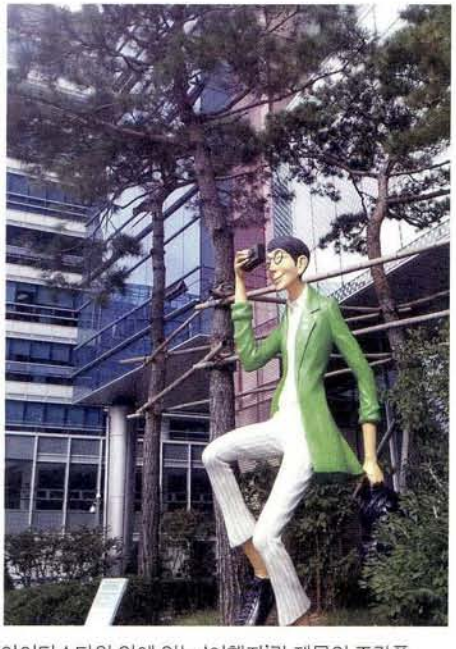
사랑방 정오콘서트(14회차, 2013. 9. 27)

고 깨끗한 목소리로 불러, 점식 식사 후 모여든 이곳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호응을 받았다. 흰여울의 노래가 끝난 후 성남시립국악단의 우리 음악 공연이 이어졌다. 지켜보는 관중들이 여기저기서 어깨를 들썩이기도 하고 박수를 치며 호응해준다.

2013년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H-스퀘어 앞 공원에 다시 가 보았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이 쉬는 날이라 그런지 한산하다. 평일 점심시간 이곳저곳 건물에서 쏟아져 나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커피를 가지고 나와 공원 여기저기에 앉아 자유롭게 대화하던 직원들이 사라진 이 공원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놀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에는 H-스퀘어 이외에 7벤처빌딩, 엠텍, 우림WCT 앞에 이런 소규모 공원이 있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가 첨단 R&D 허브, 최첨단 산업단지로서의 기능만이 아닌, 성남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여행자의 호기심과 질주하는 말의 기상이 풍겨나는 곳



아이디스타워 앞에 있는 '여행자'란 제목의 조각품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건물 앞이나 공원에는 여기저기 미술 장식들이 눈에 띈다. 이승곤 팀장이 근무하는 팜플 사무실이 있는 아이디스타워 앞에는 경쾌한 포즈의 남성이 연두색 재킷을 입고 카메라로 어딘가를 촬영하는 모습의 조각품이 서 있다. 김경민 조각가의 '여행자'란 작품이다.

「문화예술진흥법」 9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 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는 조항에 의거해 세워진 미술 장식이다.

삼환하이펙스 앞의 질주하는 말 조각

H-스퀘어와 U-스페이스 앞 공원의 말 조각품

판교테크노밸리와 여행자는 무엇이 닮은 것일까?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일상 탈출에 대한 설렘, 새로운 풍경과 세상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 새롭게 펼쳐진 세상에 대한 감탄은 이곳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일하는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CT(콘텐츠기술) 업체 직원들과 닮았다. 그들은 지금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또한 계속적인 기술 개발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한다. 관습과 관행을 벗어버리고 어딘가로 떠나는 여행자의 동경과 열망을 갖고 일한다.

여행자의 가벼움과 경쾌함은 이곳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걸음걸이, 복장, 얼굴 표정에서도 묻어난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공원 주변을 자유로이 걷는 이들 중 묵직한 양복을 입은 이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캐주얼한 복장에 경쾌한 걸음걸이. 팜플의 이승곤 팀장처럼 머리색을 물들인 이들 젊은이들이 변화를 만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최첨단 산업의 주역인 것이다.

판교테크노밸리 이곳저곳에 설치된 미술 장식 중 삼환하이펙스 건물 앞에 있는 질주하는 말 조각과 H-스퀘어와 U-스페이스 앞 공원의 말 조각품이 우리의 눈을 시원하게 한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하는 판교테크노밸리 콘셉트에 질주하는 말만큼 잘 들어맞는 것이 있을까? 인간에게는 질주 본능이 있다고 한다. 자연인인 인간 안에는 같은 자연인 '말'의 속성 '질주'가 숨어 있는 것이리라. 힘찬 기상, 목표를 향한 돌진. '전력 질주하는 말은 다른 경주마를 곁눈질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는 일에만 온 신경을 집중시킨다'는 헨리 폰다의 말처럼 판교테크노밸리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질주 중이다.

성남시 안의 또 다른 세상 – 판교테크노밸리, 성남시로 들어오는 중

공간과 그 공간 안의 건물, 도로, 사람들이 오고가는 교통,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 도시의 모습, 도시의 문화가 만들어진다. 도시는 현대 산업 사회의 산물로 정부 정책에 의해 행정 구역이 변하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기도 하고 이주민이 생기기도 한다.

현재 성남시가 터 잡고 있는 땅은 옛 광주군廣州郡에 속해 있었다. 우리의 조상들이 산, 냇물, 논과 밭 ……. 이런 자연 안에서 어울려 살았다. 때로는 옆 동네로 이

사를 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한 번 태어난 곳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

1960년대 후반 서울시 무허가 건물 철거에 따른 주택 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되면서 광주군의 인구가 증가했다. 서울시는 광주군에 대규모 이주 단지인 광주대단지를 조성하고 2만 1372가구 10만 1325명을 이주시켰다. 이주민에 대한 생계 수단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이주로 인해 1971년 8월 10일 하루 동안 경기도 광주군 신개발 지역 주민 수만 명이 공권력을 해체시키고 도시를 점거한 광주대단지 사건이 발생한다. 이후 1973년 광주군의 일부가 성남시로 승격되었다.

2013년 성남시가 시로 승격된 지 40주년이 되었다. 조상부터 대대로 성남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광주대단지처럼 정책적으로 타 지역에서 유입된 사람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 온 사람들 모두 울고, 웃으며 40년의 세월이 흘러 성남 시민이 되었다.

1989년 4월 정부가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유도하고자 주택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성남시에 대규모 주택을 건립하게 된다. 성남시 내에 또 하나의 도시인 분당 신도시가 만들어졌다. 예전에 성남시로 있던 행정 구역(현재 수정구, 중원구)인 구시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새로 들어선 분당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에 소득 격차가 생기고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며 간혹 갈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성남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다. 2005년 경기도가 국가 경쟁력 제고와 판교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으로 인해 성남의 도시 판교의 모습이 몰라보게 바뀌었다. 국내의 내로라하는 정보통신(IT), 바이오기술(BT), 문화콘텐츠(CT) 업체들이 대거 입주함에 따라 몇 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던 곳이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들이, 판교테크노밸리가 어느 날 우리에게 왔다.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한, 성남시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작은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각 개별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기업 내에 사회공헌팀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위 인터뷰에서 스마일게이트가 '희망'이라는 키워드로 중국이나 베트남에 학교를 짓는 활동을 하는 것처럼 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들이 연합해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기도 한다. 판교테크노밸리 소재 IT기업 13개가 힘을 합쳐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판교 CSR 얼라이언스'가 그것이다. 『지디넷코리아(ZDNetKorea)』에 보도된 '판교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업체들의 사회공헌연합 '판교 CSR 얼라이언스'

CSR 얼라이언스'[7]에 대한 기사를 보면 판교 CSR 얼라이언스의 조직 취지와 앞으로의 사업 방향, 구성 단체 등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 판교 CSR 얼라이언스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상생의 의미로 탄생한 지역 기반 사회 공헌 연합이다. 그동안 한 개 기업이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웠던 사회 공헌 활동을 공동으로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체는 첫 활동으로 판교 삼평동 내 노인정 세 곳을 동시 방문해 노인정 대청소, 영정 사진 촬영, 재습기 기부 등의 봉사를 진행했다. 기업 단독 사회 공헌 활동이 일회성 행사로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과 달리 뜻을 함께하는 지역 기반의 기업들이 모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 진정성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앞으로 이 단체는 각 회사별 다양한 재능 및 역량을 사회 공헌과 결합해 수혜자와 활동 기업 모두가 즐거운 프로그램을 실행해 나간다는 예정이다. 또한 삼평동주민센터와 협력해 판교 지역의 현실적이고 시급한 해결 과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정 봉사 활동 이후 판교 CSR 얼라이언스는 8월 삼평중학교 학생 50명을 초청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란 주제로 강연을 개최한 바 있으며, 9월 24일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대학생 응원 강연 프로그램인 '에너지 콘서트 : 네 꿈에 날개를 달아'를 개최해 대학생들에게 취업에 실질적인 정보를 주고 꿈과 목표에 대한 강연을 했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들이 안정화되어감에 따라 조금씩 지역 사회에 눈을 돌리고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회사인 엔씨소프트는 판교 R&D센터 내에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 21명이 일하는 '엔씨카페'를 열었다. 엔씨소프트에서 성남 시내 이주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판교 R&D센터 회사 건물 1, 2층 직원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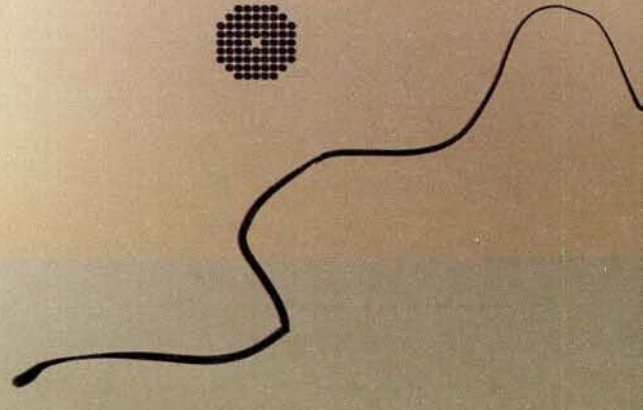
7) 2013년 7월 25일 결성된 판교 CSR 얼라이언스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들 중 가비아, 마이다스아이티, 스마일게이트, 시공테크, 아프리카 TV, 안랩, 엔트리브소프트, 오콘, 웹젠,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윈스테크넷, 이트너스, 카카오 등이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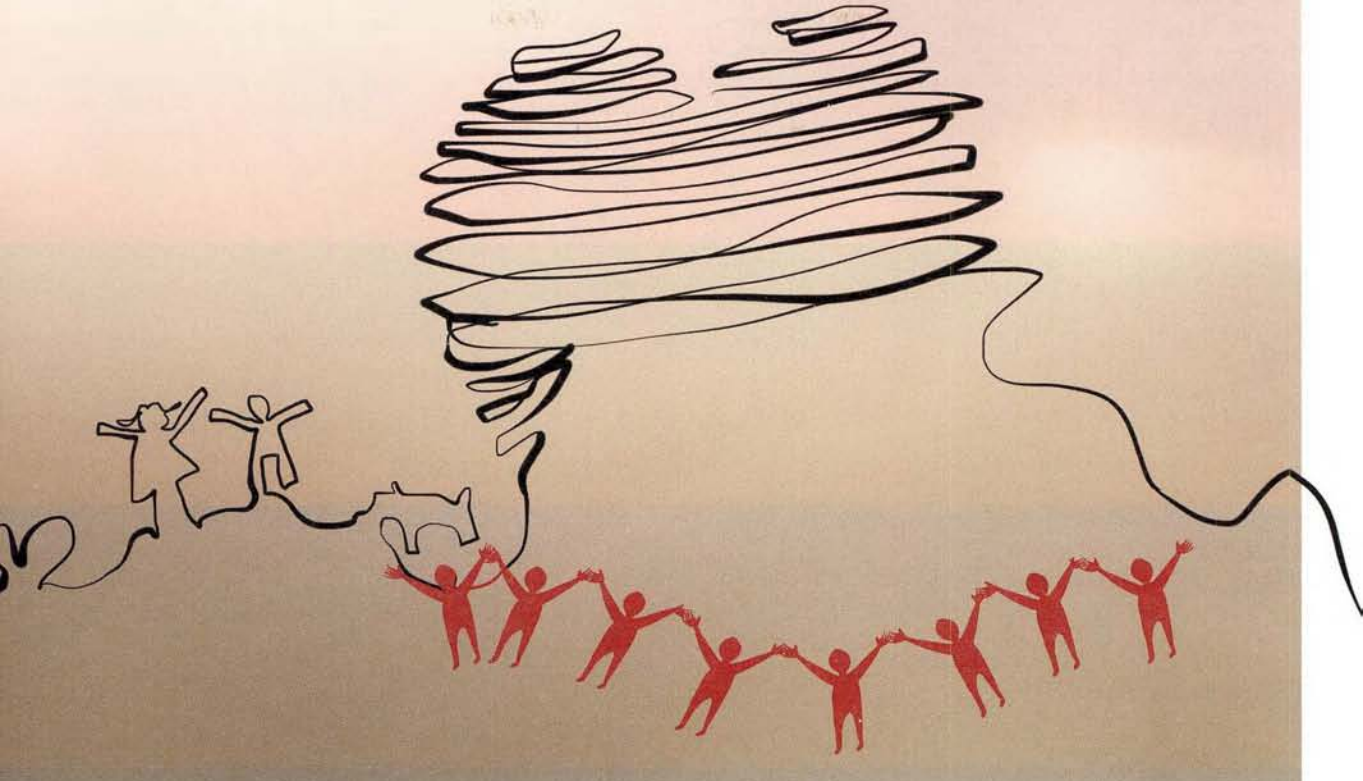
시설 일부를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카페 공간으로 기부한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카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며, 이주 여성 21명을 선발해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하고 사내 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판교테크노밸리 내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경기도와 성남시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 정책과 성남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함께할 때 판교테크노밸리는 다정하고 친근한 성남시의 밸리(Valley)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테크노밸리(Techno Valley)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미래를 꿈꾸는 우리 아이들





제1장 일곱 빛깔 무지개의 꿈

제2장 대안교육, 성남의 새로운 교육 물결로 자리 잡다

제3장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지도사

제4장 편견에 맞서 세상을 보자

제1장
일곱 빛깔 무지개의 꿈

박용준 성남청소년교향악단 단장

프롤로그

성남청소년교향악단 박용준 단장(필자)

필자는 1984년 성남에 입성하여 인생의 반절을 보냈다.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여러 분야에서 성남은 정말 많은 발전을 하였고, 필자도 시 문화 발전의 기초를 닦는데 음악인으로서 나름 일조한 측면이 있다. 특히 청소년 문화 발전에 관심이 많아 한국음악협회 성남시지부 창립 멤버로서 성남시 학생음악 경연대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음악 공연을 하였고, 음악인들의 권익과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성남아트센터 건립과 성남문화재단 설립, 그리고 성남시립교향악단 창단에 일조하였으며, 그 결과 지금의 문화 성남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두운 면도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청소년 교육의 병폐와 선행 학습의 오류 등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성남에서도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IT의 발전과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는 오히려 세대 간의 벽을 날로 높이고 있으며, 가치 혼란과 가정 파괴로 청소년들의 과격한 행동과 일탈은 더욱 많아지면서 사회의 부작용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해외 언론에서 "대한민국은 교육 강박증에 걸려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가 하면, 초·중·고 청소년의 22.5%가 정신강박증을 앓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이처럼 혼란한 세태 속에서도 꿈을 저버리지 않고 그 꿈을 이루는 청소년을 필자는 자주 본다. 여기에서 필자가 주도하는 성남청소년교향악단을 모델로 하여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담아보고자 한다.

줄리어드 학생 바이올리니스트 성원이의 꿈

성남청소년교향악단(다른 명칭,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신입단원 모집 날이다. 수많은 오디션 학생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다. 바이올린에 초등학교 3학년 조성원이다. 아빠 엄마 손을 잡고 말 그대로 철부지 3학년 조성원은 바짝 긴장하여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성원이는 이때가 처음 오케스트라를 대하는 순간이다.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의 1악장을 연주하여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마치 신입 단원이 아니라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신바람이 나 있었다. 깜짝 놀라 성원이에게 물었다. "바이올린을 좋아하니?" 성원이는 "네"라고 대답했다. "바이올린을 한 지는 얼마나 됐니?" 라는 물음에 "6살부터"라고 대답했다.

순간 필자는 이런 친구는 더 넓은 바다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모님을 따로 면담했다. 성원이는 다른 아이와 달리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 좁은 한국에서보다 보다 더 좋은 환경, 보다 더 좋은 선생님을 찾아 외국으로 나가 공부하는 게 어떨지 권하였다. 왜냐하면 훌륭한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무엇보다 최고의 배움터에서 최고의 기능 보유자, 최고의 인격 소유자들이 지도하는 환경 속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로부터 3년 동안 성원이의 부모님은 여러모로 성원이의 앞날을 걱정하였다. 부모의 할 도리는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에게 그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일이다. 그래서 성원이는 최고의 기능 보유자를 만나야 했고, 최고의 교육자를 만나야 했던 것이다. 3년 동안 오케스트라 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 더 성원이와 그 부모님은 성실하였으며 미래의 목적을 두고 나름 준비도 많이 하였다. 그러나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한 듯 보였다. 그러면서도 오케스트라 생활에 만족을 하며 공부 또한 열심히 하였다.

어느 날 성원이 부모님에게 연락이 왔다. "성원이 미국 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줄리어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잘 다녀오라고 인사말을 건넸다. 미국으로 떠난 지 2년 만에 한국으로 잠깐 나와 성남청소년교향악단 연습실에 찾아왔다. 필자를 보자 반가워하며, 대관령국제음악제에 선생님 따라 찾아 왔다고 했다.

차근차근 꿈을 완성해가는 성원이(가운데)

그 선생님이 바로 세종솔로이스츠 앙상블 단장님이신 줄리어드 강효 교수님이었다.

성원이는 대관령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상을 안고 돌아간 뒤 또 2년 뒤에 드디어 줄리어드에 합격하였다고 연락이 왔다. 그 후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연습실에 찾아왔다. 단원들 앞에서 조성원을 미래의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소개하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성남청소년교향악단 단원 앞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연주를 선사하였다.

성원이는 이제 세종솔로이스츠 앙상블 선임 단원으로서 또 솔리스트로서 내한한다. 그리고 또 그는 세계를 무대 삼아 연주 여행을 다닌다. 이렇게 그의 꿈은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날개를 달고 세상을 날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의 부모님과 성원이와 나를 포함하여 그를 가르친 강효 교수님 모두가 하나가 되어 혼연일체를 이루며 닦아온 결과다. 되돌아보면 성원이의 환경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성원의 어머니가 성원이를 위해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한 결과이다. 그들은 음악을 좋아하고 즐길 줄 알아서 그를 좋은 예술가로 키우

고 싶어 하였다. 지금의 단원들에게 조성원이는 자연스럽게 롤 모델이다. 후배들은 성원이를 닮고 싶어 한다. 성원이와 같은 목표가 있기에 꿈을 꾸게 한다. 그것은 참 좋은 것이다. 성남청소년교향악단을 이끌어 오면서 청소년들이 활동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성원이처럼 꿈을 가진 청소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지적 장애인 클라리네스트 우진이의 꿈

장난기 있는 아이, 큰 웃음이 있는 아이, 꾸밈이 없는 아이 늘 밝고 활달한 아이인 우진이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다. 그를 처음 본 것은 '성남시 장애인 음악 경연대회'에서 입상을 하여 그 계기로 우진이 어머님과 알게 되었고, 필자는 우진이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정식 단원으로 입단시켰고, 대만 연주 때 협연을 시키게 되었다. 다소 부담스러워했지만 우진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통도 필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른들의 걱정을 한 번에 밀어냈다.

대만 연주 협연 때 아주 멋지게 우아한 클라리넷의 멜로디를 만들어냈고, 대만 국민들을 감동시키기까지 하였다. 대만 연주의 성공은 우진이에게 자신감을 상승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까지 만들었다. 우진이는 성남청소년교향악단에서 클라리넷 연주자로 활동하게 되었고, 이후 이희아와 함께하는 신년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그다음 해에 매년 8월 중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를 기획하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초청해 협연하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그해 이희아와 김우진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매년 우진

이의 음악성을 길러내며 비록 장애인이지만 클라리네스트로 성장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주고 독려해주었다. 그 후 계원예고에 클라리넷으로 정식 입학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진이는 최고의 클라리네스트에게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대학교도 일반 클라리네스트와 같이 경쟁을 하여 백석대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했으며, 졸업까지 이뤄낸 멋진 클라리네스트가 되었다. 그동안 우진이를 위해 우리나라 최고의 장애인들과 함께 매년 8월이면 '아름다운 음악회'를 진행하였고, 그때마다 주인공이 되었으며 결국 모든 언론들이 아는 멋진 장애인이 된 것이다.

음악으로 장애를 극복한 우진이

2006년부터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와 함께하는 신춘 음악회를 시작으로 벌써 8년째를 맞았다. 처음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가 성남에 왔을 때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편견이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시민과 청소년들은 신선한 충격이자 도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 후 우진이의 성남청소년교향악단 입단과 그로 인한 지휘자의 지도는 우진이가 한층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먼저 대만 화련시의 초청을 받아 대만에서 클라리넷 김우진과 협연하였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우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그 후 2007년에는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와 지적 장애인 클라리넷 김우진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2008년 김우진& 재즈 하모니카 전재덕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
2009년 김우진& 시각 장애인 마림바 전경호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
2010년 김우진& 지적 장애인으로 구성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
2011년 김우진& 지체 장애인 정기영(시의원)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
2012년 김우진&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
2013년 김우진& 시각 장애인 유지민 인기가수 바비킴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

김우진은 이제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로서 올해부터 참여하며 현재는 하트하트오케스트라 상임 단원으로서 활동 중에 있다. 이제 성남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할 이유가 생겼으며 현재 진행형으로 이를 실천하는 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남청소년교향악단뿐이다. 기회가 된다면 이곳에서 세계 유명한 장애인들과 한국의 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음악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13년에 연주한 음악회의 내용을 잠깐 살펴본다면 김우진은 8회째 맞았던 '장애인과 바비킴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에서는 시각 장애인 스타킹 스타 유지민과 함께 오페라의 아리아의 선율을 멋지게 연주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찬사를 받았다. 특히 이날 우진이가 연주한 로미오와 줄리엣의 아리아에서는 재치 있는 클라리넷 연주로 사람들에게 환희와 감동을 주었으며, 이어 같이 연주한 잔니 스키키의 아리아의 연주에서는 오페라의 슬프고 감미로운 선율을 잘 표현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었다. 우진이가 바로 이런 아이다. 사람들에게 기쁨과 눈물의 감동을 주는 아이, 신이 주신 특별한 달란트를 잘 표현하여 희망을 주는 아이다.

아름다운 음악회 때 우진이 어머님의 인터뷰가 있었다. 어머님은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께 이런 말을 했다.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그릇이 있다고. 신께서 우진이에게 맞는 그릇을 주시듯 다른 아이들에게도 각자만의 그릇이 있으며 그릇에 온전하게 담을 수 있게 노력하면 된다고 말했다. 우진이 어머님 말씀처럼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달라도 그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그 주신 그릇대로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우진이를 통해 우리 교향악단 단원들도 세상에 있는 편견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진이를 처음 본 순간을 기억한다. 순수했던 아이. 천진난만한 모습을 통해 나는 우진이의 잠재력을 어떻게 이끌어낼까 …… 우진이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물론 우진이 어머님 역시 우진이의 잠재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 우진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서 격려했으며 끝없는 기도로 아들을 보살폈다.

그 사이에 우진이는 백석대학교를 졸업하고 하트하트오케스트라에 입단하여 전문 연주자의 길로 들어섰다. 누구보다 더 감수성 있는 연주자로 성장하였고 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에서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연주자, 동시에 솔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우진이가 좋은 클라리네스트로 성장하길 기원한다.

컬럼비아대학교 예비 공학박사 찬울이의 꿈

한 겨울이 지나고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춘삼월에 분당구청에서 긴장하며 연습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성남청소년교향악단 4/4분기 중에 1/4분기 신입 단원 모집 날이다. 이번 신입 단원 중에 눈에 띄는 것은 김찬울 학생이다. 이 학생은 말이 없었고 바이올린을 잘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뛰어난 학생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음악을 좋아했고, 사물을 즐겨 보며 언제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었다. 교향악단에 입단하여 활동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상당히 사교적인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러면서도 자기 일에 집중할 줄 알았고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어머님과 함께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다 용인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분당구청까지 오기에 꽤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다니면서 활동을 즐겼다. 어느 날 연습 도중 쉬는 시간에 "선생님 이 서곡을 연습을 하면서 온몸에 닭살이 돋아요. 너무 감동이 되어서 몸을 움츠리게 되어요. 왜 그러지요?"라고 내게 물었다. 이제까지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이런 아이는 처음 봤다. 내가 대답하기를 "그래 그게 음악이야. 그 음악이 너를 끌어들이고 그 음악을 네가 즐겁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란다. 그게 바로 행복이지. 찬울이의 마음을 음악이 지배하도록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렇다. 오케스트라 음악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하기를 청소년은 아직 덜 성숙된 사람으로 인식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주입하려고 한다. 그러나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느끼는 것은 똑같으며 거기에서 내가 느꼈던 것은 우리가 짜장면은 못 만들어도 맛을 안다는 사실이다. 어른이든지 어린이든지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후로 찬울이는 오케스트라 음악에 매진하면서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집중력이다. 집중력이 고도로 발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찬울이는 고등학교를 특수 영재 학교로 가게 되었고 그 후로 울산과학기술대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 대학교 생활하면서 그는 더욱 활발하고 특히 동아리 활동에 남다른 면모를 보이면

마음으로 음악을 받아들이는 찬울이

서 사교성을 발휘하게 된다. 당연히 공부는 으뜸이다.

그를 지켜본 교수가 찬울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김찬울 학생이 다른 대학생과 다른 면을 찾아보면서 성남청소년교향악단 활동의 멋진 모습과 공부를 잘하는 모습에 교수는 감동한 것 같다.

어느 날 찬울이 어머님께서 나에게 전화를 하셨다. 찬울이의 지도 교수님이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후보로 김찬울을 추천했다고 한다. 찬울이의 오케스트라 활동 사항을 보내줄 수 있는지, 성남청소년교향악단 활동과 봉사했던 면면을 적어 보내줄 수 있는지 물었고, 나는 당연히 그 활동을 서류로 보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추천도 해주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연락이 왔다. 찬울이가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것이다. 청소년기를 음악과 오케스트라 합주를 통해서 그의 인생에 면모를 다졌으며 그에 내면의 세계를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폭이 넓어졌고 자신을 알게 되었고,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노력했던 것 같았다.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자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귀감을 얻게 되었고 부러움을 사게 되었다. 이런 과정 중에서도 그는 자만치 않고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마치고 컬럼비아대학교 박사 학위 과정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게 되었다. 찬울이는 컬럼비아대학교로부터 기거할 아파트와 장학금과 약간의 생활비까지 받게 되었다고 한다. 뉴욕에 머물고 있는 그에게서 어느 날 전화가 왔다.

>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찬울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컬럼비아대학교에 박사 학위 받으러 왔습니다. 와서 보니 줄리어드에 들어간 성원이가 보고 싶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벌써 나의 제자들이 2명씩이나 뉴욕에 가 있다. 줄리어드에 들어간 성원이와 공학 박사를 취득하기 위해 컬럼비아대학교에 들어간 찬울이. 청소년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아무리 되새겨보아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다.

내용누락

p.346-347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예비 법조인 준희의 꿈

박준희. 이 아이는 성남청소년교향악단을 찾아왔던 계기부터 독특한 아이였다. 플루트 연주를 잘하기도 했으며, 좋아하기도 한 아이였다. 준희 스스로가 우리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알아보고 온 아이였다. 수서에서 분당까지 가깝지 않은 거리를 빠지지 않고 왔던 아이, 수서와 분당 간의 거리는 문제되지 않았던 아이였다. 고등학교에서도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으며, 원만한 학교생활 그리고 교향악단에서의 생활 역시 잘해 왔던 준희였다. 하지만 준희에게도 교향악단 생활의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다. 준희와 아버님의 갈등이 있었다. 공부를 잘하는 준희가 교향악단 생활로 공부를 멀리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버님과의 갈등은 준희 스스로가 교향악단 활동과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준희는 플루트를 참 잘하던 아이였다. 성남청소년교향악단이 대만 초청으로 대만에서 공연할 때에도 솔로 연주를 하였고, 박태현 음악제 때에도 '윌리암텔'을 연주하는 날 결국 솔로 파트는 준희가 하게 되었다. 준희는 망설였지만 나는 지휘자로서 용기와 더불어 솔리스트로서의 기회를 주었다. 박태현 음악제 연주 날, 준희는 '윌리암텔'의 솔로 파트를 아주 멋지게 해냈고 그도 기뻐했지만 나 역시도 기뻤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준희가 나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플루트 전공과 공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듯하였다. 나는 준희의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권력을 갖고 살면서 권력을 누리고 사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즐기면서 사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 주었다.

준희는 며칠을 고민하더니 남자로 태어나 권력을 갖고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고, 그럼 권력을 가지려면 '법'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하였다. 준희에게 목표가 생기게 되었고 준희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러던 중에 2학년 2학기에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라는 입학 제도가 생겨 준희에게 추천서를 써 달라는 부탁이 왔고 나는 준희가 교향악단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얼마나 주도적

이고 성실한 아이였는지를 써 주었다. 그리고 한 달 뒤 서울대학교 법대에 합격하게 되었고, 그렇게 서울대 법대생이 되었다.

생각해보면 준희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였다. 그 아이가 법을 전공하였어도, 플루트를 전공하여 연주자의 길을 택했어도 뭐든 잘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준희는 공부도 연주도 놓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았던 아이였다. 우리 성남청소년교향악단의 활동을 통해 음악으로써의 끼를 맘껏 발산도 하였고, 공부 역시 놓치지 않고 잘해냈다. 준희는 아직도 생각하면 기특하고 대단한 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좋은 법조인으로 활동하기를 기대하고 늘 준희의 앞날을 위해 기도한다.

윌리암텔 솔로를 멋지게 소화한 준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클라리네스트 예실이의 꿈

일요일 오후 5시 분당구청 소회의실, 몇 명의 아이들이 클라리넷을 연주하고 있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 클라리넷 강사 선생님이 있다. 바로 박예실 선생님이다.

예실이가 교향악단에 오게 된 것은 먼저 온 예실이의 언니가 활동을 하였기 때

예실이가 참여한 오케스트라 공연

문이다. 예실이 또한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취미로 클라리넷을 시작해 교향악단에 입단하였다. 언니와 같이 활동을 하게 되어서 그런지 쉽게 적응하였다. 예실이는 언제나 리더십이 있었고, 관파트에서도 주도적으로 연주를 잘해 내 다른 단원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다. 스스로도 교향악단에서 재미있게 활동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리더십과 주저함이 없는 성격,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고 호응을 이끌어내는 예실이에게 솔리스트의 기회를 주고 싶었다. 예실이에게 어떤 곡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거쉰의 '랩소디 인 블루'를 생각해냈다. 예실이에게 곡을 주었지만 처음에 부담스러워 했다. 이건 연습해도 연주하기 힘든 곡이라고 하였고 나는 예실이에게 너도 해보면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격려를 해주었다.

예실이가 음악적으로 힘들 때마다 나는 숨겨진 음악적 잠재력을 깨워주었고, 예실이는 클라리넷 주법과 음악적 기량을 배워 나갔다. 그리고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나는 예실이에게 하나의 가능성과 기회를 주게 되었다. 그 뒤 더욱더 클라리넷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으며, 결국 클라리넷 전공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예실이의 전공자 입문기는 쉽지 않았다. 예실이와 부모님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길 원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입학이 쉽지만은 않았다. 첫 번째 입시에서 합격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예실이와 부모님은 굴하지 않고 더 열심히 정진해 다음 연도에 멋지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나는 누구보다 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예실이의 입학을 축하해줬으며, 예실이가 연주자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열심히 전문 연주자의 길을 밟고 있는 예실이에게 앞으로 더 많은 기회와 많은 연주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멋진 클라리네스트가 되길 바란다.

교향악단의 지휘자로 있으면서 내가 가르친 아이가 음악을 전공하여 음악가의 길로 들어설 때마다 뿌듯함을 느낀다. 이제 이 친구와 나는 음악계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

교향악단 지휘자로 있으면서 아이들 간의 교류를 통해 아이가 성장하고 긍정적인 면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마다 이게 바로 청소년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국 다트머스칼리지 장학생 수형이의 꿈

수형이는 중학교 때 처음으로 바이올린 오디션을 보아 우리 교향악단에 입단했다. 늘 매사에 진취적이고 주도적이었던 수형이는 총명했고, 누구보다 발 빠르게 행동하던 아이였다. 그러던 수형이가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민족사관학교에 입학한 수형이는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싶어 했고, 결국 '민족사관고등학교 오케스트라'를 이끌게 되었다. 하지만 수형이는 우리 성남청소년교향악단에서 단원으로 있었던 터라 지휘 스킬과 단원들 소리 블랜딩 작업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내가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직접 가서 지도하고 싶었지만 너무 먼 거리라 수형이가 집에 오는 주말을 이용해 지휘 스킬과 소리 블

수형이가 참여한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

랜딩, 그리고 악보 지원 등을 해주었다.

우리 교향악단의 겨울 캠프에 민족사관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친구들도 함께 참여하길 원해 캠프를 가게 되었다. 바로 이날 우리 교향악단과 민족사관고등학교 오케스트라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오전에 캠프에 입소해 우리 성남청소년교향악단의 어린 친구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본 민족사관고등학교 친구들이 보고 놀라 열심히 연습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일과가 끝난 후 민족사관고등학교 단원들은 쉬지 않고 각자 자기의 과제와 하고자 하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다. 성남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은 휴식 시간을 보내려 하였으나 민족사관고등학교 단원들이 자신들의 학업을 위해 열중하는 모습을 보고 단원들은 놀아야 할지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하였으나 방법이 없었다. 성남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은 공부할 책들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사관고등학교 단원들이 공부하는 동안 떠들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구경만 해야 했고, 그걸 보다 못한 다른 단원들은 잠을 청하기도 하였다.

다음 날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갑자기 학부모들이 몰려왔기 때문이다. 단원들이 각자 집에 전화해서 공부할 책들을 가져다 달라고 졸랐기 때문이다. 학부모들도 놀랐고, 필자인 나 역시도 놀랐다. 이게 바로 청소년기의 서로가 서로의 멘토

가 아닌가 싶다. 서로의 장점을 보고 선의의 경쟁을 하며 자신을 다듬어가는 그 모습,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는가!

진취적이고 총명한 수형이

이러면서 지나기를 4일째 마지막 날, 지역 주민을 위해 연주하는 날이자 그 동안 연습한 곡들을 학부모님들에게 들려주는 날이다. 연주를 감상한 신입 단원의 부모님들은 물론이요, 민족사관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더욱 감동을 받았다. 그 여세를 몰아 8월의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에 민족사관고등학교 오케스트라와 합동으로 연주를 하게 되었으며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버스를 동원하여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들이 관람객으로 참여함은 물론 민족사관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단원들조차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연주한 그 자체를 자랑스럽고 보람 있게 생각하였다.

수형이로 인해 우리 교향악단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마냥 철부지 같던 아이들이 학업에 꿈을 갖게 되었고, 수형이가 롤 모델이 되어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이 다른 단원들도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생겼다.

멘토라고 하면 어른과 아이의 개념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수형이가 다리가 되어 아이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 주었고, 성남청소년교향악단뿐만 아니라 수형이에게도 좋은 결과를 안겨주게 되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오케스트라도 뜻깊은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 서로에게 피드백(Feed back)을 주어 좋은 결과를 나눈 셈이다. 그 후 수형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 '다트머스칼리지(Dartmouth College)'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4년 장학생으로 가게 되었다.

성남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이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기 그지없다. 한 단원이 성장을 하여 그 기반을 잘 만들어 내면 다른 단원들도 이 선배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즐거움 또한 없다고 생각한다.

에필로그

미래의 희망, 청소년들이여! 오늘도 꿈을 찾아서 정진하기를

지금까지 살펴본 일곱 아이들은 나에게는 무지개 같은 아이들이었다. 무지개는 각각의 색으로 아름다운 장관을 만들어 낸다. 우리 학생들은 다 각각의 사연으로 나와 인연을 맺어왔다. 때론 힘들었고 좌절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는 같이 극복했고 성장했다. 그렇기에 동행한 청소년들은 좋은 결과들이 있었고 그 결과들이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모범의 멘토로 작용되어 좋은 모델이 되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청소년들의 꿈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일상은 평범한 일상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다만 그런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만남이요 또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둘째 환경이 중요하다. 때문

에 필자의 생각, 청소년은 한마디로 '빈 그릇이다'라고 표현한다. 그렇다 청소년 시기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시기이며 무엇이든 배우고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들의 꿈의 모양이 달라지고 그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 시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과 최고의 체험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나라 청소년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 접하고 좋은 체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그러한 환경에서 좋은 꿈을 갖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교육은 백년대계가 아니라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교육이요 오로지 공부, 일등만을 요구하는 획일적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이 청소년 미래에 얼마나 악의적이요 얼마나 많은 불편한 진실을 만들고 있는지는 언론을 통해서나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미래가 없다면 그 나라 또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교육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험 교육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교향악단 활동을 통해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배출해 내면서 위와 같은 단원들의 꿈을 만들었고 현재 있는 단원들 또한 그러한 꿈을 꾸며 선배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청소년들이여! 만남을 중시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스스로 되돌아보아 최선의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자.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데 주저 말고 노력하자. 그러면서 자신의 미래에 목표를 두고 꿈을 만들자. 꿈이 있는 자, 정진한다면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제2장
대안교육, 성남의 새로운 교육 물결로 자리 잡다

김정삼 유스 바람개비스쿨 대표

대안교육에서 시대를 읽다

지역 대안교육 현장을 돌아보는 일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을 책임지는 지역 사회가 교육에 대해 어떻게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획일화된 교육 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교육을 찾아 실험하고, 둥지를 틀어 자리를 잡고 있는 성남 대안교육의 흐름을 따라가 본다.

성남 지역의 대안교육을 찾아보는 일은 청소년 성장 단계에 따른 정규 교육과 다른 모습의 교육을 찾아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교육 이념과 청소년이 처한 여건에 따라 여러 갈래로 운영되는 대안학교를 모았다.

황폐한 교육 현실에서 진정한 배움을 추구하는 운동이 대안교육이라면, 어린이부터 취업 이전의 청년까지를 포괄하는 성남 지역의 대안학교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안교육운동은 벌써 십여 년을 훌쩍 넘겨 여러 갈래의 흐름이 이어져 오면서 어느 정도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교육 선택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 대안교육을 만들어 낸 이유다. 학교교육만이 교육의 전부라는 것에 대다수 교육 주체들이 동의하지 않는 게 사실이니까.

성남 지역의 대안교육은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성남 지역의 대안학교 현황을 보면 초등 대안학교가 만들어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지만, 공동육아와 방과 후 대안학교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공동육아는 '세발까마귀', '굴렁쇠', '두껍아두껍아', '꾸러기 어린이집'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유치원생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대안학교인 '창조학교'가 오랫동안 활동 중이고, 수정·중원구 지역 저소득 중고생을 돌보는 '함께여는 청소년학교', 분당 우리복지재단의 '에듀투게더', '컬쳐투게더' 등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로 '디딤돌학교'가 생긴 이래로 2012년 '바람개비스쿨', 2013년 '일하는 학교'가 차례로 개교했다. 아울러 쉼터서 운영하는 '해냄스쿨 디딤돌'에서 청소년 정서 치유센터로 갈라져 나온 '이음과 배움' 등 청소년들의 욕구와 처지에 따라 다양한 교육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어, 도시형 대안교육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현재 교육마을 만들기 운동이 회자膾炙되는 상황과 지역을 돌아볼 때, 수정·중원구에 공동육아 대안교육 기관 필요성이 존재하고, 본시가지 및 신시가지를 아우르는 초등 대안학교 설립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이 한해 1800여 명(2012년 경기도 교육청 통계)에 달하는 현실을 볼 때 중등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지역 사회 노력도 필요한 실정이다.

성남시 인근의 공동육아 대안학교 현황

명칭	소재지	홈페이지
굴렁쇠	분당구 발이봉남로43번길 3-1(수내동)	http://ini.gongdong.or.kr
꾸러기	분당구 예원로 22(분당동)	http://kkureogi.gongdong.or.kr
세발까마귀	분당구 쇳골북로32번길 3(금곡동)	http://blackcrow.gongdong.or.kr
두껍아두껍아 뭐하니	광주시 오포읍 창뜰아랫길 37-17(능평리)	http://toadtoad.gongdong.or.kr

성남 지역 대안학교 순례

1. 공동육아 대안학교 '세발까마귀 어린이집' 스토리

- 소재지 : 분당구 쇳골북로32번길 3(금곡동)
- 홈페이지 : http://blackcrow.gongdong.or.kr

공동육아 대안학교 '세발까마귀 어린이집'

2001년 6월 개원한 세발까마귀는 부모가 운영하는 부모 협동 어린이집이다. 넓

은 정원과 텃밭, 하루에 한 번 근처 산으로 나들이를 다니면서 자연 속에서 함께 크는 법을 배운다. 우리 농촌의 유기농 음식을 먹이고 자녀 교육을 위한 매달 소모임도 가지면서 나의 아이뿐만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자 실천하고 있다.

"출근한 지 ○○입니다"

벌써 '세발까마귀'에 출근한 지 100일이 넘어갑니다. 졸업식 날 처음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어찌나 어색하던지 졸업식을 진행하는 입장이 아닌 관람하는 자리이고 또 처음 뵌 부모들과 낯선 터전이라 어디에 앉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낯설었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세발까마귀 적응기를 제안 받고 제 생활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아침부터 보면 출근 시간이 걸어서 3분이었는데 차로 30분이나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은 아파트 입구 바로 앞에 있어서 오전 7시에 일어나 늑장을 부렸답니다. 지금은 6시에 일어나도 부지런히 준비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아이들이 깨기 전에 아침을 준비하고 일어난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낼 준비를 하고 밥을 먹이고, 현관문을 열어 엘리베이터를 잡고, 기다리

공동육아 대안학교 세발까마귀 어린이집

면서 온갖 잔소리를 동반한 인사말을 하고 무사히 내려오니까요.

두 번째 변화는 많은 관계 속에서 거리감이 있고 경직되었던 마음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는 내 반 아이만이 아닌 모든 아이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요. "안녕, 애기똥풀" 하며 등원하는 언니들이 참 고맙더라고요. 날 이리 반겨주는구나 싶기도 하구요. 어제 누가 마실을 왔는지, 또 책에 나오는 곤충을 아는지, 어떻게 접어야 비행기가 멀리 날아가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같이 진지해지기도 깔깔거리기도 하면서 말이죠.

세 번째 변화는 일상생활을 즐기는 여유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가는 나들이 길이 익숙해져 가네요. 코스모스의 도움이 없으면 나설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설펐는데 이젠 천천히 준비하고 여유 있게 다녀올 만큼은 된 것 같아요. 공동육아 교사로서 즐거운 일상 중에 하나인 나들이. 그러니 우리 아이들은 나들이가 얼마나 좋을까요? 익숙한 장소에서 오는 안정감도 좋고 그 속에서 작은 변화를 찾아내는 재미도 있답니다. 노란 꽃이 피었다 지고, 분홍 꽃이 피고 이젠 보라 꽃이 피네요. 찔레 순을 따먹고 나니 아카시아 꽃이 기다리네요. 다음엔 산딸기랍

추석을 앞두고 찐 밤을 먹는 세발까마귀 원생들

니다. 아이들보다 제가 더 기다리는 맛있는 나들이랍니다. 개미를 찾다가 거미도 보고, 이제 기어가는 자벌레를 찾아 바삐 움직이는 아이들이 즐거워 보입니다.

부모들이 모이는 방모임이 얼마나 떨리던지, 너무나 초롱초롱한 부모의 눈빛이 실은 더 긴장됩니다. 아이들 모습을 관찰해 수첩에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적는 업무로 날적이를 적는 시간이 하루 중 긴장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6명뿐인데 날적이를 쓰고 나면 낮잠을 깰 시간이 되기도 하네요. 아이들을 재우고 어두운 곳에서 몰래 적는 연애편지처럼 아이들 이야기도 즐겁지만 부모와 소통하는 편지도 함께 해 마음을 주고받는 일이랍니다.

나이 마흔에 새롭게 시작한 세발까마귀 생활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웃음으로 넘겨주신 세발까마귀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사 애기똥풀의 편지 중에서-

공동육아 조합원 수칙

① 우리는 어린이집을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눈이 마주치는 아이부터 인사를 건네는 작은 일에서부터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아이들의 부모가 되고자 한다.

② 우리는 아이들이 자연 친화적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공동체적 경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자율성, 사회성, 창의성이 자연스럽게 싹트는 교육을 가장 기본적인 교육 이념으로 한다.

③ 우리는 어린이집의 교육을 전적으로 교사에게 일임하여 교사의 자율성, 전문성을 최대로 보장한다.

④ 우리는 터전에서 냉장고 음식물을 함부로 꺼내거나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등의 쓸모없는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다.

⑤ 우리는 개별적인 말로 인한 서로 간의 오해,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공식화된 언어를 갖는다. 조합원은 이사장을 통해, 교사는 교사 대표를 통해 제안을 하고, 사안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교사 대표는 공식 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하고, 수렴된 안을 서로에게 전달한다.

⑥ 우리는 조합원으로서 해야 할 회의, 청소, 교육 등을 개인적인 상황보다 우선으로 참여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육아를 만들어나가며, 전체의 공식 회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에 대해 민주적으로 따르고, 사후에 개별적으로 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우리는 어린이집의 생활 도중 아이들끼리 낸 상처, 사고, 교사의 훈육에 대해

부모로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⑧ 우리는 어린이집을 오가는 시간을 반드시 지켜서 내 아이로 인해 어린이집 전체 흐름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한다. 이때 아이의 짐은 부모가 직접 사물함에 정리한다.

⑨ 우리는 매달 보육료를 기한 내에 입금시키며, 재정의 손실·잉여금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나눠 가진다.

⑩ 우리는 이 시대의 바람직한 유아 교육의 대안으로 공동육아를 실현하여 어린이에게는 열려 있는 세계를, 부모에게는 육아 문화의 전환을 이뤄낸다.

세발까마귀 부모 행동 규칙

① 어린이집에 들어서면 자기 아이만 찾거나, 자기 아이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달려가지 말자.

② 터전에서 먼저 마주친 아이들의 이름을 큰소리로 불러주고 함께 뒹굴며 정다운 대화를 나누자.

③ 특히 울고 있거나 외로워 보이는 아이가 더 소중한 나의 아이, 우리 아이다.

④ 아이들이 몰두하고 있는 놀이나 활동에 즉석에서 동참하여 친구가 되어주자.

⑤ 터전에 들어섰을 때 자기 아이가 놀이나 활동을 중단하고 자기에게로 쏜살같이 달려오기를 기대하지 말자.

2. 방과 후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함께여는 청소년학교'

- 소재지 : 중원구 광명로 111(성남동)
- 홈페이지 : www.snnet.kr

방과 후 대안학교 '함께여는 청소년학교'

2008년 4월 중원구 성남동에 '함께여는 교육연구소'가 설립, 운영하는 중학생 전용 배움터가 문을 열었다. 저소득 위기 가정 자녀들의 온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배움터 역할과 지역 사회 교육 복지 통합 모델 개발을 위한 '삼성꿈장학재단'의 지원 사업인 '성남청소년지원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한다. 상근 인력과 전문 영역별

강사, 지역 사회 교사, 고등학교 학습 또래 멘토링 자원봉사자 등이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방과 후부터 오후 9시(방학 및 토요일은 별도)까지 운영한다.

주로 하는 일은 학년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체계화된 교육을 진행한다. 기초 학습 능력 향상, 정보 및 진로 지원, 문화 감상 및 체험, 방학 캠프, 안전한 먹거리 제공, 정서 지원, 생활 및 교육 자치,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성남 지역 방과 후 대안학교 현황

학교명	대상	소재지	홈페이지
에듀투게더	중고생	수정구 수정로 205(태평동)	http://www.woorichurch.org
컬쳐투게더	중고생	수정구 수정로 346(산성동)	
창조학교	어린이, 청소년	분당구 불곡북로25번길(정자동)	http://cafe.naver.com/chang-joschool

함께 부르는 우리들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12시가 좀 지나자 배움터 문을 열고 멀쑥하니 웃는 아이가 있다. "어~ 학교는?" "갔다 왔어요." 짜증과 머쓱함이 묻어 있는 대답이다. "단축 수업?" 알면서 물어본다. "아뇨, 할머니가 안 깨워줬어요." 이러쿵저러쿵 핑계를 댄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가면 또 혼이 날까봐 '에이' 하며 그냥 가버린다. 집에서 TV를 보다 오다가 피시방에 들러 한 판하고 왔을 터, 동해는 중2 때 학교로부터 의뢰되었다. 보통 1학년부터 입학하는 경우와 달리 결석 일수가 너무 많아서 유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가정에서 돌볼 사람이 없어요. 가정과 같은 따뜻한 돌봄이 필요해요." 선생님은 동해 아버지가 집에 잘 안 들어오시고 할머니가 동해를 키우고 있어서 생활도 불안정해 돌봄이 필요하며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요청하였다.

오래된 방임으로 아이는 짧고 허름한 교복에 헝클어진 머리, 마르고 꾸부정한 몸, 양말을 신지 않은 채 슬리퍼 차림으로 담임 선생님과 함께 배움터에 오게 되었다.

동해 아버지는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지 아이가 가진 슬픔과 분노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다. 할머니가 키워주고 있으니 밥 안 굶고 있을 거라는 게 전부였다. 어쩌다 집에 오거나 전화를 해 할머님이 푸념하시면 동해를 야단치고 매로 때리니 아버지가 집에 오시는 날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친구 집에서 잔다.

상담을 통해 동해 아버지를 설득해 검사를 진행했다. 동해는 우울과 분노 조절

검사에서 경계선 치수가 나왔다. 아버지 역시 우울이 높게 나왔다. 검사 결과로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왔지만 다른 정신과 의사와 상담 전문가와의 솔루션 회의를 통해 동해에게 결손된 다양한 자극과 경험을 제공해 보는 것을 우선하고 나서 다시 검사하기로 하였다. 어린 나이부터 약물 치료를 할 경우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고위험 상태가 아니면 섣불리 약물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돌봄이 필요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에 대한 지원 시작

동해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학교 아이들은 네트워크 소속 학교, 지역 아동센터, 지역 사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추천을 하게 된다. 돌봄이 필요하거나 기초 학력이 부족하여 학교 적응이 어려운 경우, 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원을 갈 수 없지만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이 선정되고 학생, 학부모 상담과 동의를 거쳐 입학하게 된다. 2008년 1기생 20명이 청소년학교 생활을 시작하여 현재는 인근 9개 학교 학생들로 4기생까지 65명이 등록하였다.

학기 중에는 4시가 지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배움터 문을 열고 들어온다.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달려오거나 집에 들려 잠시 쉬다 오면 늦기도 하지만 5시에 아이들이 센터에 모이고 1교시 수업이 시작된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교과목 수업이 있고 공부를 싫어하거나 1교시 수업이 없는 아이들은 각자 개별 학습을 한다.

영어 단어라도 좀 외웠으면 좋겠지만 혼자서도 외울 수 있는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읽기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 하나 하나 교사의 손이 가야하는 개별 학습이다. "전 만다라 할래요", "뜨개질 할래요" 동그라미 짜기, 뜨개질, 바느질하기, 피아노, 기타 연습 등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보드게임에 열중하거나 수다를 떠는 아이들이 더 많다.

5시 30분부터 저녁 급식이 시작된다. 아이들은 모두 따뜻한 음식을 받아 삼삼오오 짝을 지어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월요일은 자치 회의와 축구가 있지만 다른 요일 2교시에는 학습 시간이 대부분이다. 아이들의 기초 학습 지원은 쉽지 않다. 대부분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갖고 있다.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공부가 너무 어렵다.

아이들 마음이 복잡하다. 아이들 모두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

함께여는 청소년학교 '청소년 문화한마당'

수업은 따라갈 수도 없다. 알아들을 수 없는 학교 수업은 짜증만 난다. 그래서 센터에 와서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애쓰지만 마음처럼 안 된다.

영어, 수학은 수준별 소그룹으로 진행한다. 자원 교사들은 3명에서 4명 정도의 소그룹을 꾸린다. 또래 학습 멘토링은 일대일과 자원 교사 수업의 보충이나 복습 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 회의 시간에는 이런저런 배움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청소년학교의 생활 규칙, 가치를 생산하는 주요 기구가 되고 있다. 월요일은 축구 시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다. 목요일은 동아리 활동이 집중되어 있다. 수공예, 요리, 보드게임, 통기타, 노래, 만화 동아리 등이 있다. 그렇게 1년 동아리 활동을 하고 나면 씨앗과 열매 발표회를 갖는다.

올해 한 아이가 이우고에 입학했다. 3학년에서 반은 인문계, 반은 실업계를 가게 되었다. 동해는 실업계고에 입학을 하게 됐다. 동해는 청소년학교를 통해 배움터 기본 생활, 아침에 학교가기 사례 관리, 의료 기관 연계, 미술 치료, 기초 학습 지원, 멘토링, 문화 체험, 캠프 등에 참여했고 아버지 상담, 가정 방문, 학교와의 협

력 등 다양한 지원으로 졸업을 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게 됐다. 동해가 학교에서 사는 이야기처럼, '함께여는 청소년학교'에는 60여 명의 아이들과 7명의 교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있다.

3. 학교 밖 청소년 배움 공동체 '디딤돌학교'

- 소재지 : 수정구 탄리로 9(수진동)
- 홈페이지 : http://didimdolschool.cyworld.com

학교 밖 청소년 배움 공동체 '디딤돌학교'

'디딤돌학교'는 2001년 서울시의 수서청소년수련관에서 전일제 학교로 개교했다. 2003년 말 수련관에서 학교를 접고 3개월의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2004년 3월 성남으로 이전했다. 5~6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로, 지역 사회 배움터라는 실험을 시작했다.

2005년 '학교 밖 청소년 배움 공동체 디딤돌'이라는 이름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했다. 당시 수업은 검정고시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여타 수업은 다양한 시도는 있었으나 체계적인 교육 과정 구성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2006년 '다음세대재단'의 지원을 통해 '유스 보이스센터'가 시작되었고 치유미디어교육 실험의 첫 발을 내딛었다. 2010년 학습센터, 성장센터, 길찾기센터로 구분하고 영역별 활동을 진행했다.

2013년 현재 디딤돌학교 외에 청소년 심리 치유를 위한 '이음과 배움',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일하는 학교'로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자신과 세상을 여는 둥지를 찾다"

초겨울 소낙비가 끈덕지게 내리던 지난 2009년 11월, 30명의 아이들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대관령 표지석 앞에서 멈춘, 200km 강릉 도보 여행. 길 위에서 수업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났다. 올해도 어김없이 떠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 이번엔 인도다. 과연 성공할까?

"태어나서 처음 해외로 나가요. 인도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춤도 추고, 종이접기

도 가르쳐 줄려고요. 괜히 마음이 설레요." 졸업 여행을 준비하는 앳된 소녀 박윤정(19, 디딤돌학교 4년)의 얼굴엔 기대감이 어려 있다.

윤정이가 다니는 학교는 '디딤돌학교(수정구 수진동)', 일반 정규 학교가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배움 공동체다. 지난 2001년 만들어져 올해로 9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지만, 설립 이래 처음 해외로 졸업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나눔과 평화를 배우는 여행

디딤돌학교 '자기길 찾기반'이 준비하는 졸업 여행은, 오는 2월 7일부터 14박 15일 일정으로 인도 중부 지방을 돌아보는 일, 학생 8명이 떠난다. 여행도 학교 정규 과정이어서, 프로그램은 알뜰한 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 주제는 '배움과 나눔, 평화를 길 위에서 만나다'로 정했다.

첫 여정은, 델리에 있는 살람발락공동체 방문 자원봉사 활동. 대다수 힌두교 신자로 이루어진 인도 사회에서, 계급 축에도 끼지 못하는 불가촉천민(하리잔) 어린이들이 머무는 기숙학교를 찾아간다. 마하트마 간디가 하리잔들의 인권을 위한 순례 여행 중 머물던 아쉬람(수행 공간) 내에 있는 곳이다.

디딤돌학교 인도 졸업 여행

디딤돌 학생들은 하리잔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노래와 율동, 얼굴페인팅, 풍선인형만들기, 종이접기, 공동체 놀이를 준비했다. 아울러 좋은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벽화 그리기, 환기 시설 설치, 도배하기 등 보금자리를 만드는 봉사 활동도 진행한다.

현지에서 인도 어린이들과 만남은 계속된다. 델리에서 행사가 끝나면, 시골 마을인 카주라호 빌라마을을 찾아간다. 디딤돌 학생들은 시골 학교 아이들과 운동회를 열고, 참여 수업도 하면서, 배움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아이들이 사는 가정집을 방문해 인도인들의

주식인 짜파티를 함께 만들어 보는 체험도 가질 계획이다.

나머지 여정은 근현대 문명이 공존하는 인도 문화 체험. 비폭력 평화운동의 상징인 간디 발자취 따라가기, 종교 간 평화를 말하는 바하이 사원, 사막 도시 자이푸르, 이슬람 건축의 백미 타지마할, 힌두교 성지 갠지스강 바라나시 등등.

로드 스쿨러를 선언한 학생들

아이들을 이끌고 첫 해외 졸업 여행을 떠나는 교사도 설레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다.

>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외국에 나가지 못할 건 없어요. 무언가에 뒤쳐져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을 만나고, 스스로 정성만 있다면 누구든지 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채워주고 싶습니다.

학교 대표를 9년째 맡고 있는 조주현(41) 교사는 2달째 여행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이 담아 올 여행 결과에 내심 들떠 있다. 하지만 또 한편 여행 경비 마련에 노심초사하는 건 그의 몫이다. 교육부 비정규 대안학교 지원금으로 일정 정도 해결되지만, 여러 가지 체험을 감안해 체류 일정을 길게 잡으면서, 후원자들의 십시일반 정성을 더 모아야하기 때문이다.

> 학생들이 더운 날씨에 고생도 할 겁니다. 더욱이 자유 배낭여행처럼 진행해, 현지에서 해결해야 할 게 많아요. 평소 도보 여행, 농촌 활동, 검정고시 준비를 하면서 다져온 팀워크로 해결해야죠.

요즈음 학교 밖 청소년들 사이에 로드 스쿨러(Road-schooler)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길 위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신들을 부르는 말.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은 모두 스승이고,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에서 살아 있는 배움을 하자는 의지를 담은 말이기도 하다. 디딤돌학교 학생들이 여는 첫 해외 졸업 여행, 로드 스쿨러로 활동하는 인도 기행을 지역 사회가 따뜻하게 배웅할 일이 남았다.

디딤돌학교 학기 수료 발표회

공부를 발견하고 삶을 던지다

17살에 고등학교를 가지 않았지만, 검정고시 보는 대안학교를 택했던 가족의 뜻에 처음에 그저 그랬는데 막상 디딤돌 대안학교를 와서 생활을 해보니 그래도 고등학교를 가는 것보단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 17살,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기에 안 들어가면 좀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한편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못 알아먹는 수업 들으면서 졸업하는 것보다 못 배운 과정을 디딤돌에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기초부터 시작해 다시 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나름 배우면서 재미라는 것도 있었고, 또는 답답한 게 없이 생활할 수 있어 편했다. 그러다가 18살, 검정고시를 처음 보는데 턱없이 떨어지고, 1년이 지난 19살에도 그냥 미역국을 또 먹었다. 이제 20살이 되어 조금이나마 공부를 더 해 성공했다. -○○이의 스물 살 고백 중에서-

100일 학교서 꿈을 찾다

이번 100일 학교를 근사하게 마치고서 내년 검정고시 학기 때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미친 듯이 공부해서 검정고시 평균 90점

이상으로 ○○대학교 ○○과를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졸업해서 병원에서 사진 좀 찍으면서, 아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일본 오키나와도 가보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 꼭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기초적인 일본어 공부도 미리 조금씩 해놔야겠지요. -○○이의 100일 학교 일기 중에서-

도보 여행에서 배려를 배우다

이틀째 되는 날, 나는 드디어 나의 한계가 어디인 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은 짐을 두 개나 들고 제일 힘들다는 은지 누나를 챙겼다. 나는 진심 진짜 죽을 것 같았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한테 은지 챙기는 게 힘드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은지를 나한테 챙기라고 하는 건 내가 가장 믿음직스럽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뻤다. 그리고 왠지 힘들지 않았다. -○○이의 도보 여행 일지 중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학교생활

중학교 다닐 때 나는 맨날 학교에 늦게 가고 또 결석을 많이 했고 수업 시간에 잠만 잤다. 그리고 학교에 담을 넘어서 먹거리도 사먹고 또는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고 아무튼 여기 오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꼴통이었다.

그래서 나는 운동 쪽으로 가겠다고 부모님 앞에서 당당히 말했지만 그러지 못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자신감만 넘쳐 있었다. 그런데 체육중학교 입학시험에서 떨어진 후에 희망을 잃었었다. 그러다 이 디딤돌학교에 와서 운동만이 살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음을 잡고 다시 공부를 하려고 생각했다.

지금부터 더욱 열심히 한다는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내가 전에 비해 발전한 모습은 전보다 담배를 줄였고, 또 예전에는 욕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에게 많은 배려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요즘은 사람들하고 잘 싸우지도 않고 내가 살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의 2학기 평가서 중에서-

4. 진로특성화 대안학교 '바람개비스쿨'

- 소재지 : 수정구 수정로 131(태평동) 낙원 스카이뷰 302호
- 홈페이지 : www.youthw.net

소셜 디자이너의 꿈을 키우는 징검다리 대안학교

'바람개비스쿨'은 수정구 태평동 주민신협 주민생활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일제로 운영되는 중·고 통합 대안학교이다. 사회적 기업 유스바람개비가 운영하며, 사회 혁신을 주도하는 직업인 소셜 디자이너(Social Designer)의 꿈을 키우고 있다. 2012년 3월 6개월 과정의 1기생 8명을 시작으로 2013년 9월부터 1년 과정으로 20명의 청소년이 교육을 받고 있다. 학교를 운영하는 유스바람개비는 지난 2010년 경기인천 소셜벤처 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하고, 그해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전국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교육 분야 인증 사회적 기업이다.

바람개비스쿨의 1년 정규 교육 과정은 진로 계획서 작성, 사회적 기업가 격주 탐방, 소셜 비즈니스 아카데미와 협동조합학교 이수, 소셜벤처 동아리 활동, 청소년 카페 문화 기획, 현장 인턴십, 마을 재능 나눔 활동,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완성해야 수료가 가능하다.

소셜 디자이너 활동에서 시대정신과 일머리를 배우자는 취지로 마련한 진로 특성화 교육 과정에 청소년지도사와 직업상담사, 사회적 기업가가 멘토(mentor)로 참여한다. 또한 사회적 자립을 위한 '스스로 서는 삶 프로젝트'도 병행한다. 알아차림 명상과 무예, 살림 교육, 합창, 미디어 리터러시(미디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대화법, 인문학, 공정 여행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바람개비스쿨 김보미(32, 여) 길잡이 교사는 "학생들이 일 년 동안 쉼을 통한 공부,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서구 유럽의 대표적인 진로 교육 제도인 아일랜드의 전환 학년제나 덴마크의 애프터 스쿨 과정을 보면, 고교나 대학 진학에 앞서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 자기 성찰과 진로 탐색을 하는 과정을 갖는 걸 당연시하는 분위기"라고 교육 과정을 설명한다.

이처럼 바람개비스쿨은 쉼과 진로를 찾는 배움 공간을 표방하며, 진학에 지친 청소년들이 쉬면서 학교 밖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길잡이 한다. 청소년과 부모 및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커뮤니티로 자녀 교육 특강과 대화 모임, 학교 안팎의 청소년이 함께하는 다양한 강좌가 있으며, 매월 배움 파티가 열린다.

바람개비스쿨 글쓰기 수업

프로그램은 기업가 정신인 창의·소통·협업을 배우는 필수 교과와 목공·무예·글쓰기·인문학·외국어 등의 자유 교과가 있다. 또한 생활·학습·진로를 계획하는 일대일 멘토링이 있으며, 내가 만드는 동아리 활동과 방과 후 대안 교과 등에 멤버십 제도를 통한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하다.

바람이 머문 자리, 꽃으로 피어라

"학교를 벗어나서 막막했는데, 다양한 활동으로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겨울부에서 공감 수업으로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돼 좋았어요." 지난 2013년 3월 5일, 성남시에 있는 청소년 자립카페 소리울에서 열린 바람개비스쿨 1기 수료식 현장. 제윤(17)이는 2012년 9월 입학 때보다 한층 성숙한 얼굴로 수료 소감을 말한다.

오밀조밀한 청소년 카페 안, 사람들로 붐볐지만 수료식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바람이 머문 자리, 꽃으로 피어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수료식은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혜윤(17)이와 해인(17)이, 4월에 검정고시를 치를 현준(16)이·국현(16)이·영지(16), 도서관 붙박이를 결심한 소현(17)이, 건강 문제로 쉬는 시간을 가질 제윤이를

바람개비스쿨 부모자녀 집단 상담

포함해 7명의 청소년이 참석했다.

이날 수료식은 학생들이 만든 동영상 시청, 바람개비스쿨 일상 연극 공연, 수료 소감 나누기, 선물 증정 순으로 이어졌다. 혜윤이가 직접 만든 활동 기록 동영상에는 다양한 수업 장면들이 스친다. 만들기보다 창의적 기획이 더 힘들었던 목공 수업, 현직 기자들을 만나고 취재를 배운 마을 미디어 수업, 풍부한 시사거리와 말하기를 배운 토론 수업, 아울러 인문학·외국어·등산·노작 활동·연극·환경 특강·여행 수업 등도 빼놓을 수 없다.

가장 인기 있었던 수업은 연극 공연. 학생들의 눈으로 본 바람개비스쿨 일상 중 두 컷이 재현됐다. 벌칙 게임에 연연하는 연극 교사의 인간적 모습과 명상이 마냥 싫은 학생들과 밀당[1]을 하는 명상 교사의 모습이 재현돼 많은 웃음을 선사했다.

수료 소감을 나누는 순서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6개월의 소회를 털어 놓았다. 김보미 길잡이 교사는 "학생들의 내면의 변화가 많았고, 쉼이 있는 배움, 청소년기 적정 경험을 주자는 취지를 충분히 함께했다",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1) 밀당 : 국어사전에 등재된 현대어로 '밀고 당기기'의 줄임말이다. 주로 남녀 관계에서 벌이는 미묘한 심리 싸움을 말한다.

6개월 과정 1기 수료와 1년 과정의 2기 출발

바람개비스쿨은 2012년 9월 개설된 이후 6개월 과정의 1기 수료를 했다. 이어 2013년 4월부터 1년 과정의 진로특성화 대안학교로 2기 수업을 시작했다. 1기 수료생 소현(17)이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상담 시간에 딸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 딸 얼굴이 한결 밝아졌고, 자신이 해보고 싶은 직업을 찾았다고 해서 더 기쁘다"며 "딸이 평생 만날 좋은 친구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수료 선물로는 신영복 교수의 책 『처음처럼』을 모두에게 전달했다. 다음은 수료생 김혜윤(16)과 황소현(17)의 바람개비스쿨 6개월 생활의 소감을 설문 조사한 내용이다.

[질] 바람개비스쿨에 오게 된 동기는?
[답] (김혜윤)부모님의 강요.
[답] (황소현)사람과 만나기 위하여.

[질] 가장 기억에 남은 프로그램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 (김혜윤)요리다. 음식을 직접 하고 먹는다는 게 즐겁고 신기했고, 스스로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답] (황소현)연극, 나에게 연극 연출가라는 꿈을 심어 주었다.

[질] 가장 힘들었던 프로그램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 (김혜윤)야외 활동, 산을 타고 농사를 짓는 게 심리적으로 제일 힘들었다.
[답] (황소현)명성산 하산, 돌계단이 부서져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

[질] 바람개비스쿨에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답] (김혜윤)너무 개성 넘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사이에서 의견 조율이 어려웠던 것 같다.
[답] (황소현)친구들과 관계에서 너무 다른 생각과 관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힘들었다.

[질] 바람개비스쿨에서 가장 좋았던 점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 (김혜윤)친구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부모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놀 수 있었던 게 좋았다.
[답] (황소현)개성이 다양하지만 하나같이 착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질] 바람개비스쿨에서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이며, 그 배움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

[답] (김혜윤)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도 정말 개성 있는 친구들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람개비스쿨에서 만난 친구들은 훨씬 엄청나게 개성 있는 친구들이었다. 이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마찰 없이 넘어가는 법을 배웠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다.

[답] (황소현)역경을 넘어가면 내가 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배웠다. 친구 관계에서 나의 욕구만을 요구하기보단 서로의 욕구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부모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느꼈다.

[질] 앞으로 징검다리 삼은 바람개비스쿨 이후의 계획은 무엇인가?

[답] (김혜윤)애니메이션고 합격 이외에는 계획이 없다.

[답] (황소현)고등학교 진학과 대학 연극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심리학과 진학. 국립극단에 들어가 연극을 하고 연출을 하면서 연출가가 되는 게 꿈이다.

[질] 선생님들에게 한마디만 한다면?

[답] (김혜윤, 황소현)사랑해요.

5. 청소년 자립 대안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 소재지 : 수정구 수정로 238 (신흥동)
- 홈페이지 : www.workingschool.net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탄생

'사회적 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이하 일하는 학교)는 비진학 청소년들의 대안학교이자 진로 직업학교로 2013년 2월 26일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50여 명의 설립 동의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정관과 임원진을 확정하고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일하는 학교'는 2012년 성남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마을형 사회적 기업 발굴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학력 중심 사회에서 소외된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지역의 사업주와 주민, 교사, 청년들이 힘을 모아 진로 탐색·직업 교육·취업 지원 등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교육과 상담을 한다. 2013년에는 직업 체험 목적의 청소년 인턴십, 취업 목적의 제품 설계용 CAD 교육, 리틀 맘(Little mom) 대상의 수공예 교육, 일하는 청년들 대상의 의사 소통법 교

육이 진행되었다.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사업주, 청년, 재능 기부자, 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었다. 사업주는 청소년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편으로 일하는 학교에서 발굴된 청년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이후에는 보조 강사의 형태로 교육에 참여할 수도 있다. 2013년 현재 청년 조합원 대상의 프로그램이 중심이지만 일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 관점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도 개설할 예정이다.

사회적 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창립 선언문

무한 경쟁에 기초한 양적 성장 일변도로 질주해 온 우리 사회의 성장 신화가 무너진 요즈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불안정한 삶이 일상화되어 버린 지 오래고 해결의 실마리는커녕 오히려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불안정한 삶의 팍팍함과 무한 경쟁으로 인한 고단함은 특히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세대인 청소년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88만 원 세대, 3불(不) 세대, 3포 세대로 불리며 고단한 일상생활을 견디고 있는 청소년들은 때로는 열악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때로는 길거리를 배회하며 하루하루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제까지 반세기 이상 우리를 짓눌러 온 무한 경쟁과 양적인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 경쟁이라는 칼날 대신에 협력이라는 꽃이 그 자리를 대체해야 한다. 물질 만능의 양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공동체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자본과 노동,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립되고 경쟁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더불어 공존하고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른 청소년의 자립, 특히 우리 사회의 경쟁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우리 마을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온 마을의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는다. 더불어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을이, 우리 사회가 상호 협력에 기초한 공동체로의 건강한 발전의 길을 새롭게 열어 나가도록 앞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일하는 학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성심껏 수행하고자 한다.

하나. 우리는 청년,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함께 만들어 간다.

하나. 우리는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정신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 교육과 연구를 통해 건강한 마을, 건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간다.

'사회적 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창립총회

하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가는 길에 우리 사회의 모든 조직과 함께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창립총회 참가자 일동-

청소년 자립을 위한 인턴십을 시작하다

지난 6월에 시작한 인턴십 과정이 벌써 석 달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탄천종합운동장, 유○○ 동우환경관리, 노○○ 고등동 하은어린이집, 현지후 선진플러스' 등등.

첫 모임을 했을 때 철없이 떠들고 까불던 아이들을 보면서 과연 이 녀석들이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한 달간의 기초 교육을 아무 사고 없이 충실히 받고, 7월 첫 주부터 한 명씩 자신이 원하던 인턴십 사업장으로 갔을 때도 여전히 믿는 마음과 나란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아이들은 두 달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여유 있고, 어른스러운 눈으로 저희를 보고, 웃고, 장난을 칩니다. 고작 두 달이 조금 넘은 짧은 시간 동안 이만큼이나 큰 녀석들을 보면, 살아온 나이만큼 잘못들인 버릇으로 선

일하는 학교 청(소)년 모임

부르게 판단하고, 재단하고 평가했던 작은 마음이 살짝 부끄럽습니다. -일하는 학교 샘 일동-

건강한 지역 청소년으로 성장하길

다음은 일하는 학교의 조합원이자 동우환경관리 대표인 이인환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질] 처음 어떻게 일하는 학교는 만나게 되셨나요?

[답] 오랫동안 디딤돌학교에 물품 후원을 해 왔는데, 어느 날 이정현 선생님이 오셔서 '일하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남에서 자라면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어려운 많은 환경들을 봐 왔기에 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청년들과 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많이 공감했지요. 요즘처럼 마을이 사라지는 때에 "지역의 어른들이 그 지역의 청소년 들을 거두어서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그들이 다시 지역의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질] 현재 '일하는 학교' 조합원으로 이사, 학생, 교사로 활동하시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 강의를 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재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좋은 것은 교

육을 받는 입장이 되는 것이지요. 인생 2모작이라고 하던데 오늘은 뭘 배울까 하며 수업에 가서 조금씩 배워오는 것, 나이가 들어 배우는 것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질] '일하는 학교'에 하고 싶은 말을 해 주세요.
[답] 같이 잘 살아보는 것입니다.

제3장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지도사

김연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학원으로 가도 되고, 개인 교습을 할 수도 있지만, 가까운 청소년수련관에 가라고 권하고 싶다. 청소년수련관에는 바이올린, 플루트와 같은 악기에서부터 수영, 농구 등 스포츠, 댄스 동아리, 자치 동아리 등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는 각종 시설과 모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비용이 저렴해서만은 아니다. 양질의 교육으로 학교 교육과는 다른 대안교육 시설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수련관은 어떤 곳일까?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하면, 청소년수련관이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 시설'을 의미하며,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이다.[1] 성남시에는 현재 수정, 분당서현, 분당정자, 중원, 판교 등 총 5개의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야탑수련관이 개관할 예정이다. 또한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과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성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까지 청소년 관련 기관들은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 활동, 보호·복지 정책 등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성남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으로 설립되었다가 2013년 11월에 성남시청소년재단으로 개칭되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이 담당하고 있는 성남시 청소년 현황은 표와 같다.

성남시 청소년 현황

단위 : 명·%, 2013년 현재

구분	청소년 인구(9~24세)								총인구수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계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남	21,935	52.0	25,992	51.7	57,734	51.7	105,661	51.8	488,694
여	20,230	48.0	24,303	48.3	53,864	48.3	98,397	48.2	490,862
계	42,165	100	50,295	100	111,598	100	204,058	100	979,556
권역별 비율	21.2		25.2		53.6		100.0		20.8

출처 : 성남시청소년재단(http://www.snyouth.or.kr).

100만 명 가까운 성남시 인구 중 9~24세인 청소년 인구는 20만 명이 조금 넘는 수로 성남시 인구 대비 20.8%를 차지하고 있다. 한 사람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

1) 김진호 외 3명, 『청소년 활동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9, 200쪽.

중원청소년수련관 전경

는 청소년기에 있는 인구가 20%를 넘고 있는 만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사의 역할 역시 크다고 하겠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수련 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 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 단련, 정서 함양, 자연체험, 예절 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 활동 등을 지도한다.[2]

필자가 만난 청소년지도사는 성남시 청소년 활동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총괄하는 성남시청소년재단 이관희 활동진흥팀장과 수련관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원청소년수련관 변호용 청소년활동팀장이다.[3] 이관희 팀장의 경우 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서술도 있지만, 재단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운영 전략, 개인의 앞으로의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변호용 팀장의 경우 청소년지도자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현재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성남 시민으로서 성남 지역에 대한 개인적 견해까지 포함되어 있다.

2) 김진호 외 3명, 『청소년 활동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9, 225쪽.
3) 2013년 인터뷰 당시의 직책이고 2014년 현재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어른의 문화가 나쁜 것이지, 청소년은 나쁘지 않아요

- 성남시청소년재단 활동진흥팀장 이관희

이관희는 1972년생으로 1992년에 명지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 1996년에 졸업하고, 1997년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에 편입하였다. 졸업 후 1999년 10월 한국청소년연맹의 구로공단 내 가산문화센터에서 공연 기획 등 문화 예술 분야를 담당하다가 본부로 들어가 공연 기획, 조직 관리를 맡았고 2003년 2월 그만두었다. 2003년 10월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하게 된 것을 인연으로 그때부터 2010년까지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성남시청소년재단으로 옮겨 일하게 되었다. 안양에서 청소년지도사 일을 하고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 2남이 있다.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직장 생활의 상당 기간을 성남에서 보냈고 많은 활동들을 하였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성남시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의 특징 등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처음에는 대학 졸업 후 한국청소년연맹의 위탁 기관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한국청소년연맹 본부에 들어가 조직 관리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두었다.

원래 지역사회개발학과였는데, 사회복지과로 바뀌었더라구요. 군대 갔다 와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그때 공부를 더 해야겠다 마음먹고 편입을 해서 중앙대 청소년학과를 갔어요. 97년도에 졸업하고 이 길을 들어선 건데. …… 99년 10월 처음에 발령을 받은 게 청소년연맹이 위탁한 구로공단 내에 가산문화센터라고 조그만 문화센터였어요. 처음에는 문화 예술을 했었고 문화 공연, 공단 내에 근로 청소년들을 위한 소규모 문화센터에서 공연 기획을 했고, 1년 정도 했는데 평가가 좋았나 봐요. 청소년연맹 본부에서 2001년부터 시작한 세계청소년문화축제가 있어요. 거기 청소년 행사 사업으로는 최고 큰 행사였어요. 5억짜리 예산을 가지고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 거였는데 기획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1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세계청소년축제의 총괄 기획을 맡았고 행사를 열었죠. 1년 정도 있다가 복직이 안 되고 계속 본부에 남아서 조직 관리를 했어요. 청소년 단원들 조직 관리를 하는데 그 일이 제 적성엔

안 맞은 거죠. 그래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구요.

한국청소년연맹을 그만둔 후 2003년 10월에 종교 재단이 운영을 맡고 있는 서현청소년수련관에 팀장으로 들어갔다. 그해 12월 오픈에 맞춰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였다.

서현수련관에 갔는데 벽 밖에 없었어요., 준공은 했지만 개관은 안 해서 벽만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에서 오픈을 하기 위한 사업을 했었죠.

이후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통합 학교 장애인 CA 활동, 장애인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을 진행하였다.[4]

분당 내 특수학급 아이들 전체는 매주 수요일 오전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모여요. 거기서 특수체육 교사들이랑 특수체육 전문가들이 특수체육을 해주고 있어요. 특수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통합 교육이라 체육수업을 못 받고 있어요. 한번은 체육관에서 재활스포츠 해주고, 2주에 한 번은 수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장애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성공한 데가 성남밖에 없어요. 서현은 분당권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왜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냐면 초등학교까지는 부모님들이 포기를 안 해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조금씩 포기를 하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바뀌어요, 방과 후 아카데미를 고등학교는 못하는 이유가 직업 재활로 가야해서 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원래 1522 희망프로젝트[5]라고 저소득이나 저소득 맞벌이, 방치된 아이들을 수련관에 모아다가 15시에서 22시까지 부모 역할을 해주는 여성가족부에서 했던 프로젝트인데, 서현에서 하려고 봤는데 서현은 그런 계층이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강남에선 못 살고 분당으로 온 장애 아이들이 많더라구요. 히트였죠. 평가도 최우수 받았고, …… 저희도 주 3일 2시간씩밖에 못 해요. 수련관 이미지도 안 좋아진다고 처음에 반대도 있었어요. 오히려 그게 더 교육이죠. 장애 아동들을 인간 대 인간으로 봐주는 시선, 그거 하나만으로도 성공했다고 봐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의 '위스타트(We Start)' 사업[6] 참여

4)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의 CA 활동과 장애인 방과 후 아카데미 활동에 대한 내용은 또 다른 면담자 변호용의 구술에서 더욱 자세히 언급된다.
5) 1522 희망프로젝트는 청소년위원회에서 방과 후 청소년 종합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다.
6) 위스타트(We Start) 운동은 우리(We) 모두가 나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복지(Welfare)와 교육

방과 후 아카데미의 주말농장 체험

아이들과 함께했던 활동이다.

목련마을에 야탑3동, 거기에 위스타트가 처음 시작할 때 동아리 지원하려고 하는데 공무원 주사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영구 임대 단지의 아이들이다보니 거칠고 결석률 높고 사고뭉치고 적응도 안 되고 잘 오지도 않고.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시작할 때, 그 주사님이 동아리 육성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가겠다고 했어요. 그 전에 스키캠프를 애들 데리고 한 번 갔는데 통제가 안 되고 하니까 공무원 분들이 겁이 났었나 봐요. 하지만 '분명히 바뀔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가와 떠나는 기행'이라는 활동을 준비했어요. 사서 선생님하고 저희 지

(Education) 건강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제공해 삶의 동등한 출발선(Start)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로 2004년 각계의 동참 속에 출범하였다. 성남 목련마을의 경우 2004년 11월 17일에 개소하였다(위스타트 운동본부(http://www.westart.or.kr) 참조).

도사들하고 그 작가가 쓴 책을 사서 아이들에게 먼저 읽히고 그 작가랑 떠나는 2박 3일 프로그램이었죠. 먼저 지도사들과 라포르 형성 프로그램을 하고 본 행사 때 2박 3일 행사를 했어요. 끝나고 돌아올 때 아이들이 아쉬움에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그다음부터 위스타트가 결석률이 떨어지고 사업들이 활성화되어서 자부심을 느꼈죠.

서현수련관에서 2010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현 성남시청소년재단)으로 통합되면서 재단 직원이 되었다. 수련관의 사업 방향 중 하나를 보편성으로 잡으면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한 번씩 학교 수업 시간에 수영장에 오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수련관에서 지향하는 보편적 사업 중 하나인데, 현재 일부가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수련관을 이용하는 문제점의 보완책 중 하나이다. 또한 수련관 홍보에도 도움이 되어 수련관이 어떤 곳인지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알 수 있게 된다.

보편적 사업이에요. 현재는 3개의 수련관인데, 야탑수련관이 완공되면 초등학교 3학년들은 다 한 번씩 수련관에 오게 할 거예요. …… 수영장도 왜 의미가 있냐, 3학년 때 한 번 수련관에 오면 수련관이 뭐하는 데인지 알기 시작하거든요. 4학년이 되면 진짜 고객이에요. 만 9세[7]가 되니까. ……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나이가 들면 상담실을 올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고 그냥 쉴 수도 있고.

성남에서 오랜 기간 청소년지도사 역할을 하면서 느낀 '성남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자존감 형성을 꼽았다.

자존감 형성, 공부를 하면서도 한 가지 악기나 취미를 가질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춤을 추건 노래를 하건 기타를 치건, 그런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수련관이거든요.

재단의 직원으로서 수련관 전체를 아울러 수련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등 큰 비전이 있었다.

재단이 목표로 잡는 건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죠. 제가 일을 시작할 때 생각은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서열화되지 않는, 공부의 서열이나 재산의

7)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연령은 만 9~24세이기 때문에 '진짜 고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이관희 팀장의 청와대 방문 기념 사진

서열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그런 걸 꿈꾸면서 이 일을 시작했죠.

앞으로 청소년을 위해 해야 할 일로 위기의 청소년, 탈학脫學 청소년들을 학교로 돌려보내는 일을 꼽았다. 그리고 개인적인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장에 나가 '위기의 청소년'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고 하였다.

대학원은 예술 경영을 했는데 …… 공부를 더 할 계획이고, 사무국에서 일하면서 활동 쪽 일을 벗어났는데 아이들과 같이 대화, 이야기가 어떤 일보다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슬럼화되어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 아이들이 여기(수련관)는 선생님이 잘 해주고, 향후 재단이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위기의 아이들, 탈학, 학교 밖 아이들을 찾아서 학교에 다시 돌려보내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보편적 육성이나 캠프 체험보다 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영역인거 같아요. 몇 년 안에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신흥역, 상대원 이런 데 슬럼화되어 있는 아이들 아웃리치 사업(가출 청소년 구호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흥역, 아이들 탈선이 많은

공간에 상가 하나를 임대해서 문지 마 쉼터를 했으면 좋겠어요.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면담을 하는 것도 통제하거나 가두려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밥 한 끼 먹고 가는. 밥 한 끼 먹고 나서의 범죄율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사고를 치고 범죄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한 중요한 일이죠. 부천에서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요. 매주 금요일이면 애들이 밥 먹으러 오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애들이 먼저 얘기해요. 1년 지나면 인생이 바뀌어 있어요. 그런 진정성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 수련관에서 접근할 일은 아니죠.

이관희가 바라보는 청소년은 어른이 훈계하거나 가르치기만 하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 청소년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청소년 자체가 나빠서라기보다 어른들의 나쁜 문화를 모방하는 것일 뿐이라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아이들은 안 무서워요. 어색하고 거리끼는 건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의 행위는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라 어른들의 문화가 나쁜 거지. 따라가고, 미성숙하다고 하긴 하지만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아이들이 필요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 개인 대 개인으로 눈을 마주쳤을 땐 안 그래요. 우리가 위압을 주거나 우리의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 집단화됐을 때 자존심이나 이런 걸로 문제가 되지 개개인으로 만났을 때는 다 괜찮아요.

청소년기 재수를 하고, 성적에 맞춰 대학에 가고, 대학에 가서도 네임 밸류가 있는 대학에 편입을 하면서 청소년학을 전공했지만 진정성 있는 청소년 문제는 바라보지 못하였다. 수련관에서 십수 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내린 결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청소년지도사들이 나이가 들어도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그의 말을 듣고 진정한 청소년지도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성남, 지역 내 차별은 없으면 해요

- 중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장 변호용

명함 한 장으로 타인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처음 만나서 이 명함을 건네받은 순간 이 사람이 자신의 개성을 잘 표현하는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직원의 명함에는 왼편 하단에 자신의 사진을 넣도록 되어 있단다. 그래서 변호용은 자신의 사진을 넣은 공식적인 명함 외에 자신의 캐리커처를 넣은 명함을 따로 찍었단다. 실제로도 명함만큼이나 본인의 의사 표현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변호용은 1974년에 서울에서 태어나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993년 3월 2일 분당으로 이주하였다. 소위 분당 1세대인 셈이다.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사회체육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특수체육을 전공하였다. 졸업 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현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근무하다가 이관희 팀장과 마찬가지로 2003년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개관 근무로 수련관 업무를 시작하였다. 2007년 팀장으로 승진하였고, 2010년 3월 중원청소년수련관, 2011년 9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2013년 1월 다시 중원청소년수련관으로 왔다. 2003년 결혼하여 현재 아들 둘을 두고 있다.

변호용은 어려서부터 체육에 남다른 재능이 있어 선생님으로부터 체육중학교에 진학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7대 독자였던 아버지의 반대로 일반 중학교에 진학하였다. 하지만 볼링 국가 대표 선수였던 동생을 보면서 운동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결국은 한국체육대학교에 진학하였다.

> 저의 학교는 그 소위 얘기하는 강남8학군이었어요. 개포동에 있는 개포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했고 잘 했었어요. 어느 정도 잘 했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체육중학교에 가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볼 때 특정한 운동을 잘 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잘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저의 아버지가 7대 독자세요. 그럼 저도 제 동생이 태어나기 전엔 8대 독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이 귀했어요. 친할아버지는 저의 아버지 중학교 때 돌아가셔서 외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

역할까지 하셨는데, 굉장히 완강하셔서 그 얘기를 했는데 노발대발하셔서 일반 중학교를 다녔죠. 제 동생이 중학교 1학년 때 볼링이라는 걸 처음 접했는데, 남다른 재능을 보이더라구요. 동생이 볼링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갑자기 운동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께 나도 하고 싶다 그랬더니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셨죠. 강남8학군이다 보니 경쟁은 치열하고 공부를 잘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운동에 대한 미련을 계속 못 버린 거죠. 고3 때 입시철은 다가오고 담임 선생님이랑 입시 관련 면담을 하다가 담임 선생님한테 진짜 체대 가고 싶다. …… 그런데 제가 결정할 건 아니고, 부모님 모시고 와라, 그래서 엄마가 갔었는데, 엄마가 결국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시며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게 두 달 만에 실기 준비를 해서 체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 대학 4학년 때 진로를 결정하려고 고민할 때 하루는 전공 수업 실습을 나갔다가 장애인 남성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영향도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따져보고, 선배의 영향도 받고 대학원에서 특수체육을 전공하기로 하였다.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고민하잖아요. 취업하는 거, 그런데 갑자기 대학원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학년 때 특수체육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실습이 있었어요. 한국소아마비협회에서 하는 정립회관이라는 곳으로 실습을 갔는데, 거기 장애인 분들 몇 명을 만났는데 어떤 남자분이 잠깐만 자기랑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냐고. 옆에는 그분 아이가 있었어요. 그분이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현재 상황이 애 엄마가 도망가고 자기 몸은 이렇게 불편하고,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가끔 여기 와서 운동을 한다.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위로도 해드리면서 '어? 저분이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할까? 가만히 보니 그만큼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소외가 돼 있는 거예요. 말할 사람이 없어 오죽하면 우리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전망을 좀 살펴보니 장애인 체육 쪽이 괜찮은 것 같더라구요. 마침 선배 한 분이 이미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하고 있어서 그 선배의 도움도 많이 받게 되었고 결국 대학원에 가서 특수체육이라는 걸 전공을 한 거죠.

대학 다니면서 자원봉사를 많이 했고,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계약직으로 들어가 일을 했지만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다.

지금은 명칭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라는 곳이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계약직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사실 정직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상황이긴 했는데 저도 저였지만 장애인 운동선수들 처우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큰 국제대회 하면 불만이 굉장히 많아져요. 아시안게임 끝나고 저도 먹

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정직원으로 가야 되는데 장애인 선수들이 대거 데모를 했어요. 데모의 주 내용이 장애인 운동선수들을 장애인복지회 직원으로 채용을 해라. 그래서 장애인 두 명이 들어오게 되고 저는 못 다니게 되었어요. 기존의 직원들이 너무 미안해했고 하지만 저도 불만을 토로할 상황이 아니었죠.

추천을 받고 2003년 이관희 팀장과 마찬가지로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평직원이었다가 2007년에 팀장이 되었다. 개관할 때 어려운 점이 많았고, 장애인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할 때도 처음에는 회원이 없어서 애를 먹었다. 중학교 CA(방과 후 특별 활동) 활동을 수련관에서 맡아서 한 것을 의미 있는 작업 중 하나로 꼽았다.

개관을 하다보니까 아무것도 잡혀 있는 게 없잖아요. 처음부터 사실 다 만들어야 했어요. 힘들었던 걸 얘기하자면 처음에 장애 청소년 관련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6개월을 놀았어요. 왜냐하면 장애 청소년이라는 게, 장애 청소년 중에서도 지금도 그렇지만 지적 장애 아이들만 했었거든요. 지적 장애 아이들만 한다는 건 우리가 걔네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랑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장애인 부모님들의 특징이 본인의 아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절대 내세우기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신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엄청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도 우리가 백날 홍보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입소문을 타고 누가 경험을 했는데 괜찮다 그러면 홍보 안 해도 자연스럽게 오는 상황이죠. 6개월을 놀다가 처음 시작은 3명이었어요. 3명으로 하다가 점차 입소문이 났죠. 그러자 장애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그랬던 건 2007년도에 장애인복지법이 바뀌면서 각급 학교에서 장애인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학교엠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그래서 특수학급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만들게 됐었어요. 그래서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을 만나봤는데, 그 선생님들이 가장 요구했던 게 CA라는 게 있어요. 그 CA를 못한다는 거예요. 딴 애들은 CA를 하더라도 1년에 몇 번 안하는데 이 아이들은 CA가 정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체육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애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하지 못하니 그걸 수련관에서 도와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6개 중학교를 묶어가지고 CA 활동을 우리 수련관이 맡아서 해줬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수영장을 무상으로 빌려가지고 거기서 수영도 하고 체육활동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어요.

장애인 방과 후 아카데미를 전국에서 처음 시작하였는데, 결과가 좋아서 다른 시·군·구에서도 많이 따라했지만, 결국은 분당서현과 중원 두 곳의 청소년수련관

에서만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이것으로 상을 받기도 하였다.

장애인 방과 후 아카데미가 서현하고 여기 중원하고 전국에 두 개 있거든요. 서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원래 방과 후 아카데미 자체가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교육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한 건데 이게 서현동이라는 곳에서 저소득층을 찾으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 명 있더라구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서현동을 역으로 또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장애인 아이들이 많아요. 장애인 아이들이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건 남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있지만, 일단은 어쩌됐든 사회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과 하고 싶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현 여성가족부)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대번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안 된다는 이유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받은 돈에 대해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 통제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평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학업 능력이나 성적들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효과성을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불분명한 거죠 숫자상으론 안 되지만 일상생활의 변화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 같다. 하다못해 대소변 못 가리는 애들을 1년 동안 가르쳤더니 자기 혼자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식사도 제대로 안 하던 아이들이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양치질을 하루에 한 번 억지로 하던 애들이 거기에 다니고 나서 하루에 세 번은 스스로 한다든지 일상생활들이 변화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득해보고 떼도 쓰고 그랬더니 승인해 주더군요. 그래서 2007년도에 처음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장애인 방과 후 아카데미

장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징검다리

가 만들어졌죠.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그 장애인 방과 후 아카데미가 2010년도에 그 때 전국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죠.

수련관에서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2012년을 가장 의미 있는 해로 꼽았다. 그 이유는 꼭 상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지만, 상이라는 게 외부에서 객관적인 근거로 성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성남시가 수상한 걸 대형 현수막으로 붙여 놨더라구요. 대통령상 하나가 재단에서 받았던 나눔대상[8]인데, 정자에서 받았었고 또 하나는 서현에서 2010년에 '푸른성장'을 받았어요. 작년에는 정자에서 열심히 한 결과 푸른성장을 받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일하면서 제일 보람된 한 해였죠.

기억에 남는 청소년이 있냐는 질문에 두 명을 이야기했는데, 한 명은 장애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소위 '문제 학생'이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느 한 곳에서 어떤 특정한 경험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편견 없이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는 것으로써 스스로가 의미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자기 삶의 목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서현수련관에서 장애 청소년 프로그램을 할 때 그 친구가 고등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살도 좀 있었고. 처음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구요. 장애인 애들 중에 어떤 특정 부분에 되게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얘는 영어를 잘 했는데 말하기뿐만 아니라 사전처럼 단어가 탁탁 나오고 그랬죠. 부모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그런 것 때문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 취업을 했어요. 분당우체국에. 우편물 분류하는 거, 거기에 취직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구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차적으로는 부모님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우리 수련관을 비롯하여 저와 담당자도 조금이나마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한 명 기억에 남는 친구는 서현수련관 앞에 양영디지털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때는 양영공고여서 껄렁껄렁한 애들이 꽤 많았거든요. 헬스장이 저희 팀 소속이어서 가끔 갔는데, 그놈이 그때가 고2였어요. 자주 와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얼핏 보니까 손에 문신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범상치 않은 애구나. 주변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8) 나눔국민대상은 나눔실천(이웃돕기) 포상과 휴먼네트워크 포상으로 분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회공헌' 관련 포상을 2012년부터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으로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까 그 애가 소위 말해서 짱이었어요. 수련관에서 자주 보고 운동할 때 뭐 가르쳐줄까 말 걸면서 친해졌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학을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구요. 자기 생활을 다 얘기를 한 거죠. 학교에서는 싸움도 한다고 그랬는데 남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하고 다니는 게 굉장히 어른스러운. 자기도 그런 걸 듣기 싫은데 주위에서든 환경적으로든 그렇게 만든 애. 대학을 가고 싶고, 자기가 운동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체대를 가고 싶다고 했었죠. 체대 가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 그러고 나서 중원에 있을 때인가 정자에 있을 때였나? 서현에 한번 놀러갔다가 서현 앞 길거리에서 우연찮게 만났어요. 진짜 반갑다, 뭐 하냐고 그랬더니 군대 제대했다고 그러더라구요. 학교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학교는 못 갔지만 취직할 거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보면 나쁜 길로 빠지진 않고 생각을 잡고 취직하고 싶다고 하는 걸 보니까 반가웠어요. 그리고 제게 너무 고마웠다고 그 당시 많은 얘기를 해 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구요. 보람을 느꼈죠.

자기 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아무 생각 없이 이용하면 각각의 특징들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성남 시내 청소년수련관들은 각기 중점으로 삼은 특성화 사업이 있다.

각 수련관별로 특성화 사업이 있어요. 중원 같은 경우에는 진로에요. 정자는 미디어, 서현은 IT, 판교는 생태, 수정은 문화 예술이고. 그래서 우리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진로 관련한 사업이 엄청 많아요. 서현은 로봇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이 다 세팅되어 있고 정자는 촬영 스튜디오부터 녹음 스튜디오까지 다 갖춰져 있죠.

수정·중원구와 분당구 간의 계층 차이나 소득 차이에서 오는 수련관별 차별이 있지 않을까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수련관 운영에도 그런 것이 영향이 있었고 이관희 팀장의 경우 수정·중원청소년수련관과 분당 쪽 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변호용 팀장의 경우 그렇지가 않음을 강조하였다.

소득과 관련해서도 저는 서현에 꽤 오래 있다가 중원에 왔을 때 오히려 그런 비난들을 많이 받았어요. 왜 여기는 캠프가 없냐. 근데 수정하고 중원이 특징들이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포커스를 너무 저소득으로 잡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 방과 후 아카데미 회의를 하는데 이와 유사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문위원 한 학부모님이 "중원 구민들도 살만큼 살 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라는 거죠.
프로그램도 사실은 2010년도부터는 보시면 아실 텐데 수정이랑 중원이랑 캠프도 무

성남시 청소년 진로·직업 박람회(2013)

료 캠프들이 많았어요. 무료는 홍보를 안 하죠. 왜냐면 이미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바꾼 게 그런 거 하지 말자. 정정당당히 돈을 받는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저는 딴 데 있다 오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처음 하자마자 대박이 났죠. 그래서 느낀 게 어? 여기도 되는구나. …… 국제 교류가 수정이랑 중원은 없었어요.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올까? 하는 걱정이었죠. 올해 일본을 5박 6일 가는데 싸진 않았어요. 왜냐면 패키지 여행은 싸지만 일본어를 원어민처럼 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애들한테 비행기 표랑 거기서 밥 먹고 그런 거를 다 자부담을 시켰거든요. 15명이 가는데 110명이 왔어요. 그 때 바뀌기 전에 상대원에 사시던 분이었는데, 관장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분당 애들이 많이 온 거 아니야? 그런데 분당 애들이 별로 안 왔거든요.

20년 넘게 성남에서 살면서 원래 성남 시민들의 텃새 같은 게 싫다고 밝혔다. 특히 어른들의 이런 이분법적인 잣대가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아이들 스스로가 그렇게 나눠 부르고 생각할 것이 걱정이라고 한다. 수련관의 프로그램 내용이나 활동도 지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게 중요하지도 않다고 하였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성남을 표현할 때 구시가지라고

성남시청소년재단 임직원 워크숍(2013)

하는 게 전 싫어요. 분당, 중원, 수정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 지역 감정은 아닌데 지역 내 감정을 조장하는 게 조금은 사라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애들한테 지네들끼리도 성남애들, 분당애들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역시 공부를 더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박사 과정도 하다 보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솔직히 하고 싶어요. 저도 아직까지는 많은 나이는 아니고, 하다보면 기관을 책임지고 운영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죠. 근데 그게 지금 나이에 비해서 10년 뒤 뭐 이렇게까지는 그런 생각은 없고, 어떻게 보면 타 지역이라도 문화의집 이런 거, 총괄 책임자를 할 수만 있다면 해보고는 싶어요. 그게 제 나름대로 정한 기준이 마흔다섯이거든요. 대신에 마흔다섯이 넘어갔을 때는 이 일을 계속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청소년지도사로 근무하면서 느낀 생각, 기억에 남는 활동, 앞으로의 계획 등을 두 분에게 들어보았다. 우리가 성남시의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관희 팀장의 생각처럼 아이들을 미성숙한 존재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들의 문화와 생활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변호용 팀장의 생각처럼 지역 내 열등감이나 인식 차별 문제까지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
편견에 맞서 세상을 보자

최명숙 가천대학교 외래교수 · 소설가

프롤로그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그것은 '다름'을 당연히 여기는 사고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인식하고 현실의 삶에 적용하여 사는 삶은, 누가 뭐래도 정신적으로 성숙한 이들의 삶일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쉽사리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것 또한 솔직한 현실이기도 하다. 사람은 왜 그렇게 이율배반적이고 부조리한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유전자 때문이라고만 치부해 버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너무나 당연한 편견 없는 시각이, 그 성숙함이, 경제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진 이 시대에 왜 이다지도 목마르게 절실해지는 것일까. 그러한 목마름은, 다름을 스스로 인식하고, 편견에 맞서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장애 청소년 송영호, 김태윤, 최수빈, 강일수, 이해빈을 만나게 되면서 더 커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그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보내고 싶다. 이제 내가 만난 다섯 명의 장애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그들에게서 발견한 순수와 성실 그리고 당당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음악가를 꿈꾸는 소년, 영호

열여섯 살 중학교 3학년인 영호의 꿈은 플루트 연주자이다. 플루트 연주자가 되기 위해 매일 연습을 한다는 영호, 내가 영호를 처음 만났을 때 신체적으로 조금도 별다를 것이 없는, 그만한 또래의 키에 아직은 귀여움이 물씬 묻어나는 솜털이 보송보송 난 얼굴을 한 소년이었다. 감색 베레모를 멋들어지게 쓰고,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모습이 조금은 인상적이었다고 할까. 그러나 주스를 마시며 인사를 나눌 때 확실히 영호가 여느 중학생과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다. 영호 어머니와 인터뷰를 하는 동안 영호는 혼자만의 세계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영호는 선천성 뇌손상으로 인한 자폐성 장애 2급을 가지고 있었다.

영호의 취미는 한자 공부란다. 열심히 공부해서 한자 3급에 합격했고, 이제 2급에 도전할 거라고 했다. 학교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영호에게 물었더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보라고 했더니 "사이좋게 지내자, 고마워" 라고 썼다. 이렇게 영호는 해맑은 미소만큼이나 마음도 다정하고 예뻤다. 꾸준히 음악 공부를 하고 음악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서 저렇게 표정이 곱고 마음도 아름다운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저토록 고운 아이로 키우기 위해 가족들은, 특히 어머니는, 영호에게 더없는 사랑을 쏟았을 것이다. 어느 어머니라고 해서 그렇지 않으랴마는, 영호와 같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역시 조금은 다르리라. 사람들 앞에서 음악 공연을 하거나 생각하지도 못한 말 또는 행동을 했을 때, 영호 어머니는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평범한 일들인데, 그 평범한 것에 보람과 고마움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남들과 현저히 다른 성과나 재능에 열광하고 그것에 의미를 두는 여느 사람들과 또 얼마나 다른가. 영호 어머니의 포근한 미소와 편안한 얼굴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닌 듯싶었다.

일반적으로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으면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가정불화 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다. 영호네 가

해맑은 웃음의 음악 소년, 영호

족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영호 어머니는 할머니와 가족들 모두에게 고맙다고 했다. 온 가족이 영호를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지낸다고 했다. 영호의 장애를 장애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며 사는 성숙한 모습을 영호네 가족에게서 볼 수 있었다.

> 타인들의 동정심이 사실은 불편해요. 호의를 베푼다고 그러는 것은 알겠는데, 쓸데없이 동정심을 갖고 보는 것은 안 좋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바라봐 주면 돼요. 아이가 못할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무조건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영호 같은 아이를 볼 때, 뭔가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은 고맙고 또 고맙지만요. 무지개처럼 각각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 그런 사회를 소망하죠. 영호도 무지개 색깔 가운데 하나와 같은 아이라고 봐주면 안 될까요?

어떤 점이 불편한지, 어떤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는지 묻는 말에, 영호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또박또박 말하며 영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르듯이 영호도 그런 한 사람일 뿐인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무지개처럼 각각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비단 영호 어머니의 바람만은 아닐 것이다.

> 저는 큰 욕심 내지 않고 영호 옆에서 또는 뒤에서 응원할 거예요. 영호가 사춘기를 잘 이겨내고 멋진 청년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있어요. 제가 영호를 불렀을 때, 처음 '네'라는 대답을 하는 걸 보고 감동했어요. 이렇게 세상에 대해 하나하나 터득해 가는 것도 감격적이에요. 음악을 좋아하는 우리 영호가 멋진 플루트 연주자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와 영호의 소망이에요.

작은 것들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이 내게 전해져 인터뷰하는 내내 나를 미소 짓게 했다. 영호와 영호 어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많이 웃었다. 그리고 평안했다. 혹시 대화가 잘 되지 않으면 어쩌나 했던 우려는 그야말로 우려였다. 무엇보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영호가 지루했을 텐데 자리를 잘 지켜주었다. 혼자서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눈을 잘 마주치지도 않았지만, 영호는 분명히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영호의 생각과 달랐을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호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멋진 연주자가 되리라 믿는 어머니와 그 가족들의 긍정적인 생각이, 영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이다.

플루트 연주자를 꿈꾸는 영호는 누구보다 행복해보였다. 보드라운 영호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며, 선율처럼 고운 마음결을 가진 음악가 송영호가 앞으로 음악으로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영호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등을 밀어주는 가족들의 사랑과 기대에,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 한 자락을 보태야 한다는 것도 …….

불굴의 투지와 노력으로 수영 선수가 된, 태윤

태윤이를 만나러 분당에 있는 '한마음복지관'으로 가는 길, 마음이 설레고 벅차왔다. 태윤이는 어떤 청소년일까 하는 기대가 생겼던 것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장맛비가 내렸는데 하늘도 모처럼 맑게 갰다.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만개한 주황색의 능소화가 요염하게 열정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는 길을 지나 복지관으로 들어갔다.

입구 가까운 곳에서 태윤이가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다. 큰 키에 잘 생긴 태윤이를 금세 알아볼 수 있었다. 가볍게 목례를 하자 태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셨다. 트레이닝복 차림을 한 태윤이도 인사를 한다. 외적으로 볼 때 장애를 가진 소년이라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태윤이, 어머니의 표정도 밝고 편안해 보였다. "어머 태윤이가 참 잘 생겼네요. 배우 같아요." 나도 모르게 배우같이 잘 생겼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태윤 어머니는 태윤이를 쓰윽 보시더니 미소를 지었다. 대견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 외모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정신적인 면은 또래들과 많이 달라요. 사람들이 아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을 수도 없이 겪었는데, 그래도 늘 바람은 그래요. 우리 태윤이를 사람들이 이해해주었으면 하는 것 말이에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비장애인들과 함께할 때 방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곤 해요. 그럴 때면 무척 힘들어요. 편견 없이 이대로 봐주었으면 더 없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을 거에요. 일단 인지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이 또래들보다 많이 뒤떨어지니까요. 그런데도 태윤이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바람을 말해보라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와 어머니의 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태윤이는 조용히 주스만 마시고 있었다. 맑고 시원하게 생긴 눈과 조화가 잘 된 이목구비를 가진 태윤이는 가끔 나를 쳐다보았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묻는 말에는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서 과묵한 성격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한다.

꽃미남 수영 선수 태윤이

태윤이는 자폐성 장애 1급을 갖고 태어났다. 장애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무척 힘들었단다. 그것을 어떻게 말로 다할 수 있으랴 싶었다. 태윤이를 바라볼 때마다 살짝 미소를 짓는 어머니의 모습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과 안타까움이 숨어 있을지, 나로서도 짐작만 할 뿐, 다 알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가끔씩 보이는 쓸쓸한 표정에서 어머니의 애로를 조금 더 읽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경제적인 면, 정신적인 면의 어려움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양육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했다.

현재 경기도 대표 수영 선수인 태윤이와, 어머니의 꿈은 세계적인 최고의 수영 선수가 되는 것이다. 장애인 대표가 아닌 국가 대표 수영 선수가 되는 것 말이다.

처음 수영을 하게 된 계기는 동사무소 직원의 권유로 시작했어요. 태윤이 재능을 찾아주기 위해 스쿼시, 야구, 배구, 축구 등을 시켜보았지요. 어려운 살림에 개인 레슨까

지 받아가면서요. 이렇게 다양한 운동을 시키면서 수영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태윤이에게 수영을 가르치기 위해 저도 수영을 배웠어요.

어디나 그림자처럼 태윤이를 따라다니는 어머니는 태윤이가 수영을 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장애인 수영대회에서는 여러 차례 상을 받았다는 태윤이는 메달을 딸 때 가장 기뻤다고 했다. 메달 딸 때의 기쁜 감정은 태윤이 답변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태윤이는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메달을 꼭 따라는 말이요."

태윤 어머니와 내가 웃었다. 그만큼 태윤이에게 메달은 특별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수영 수업 시간이 되었다며 태윤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태윤이의 뒷모습, 그 모습이 당당해보였다. 마치 세상의 편견에 맞서 걸어가는 것처럼. 그 뒷모습을 보며, 태윤이는 이미 메달을 딴 것이나 진배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도 말고 지금처럼 당당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아름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태윤이가 가장 좋아하는 메달만큼이나.

또래들보다 인지적인 측면이나 사회성 부분에서 많이 늦지만 이만큼 의사소통이 되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을 볼 때 고마운 마음이 든다는 어머니는, 힘들었던 세월보다 앞으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야 할 노력과 계획을 더 힘주어 말했다. 주어진 현실에서 보람을 찾으며 최선을 다하는 태윤이와 어머니가 모처럼 맑게 갠 누리에 뿌려지는 햇살보다 더 빛나보였다. 국가 대표 수영 선수를 꿈꾸는 태윤이를 힘차게 응원하며 그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한다.

댄스 가수를 꿈꾸는 사랑스러운 소녀, 수빈

"네가 수빈이구나? 어머! 사랑스럽게 생겼네."

백화점 로비에서 어머니와 함께 나온 수빈이를 만나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이 나오고 말았다. 수빈이는 나를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웃으면서 쳐다보았다. 그 모습이 무척 순진무구해 보여서 나도 모르게 수빈이 어깨에 팔을 올려놓았다. 수빈이는 얼른 나와 어깨동무를 했다. 요즘은 가족끼리도 스스럼없이 지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소통이 어렵다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 소녀 수빈이와 나는 그렇게 금세 친해졌다.

댄스 가수 또는 간호사가 꿈이라는 수빈이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매주 토요일에는 K팝 댄스 강습을 받으러 다닌다고 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는 피아노 레슨, 성가대, 선교 합창단 활동 등을 통해 음악 공부를 했다고 한다. 가천대학교에서 있었던 '열린음악회'에도 갔었는데, 아이돌 가수가 와서 좋았다며 수빈이가 수줍게 웃었다.

"수빈이는 어떤 가수를 좋아해요?"
"소녀시대, 비스트, 2NE1과 샤이니요."

물음에 얼른 대답을 해놓고 수빈이는 수줍은지 어머니에게 기대면서 미소 지었다. 최근에는 학교에서 한 방과 후 에어로빅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한다. 댄스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어머니가 보여주셨다.

우리가 만난 때가 저녁 식사 시간이었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다. 식당가를 배회하며 음식을 고르느라 우리는 장난을 치고 이야기도 나누었다. 수빈이는 무척 즐거운 듯했다. 가장 맛있게 생각되는 것을 고르라고 했더니 수빈이가 '떡갈비'를 선택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다. 사랑스런 눈길로 딸을 주시하며 식사를 하는 수빈 어머니의 모습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내가 보아도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어머니는 오죽하랴 싶었다.

식사를 마치고 찻집에 앉아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했다. 수빈이는 우리들의 대화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약간 지루해하는 듯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대화 속에 끌어들이며 이야기를 진행했다. 보통의 여고생들처럼 관심을 갖고 있는 연예인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엄마 말을 잘 듣는데 자꾸 엄마가 잔소리를 해서 듣기 싫다며, 알아서 잘 할 테니 칭찬을 많이 해달라고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는가. 수빈 어머니와 내가 한마디씩 칭찬을 해주었다.

수빈이를 키우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와 어려웠던 때는 언제였을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미래의 댄스 가수 수빈이

4년 전에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울자 수빈이가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엄마, 외할머니 보고 싶지? 하면서 위로해 주었어요. 그때 딸을 낳기 잘 했구나 싶었지요. 제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어서 기쁘고 대견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어요. 수빈이가 집에 와서 그러더군요. 애들이 안 놀아준다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기 싫다는 거에요. 게다가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아이를 맡겨놓고 신경도 안 쓰느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여의치 않았어요.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도 힘드셨나봐요. 나중에 수빈이가 롤링페이퍼를 학교에서 갖고 왔는데, 너는 바보니? 글씨도 못 읽는 아이(글자를 잘 읽는데)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전학을 시켰어요. 장애아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과 맞닥뜨리게 될 때 마음이 힘들어져요. 이력이 날 만도 한데 아직도 그러네요.

수빈 어머니의 목소리에 물기가 묻은 듯 촉촉해지고 있었다. 나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금까지 수빈이를 키우면서 여러 문제들을 만났는데, 당면하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한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보다 장애아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현실이라는 것을 절감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편견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무척 부족한 게 사실이다.

수빈이는 지적 장애 2급이에요. 출생 후 6개월이 되어 검진을 할 때, 발육이 늦는 것

수빈이와 에어로빅 친구들

같다며 뇌성마비 전문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의사로부터 들었어요. 언제 장애를 갖게 될지 모르니 꼭 전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죠. 그때 많이 놀랐고 이만큼 크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일상적인 것은 혼자 잘해요. 학교도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롭게 찾아가야 하는 곳이라면 어려워하죠. 돌발 상황이 생기면 판단이 어려워요. 요즘 사춘기여서 엄마와 사사건건 부딪치는 것이 많아요. (웃음) 보통 모녀간이 다 그렇잖아요. 수빈이와 저도 그래요.

수빈이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키득거리며 웃었다. 어머니를 툭툭 건드리기도 했다. 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친구처럼 보였다. 그렇게 스스럼없이 소통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더없이 아름다웠다. 앞으로도 두 사람이 수빈이의 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리라 믿는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또 있을까. 가까운 날에 댄스 가수가 된 수빈이를 만나게 되리라 기대한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좋은 빵을 만드는 소년, 일수

일수는 고등학교 3학년이다. 나이는 열아홉 살. 꿈은 케이크 디자이너, 제과제빵사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일수는 수없이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전국기능경진대회에서 은상을 받았고, 2학년 때는 제과기능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한다. 3학년 때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경기도 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공동 주관한 '2013 수도권 지적장애인기능경진대회'에서 기본 직종인 기기조립 종목에서 금상을 받았다. 그때 일수는 비장애인들과 겨루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며, 취업을 해도 될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다는 칭찬을 심사위원들로부터 받았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요즈음 일수는 벌써 파리크라상에 취직을 했다고 한다.

어떤 것을 가장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냐고 물었더니 망설임 없이 "빵이죠. 제과제빵 만드는 것 다 좋아해요. 빵이 제일 자신 있어요"라며 일수는 투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함께 자리한 사단법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성남지부 박경희 회장이 조목조목 일러둘 것을 얘기해준다.

> 일수야, 월급 타면 관리를 잘 해야 돼. 너에게 관심 가져주신 선생님과 누나, 그리고 아버지께 작은 선물이라도 해드려. 아버지께는 꼭 내복 사드려, 일수야. 특수반 선생님께는 짜장면이나 짬뽕 중에 고르시라고 하고, 탕수육도 중간 것으로 시켜드려.

박경희 회장의 당부에 일수는 공손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대답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신뢰와 사랑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일수는 회장님을 어머니처럼 따르고 의지하였으며, 박 회장은 일수를 아들처럼 진심으로 염려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다. 박 회장 또한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 해빈이가 있기 때문에 일수의 일거수일투족이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일수는 편부 슬하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

세계 최고를 꿈꾸는 파티쉐, 일수

우리 아이들은 돈 관리를 제대로 못 해요. 돈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를 가까운 가족들이 신경써줘야 해요. 앞으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책임도 져야 하는데,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걱정돼요.

박경희 회장의 말에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다.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지적 장애인들의 삶의 세세한 부분들이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살다보면 숱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적어도 불리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작은 배려이고 사랑이기 때문이다.

일수는 지적 장애 2급이다. 대학에 진학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취업을 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일수를 지금까지 키우고 뒷바라지한 부모님과 누나 그리고 다른 가족들의 노고가 짐작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선생님들과 이웃들의 노고 또한 적지 않으리라 생각되었다.

이제 일수는 최고의 제과제빵사가 되어 가장 맛있고 몸에 좋은 빵을 만들고 싶단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게 하고 싶단다. 소박하면서도 소중한 일수의 꿈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사특함이 전혀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만드는 빵이 최고의 빵이기 때문이다.

웹툰 작가를 꿈꾸며 장애인 활동 보조 교사가 된 사회 초년생, 해빈

해빈이를 만나기로 한 날, 시간이 지나도 해빈이가 약속 장소로 오지 않자 어머니는 약간 마음을 졸이는 듯했다. 해빈이 어머니는 모든 청소년들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 동석해 주셨다. 사단법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성남지부 회장을 맡고 있는 박경희이다. 활달한 성격으로 강인해 보이는 겉모습에, 세심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이다. 해빈이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다.

해빈이는 돌이 지나니까 안기만 하면 흥분하면서 저를 깨물곤 했어요.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태몽도 안 좋았어요. 기형적인 과일, 벌레 등을 보았고 뱀을 죽이는 등의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게 태몽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랬어요. 해빈이가 네 살쯤 되었을 때 정신 지체 3급 진단을 받았어요. 해빈이는 자라면서도 장난감을 한 줄로 죽 세워놓는 등의 행동을 했고, 누가 자폐아라고 말했는데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늦되는 아이라고만 생각했죠. 두세 살이 지나면서 장애를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은연중에 알고는 있었어요.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다섯 살 때는 천식 증세가 심했어요. 돈이 없어서 고덕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 전화해서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그때 해빈이가 장애아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지요.

그걸 알고 저는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자살까지 생각했을 정도로요. 그런데 해빈이의 맑은 눈빛을 보며 생각을 바꿨어요. 그때부터 해빈이에게만 신경을 썼어요. 해빈이 형에게는 신경 써주지 못해서 많이 미안해요. 사실 장애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차별과 편견을 알기 때문에, 아이가 장애 등급을 받고 나니 그 편견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할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동네 할머니들 모인 곳에는 부침개나 커피 등을 해다 드리고 아이를 부탁하곤 했어요. 혹시 아이가 이상한 짓을 해도 이해해 달라고요. 동네 슈퍼 주인에게도 해빈이가 뭘 달라고 오면 그냥 주시라고, 돈은 나중에 계산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잘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고마워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지혜에 무척 감동이 되기도 했다. 얼마나 힘드셨을

까 여러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해빈이 자라는 모습 속에서 보람을 충분히 느끼지 않으셨을까.

유치원 다닐 때 사올 물건을 써서 처음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해오더라고요. 글자도 스스로 깨우쳤고요. 저는 바깥에서 지켜야 할 예의는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쳤어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르치고 또 가르쳤죠. 그래도 워낙 말이 늦어서 유치원 다닐 때까지 말도 잘 못했어요.

해빈이의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는 어땠을까 학교생활에서도 애로점이 많았으리라 짐작이 되었다.

초등학교 입학해서는 그런대로 학교를 잘 다니더라고요. 말문도 그때 트이기 시작했고요. 다행히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잘 대해주셨어요. 소풍 때 제가 염려되어 따라가려고 했더니, 언제까지 해빈이 인생을 책임질 거냐고 하며 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안 갔죠. (웃음) 3학년 때부터 특수학급에 보냈어요. 4학년 때는 스스로 장애인이라는 걸 인식하더라고요. 가슴 아픈 것은 해빈이가 장애를 인식하면서 스스로 죽어야 한다, 필요 없는 인간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그러더라고요. 어이가 없고 기막혔어요. 비장애인 친구들이 해빈이를 괴롭히기도 했죠. 아마 아이들은 재미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해빈이는 그걸 힘들어했어요.

제가 해빈이 4학년 때부터 학교 활동을 했어요. 아이가 저렇다보니 학교 활동이라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중학교는 특수학급을 만들어서 갔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대부분 사춘기도 오는데, 해빈이 같은 애들은 사춘기 때 보통 조울증이 생겨요. 그건 분노 때문으로,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는 게 보통이에요. 아이를 가만 놔두면 상관이 없는데, 가해를 당하면 문제 행동이 일어나요. 해빈이가 사고를 치는 경우는 보통 분노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놀린다든지 건드린다든지 하면 분노가 커져서 의자나 책상 등을 던지게 되죠. 유리창에 던져서 유리를 깬 적도 많아요. 그럴 때 야속하죠. 유리창 값 많이 물어줬어요. (웃음) 고등학교 때에는 공부를 그런대로 잘 했어요. 530명 중에 230등정도 했으니까요. 해빈이 친구들이 그런대요. 네가 왜 장애인이냐고요. 그만큼 친구들과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나 봐요. 그런데 사실은 많이 달라요. 이따 오면 보세요. 여럿이 함께 있어도 혼자서만 노는 아이들이에요. 장애 아이들은. 그게 참 그래요. 장애아 친구가 놀러 와도 올 때만 서로 인사하고 모두 각자 놀아요. 사회성 발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많이 놀렸어요. 그래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피해 의식을 가질 때도 있어요. 다행히 문제아로 찍히지는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잘 졸업했죠.

해빈이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대학 진학은 안했지만 지금 취업을 했다. 발달 장애인 활동 보조로 취업을 했는데 시각 장애인 심부름 센터에서 활동 보조 교사 일을 하고 있다. 해빈이는 단순 업무가 가능해서 장애인을 치료실에 데리고 간다든지, 등하교 시키는 일 등을 하고 있다. 그런 활동 보조 일은 해빈이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일자리가 쉽지는 않다. 변수가 생길까봐 꺼리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 해빈이의 취업 활동은 앞으로 활동 보조 일을 하려는 장애인들의 취업에 물꼬를 트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해빈이가 열심히 해서 그런 쪽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웹툰 작가와 게임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보조 교사, 해빈이

해빈이는 자부심이 대단해요. 자기도 남을 도우면서 돈을 번다는 거죠. 활동 보조를 받는 장애인들도 오히려 같은 장애인이라 그런지 거부감이 없어요. 오히려 말을 더 잘 듣는다고도 해요.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을 잘 알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해빈이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우람해 보이는 체구에 미남형의 해빈이는 이마에 난 땀을 닦으며 자리에 앉았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는 어머니의 말에 늦어진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했다. 단답형으로 짧게, 명사형 단어들을 중심으로. 자리에 앉은 해빈이와 인사를 나누었다. 인사가 끝나자마자 해빈이는 스마트폰을 열었다. 활동 보조 하는 일 외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꿈이 무엇인지 물었다.

"게임 프로그래머와 웹툰 만화가요. 이거 보실래요?" 해빈이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자기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네 컷짜리 만화가 대부분이었다. 표현이 섬세하고 색감이 좋은 것이 남다른 솜씨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했다. 우리는 해빈이 그림을 보며 무척 즐거워했다. 표정이 살아 있는 만화를 보며 해빈이는 말풍선에 써넣지 않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솜씨도 훌륭했다. 앞으로 해빈이가 웹툰 만화 작가로 우리 곁에 찾아올 날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는다.

해빈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가슴이 아파오기도 했는데, 해빈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모두 아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만큼 해빈이는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서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해빈이가 한 말 가운데 가장 인상에 남는 말을 옮겨본다.

> 어머니가 저를 장애에서 해방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장애 종류는 지체 3급이지만 극복한지라 체감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에 떨어지면서 낙방의 고배를 알게 되었고, 취업하면서 합격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돈을 버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해빈 어머니는 사회에 대한 바람을 찌그러진 동그라미도 사회의 일원으로 봐주었으면, 눈총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편견을 갖지 말고 봐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빈 어머니의 바람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어야 하고 그런 사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에필로그

꿈은 그 사람을 밀고 가는 힘이 있다.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 해도 꿈이 있는 사람은 좌절할 수 없고, 현재의 삶에 누구보다 성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만나 그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초점을 '꿈'에 맞춘 것도 그 때문이다. 사실 장애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벌써 어려움과 마주하고 서 있는 것 아닌가. 그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은 꿈으로부터 나온다. 그만큼 꿈은 소중하고 막강한 에너지이다. 다행스럽고 대견한 것은, 내가 만난 청소년들 모두 확실한 꿈이 있고, 그 꿈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을까.

안타까웠던 점은, 청소년들 스스로 자기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어려웠던 점이다. 옆에서 보살펴주는 어머니들로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장애 청소년들과의 구체적인 의사소통은 힘들었다. 내 물음에 단답형으로밖에 답변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게 못내 아쉬웠다. 그러나 눈빛에서, 그리고 그들의 성실한 삶의 태도에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조금은 더 읽어낼 수 있었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가.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그처럼 밝은 표정으로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더없이 아름다웠다. 그들에게 장애는 남들이 볼 때 장애일 뿐이었다. 편견 없이 그대로를 수용하고 본다면 장애인이라는 단어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 같았다. 장애가 장애로 보이는 것은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볼 때이다. 성숙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되려면 편견을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깊은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미래의 플루트 연주자 송영호, 국가 대표 수영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김태윤, 댄스 가수를 꿈꾸는 최수빈, 최고의 빵을 만드는 강일수, 웹툰 만화가의 꿈을 갖고 장애인 활동 보조를 하는 이해빈, 이 다섯 청소년들을 만난 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었다. 장애를 장애로 여기지 않고 편견에 맞서 세상을 보고자 하는 멋진 청소년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등 뒤에서, 옆에서, 버팀목이 되고 그늘이 되어주는 어머니들,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아이들을 지켜내고 키워내는 어머니들의 외침이 오늘도 마음을 흔든다. 편견에 맞서 세상을 보고자하는 저 강하고 멋진 이들의 외침이…….

찾아보기

100일 학교 369
25시 맨 228
3·1민주구국선언문 사건 102
4.19혁명 72, 101, 119
5·16군사정변 119
5·18광주민주화운동 110
5일장 242
6·25전란 19, 28
6월 민주화운동 112
7벤처빌딩 328
8·10사태 75
86아시안게임 233
88서울올림픽 233
9·28수복 28
CrossFire 319
CSR 얼라인언스 331
Dartmouth College 351
GE에너지 318
H-스퀘어 광장 325, 327, 328
IMF외환위기 48, 119, 186, 308
KBS방송국 123
LIG넥스원 318
NHN 318
OPC 131
SK케미컬 318
U-스페이스 327

ㄱ

가구 198
가구 공장 306
가금류 246
가나안농군학교 122
가락시장 228
가마니 82
가야금병창 191
가야금산조 191
갈돌 202
갈비찜 231
감사원 감사 85
강대웅 216
강승호 206, 214
강일수 409, 415
강 효 339
개고기 226
개나리아파트 46
개장수 248
개척교회 93
개포고등학교 389
갸야금산조 190
거목다방 232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72
건설노동자 181
건설노동자 쉼터 175
건설사 181
건설일용노동자 173, 183, 186
건설일용노동자 노동조합 181
건설 현장 177
건우아파트 159
검정고시 47
게임 프로그래머 413
결혼이민자 261, 265, 266, 267, 270
결혼중개업체 262
경기과학기술진흥원 327
경기기능건설학교 178
경기대학교 59
경기도교육청 155
경기도무형문화재 190, 192
경기도문인협회 60, 67
경기도문학상 58, 67
경기도문화상 61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211, 213, 218
경기도북부출장소 80
경기도의원 213
경기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409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축제 218
경기도향토음식 지적 재산 기능보유자 233
경기문인협회 58
경기문학대상 61
경기민요단장 211
경기신인문학상 67
경기예술대상 61, 67
경기인천소셜벤처경연대회 371
경인일보 78
경찰서장 87
경향신문 78
계엄사령부 110
고고천변 191
고등공민학교 33
고려 나전 경함 199
고려도경 193
고시조 해설집 64
고시텔 130
고아원 195, 197
고압선 송전탑 124
고양이 107

고용노동부 371
고용보험제도 182
고중일 66, 118, 131
고창 195
고춘자 209
고향 118
고향 꿈 63
골프 연습장 141
골회 갈기 203
골회 바르기 203, 204
공공기관 155
공공지원센터 317
공덕동 196
공도편수 194
공동육아 357
공동육아 대안학교 358
공동육아 조합원 수칙 361
공무원 채용시험 72
과수원 207
과학기술원 281
광내기 205
광주경찰서 42, 75
광주군 직할 성남출장소 73
광주군청 89, 240
광주대단지 33, 39, 40, 49, 79, 81, 241, 331
광주대단지사업소 73, 78
광주대단지 자혜지구 34
교통제어기기 131
교포신문 복사 건 101
교회 주보 121
구치소 42
구호양곡 81
국가내란음모죄 102
국립민속박물관 199
국무회의 81
국선 변호사 42
국적 회복 311
국제결혼 279
국제시장 상인 98, 100
국제펜클럽 58, 60, 67
국토건설사업본부 72
굴렁쇠 357
권기홍 60
권영환 98
권혁식 186
귀발 202
귀신 208
귀얄 202
귀화인 279
귀화자 261
글로벌 R&D센터 317
금광시장 238
금박장 190, 191, 192
금호백화점 46
금호재래시장 238
기능공 177
기숙사 282, 288
기은다방 57
기장교회 114
기초공사 177
긴급조치 1호 위반 102
길림성 299
길잡이 교사 371, 373
길찾기센터 366
김건중 52, 60
김경민 328
김경용 192
김광렬 230, 231, 233
김근배 219
김금용 102
김대중 102
김대중 납치사건 101
김덕환 191, 192
김만태 62
김명옥 136
김민광 57
김방곤 178, 182, 187
김병학 54
김보미 371, 373
김비오 59
김선호 345
김숙희 232
김순분 219
김연희 154, 380
김영미 316
김영선 72
김영순 97
김우진 340
김은집 68
김의경 102
김정삼 356, 371
김지욱 190
김찬울 343
김찬재 83
김창숙 240
김 철 32
김태윤 403, 415
김포공항 101, 114
김한성 58
김현아 186
김현욱 181
김혜윤 374
김희진 192
꽁치 54
꾸러기 어린이집 357

ㄴ

나눔대상 393
나선미 163
나전 의장 193
나전칠기 190, 195
나전칠기 공방 196
나전칠기 기법 200
나전칠기장 192
나전칠기 전승 201
나전칠기 제작 과정 202
나전칠기 제작 도구 202
나전함 199, 200
낙랑 고분 193
낙생고등학교 62
낙생면 30
낙생소학교 18
낙성식 22
남산 라디오 방송국 209
남산예술전문대 209
남산 중앙정보부 101
남성공업사 125
내고장 알기 220
내무부 80
너더리 212
넥슨 318
노동일수 184
노동자 172
노동조합 120
노사분규 119, 134
노인행복전도사 122
노점상 100, 109
노태우 113
농가월령가 226
농경문화 212
농경사회 119
농악 214, 215, 217
농악패 218
농촌봉사활동 133

ㄷ

다문화가정 260, 261, 279
다문화가족 261, 264, 266
다문화가족지원법 26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66
다문화사회 275
다음세대재단 366
다자녀 지원 정책 155
다트머스칼리지 351
단대마트시장 238
단대천 131
단속반 127
닭죽 225
대관령국제음악제 338
대목장 192, 194
대안교육 357
대안학교 현황 358
대왕면 30
대원천 239, 242
대장금 223
대통령 87
대통령상 213, 393
대학입시설명회 141
대한민국 인재상 344
대한장애인체육회 389, 390
댄스 가수 406
덕옹공주 191
도곡동 46
도대목 194
도레 107
도레 미과 솔라 93
도레 언니 102
도레 엄마 96, 101
도보 여행 370
도시개발관실 81
도시건설사업소 73
도시락 227
도움소 219
도편수 190, 192, 194
독거노인 간병 122
돌고래시장 238
돌마국민학교 19, 31
돌마면 15, 30
돌마초등학교 15
동대문 294
동물 107
동방사 44
동서울대학 47
동신종합시장 238
동아일보 78
동아줄 213
동양정밀 66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 131
동우환경관리 377, 378
동치미 국물 106
동해 363
동해방위사령부 44
두껍아두껍아 357
두드림 216, 220
두레굿 207
드레곤 플라이트 3221
디딤돌학교 357, 366

ㄹ

라마다호텔 57
레이테섬 전투 18
로드 스쿨러 368
롯데제과 310, 314
류수남 222

류주현문학상 61
리더의 조건 319
림영창 63

ㅁ

마감 광내기 205
마을형 사회적기업 발굴 공모사업 375
만두집 127
만화가 413
맛의 장인 222
매듭장 190, 191, 192
매일노동뉴스 183
매화나무 209
맨손요법 122
맹순할매 억척 기도일기 92
먹거리 224
먹거리 축제 225
면 갈기 204
명동성당 102
명보극장 33
명장 지정 201
모란 215
모란개척단 240
모란민속5일장 236, 238, 243, 245, 253
모란민속5일장의 유래 239
모란시장 225, 238, 242
모란시장 명품화 정책 256
모란시장 상인회 242, 243, 244
모란시장 철거 107
모란시장 축제 247
모란시장 충청향우회 251, 252
모란시장 폐장 240
모란재향군인회 240
모바일 게임 319, 324
모범 근로자 120
모범 납세자 65
모스크 294
목련마을 385
목수 177
목욕봉사 122
몽골 272
무너지는 시간 61
무형문화재 190, 191
문경 163
문단 등단 134
문동환 102
문래동 33
문예대학 60, 67
문익환 102, 113, 114
문인 52
문정배 57
문학시대 동인 57, 62, 66
문한종 63
문화공보부 199
문화관광부 218
문화복합공간 327
문화예술진흥법 328
문화운동단체 219
문화정치 17
문화체육부장관상 60
문화혁명 303
물납농지세 72
물류창고 310
미도아파트 74
미래타운 제1종합시장 238
미래타운 제2종합시장 238
미술심리치료사 122
미장 177
미파 107
민간통일운동기구 결성 102
민길호 199
민속공예전시관 195
민속 백일장 209
민속시장 237
민속악 216
민정당 113
민족사관고등학교 351
민종태 198, 199
민주구국선언문 102
민주노총 178
민주화운동 102
밀가루 74
밀양박씨 71

ㅂ

바람 가르기 61
바람개비스쿨 371
바비킴 341
바이오기술 317
바이올리니스트 338
바이올린 338, 343, 352
바하르 283, 293
박경희 409, 411
박규수 16
박민수 172
박봉준 70
박봉휘 88
박순자 98
박예실 349
박용준 336
박윤정 367
박인교 86
박정희 81, 86, 101, 281
박종철 112
박준희 348
박창구 77, 86
방과 후 대안학교 357, 362, 363

방글 211
방성운 59
방송국 209
방송통신대학 66
방영기 206, 207
방위산업체 131
방은길 208
방학 291
방학성 207
배광우 201
배금용 192, 195
배정웅 56, 57
백골 다듬기 203
백금선 99
백금용 195, 197
백발노인 209
베를린 102
베 바르기 203
베트남 262, 274
벼루장 190
변점순 98
변호성 79
변호용 389, 397
병창 191
볕고개안 30
보건복지부 155
보건지소 76
보사부 74
보신탕 225, 226, 229
보전녹지 137
복개 242
복날 226
복정동 인력사무소 176
봉사활동 122
부편수 194
북한 땅 302
분당 18, 29
분당별곡 136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383, 389, 391
분당신도시 24, 138
분당양지마을 139
분당에 살어리랏다 137
분당우리복지재단 357
분당우성시장 238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389
분당종합시장 238
분당주민 137
불법 체류자 184, 311
비디오 가게 124
비올라 345
비올리스트 345
비전 성남 206
비진학 청소년 375, 366
빈민운동 102
빛 모음 56
빠빠디바 220

ㅅ

사랑가 191
사랑방 문화클럽 327
사상계 53
사우디 건설 현장 123
사회교육방송국 305
사회보장제도 182
사회적 기업 371
사회적협동조합 366, 375
산넘고 물건너 67
산성문학동우회 57
산업 역군 186
산업예비군 186
산업화 119
산자교회 100
산조 191
산학연 R&D 센터 317
살림발락공동체 367
삼복더위 226
삼선동 139
삼양전자 100
삼양타이어 127
삼영전자 76
삼환아이펙스 330
상감 204
상권 활성화구역 233
상대원교회 터 109
상대원시장 238
상동리 29
상사칼 202
상설시장 237, 240
상인대학 233
상인회 243, 251
상칠 205
상품초등학교 53
상해임시정부 311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409, 411
새마을금고 66, 216
새마을운동 87
새우젓국 228
생각의 미로전 149
생옻칠 203
생칠 메우기 204
생칠 바르기 203, 205
서긍 193
서남동 102
서도소리 211
서란현 299
서상봉 319
서울공고 46
서울대학교 348
서울 수복 28

서울시장 75
서울신문 78
서울역 138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310
서울특별시장 123
서울학생상 122
서현 18, 29
서현동 먹자골목 226
서현수련관 393
서현청소년수련관 383
선교원 94
선설근로자공제회 183
선소리 211, 213
선소리꾼 208
선소리타령 전수교육조교 214
선진플러스 377
선호 345
설렁탕 228, 230, 232
설성희 243
섬유공장 306
성광주보사 121
성남경찰서 87
성남광주지역 학생회장 133
성남극장 37
성남기독실업인회 122
성남문예 54, 56
성남문인협회 53
성남문학 56
성남문학상 54, 58
성남문협 53, 60
성남문협 시화전 57
성남문화예술발전기금 제정 213
성남문화원 64, 68, 211, 213
성남문화원장 60
성남문화재단 325, 337
성남상공회의소 54
성남서고등학교 63
성남세무서 59
성남시 81, 84
성남시 5년약사 84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60, 276
성남시대학생연합회 89
성남시립교향악단 337, 338
성남시립국악단 327
성남시립예술단 창단 213
성남시문화상 61, 64
성남시문화예술인총연합회 60
성남시민백일장 67
성남시민의 노래 53
성남시사 25, 31, 54, 77, 84
성남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375
성남시 시장 현황 241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276
성남시 장애인음악경연대회 340
성남시 전통시장 238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1
성남시청소년재단 381
성남시통장협의회 66
성남아트센터 137, 149, 213, 337
성남여성문학회 67
성남예총 54, 60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314
성남이주민센터 314
성남 인력시장 175
성남일보 222
성남제일초등학교 83
성남주민교회 93
성남중앙대책위원회 81
성남중앙지하상가 238
성남지구도시건설사업소 73
성남청소년교향악단 336, 340, 352
성남초등학교 53
성남출장소 73, 78
성남탁주 220
성남투데이 51
성남파출소 78
성동구치소 98, 100
성일고등학교 210
성일정보고등학교 136
성장과 비전 316
성호시장 238
세발까마귀 부모 행동규칙 362
세발까마귀 어린이집 357, 358
세종솔로이스츠 앙상블 339
소나무 껍질 33
소리꾼 213
소리울 372
소머리 고기 208
소목장 190
소설가 60
소셜 디자이너 371
소수 민족 304
소현 372, 374
손석희 시선집중 50
손수레 127
손홍식 65
솔라 114
솔민 159
송기병 119
송영호 403, 415
송치욱 14, 278
수감자 100
수공작업 177
수궁가 191
수내 30
수도권특수지역선교회 93, 101
수빈 406
수서청소년수련관 366
수영 선수 403
수원성모병원 83

수재민 109
수제비 73
수진동 79, 93
수필가 65, 118
수형 351
순수시 55
숫 갈기 203, 205
숲안 30
스마일게이트 319, 323
스마트 디바이스 게임 323
스스로 성장하는 학교생활 371
스승 199
스터디 모임 286
승겸 158, 159
승윤 159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413
시민 기자 206
시민의 날 220
시선집중 50
시습재 288
시 승격 84
시영버스 35, 79
시인 53, 136
시장 237, 245
시장 상인 236, 248
시조시인 63
식당 223
식자재 228
신간회 광주지회 17
신년음악회 340, 341
신도시 81
신미자 230, 231
신분당선 판교역 317
신세훈 56
신영복 374
신익희 22
신인 등용 선발시험 72
신접살림 139
신흥시장 238
실리콘밸리 330
실톱대 202
심봉사 황성가 191
심은자 159
심청가 191
싸리문 56, 57, 59
쌍용거줄다리기 206, 220
쓰레기유모차 108

아나바다 134
아랫목 집 226
아름다운 음악회 340
아름방송 89
아리사의 눈물 59
아리아 342
아버지 219
아시안게임 107
아이디스 타워 328
아이사랑 놀이터 157
아제르바이잔 283, 293
아천 방영기 207
아프리카 아이들 122
안산시 264, 277
안성농악 217
안성호 65
안전화 180
알람 139
애견부 246
야탑수련관 386
야탑에이스코아시장 238
양담배 72
양산 306
양심수 109
양영고등학교 15
양영디지털고등학교 393
양영중고등학교 21
양영중학교 15, 21
양육 수당 167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 381
양택식 33, 41, 75
양현동 30
어린이집 94, 125, 129
어머니날 123
에듀투게더 357, 363
에필로그 234, 354, 414
엔씨소프트 318
엔지니어 319
엠텍 328
여성문학 67
여성문화회관 141
여수동 갈매기살 225
여신도회 99, 109
여지도서 29
여행사 231, 233
여행자 328
역U자형 패턴 186
역사학자 15
연구센터 295
연구소 295
연목편수 194
연변 302
연설문 84
연천문협 63
연탄 98
연탄가스 106
열네 살 농부 되어보기 346
열린시학 59
엿장사 125
영유아보육법 94
영주권 314

영지 372
영호 403
예시사랑 56
예실 349
오길성 100
오디션 338
오령 63
오리뜰 218
오리뜰 두레농악 206, 214, 219, 220
오은영 2704
온드라 272
온라인 기업 321
옻칠 193
완행열차 137
왕실 공예 194
외국인 276, 279
외국인 노동자 184
외국인 유학생 279, 282
외국인 인권보호조례 277
외국인 현황 265
요양보호사 122, 126
우거지 갈비탕 231
우림WCT 328
우물 196
우수 사원 125
우족탕 230, 232
우즈베키스탄 262
우진 340
움막집 73
웃음치료사 122
원조 231
웰드비전 122
웹툰 작가 411
위수령 사건 101
위 스타트 384
윌리암텔 348
유기준 43
유무선통신기기 131
유보금 184
유스 바람개비스쿨 356
유스 보이스센터 366
유스페이스 317
유지민 341
유학생 278, 279, 285
유해수 65, 67
윤광섭 61
윤보선 102
윤현자 206
윤희순 167
율동공원 145
융합기술 317
은행동 36, 82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381
은행시장 130, 238
은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58
음식점 223
응시동인 54
의용군 17, 20
의용군 행진곡 312
이관희 382, 383, 388, 397
이광우 56
이기숙 207
이길선 123
이남두 87
이따리노 레스토랑 59
이리농악 217
이매동 207
이매리 209
이무기 209
이무술 209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206, 211, 220
이민자 261
이보라 90
이봉학 88
이산가족 20
이상화 문학상 53
이석기 57
이석봉 80
이선근 281
이소영 260
이수철 236
이슬람 예배당 294
이승곤 323, 328
이영일 101
이영희 191
이예지 67
이오덕 92
이완재 15
이우정 102
이원영 319
이음과 배움 357, 366
이인구 21
이인환 378
이재녕 56
이재덕 82, 86
이재명 49
이재범 53
이주노동자 276, 298, 305, 306
이지엽 59
이창배 209
이태영 178
이태원 294
이하얀언더기 91
이한열 113
이해동 102
이해빈 411, 415
이해학 93, 101, 103
이향우 211
이희병 218

이희아 340
인간문화재 190, 209
인거장 194
인구 변화 253
인도 하리잔 367
인두 202
인력사무소 176
인력시장 172
인사부 133
인쇄소 119, 121
인정전중수의궤 194
인천항 306
인터넷 기업 321
일기 90
일반공 177
일수 409
일용직 노동자 173
일하는 학교 357, 366, 375
일하는 학교 창립 선언문 376
임금 181
임금 체불 306
임미리 32, 70
임수경 113
입학사정관제 348

ㅈ

자개 긁기 205
자개 도안 본뜨기 203
자개 붙이기 204
자개 손보기 204
자개 오리기 204
자격증 122
자기길 찾기반 367
자매들 60
자연녹지 137
자율 283, 293
자율 부부 283, 289, 290
자전거 동호회 148
자혜지구 34
잔니 스키키 342
장구잽이 216
장금이 223
장렬 55
장미아파트 46
장소팔 209
장시 245
장애인 방과 후 아카데미 384, 391
장애인고용촉진공단 384
장애청소년 프로그램 393
장양천 218, 219
장인 223, 230
장인정신 224, 231
장준하 72
장효순 194
재래시장 23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311
전경호 341
전공과목 286
전공별 답사 288
전국기능경진대회 409
전국노래자랑 210
전국민요경창대회 213
전국소셜벤처경연대회 371
전국풍물대회 219
전등사 16
전상명 298, 299, 302
전성천 42, 76
전수관 201
전승공예대전 199
전원주택 232
전재덕 341
전주이씨효령대군파 17
전통놀이 206, 211, 214
전통문화유산 190
전통시장 237, 238
전통예술복원사업 218
정기시장 237, 246
정기영 341
정득만 209
정란희 58
정보기술 317
정복진 127
정봉섭 192
정읍 195
정현편수 194
정화사업 33
제과기능대회 409
제과제빵사 409
제비노정기 191
제정남 183
조달현 82
조말분 232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 71
조선시대 두루마리 서류함 199
조선의용군 311
조선일보 78, 242
조선족 298, 304, 305
조선족 자치주 302
조선족 제일중학교 300
조선총독부 17
조성원 338
조윤제 54
조 적 177
조정선 67
조주현 368
조혜자 225, 226
졸업여행 367
졸업장 302
종합시장 46, 49, 131

주간조선 176
주걱 202
주문 사육 229
주민교회 93, 100, 103
주민실업자대책위 96
준서 158, 167
준희 348
줄리어드 338
중국동포 270, 298, 305
중국동포의집 314
중봉문학상 61
중부면 30
중부면 성남출장소 73
중앙극장 46, 238
중요무형문화재 190, 191, 214
중원구 158
중원청소년수련관 382, 389
중칠 205
지경다지기 207
지경돌 208
지다넷코리아 331
지방행정지 7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76
지역 전통문화 지킴이 219
지윤 158, 163
지적 장애인 340
지적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409
지혜로운 물가 57
직업훈련프로그램 266
진달래 72
진달래아파트 46
진도군 고군면 향동리 71
진도북춤 217
진로 292
진로특성화 대안학교 371
진실화해위원회 49
집터다지기 207

ㅊ

착한반 다자녀 가정 154, 159
찬울 343
창작동인 62
창조학교 363
처음처럼 374
천녀화 60
천당아래 분당 137, 139
천막 74
천막촌 215
천상의 소리꾼 207, 211
철거민 33, 73, 82, 100
철근공 177, 187
청기와집 230, 232
청룡 212
청소년 380
청소년 문화 337
청소년문화한마당 365
청소년수련관 381
청소년 심리 치유 366
청소년 자립 대안학교 375
청소년 자립 카페 372
청소년지도사 380, 382
청소년 활동 진흥법 381
청실아파트 46
청아기업 청실아파트 46
청와대 80
초록우산 122
초칠 203, 204
최명숙 398
최석운 55
최선옥 304, 313
최수빈 406, 415
최연분 270
최정란 176, 177
최정택 242
최준식 196, 197
최형주 95
춘향가 191
출생자 수 157
출판기념회 59
출판사 163
취득세 75, 78
취로사업 96
취업알선프로그램 266
취업지원프로그램 276
치유미디어교육 366
친정어머니 231
칠긁기칼 202
칠기 193
칠장 190, 192, 195, 201

ㅋ

카바레 87
캄보디아 262, 271
컬럼비아대학교 343
컬처투게더 357, 363
컴패션 122
컴퓨터 131
케이크 디자이너 409
코끼리상가 238
코리안 드림 303, 309
코리안 러버스 283
코스워크 292
코코프라자 238
콘텐츠기술 317
콜로키움 295
큐브미술관 149
클라리네스트 340, 349
클라리넷 340, 349

ㅌ

타악 216, 220
타악기 220
탁아소 94
탄천 147
탄천종합운동장 137
탄천페스티벌 220
태권도 46, 60
태윤 403
태평동 인력시장 175
택지조성공사 36
터주신 208
텔레비전 210
토박이 15
토분 202
토지분양 37
통계조사 73
통로동 30
통영 가구 199
통영 자개 199
통일 113
통일운동 102
통합학교 장애인 CA 활동 384
통행금지 121
퇴직금 183
특성화 사업 394
특수체육 384, 390
특수학급 384

ㅍ

파라과이 57
판교 CSR 얼라이언스 331
판교도서관 143
판교박물관 201
판교 신도시 개발 213
판교 쌍룡거줄다리기 211, 212
판교역 317
판교테크노밸리 316, 317, 327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단 317, 327
판문점 113
판소리 191
판잣집 83
팔각정 37, 74
팜플 323
퍼포먼스 뮤지컬 빠빠디바 220
펠로십 프로그램 282
표영자 216
푸른성장 393
풀빼기 204
풍년 기원 놀이 212
풍물 216
풍물놀이 207
풍물 동아리 216
풍생고등학교 64
풍생중학교 57
퓨전 국악 공연 220
프롤로그 223, 399
플루트 연주자 403
필리핀 레이테섬 전투 18

ㅎ

하늘북카페 155
하대원시장 238
하도급 체제 181
하동리 29
하루 인생 172
하얼빈 311
하은어린이집 377
하청업체 181, 306
하트하트오케스트라 341, 342
학교 밖 청소년 배움 공동체 366
학동 30
학등 30
학술대회 295
학습센터 366
학위 취득 285, 292
학적부 8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86
한국관광공사 233
한국기독교장로회 수도권특수지역 선교위원회 93, 101
한국농악보존협회 성남지회 217
한국문인협회 58, 60, 61, 118
한국문화강좌 282
한국문화학당 282, 28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8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32
한국불교문인협회 63, 65
한국사에 비춘 성남지역의 역사 15, 23, 24
한국시조 큰 사전 64
한국어 강좌 292
한국어 능력 285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성남지회 54
한국예총예술문화상 61
한국일보 40, 78
한국작가 58, 61, 67
한국작가회 6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09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389, 39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81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233
한국청소년연맹 383
한국체육대학교 389
한국파스퇴르 318
한국학 280, 285
한국학대학원 278, 279, 281

한국학중앙연구원 137, 278, 279, 281, 295
한국행 305, 309
한글공부 91
한누리문학상 61
한대희 38
한맹순 할머니 90
한새빛 57
한순회 17
한식 지정업소 233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15
한양아파트 46
한옥 230
한정식 갈비찜 232
한정식 도시락 232
한정식 산적구이 232
한준성 298
한중 수교 308, 311
한중연 281
한중연 생활 294
한춘섭 64, 193
함경도 음식점 232
함께여는 청소년학교 357, 362
함석헌 72, 102
함세웅 102
항일투쟁 간부 311
해냄스쿨 디딤돌 357
해방간부 311
해빈 411
해외문학인대회 57
해인 372
해직노동자 100
행정구역 개편 30
행정자치부 233
향우회 251
향토개발시민상 133
향토놀이문화 220
향토문화연구소 64
향토민속놀이 211
향토사 23
향토사학자 26
향토음식 225
현대건설 123
현대시장 238
현대중공업 306
현대프라자시장 238
현장송 57
현준 372
현지후 377
혜윤 372, 374
호남대학교 58
호소 세비 271
호조호애 304
홈스테이 284
홍완기 53
화가 58
화각 공예 194
화각장 190, 192, 193
화재 82
황룡 212
황소현 372, 374
황토반죽 203
홰나무 18, 27
효성중고등학교 21
효성학원 21
효창초등학교장 123
효행상 123
홍덕 195
홍보가 191
회경 163
회곡작가 68
흰여울 327

집필위원(가나다 순)

고중일 | 수필가 · 한국문인협회 회원
김건중 | 소설가 · 한국작가회 회장
김명옥 | 성일정보고등학교 교사·시인
김연희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영미 | 성장과 비전 리더십 강사
김정삼 | 유스 바람개비스쿨 대표
김지욱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류수남 | 칼럼니스트 · 성남일보 명예기자
박민수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박용준 | 성남청소년교향악단 단장
송치욱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윤현자 | 비전 성남 시민 기자
이보라 | 자유기고가
이소영 | 전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이수철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임미리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최명숙 | 가천대학교 외래교수 · 소설가
한준성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성남시사 8
생애사—이웃사촌, 사는 이야기

발행일
2014년 12월 15일

발행처
성남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215번길 7(신흥동)
031-729-4896, 759-7005 / snsisa@hanmail.net

디자인·인쇄
홍익문화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12길 28 / www.hongeeg.com

ⓒ성남시·성남시사편찬위원회

제1권 지리-자연환경과 인문·사회지리
제2권 역사-한눈에 보는 성남의 기록
제3권 전통의 향기-문화유산·민속·성씨·인물
제4권 정치경제-풀뿌리 자치와 산업경제
제5권 현대사회-문화·예술·교육·시민 생활
제6권 도시개발사-도시박물관, 성남
제7권 민주주의-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 활동
제8권 생애사-이웃사촌, 사는 이야기
제9권 부록1-사진으로 보고 자료로 읽는 성남
제10권 부록2-성남 길라잡이 사전